

CHANEL
CULTURE FUND

ACCELERATING IDEAS ADVANCING CULTURE

LEARN MORE AT [CHANEL.COM](https://chanel.co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icket Catalogue 2025

BUSAN **30t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
U
S
A
N

I
n
t
e
r
n
a
t
i
o
n
a
l

F
i
l
m

F
e
s
t
i
v
a
l

1
7
~
2
6

S
e
p
t
e
m
b
e
r

2
0
2
5



G90 LONG WHEEL BASE BLACK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G90 Long Wheel Base Black e-S/C 3.5T-GDI AWD 20인치(4인): 복합8.2km/ℓ(도심:7.1km/ℓ, 고속도로:10.1km/ℓ) | CO₂배출량:207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355kg | 지동8단(9등급)
G90 Long Wheel Base Black e-S/C 3.5T-GDI AWD 20인치(5인): 복합8.2km/ℓ(도심:7.1km/ℓ, 고속도로:10.1km/ℓ) | CO₂배출량:207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305kg | 지동8단(9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더 자세한 정보는
제네시스닷컴에서
확인해 보세요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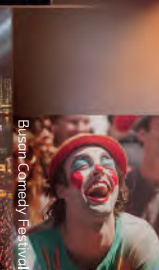
문화예술로 쌓아온 58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8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HANMAC

Smooth

NEW
**한맥 엑스트라
 크림미 생캔**
마침내 집으로

KOREAN LAGER
HANMAC
 EXTRA
Creamy
 DRAFT

기다리면 올라오는
 완상거품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역혈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제조사/판매사: 오비맥주



세상에겐
 내일의 기술.



두산에겐
 오늘의 기술.

두산에너지빌리티

지구의 탄소를 줄이는 두산의 수소터빈



LNG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지구의 내일을 위해
 에너지 걱정 없는 인류의 내일을 위해

두산은 지금,
 탄소배출 없이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터빈,
 자연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해상풍력 발전,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 기술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
한국거래소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Design Life as Art



준비됐나?

굿 뉴스

당신이 죽었다

대 홍 수

로 맨 틱 어 나 니 머 스

이 쿠 사 가 씨 : 전 쟁 의 신

제 이 켈 리

프랑켄슈타인

하우스 오브 다이내마이트

회 환 계

올해도 부산에서

넷플릭스

ONLY ON **NETFLIX** | 곧 공개 예정



DaVinci Resolve 20

Update and get over 100
new features and AI tools!

DaVinci Resolve is the only solution that combines editing color correction, visual effects and audio post production all in one software tool! DaVinci Resolve 20 is now available as a free upgrade with powerful new AI tools such as intelliscript, animated subtitles, multi-cam smart switch, plus major magic mask updates and new keyframe editing, multi layer compositing and more!

DaVinci Resolve 20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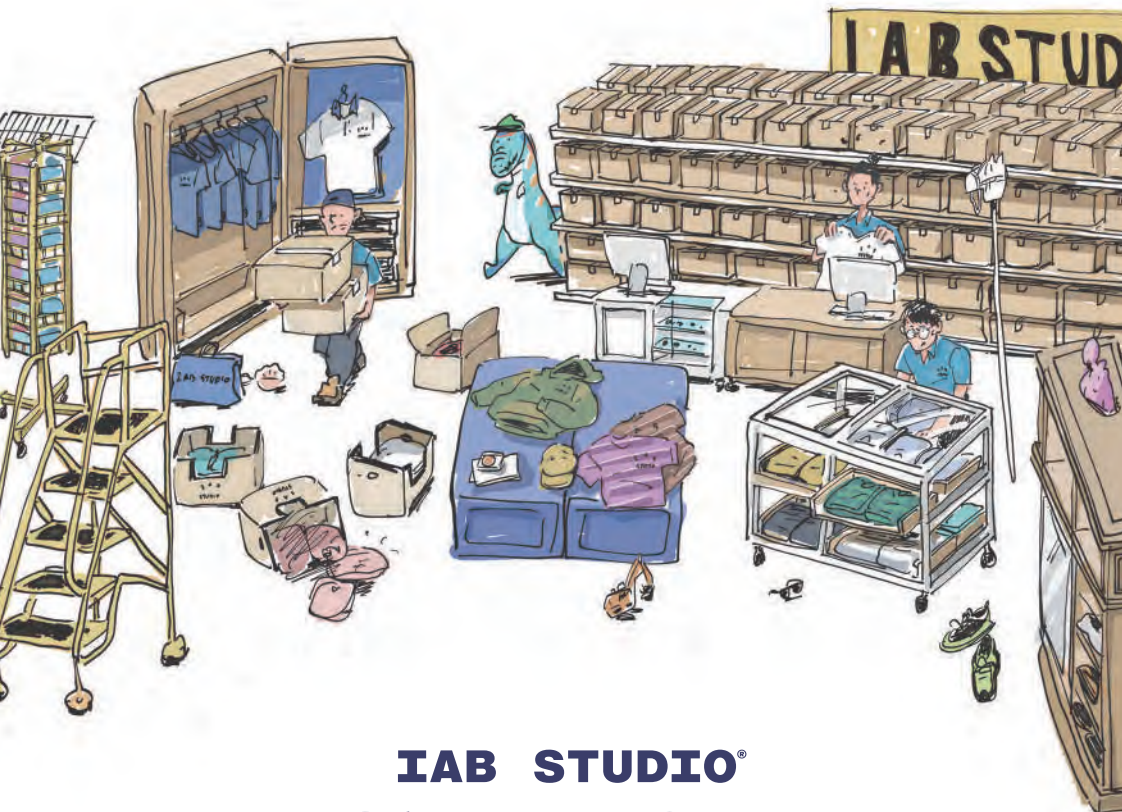
DaVinci Resolve Studio 20 **US\$295**

Learn more at www.blackmagicdesign.com



NO SUBSCRIPTIONS • NO ADS • NO USER TRACKING • NO AI TRAINING

NAVY & A STORAGE ROOM



IAB STUDIO®
Dosan Store

10-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이런교육,
이런기회,
동서대만
있습니다

동서대, 이런기회는 없습니다!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선정!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이끌 30개 대학 중 하나, 동서대학교!

디자인 · 영화영상 · 디지털콘텐츠 분야 국내 최강!
레드닷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전국 최다

아시아 연합대학 (Asia Alliance University) 주도!
아시아 대학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교육 모델

해외취업 전국1위 (최근 3년누적, 정보공시기준)
철저한 실전 취업교육 + 차별화된 진로지도

동서대, 이런교육 없습니다!

- 601개 글로벌 현장에서 펼쳐지는 프로젝트 수업
- 동서대 + 동아대 연합교육 과정
- 미국, 일본, 중국 현지 글로벌 캠퍼스 운영
- 해외 석학들과 함께하는 차별화 된 글로벌 수업
- 산업 현장을 담은 '실전형 캠퍼스'에서 배우는 리얼교육
- '바른 인성'과 '고유한 달란트'를 키우는 가슴 따뜻한 재능교육



www.kofic.or.kr

K-무비의 변화와 도약을 함께하는 파트너 영화진흥위원회



K-무비 전략산업 육성



K-무비 창·제작 기반강화



영화문화 누림 확대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Instagram
koreanfilmcouncil_kofic



facebook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Youtube
Korean Film Council



Naver
kofic_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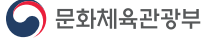
언제나 영화와 공연, 축제로 빛나는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Presenting Sponsors



Diamond Sponsor

CHANEL

Gold Sponsors



Major Sponsors



Screening Schedule 상영일정표

Ratings 등급

- ALL** All / 전체관람가
- 12** Under 12 not admitted / 12세이상관람가
- 15** Under 15 not admitted / 15세이상관람가
- 19** Under 19 not admitted / 청소년관람불가
- GV** Guest Visit / 게스트와의 만남
- +** Goodwill Donation / 착한기부

Subtitles 자막

- KE** Korean Subtitles + English Subtitles or Dialogue
한글자막 + 영어자막 또는 대사
- KA** Korean Subtitles + Non-English Dialogue without English Subtitles
한글자막 또는 대사 + 영어자막 없는 비영어대사
- KX** Korean Subtitles + Korean Dialogue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 제공
- NO** No Dialogue / 대사없음
- KA** (Unmarked)-English Subtitles+Korean Dialogue
영어자막 + 한국어대사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개·폐막식 및 상영자 정보

Opening Ceremony 개막식/개막작

BT 18:00~22:19 001 **15** **GV** **43**
정소 영화의전당 아외극장 **일시** 2025년 9월 17일 18시
개막작 <아펠스>가없다>
Where Busan Cinema Center BIFF Theatre **When** Sep 17, 2025 at 18:00
Opening Film No Other Choice

P&I(프레스 & 인더스트리) 스크리닝

영화제 게스트와 프레스를 위한 상영. 해당 배지 소지자에 한하여 선착순 입장. 한글자막 제공. (단, 출임증 소지자는 입장불가)
· P&I(Press&Industry) Screenings are for festival, market and press badge holders only except pass holders. First come, first served.

Information 일정표 보는 법

Time	Code	Ratings	Subtitles	Page
18:00~	001	15	KE	40
상영시간	상영코드	등급	자막	페이지
No Other Choice 어펠스>가없다 - English Title 한글제목				

Notice 안내

- 티켓 카탈로그는 2025년 8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8월 28일 이후 상영 변동 사항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스트와의 만남은 사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The Ticket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Aug 28th.
Please check our website periodically for changes after Aug 28th.
- Guest Visi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Inquiry / 문의 **Tel. 1666-9177**

Closing Ceremony 폐막식/부산 어워드 수상작 상영

BT 18:00 002 **15**
정소 영화의전당 아외극장 **일시** 2025년 9월 26일 18시
폐막작 <부산 어워드 수상작>
Where Busan Cinema Center BIFF Theatre **When** Sep 26, 2025 at 18:00
Closing Film Winner of the Busan Award

Theaters 극장

- BT** Busan Cinema Center BIFF Theatre / 영화의전당 아외극장
- BH**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re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B1** Busan Cinema Center Cinema 1 / 영화의전당 중극장
- B2** Busan Cinema Center Cinema 2 / 영화의전당 소극장
- B3** Busan Cinema Center Cinematheque /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 B0** Busan Cinema Center Indieplus /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 C1** CGV Centum City 1 / CGV 센텀시티 1관
- C2** CGV Centum City 2 / CGV 센텀시티 2관
- C3** CGV Centum City 3 / CGV 센텀시티 3관
- C4** CGV Centum City 4 / CGV 센텀시티 4관
- C5** CGV Centum City 5 / CGV 센텀시티 5관
- C6** CGV Centum City 6 / CGV 센텀시티 6관
- C7** CGV Centum City 7 / CGV 센텀시티 7관
- CA** CGV Centum City IMAX / CGV 센텀시티 IMAX관
- L2** LOTTE CINEMA Centum City 2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2관
- L3** LOTTE CINEMA Centum City 3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 L4** LOTTE CINEMA Centum City 4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4관
- L5** LOTTE CINEMA Centum City 5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5관
- L6** LOTTE CINEMA Centum City 6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6관
- L7** LOTTE CINEMA Centum City 7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7관
- L9** LOTTE CINEMA Centum City 9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9관
- L10** LOTTE CINEMA Centum City 10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10관
- KT** KOFIC Theater /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 SH** Dongseo University Shi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 동서대학교 소영배아트 신한카드홀
- BG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Open Hall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 MT** MEGABOX Busan Theater 1 / 메가박스 부산극장 1관
- M2** MEGABOX Busan Theater 2 / 메가박스 부산극장 2관
- M3** MEGABOX Busan Theater 3 / 메가박스 부산극장 3관
- M4** MEGABOX Busan Theater 4 / 메가박스 부산극장 4관

17 WED	1	2	3	4	5
BT	BIFF Theatre 아워극장			18:00~22:19 001 15 KE GV 123' 43 No Other Choice 아엘수가 없다 (개막식+개막작)	
18 THU	1	2	3	4	5
BT	BIFF Theatre 아워극장			20:00~22:03 003 15 KE GV 123' 156 The Final Piece 파이널 피스	
BH	Hanauljeon Theatre 하늘극장	09:00~10:40 004 15 KE GV 100' 167 Last Samurai Standing 이쿠사기미: 전쟁의 신	12:30~14:41 005 15 KE GV 131' 46 BAKA's Identity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17:00~18:06 006 15 KE GV 66' 45 Another Birth 또 다른 탄생	23:59~05:10 008 19 KE GV 311' 161, 163, 165 Midnight Passion 1 미드나잇 패션 1
B1	Cinema 1 중극장	08:30~09:56 010 15 KE ♣ 38' 119 The Blue Trail 마지마 푸른빛	11:00~13:15 009 15 GV 135' 60 Good News 굿뉴스	15:30~17:13 011 12 KE GV 103' 60 It Was Just an Accident 그저그였을뿐	19:20~22:10 012 19 KE GV 170' 190 Heat 히트
B2	Cinema 2 소극장	09:00~11:21 013 15 KE GV 141' 173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13:10~14:28 014 12 KE GV 78' 74 This Is Not a Film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16:40~18:24 015 12 KE GV 104' 192 Mr. Kim Goes to the Cinema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	20:20~22:08 016 12 KE GV 108' 174 Still Life 스틸 라이프
B3	Cinemathèque 시네마테크	10:00~11:56 017 15 GV 116' 191 Life of Hollywood Kd 할리우드 키드의생애	14:00~17:00 018 15 KV GV 180' 175 Drive My Car 드라이브 마이카	19:00~21:16 019 12 GV 136' 189 Woocchi 원우치	19:00~21:16 019 12 GV 136' 189 Woocchi 원우치
C2	CGV 2	09:30~12:20 024 19 KE 170' 67 Dracula 드라큘라	13:30~15:31 025 15 KE 121' 122 Islands 아일랜드	17:00~18:17 026 15 KE 137' 121 God Will Not Help 신은 돕지 않는다	20:30~21:56 027 12 KE GV 86' 143 Panic Button 패닉 버튼
C3	CGV 3	10:30~11:48 028 15 KE KV ♣ 78' 126 That Summer in Paris 여름의 황대부	13:00~14:52 029 15 KE KV 112' 132 Reedland 리드랜드	16:00~17:58 030 15 KE GV 118' 97 BAYAN 베이안	20:00~21:39 031 12 KE GV 99' 97 AMOGBA 아메바
C4	CGV 4	09:00~11:35 032 15 KE 155' 125 Sound of Falling 사운드 오브 폴링	13:00~14:40 033 15 KE GV 100' 130 The Last One for the Road 가는 길에 꼭 한 잔더	16:00~17:58 034 15 KE GV 100' 130 The Last One for the Road 가는 길에 꼭 한 잔더	20:00~21:39 035 19 KE GV 99' 129 Her Will Be Done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지아다
C5	CGV 5		12:00~13:42 036 15 KE 102' 69 Enzo 엔조	15:00~16:45 037 15 KE GV 105' 133 Strange River 스트라이프 리버	18:40~21:47 038 15 KE GV 187' 121 Dry Leaf 마른 잎
C6	CGV 6	09:30~11:21 039 15 KE 111' 74 The Mesmerind 마스터마인드	12:30~14:13 040 12 GV 103' 128 Hana Korea 하나코리아	16:00~17:46 041 15 GV 106' 111 The Great Flood 내홍수	20:00~21:44 042 15 KE GV 104' 127 The Wedding Banquet 결혼 피로연
CX	CGV IMAX	09:00~11:19 020 15 GV 139' 43 No Other Choice 아엘수가 없다	13:20~15:10 021 15 GV 110' 112 Project Y 프로젝트 Y	17:00~18:26 022 15 KE 86' 75 Mirrors No. 3 미러 NO.3	19:30~21:54 023 19 KE GV 144' 59 Frankenstein 프랑켄슈타인
L2	LOTTE 2	10:30~12:17 043 15 KE 107' 122 The Great Arch 그랜드아치의 이름 없는 남자	14:00~15:49 044 15 KE 109' 96 Alter Dreaming 꿈보다 아른 밤	17:00~18:35 045 15 KE 95' 146 Coexistence, My Ass! 공존이라니, 웃기시네	20:00~21:46 046 12 KE GV 105' 104 Raindrops on a Roof 지붕 위의 빗방울
L3	LOTTE 3	09:00~11:07 047 15 KE 127' 156 Bring Him Down to Portable Size 오해를 풀고 싶 수 있는 사이즈로	12:10~13:58 048 15 GV ♣ 108' 116 People and Meat 사람과 고기	16:00~18:13 049 15 GV ♣ 133' 115 The Old Woman with the Knife: International Cut	20:00~22:00 050 19 GV 120' 166 As You Stood By 당신이 죽었다
L4	LOTTE 4	09:00~11:18 051 15 KE GV 138' 100 Dear Stranger 디어 스트레인저	13:00~14:48 052 15 KE GV ♣ 109' 101 Full Plate 영민의 부엌	16:30~18:20 053 19 GV 110' 167 Dear X 전하는는 X	20:30~22:10 054 19 KE GV 100' 168 The Resurrected 되혼제
L5	LOTTE 5	09:30~11:08 055 15 KE 88' 67 Dreams 드림스	12:30~14:14 056 15 KE GV 104' 102 In the Land of Arid 아리드토의 땅에서	16:30~18:08 057 15 GV ♣ 98' 115, 164 My Home 완벽한 집	20:00~21:59 058 12 KE GV 119' 105 Rangga & Cinta 왕가 팬친터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SOHYANG
소향미디어

BCM
부산시청지미디어센터

L6	LOTTE 6	09:00~11:08 059 19 KE 128' 119 The Chronology of Water 물의 연대기	12:30~14:19 060 15 GV 109' 168 The Murky Stream 탁류	16:30~18:18 061 15 GV 108' 112 The People Upstairs 뒷집 사람들	20:00~21:39 062 15 GV 99' 111 Boss 보스
L7	LOTTE 7		13:00~14:30 063 15 KE 90' 125 Phantoms of July 7월의 유령들	16:00~17:50 064 15 KE 110' 124 Mebius 소년 하나 둘 셋	19:00~21:44 065 19 KE 164' 73 Magellan 마젤란
L9	LOTTE 9			17:00~18:22 066 12 KE 82' 171 Goodbye, Dragon Inn 안녕, 용문객잔	19:30~21:16 067 12 KE 106' 104 The President's Cake 대통령의 케이크
L10	LOTTE 10				20:30~22:02 068 12 KE ♣ 92' 126 Sweetheart 스위트하트
KT	KOPIC Theater	09:30~11:57 069 15 KE 147' 78 Silent Friend 사lient friend 프렌드	13:00~14:18 070 15 KE 78' 118 Adam's Sake 아담을 위하여	15:30~17:35 071 15 KE GV 125' 103 Love on Trial 연애재판	19:30~21:30 072 15 KE GV 120' 105 Renoir 르누아르
SH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19:30~21:31 073 15 KE GV 121' 154 5 Centimeters Per Second 조속 5센티미터
BG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3:30~14:59 074 15 KE 89' 127 The Voice of Hind Rajab 힌드의 목소리	16:30~18:19 075 15 KE 109' 73 The Love That Remains 사랑이 지나간 자리	19:30~21:29 076 15 KE 119' 123 Lovely Day 러블리 데이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12:00~13:47 12 KE 107' 86 Mothezet 아메타	15:00~16:40 13 KE 100' 84 If on a Winter's Night 어느 겨울밤	18:00~19:02 13 KE 62' 84 Kok Kok Kokook 콕콕콕, 코코콕
C7	CGV 7		15:30~17:41 15 KE 131' 46 BAKA's Identity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20:30~21:36 12 KE 66' 45 Another Birth 또 다른 탄생

P&I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에만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1	MEGABOX 1	15:00~16:59 904 15 GV 119' 203 대도시의 사랑법	19:00~20:38 907 15 Event 96' 202 친절이는 복도 없지	
M2	MEGABOX 2	10:30~12:30 901 15 GV 120' 206 2025 마을영화만들기 1	15:00~15:59 905 15 GV 59' 206 2025 마을영화만들기 2	
M3	MEGABOX 3	12:00~14:03 902 19 Film 123' 203 더 리다: 최영아주는 남자	18:30~20:21 906 15 Film 111' 203 고독한 미식가가 무리	
M4	MEGABOX 4	13:00~15:05 903 12 GV 125' 202 소울메이트		

MEGABOX Busan Theater
메가박스 부산극장

19 FRI	1	2	3	4	5
BT	BIFF Theatre 이외극장			2000-2221 077 KS KE GV 141' 158 The Shadow's Edge 포공영	
BH	Hanauljeon Theatre 하늘연극장	1210-1339 078 12 KE GV 89' 57 Two Seasons, Two Strangers 여행과나날	1550-1736 079 15 GV 106' 48 En Route To 지우러 가는 길	1950-2205 080 15 GV 135' 60 Good News 굿뉴스	2359-0501 081 19 KE GV 302' 162, 164 Midnight Passion 2 미드나잇 패션 2
B1	Cinema 1 종극상	0900-1031 082 12 KE GV 91' 74 A Magnificent Life 마른채의 멋진 인생	1130-1349 083 15 GV 139' 43 No Other Choice 어쩔수기없다	2000-2150 085 12 KE GV 110' 66 A Big Bold Beautiful Journey 빅 볼드 뷰티풀	2000-2100 800 60' Special Talk [The Cinematic Life of Sylvia Chang, Winner of the Camellia Award] 스ylvia창(카멜리아상 수상자, 실비아창의영화제)
B2	Cinema 2 소극장	0900-1056 086 15 GV 116' 191 Life of Hollywood Kd 할리우드의 생애	1300-1511 087 15 KE GV 131' 46 BAKA's Identity 어라서는 자는 누구인가	1700-1806 088 12 KE GV 66' 45 Another Birth 또 다른 탄생	2030-2144 083 11 KE GV 74' 171 The Day I Became a Woman 나가 여자가 된날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039 090 15 KE GV 99' 183 Three Colours: Blue 세가지색:블루	1140-1447 091 15 KE GV 187' 121 Dry Leaf 마른 잎	1600-1800 084 19 KE GV 207' 79 Two Prosecutors 두 검사	2040-2211 101 15 KE GV 91' 179 Max Can Wait 마르क्स 진 웨이트
C1	CGV 1	1000-1209 098 15 KE 129' 69 Eagles of the Republic 공화국의 독수리	1330-1606 099 15 KE 156' 182 In-I In Motion 인-이인 인 motion	1730-1837 100 15 KE 127' 180 Poribello 포르비벨로	2000-2159 105 12 GV 119' 143 Raining Dust 이슬이 온다
C2	CGV 2	0930-1109 102 12 KE GV 99' 97 AMCEBA 아메바	1300-1432 103 11 KE GV 92' 152 Sky, Wind, Stars and the Island 하늘과바람과별과성	1630-1809 104 12 GV 99' 142 Ikano 이카노는 잔기	2030-2158 113 15 KE GV 118' 97 BAYAN' 응원
C3	CGV 3	1000-1148 106 11 KE GV 108' 116 People and Meat 사랑과 고기	1400-1526 107 12 KE 86' 143 Panic Button 패닉 버튼	1630-1816 108 12 KE GV 106' 104 Raindrops on a Roof 지붕 위의 빗방울	2030-2158 113 15 KE GV 118' 97 BAYAN' 응원
C4	CGV 4	0900-1023 110 15 KE GV 83' 149 I, Poppy 양귀비와 나	1220-1419 111 19 KE GV 119' 160 Bride of the Covenant 귀족: 교의 혼례	1600-1800 112 15 KE GV 120' 148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빨간 나라를 보았니?	2000-2140 121 15 KE GV 100' 130 The Last One for the Road 가는 길에 막잔디
C5	CGV 5	0900-1140 114 15 KE 160' 77 The Secret Agent 시크릿 에이전트	1300-1512 115 15 KE 132' 76 Orphan-나니의 이름은	1630-1748 116 15 KE GV 78' 126 That Summer in Paris 여름의 방데뉴	2000-2200 117 19 GV 120' 166 As You Strood By 당신이 죽었다
C6	CGV 6	0930-1115 118 15 KE GV 105' 133 Strange River 스테이전지 리버	1300-1439 119 19 KE GV 99' 129 Her Will Be Done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다	1630-1813 120 15 KE GV 103' 130 Lucky Lu 루의 운수 좋은 날	2000-2138 129 15 GV 98' 114 Be My Baby 미아
CX	CGV IMAX	0930-1132 094 15 KE GV 122' 190 Dancing Village: The Curse Begins 댄싱 빌리지: 저주의 시작	1330-1543 095 12 KE 133' 77 Sentimental Value 센티멘탈 밸류	1700-1900 096 15 KE 120' 66 Bugonia 부고니아	2030-2205 097 11 KE GV 95' 161 Exit 8 8번 출구
L2	LOTTE 2	0930-1124 122 15 KE 114' 65 Below the Clouds 구름 아래	1230-1409 123 15 KE GV 99' 98 Becoming Human 환상 상상의 끝에서	1600-1744 124 15 KE GV 104' 102 In the Land of Arto 아르토의 땅에서	2000-2125 125 15 GV 85' 136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한국 단편 경쟁 1
L3	LOTTE 3	0900-1110 126 19 KE 130' 72 The Lost Bus 로스트 버스	1230-1420 127 15 GV 110' 112 Project Y 프로젝트 Y	1600-1813 128 15 KE 133' 115 The Killers, International Cut 파괴: 인터네셔널컷	2000-2138 129 15 GV 98' 114 Be My Baby 미아
L4	LOTTE 4	0900-1039 130 15 GV 99' 111 Boss 보스	1300-1446 131 15 GV 106' 111 The Great Flood 대홍수	1630-1819 132 15 GV 109' 168 The Murky Stream 탁류	2030-2204 133 15 KE GV 94' 169 Romanitis Anonymous 로맨티츠 어노니머스
L5	LOTTE 5	0900-1103 600 15 KE GV 123' 156 The Final Piece 파이널 피스	1300-1440 135 15 GV 100' 110, 155 AUDITION 109 평균	1630-1732 136 12 GV 62' 116 Time of Cinema 극장의시간들	1930-2108 137 15 GV 98' 115, 164 My Home 완벽한 집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SOHYANG
소향미디어

BCM
부산시청지미디어센터

L6	LOTTE 6	0900-1100 138 11 KE GV 120' 105 Renoir 르누아르	1300-1446 139 15 GV 108' 112 The People Upstairs 뒷집 사람들	1630-1829 140 12 KE GV 119' 105 Rangga & Cintia 랑가 앤 진타	2030-2220 141 19 GV 110' 167 Dear X 진애하는 X
L7	LOTTE 7	1330-1456 142 15 KE 86' 119 The Blue Trail 마지막 푸른빛	1300-1456 142 15 KE 86' 119 The Blue Trail 마지막 푸른빛	1600-1802 143 15 KE 122' 102 Human Resource 휴먼 리소스	2000-2220 144 12 KE 140' 103 Ky Nam Inn 사이공의 여인
L9	LOTTE 9			1700-1849 145 19 KE 109' 96 After Dreaming 꿈보다아픈밤	2000-2250 146 19 KE 170' 67 Dracula 드라큘라
L10	LOTTE 10			1500-1800 147 15 GV 180' 175 Drive My Car 드라이브 마이카	1930-2214 148 19 KE 164' 73 Magellan 마젤란
KT	KOFIC Theater	1030-1238 149 19 KE 128' 119 The Chronology of Water 물의 연대기	1400-1530 150 15 KE 90' 125 Phantoms of July 7월의 유령들	1630-1812 151 12 KE GV 102' 141 Baima Boy 바이마소년	2000-2155 162 15 KE GV 115' 142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SH	Sohyang Theatre Shinancard Hall	0900-1050 153 12 KE 110' 70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1200-1340 154 19 KE GV 100' 168 The Resurrected 회혼계		
BG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230-1441 157 15 KE 133' 72 La Grazia 그라치아	1600-1834 158 15 KE 154' 80 The Wizard of the Kremlin 크렘린의 마법사	2000-2129 159 15 KE 89' 127 The Voice of Hind Rajab 힌드의 목소리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0930-1137 19 KE 127' 87 Tiger 타이거	1300-1459 15 KE 119' 82 ALL GREENS 올 그린스	1600-1741 15 KE 101' 83 Griffriends 길프렌드	1900-2040 15 KE 100' 86 On Your Lap 판큐의 시간
C7	CGV 7		1330-1459 12 KE 89' 57 Two Seasons, Two Strangers 여행과나날	1730-1816 15 106' 48 En Route To 지우러 가는 길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에만 영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1	MEGABOX 1	1100-1259 908 19 GV 119' 202 무뢰한	1500-1642 913 12 GV 102' 202 초인	1930-2133 918 15 Commentary 123' 203 사바하	
M2	MEGABOX 2	1130-1236 909 12 100K 66' 203 인티스틀라 5555	1430-1556 912 12 GV 86' 204 학교 밖, 영영시원	1900-2032 916 11 GV 92' 202 피아노 프리즈	
M3	MEGABOX 3	1200-1425 911 19 GV 145' 203 아기씨	1630-1816 915 12 GV 106' 204 그녀에게	2000-2058 919 15 GV 58' 204 나의 교실	
M4	MEGABOX 4	1130-1314 910 15 GV 104' 204 K-Arts 에니메이션 하이리이트	1520-1709 914 15 GV 109' 204 K-Arts 뉴올드 월드 단편 골작전	1900-2048 917 15 GV 108' 204 K-Arts <태양은 없다>	

MEGABOX Busan Theater
메가박스 부산극장

20 SAT	1	2	3	4	5
BT BFF Theatre 이와극장				2000~21:40 160 15 6W 100' 110, 155 ADDITION 109평균	
BH Hanauljeon Theatre 하늘연극장		11:30~12:57 161 15 6W 87' 49 Funky Freaky Freaks 중충충	15:00~16:42 162 15 6E 6W 102' 52 Leave the Cat Alone 고강아를 놓아줘	19:00~21:55 163 12 6E 6W 175' 61 KOKUHO 국보	23:59~05:39 164 19 15 6E 6W 340' 115, 160, 163, 164 Midnight Passion 3 미드나잇 패션 3
B1 Cinema 1 종극장	09:30~11:14 165 15 6E 6W 104' 127 The Wedding Banquet 결혼 피로연	13:00~14:52 166 15 6E 112' 76 Romeria 로메리아	16:30~18:30 167 19 6E 6W 120' 79 Two Prosecutors 두 검사	20:30~21:57 168 12 6E 6W 87' 151 The Rose: Come Back to Me 더 로즈:컴백 투 미	
B2 Cinema 2 소극장	09:00~10:38 169 15 6W 98' 114 Be My Baby 미야	12:30~13:59 170 12 6E 6W 98' 57 Two Seasons, Two Strangers 여행파나날	16:00~17:50 171 13 6W 110' 186 Waikiki Brothers 와이키키 브라더스	20:00~21:46 172 15 6W 106' 48 En Route 10 시우러가는 길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0:25 173 12 6E 6W 95' 106 The River That Hides Our Hands 우리의 손을 감아주는 강	12:30~14:35 174 15 6W 125' 185 Jealousy Is My Middle Name 질투는 나의 힘	17:00~18:02 175 12 6W 62' 116 Time of Cinema -극정의 시간들		
C1	09:00~10:47 181 15 6E 107' 122 The Great Arch 그랜드아치의 이름 없는 남자	12:00~13:31 182 12 6E 91' 74 A Magnificent Lie 마르셀의 멋진 인생		19:30~20:41 183 15 6E 71' 148 Hair, Paper, Water... 머리카라, 종이, 물...	
C2	09:00~10:49 184 15 6E 6W 109' 96 After Dreaming 꿈보다 아른 밤	13:00~14:44 185 12 6E 6W 104' 192 Mr. Kim Goes to the Cinema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	16:30~18:17 186 15 6W 107' 147 Grounding 착시연습	20:30~21:50 187 15 6E 6W 80' 150 Nimakeage Public Pool 누마케지 시립 수영장	
C3	11:30~22:18 188 19 6E 558' 172 The X Our West of the Tracks 철사구 Part 1-1:13:30~13:36 Intermission 1:15 min	Part 1-2: 13:51~15:50 Intermission 2:00 min	Part 2: 16:50~19:49 Intermission 3:15 min	Part 3: 20:04~22:18	
C4	09:00~10:26 189 12 6E 6W 96' 143 Panic Button 패닉 버튼	12:30~14:25 190 15 6E 6W 115' 142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16:30~18:03 191 13 6E 6W 93' 141 Habibi Hussein 너의 진애하는 후세인	20:00~21:40 192 15 6E 6W 100' 140 10s Across the Borders 10점 만점에 10점	
C5	09:00~10:38 193 15 6E 6W 98' 120 Don't Let the Sun 두 켄터선	12:30~14:02 194 6W 6E 92' 152 Sky Wind, Stars and the Island 하늘과 바람과 별과 집	16:00~17:43 195 12 6W 103' 128 Hana Korea 하나코리아	19:30~21:19 196 15 6E 6W 109' 149 Imago 이마고	
C6	09:30~11:22 197 15 6E 6W 112' 132 Reedland 리드랜드	13:30~15:20 198 19 6E 6W 110' 131 The Mysterious Gaze of the Flamingo 신비로운 플라밍고의 눈빛	17:30~21:07 199 19 6E 6W 217' 129 I Only Rest in the Storm 난 폭풍 속에 쉬어가		
CX CGV IMAX	09:00~10:30 177 19 6E 6W 90' 164 Protector 프로텍터	12:30~14:25 178 15 6E 115' 78 Strat 시라트	15:30~17:54 179 13 6E 6W 144' 59 Frankenstein 프랑켄슈타인	20:00~22:35 180 15 6E 155' 125 Sound of Falling 사운드 오브 폴링	
L2 LOTTE 2	09:00~10:26 200 15 6W 86' 13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한국 단편 경쟁 3	12:30~13:54 201 12 6W 84' 13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한국 단편 경쟁 2	16:00~17:36 202 12 6E 96' 99 The Botanist 보타니스트	20:00~21:39 203 15 6E 6W 99' 98 Becoming Human 환생 상상의 끝에서	
L3 LOTTE 3	09:00~10:45 204 12 6W 105' 89 Coming of Age 칠들 무렵	12:30~13:54 205 12 6W 84' 94 Winter Days 겨울날들	16:00~17:47 206 12 6W 107' 92 The Mutation 타협의 탄생	20:00~22:03 207 12 6E 123' 90 JOURNEY THERE 흐르는 여정	
L4 LOTTE 4	09:00~10:28 208 12 6E 6W 88' 100 Don't Tell Mother 셋! 엄마한테 비밀이야	12:30~13:55 209 15 6E 6W 86' 99 A Dance in Van van! 춤	16:00~17:49 210 15 6E 6W 109' 101 Full Plate 양반의 부엌	20:30~22:15 211 12 6E 105' 80 The Young Mother's Home 양미의 시간	
L5 LOTTE 5	09:00~10:40 212 15 6E 6W 100' 84 If on a Winter's Night 어느 겨울 밤	12:30~14:29 213 15 6E 6W 119' 82 ALL GREENS 올 그린스	16:30~18:11 214 15 6E 6W 101' 83 Griffriends 그리프렌드	20:00~21:40 215 15 6E 6W 100' 86 On Your Lap 반쿠의 시간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SOHYANG
소향씨네아рт

BCM
부산시청지미디어센터

L6 LOTTE 6	09:00~11:10 216 12 6E 6W 130' 108 A Useful Ghost 쓸모있는 귀신	13:00~14:43 217 12 6E 103' 60 It Was Just an Accident 그자사고였을 뿐	16:00~17:34 218 15 6E 6W 94' 101 The Fox King 여우왕	19:30~21:24 219 19 6E 6W 114' 162 The Furrow 분노의 주걱
L7 LOTTE 7		13:00~14:50 220 15 6E 110' 124 Meibors 소년하니들 셋	16:30~18:18 221 12 6E 108' 174 Still Life 스틸라이프	20:00~22:20 222 12 6E 140' 103 Ky Nam Inn 사이공의 연인
L9 LOTTE 9	09:00~11:13 223 15 6W 133' 115 The Old Woman With the Knife: International Cut 파과: 인터내셔널 컷	12:30~14:14 224 15 6E 104' 102 In the Land of Arto 아르토의 땅에서	15:30~16:52 225 6W 6E 82' 155 Arco 아르코	18:30~20:16 226 12 6E 106' 104 The President's Cake 대통령의 케이크
L10 LOTTE 10			16:30~18:16 228 12 6E 106' 104 Raindrops on a Roof 지붕 위의 빗방울	19:30~21:58 227 19 148' 175 Burning 버닝
KT KOPIC Theater	10:00~11:59 230 12 6W 119' 143 Raining Dust 이들이 온다			19:30~21:18 231 15 6W 108' 184 Art Museum by the Zoo 미술관 옆 동물원
SH Sol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09:30~11:42 232 15 6E 132' 71 Jay Kelly 제이 켈리	13:00~14:45 234 12 6E 105' 75 Nouvelle Vague 누벨바그	16:30~18:04 233 15 6E 6W 94' 169 Romanics Anonymous 로맨틱 아나니마스	20:00~21:39 235 12 6E 6W 99' 191 KPop Demon Hunters (Special Sing-along)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 싱어롱)
BG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3:30~15:48 236 15 6E 138' 100 Dear Stranger 디어 스트레인저		20:30~21:44 238 12 6E 74' 171 The Day I Became a Woman 내가 여자가 된 날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P&I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09:00~10:29 19 6E 89' 85 Kurak 쿠락	12:00~14:19 15 6E 139' 83 Black Rabbit, White Rabbit 흑토끼/백토끼	15:30~17:24 12 6E 114' 87 Shape of Mommo 모모의 모양	19:00~20:34 12 6E 94' 85 Malika 말리카
C7 CGV 7		12:30~13:57 15 87' 49 Funky Freaky Freaks 중충충		20:00~21:42 15 6E 102' 52 Leave the Cat Alone 고양이를 놓아줘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에만 영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1 MEGABOX 1	12:30~12:58 923 12 6W 28' 203 바람타이거: SOMENOISE	15:00~16:52 927 12 6W 112' 202 형사 Duelist	18:40~20:32 931 15 6W 112' 204 CJ ENM과 한예종 영상의 30주년 기념 영화 <프로젝트 30>
M2 MEGABOX 2	10:00~14:24 920 19 6W 249' 203 블라인드시네마	16:30~18:25 928 15 6W 115' 203 레미인	20:00~21:41 932 19 6W 101' 202 호수의 이남인
M3 MEGABOX 3	10:50~12:36 922 12 6W 106' 204 비연대/기적 여성의 움직임: 아레와, 오늘	14:20~15:45 926 12 6W 85' 202 성덕	
M4 MEGABOX 4	10:00~11:01 921 12 6W 61' 204 K-Arts 다큐-실형-극영화 스펙트럼	13:00~14:43 925 19 6W 103' 204 K-Arts <비밀은 없다>	20:00~22:01 933 15 6W 121' 204 하이퍼미트

MEGABOX Busan Theater
메가박스 부산극장

21	SUN	1	2	3	4	5
BT	BIF Theatire 아리극장				2000~21:55 239 12 KE GV 115' 157 Measure in Love 타너타일	
BH	Hansuhyeon Theatre 하늘연극장	09:00~10:31 240 12 KE GV 91' 74 A Magnificent Life 마르셀의 멋진 인생	12:00~14:04 241 15 KE GV 124' 50 Girl 소녀	16:30~17:50 242 12 KE GV 80' 58 Without Permission 허락되지 않은	2000~21:39 243 12 KE GV 99' 51 Gloaming in Luomu 루오무의 황혼	23:59~05:29 244 15 KE GV 330' 161, 180 Midnight Passion 4 미드나잇 패션 4
B1	Cinema 1 종극장	09:30~10:56 245 15 KE 86' 75 Mirrors No. 3 미러 NO.3	12:30~14:41 246 15 KE 133' 72 La Grazia 라 그라치아	16:30~18:20 247 15 KE GV 110' 177 Fists in the Pocket 포켓파니 속의 주먹	20:30~22:25 248 19 KE 115' 178 Devil in the Flesh 육체의 악마	
B2	Cinema 2 소극장	09:30~11:52 249 19 KE GV 142' 124 No Beast, So Heroic. 짐승처럼 사냥개	14:00~15:42 250 15 KE GV ♣ 102' 52 Leave the Cat Alone 고양이를 놓아줘	17:30~18:36 251 15 NO GV 66' 65 Back Home 집으로	20:30~22:17 252 15 KE 107' 178 Good Morning, Night 굿모닝, 나잇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1:02 253 19 KE 122' 177 A Leap in the Dark 하코오로의 도약	12:10~14:45 254 12 GV 155' 92 The Observer's Journal 관찰자의 일지	16:30~17:57 255 15 GV 87' 49 Funky Freaky Freaks 풍중충	20:00~21:52 256 12 KE 112' 186 Take Care of My Cat 고양이를 부탁해	
C1	CGV 1		12:00~13:30 261 15 KE 90' 125 Phantoms of July 7월의 유령들	17:00~18:11 262 19 KE 71' 148 Hair, Paper, Water... 머리카탈, 종이, 물...	20:00~21:52 263 15 KE 112' 151 Put Your Soul on Your Hand and Walk 영혼을 손에 붙고 걷는다	
C2	CGV 2	09:00~11:05 264 15 KV GV 125' 185 Jealousy is My Middle Name 질투는 나의 힘	13:00~14:40 265 15 KE GV 100' 140 10s Across the Borders 10명 만원에 10점	16:30~18:12 266 15 KE 102' 69 Enzo 엔조	19:30~21:06 267 12 KE GV 96' 147 Dear Juhee 수희에게	
C3	CGV 3	09:30~11:05 268 15 KE KX 95' 146 Coexistence, My Ass! 공존이라니, 웃기시네	12:30~14:20 269 19 110' 186 Walkki Brothers 와이키키 브라더스	17:00~18:28 270 12 KX GV 88' 144 Relay Race 이어달리기	20:30~22:22 271 15 GV 112' 93 Two voices into an echo 우아한 사해	
C4	CGV 4	09:30~10:43 272 12 KE GV 73' 144 Singing Wings 노래하는 황새 깃털	12:30~14:22 273 12 GV 112' 145 Where We Stay for a While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16:30~18:09 274 12 GV 99' 142 Ikano 이카이노 잔기	20:00~21:59 275 12 GV ♣ 119' 143 Raining Dust 이슬이 온다	
C5	CGV 5	09:00~10:50 276 19 KE GV 110' 131 The Mysterious Gaze of the Flamingo 신비로운 플라밍고의 눈빛	13:00~14:51 277 15 KE 111' 68 Dreams (Sex Love) 사랑을 꿈볼 때	16:30~18:17 278 15 KE GV 107' 123 The Little Sister 리틀 시스터	20:00~21:52 279 12 KE GV ♣ 92' 126 Sweetheart 스윗, 스위트	
C6	CGV 6	09:30~11:04 280 15 KE GV 94' 133 Wild Foxes 와일드 폭스	13:00~14:42 281 15 KE GV 102' 134 A Year of School 그 해, 학교에서	17:00~18:34 282 15 KE GV 94' 131 My Father's Shadow 내아버지의 그림자	20:30~21:53 283 15 KE GV ♣ 83' 132 Omaha 오마하	
CX	CGV IMAX	09:00~10:43 257 15 KE GV 103' 130 Lucky Lu 루키의 운수 좋은 날	12:30~13:48 258 15 KE GV ♣ 78' 126 That Summer in Paris 여름의 방테뷰	16:00~18:55 259 12 KE GV 175' 61 KOKUHO 국보	21:00~23:07 260 15 KE 127' 64 Alpha 알파	
L2	LOTTE 2	09:00~10:47 284 15 GV 107' 147 Grounding 착지연습	12:40~14:40 285 15 KE GV 120' 148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빨간 나라를 보았니?	16:30~18:50 286 15 KE GV 140' 150 The Ozu Diaries 오즈 아시자의 일기	20:30~21:53 287 15 KE GV 83' 149 I, Poppy 양귀비와 나	
L3	LOTTE 3	09:00~10:26 288 12 GV 86' 91 Maze 미로	12:30~14:20 291 12 GV 110' 93 The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	16:10~17:59 290 12 GV 109' 89 BEAUTIFUL DREAMER 단잠	19:40~22:05 289 12 GV 145' 91 The Love of Human 트루먼의 사랑	
L4	LOTTE 4	09:00~10:26 292 15 KE GV 86' 99 A Dance in Vain 헛된, 춤	12:10~13:51 293 15 KE GV 101' 83 Girlfriends 걸프렌드	15:40~17:45 294 15 KE GV 125' 187 Dog Day Afternoon 도거의 오후	20:00~22:40 295 12 GV 120' 188 The Heat 히틀	
L5	LOTTE 5	09:00~10:29 296 15 KE GV 89' 85 Kurak 쿠락	12:20~14:39 297 15 KE GV 139' 83 Black Rabbit, White Rabbit 흑토끼 백토끼	16:30~18:24 298 12 KE GV 114' 87 Shape of Mommo 모모의 모양	20:20~21:54 299 12 KE GV 94' 85 Malika 말리카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SOHYANG
소향비아트

BCM
부산시청지미디어센터

L6	LOTTE 6	09:30~11:04 300 15 KE GV 94' 101 The Fox King 여우왕	13:00~14:35 301 19 KE GV 95' 138, 139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아시아 단편 경쟁 1	16:30~18:07 302 15 KE GV 97' 139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아시아 단편 경쟁 2	20:20~21:45 303 15 GV 85' 136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한국 단편 경쟁 1	
L7	LOTTE 7		13:00~14:40 304 15 KE GV 100' 84 If on a Winter's Night 어느 겨울 밤	16:30~18:32 305 15 KE GV 122' 102 Human Resource 휴먼 리소스	20:30~21:54 306 12 84' 94 Winter Days 겨울날들	
L9	LOTTE 9	09:30~11:18 307 19 GV 108' 116 People and Meat 사람과 고기	12:30~14:09 308 15 99' 111 Boss 보스	15:30~17:08 309 15 ♣ 88' 115, 164 My Home 완벽한 집	18:30~21:14 310 19 KE 164' 73 Magellan 마젤란	
L10	LOTTE 10	11:00~12:50 311 15 110' 112 ProjectY 프로젝트 Y	14:00~15:46 312 15 106' 111 The Great Flood 대홍수	17:00~18:02 313 12 82' 116 Time of Cinema 극공의 시간들	19:30~21:18 314 15 108' 112 The People Upstairs 위층 사람들	
KT	KOFIC Theater	09:30~11:03 315 12 KE GV 93' 141 Habibi Hussien 나의 조아하는 후세인			19:30~21:25 316 12 GV 115' 88 The Accordion Door 아코디언 도어	
SH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09:00~10:52 317 15 KE 112' 71 A HOUSE OF DYNAMITE 하우스 오브 다이내마이트	12:00~14:00 318 15 KE GV 120' 66 Bugonia 부고니아	16:30~18:42 319 15 KE 132' 71 Jay Kelly 제이 켈리	20:00~22:02 320 15 KE ♣ 122' 79 The Stranger 프랑수아 오종의 이방인	
B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0:30~12:09 321 12 KE 99' 97 AMOEBA 아메바	13:30~15:35 134 15 KE 125' 103 Love on Trial 연애재판	16:30~18:10 322 15 KE 100' 86 On Your Lap 판쿠의 시간	19:30~21:36 323 15 KE 126' 68 Duse 엘레오노르 두세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09:00~10:24 12 84' 94 Winter Days 겨울날들	11:30~13:17 12 107' 92 The Mutation 사람의 탄생	15:00~17:03 12 123' 90 JOURNEY THERE 흐르는 여정	18:30~20:15 12 105' 89 Coming of Age 젊을 무렵	
C7	CGV 7		12:30~14:34 15 KE 124' 50 Girl 소녀	17:00~18:20 12 KE 90' 58 Without Permission 허락되지 않은	20:30~22:09 12 KE 99' 51 Gloaming in Luomu 루오무의 황혼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에만 영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1	MEGABOX 1	11:00~12:45 935 15 Commentary 105' 204 리미트리스	14:30~16:00 939 15 31K 96' 204 타임 패러독스	18:00~19:44 943 14 Commentary 104' 204 월-E		
M2	MEGABOX 2		13:00~15:27 937 15 GV 147' 202 릴리 슈슈의 모든 것	17:30~19:38 942 12 GV 128' 202 바다마을 다이어리		
M3	MEGABOX 3		13:30~14:40 938 14 GV 70' 202 시민들의 창	16:30~18:05 941 14 GV 95' 202 우리들		
M4	MEGABOX 4	11:00~12:30 936 14 GV 90' 204 K-Arts <아르츠>	14:30~16:25 940 15 GV 115' 204 CJ ENM과 한예종 상원의 30주년 기념 영화 <프로젝트 30>			

MEGABOX Busan Theater
메가박스 부산극장

22 MON	1	2	3	4
BT	BIFF Theatre 아워극장			2000-2201 324 AI KE GW 121 154 5 Centimeters Per Second 조숙 5센티미터
BH	HanaUjeon Theatre 하늘극장	0900-1112 325 IS KE 132 76 Orphan 나이의 이름은	1630-1818 327 I2 GW 108 55 Seven O'Clock Breakfast Club for the Brokenhearted 실연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	2030-2205 328 I2 KE GW 95 47 By an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B1	Cinema 1 중극장	0900-1055 329 I9 KE 115 178 Devil in the Flesh 육체의 악마	1200-1422 330 I9 KE GW 142 124 No Beast, So Fierce. 짐승처럼 사냥게	2000-2209 332 IS KE GW 129 179 Vincere 승리
B2	Cinema 2 소극장		1230-1434 333 IS KE GW 124 50 Girl 소녀	2000-2139 335 I2 KE GW 99 51 Gloaming in Luomu 루오무의 황혼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000-1150 336 IS KE 110 177 Fists in the Pocket 호주머니 속의 주먹	1300-1502 337 I9 KE 122 177 A Leap in the Dark 하공으로의 도약	2030-2152 339 I2 KE GW 82 171 Goodbye, Dragon Inn 안녕, 용문객잔
C1	CGV 1		1300-1423 343 IS KE 83 149 I, Poppy 양귀비와 나	1900-2100 345 IS KE 120 148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빨간나리들을 보았니?
C2	CGV 2	0920-1115 346 IS KE 115 142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1230-1405 347 I9 KE GW 95 138,139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아시아 단편 경쟁 1	1940-2105 349 I2 KE GW 85 106 The River That Holds Our Hands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강
C3	CGV 3	0910-1102 350 I2 GW 112 145 Where We Stay for a While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1300-1413 351 I2 KE GW 73 144 Singing Wings 노래하는 황새 깃털	2000-2148 353 IS GW 108 184 Art Museum by the Zoo 미술관 옆 동물원
C4	CGV 4	0900-1119 354 IS KE GW 139 83 Black Rabbit, White Rabbit 흑토끼 백토끼	1300-1428 355 I2 GW 88 144 Relay Race 이어달리기	2000-2137 357 I2 KE GW 97 185 Memento Mori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C5	CGV 5		1200-1354 359 I2 KE GW 114 87 Shape of Mommo 모모의 모양	2000-2147 385 I2 GW 107 92 The Mutation 사람의 탄생
C6	CGV 6		1100-1255 363 I2 KE GW 115 157 Measure in Love 타넨타일	1930-2133 367 I2 GW 123 90 JOURNEY THERE 흐르는 여정
CX	CGV IMAX	1200-1351 340 IS KE 111 74 The Mastermind 마스터마인드	1530-1742 341 IS KE 132 71 Jay Kelly 제이 켈리	1930-2117 342 IS KE GW 107 123 The Little Sister 리틀 시스터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2	LOTTE 2	0930-1114 364 IS KE 104 102 In the Land of Arto 아르토의 땅에서	1230-1357 365 AI KE GW 87 151 The Rose: Come Back to Me 더 로즈 컴 백 투 미	1600-1736 366 I2 KE GW 96 147 Dear Juhee 수희에게	1930-2050 367 IS KE GW 80 150 Numakage Public Pool 누마카게 시립 수영장
L3	LOTTE 3		1130-1322 368 IS GW 112 93 Two voices into an echo 우아한 시세	1500-1647 369 I2 GW 107 90 The Corals 산양돌	1900-2026 370 I2 KE 86 91 Maze 미로
L4	LOTTE 4	0930-1125 371 IS KE 115 78 Srat 시라트	1230-1404 372 IS KE GW 94 133 Wild Foxes 와일드 폭스	1600-1752 373 IS KE GW 112 132 Redland 레드랜드	2000-2142 374 IS KE GW 102 134 A Year of School 그해 학교에서
L5	LOTTE 5	0930-1108 375 IS KE 88 67 Dreams 드림스	1230-1417 376 I2 KE GW 107 86 Mothernet 서암마	1630-1837 377 I8 KE GW 127 87 Tiger 타이거	2030-2132 378 IS KE GW 62 84 Kok Kok Kokook 콧콧콧, 코코콧
L6	LOTTE 6	0900-1034 379 IS KE GW 94 131 My Father's Shadow 내아버지의 그림자	1300-1424 380 IS GW 84 13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한국 단편 경쟁 2	1700-1826 381 I9 GW 86 13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한국 단편 경쟁 3	2030-2208 382 IS KE GW 98 120 Don't Let the Sun 돈 켓더 선
L7	LOTTE 7	0930-1059 383 IS KE 89 85 Kurak 쿠락	1230-1406 384 I2 KE 96 99 The Botanist 보태니스트	1600-1740 385 IS KE 100 140 10s Across the Borders 10점 민중예 10점	1900-2102 386 IS KE GW 122 102 Human Resource 휴먼 리소스
L9	LOTTE 9	1000-1126 387 IS KE 86 99 A Dance in Vain 헛된, 춤	1300-1535 388 I2 GW 155 92 The Observer's Journal 관찰자의 일지	1700-1835 389 IS KE 95 146 Coexistence, My Ass! 공존이라니, 웃기시네	2000-2159 390 IS KE 119 82 ALL GREENS 올 그린스
L10	LOTTE 10	0930-1110 391 IS KE 100 86 On Your Lap 판국의 시간	1230-1455 392 I2 GW 145 91 The Love of Truman 트루먼의 사랑	1630-1825 393 I2 GW 115 88 The Accordion Door 아코디언 도어	2000-2145 394 I2 GW 105 89 Coming of Age 칠들 무렵
KT	KOFIC Theater		1200-1350 360 I2 GW 110 93 The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	1600-1724 396 I2 GW 84 94 Winter Days 겨울날들	1930-2119 397 I2 GW 109 89 BEAUTIFUL DREAMER 단장
SH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1330-1539 398 I9 KE 129 165 Weapons 웨폰	1700-1844 399 IS KE 104 127 The Wedding Banquet 결혼 피로연	2000-2152 400 IS KE 112 71 A HOUSE OF DYNAMITE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BC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300-1501 401 IS KE 121 122 Islands 아일랜드	1630-1833 402 IS KE 122 79 The Stranger 프랑수아 오종의 이방인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SOHYANG
소형씨아터

BCM
부산시창작미디어센터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0900-1125 I2 145 91 The Love of Truman 트루먼의 사랑	1300-1449 I2 109 89 BEAUTIFUL DREAMER 단장	1600-1750 I2 110 93 The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	1930-2205 I2 155 92 The Observer's Journal 관찰자의 일지
C7	CGV 7		1300-1448 IS KE 108 53 Left-Handed Girl 왼손잡이 소녀	1700-1848 I2 108 55 Seven O'Clock Breakfast Club for the Brokenhearted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	2100-2235 I2 95 47 By an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P&I

23	TUE	1	2	3	4
BT	BFF Theatre 아워극장				2000-2207 403 AI KE 127 156 Bring Him Down to a Portable Size 오패를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로
			1430-1706 404 IS KE GW 156 54 Resurrection 광아사녀		1930-2109 405 IZ KE GW 99 56 Spying Stars 스파이 스타
			1130-1337 406 IS KE 127 70 Franz 프란츠 카프카	1500-1650 407 IZ KE KE 110 70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1800-2137 408 IS KE GW 217 188 Euraka 유레카
		0900-1237 409 IS KE GW 217 129 I Only Rest in the Storm 난 폭풍 속에 쉬어			2000-2154 411 IS KE GW 114 65 Below the Clouds 구름 아래
		0900-1117 412 IS KE 137 121 God Will Not Help 신은 돕지 않는다	1220-1408 414 IS KE GW 108 53 Left-Handed Girl 왼손잡이 소녀	1600-1749 413 IS KE GW 109 149 Imago 이마고	2000-2206 415 IS KE GW 126 68 Duse 엘레오라 두세
C1	CGV 1		1230-1408 420 IZ KE 96 147 Dear Juhee 주희에게	1530-1712 421 IZ KE 102 141 Baiba Boy 바이바-소년	1830-2050 422 IS KE 140 150 The Ozu Diaries 오즈 아즈자로의 일기
C2	CGV 2		1200-1352 423 IZ 112 145 Where We Stay for a While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1500-1652 424 IS GW 112 93 Two voices into an echo 우아한 시계	1900-2024 425 IZ GW 84 94 Winter Days 겨울날들
C3	CGV 3		1300-1433 426 IZ KE 83 141 Habibi Hussein 니의 진아라는 후세인	1600-1729 427 IS KE GW 89 85 Kurak 쿠락	1930-2119 428 IZ GW 109 89 BEAUTIFUL DREAMER 단장
C4	CGV 4	0930-1139 429 IS KE 129 179 Vincere 승리	1300-1459 430 IS KE GW 119 82 ALL GREENS 올 그린스	1700-1827 431 IS KE GW 87 108 Whisperings of the Moon 달의 속삭임	2030-2132 432 IS KE GW 62 84 Kok Kok Kokook 쿡쿡쿡, 쿡쿡쿡
C5	CGV 5	1000-1145 433 IZ KE 105 80 The Young Mother's Home 엄마의 시간	1300-1442 434 IS KE 102 134 A Year of School 그 해, 학교에서	1600-1803 435 IZ GW 123 90 JOURNEY THERE 흐르는 여정	2000-2139 436 IS KE GW 99 107 Sand City 샌드 시티
C6	CGV 6	0900-1041 437 IS KE 101 83 Giraffants 길프랜드	1200-1407 438 IS KE GW 127 87 Tiger 타이거	1600-1734 439 IS KE GW 84 98 Becoming 비커밍	1930-2150 440 IZ KE GW 40 103 Ky Nam Inn 사이공의 연인
CX	CGV IMAX	0900-1105 416 IS KE 125 103 Love on Trial 연애재판	1300-1508 417 IS KE 128 119 The Chronology of Water 물의 연대기	1630-1833 418 IS KE GW 123 163 The Holy Boy 홀리 보이	2030-2225 419 IS KE 115 78 Siāt 시라트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2	LOTTE 2	1400-1511 441 IS KE 71 148 Hair, Paper, Water... 머리/카락, 종이, 물...	1630-1802 442 AI KE 92 152 Sky, Wind, Stars and the Island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성	1930-2117 443 IZ GW 107 90 The Gorals 산양들
L3	LOTTE 3	1130-1325 444 IZ GW 115 88 The Accordion Door 아코디언 도어	1530-1715 445 IZ GW 105 89 Coming of Age 절들 무렵	1930-2205 446 IZ GW 155 92 The Observer's Journal 관찰자의 일지
L4	LOTTE 4	1200-1348 447 IZ GW 108 55 Seven O'Clock Breakfast Club for the Brokenhearted 심연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전모임	1700-1843 448 IS KE 103 130 Lucky Lu 루의 운수 좋은 날	2000-2159 449 IS KE 119 123 Lovely Day 러블리 데이
L5	LOTTE 5	0930-1205 450 IS KE 155 125 Sound of Falling 사운드 오브 폴링	1630-1748 452 IS KE 78 118 Adam's Sake 아담을 위하여	2000-2132 453 IZ KE GW 92 126 Sweetheart 스위트, 스위트하트
L6	LOTTE 6	1200-1407 454 IS KE 127 64 Alpha 알파	1600-1813 455 IZ KE 133 77 Sentimental Value 선택멘탈 밸류	1930-2121 456 IS KE 111 68 Dreams (Sex Love) 사랑을 꿈꿀 때
L7	LOTTE 7	0900-1040 457 IS KE 100 84 If on a Winter's Night 어느 겨울 밤	1500-1634 459 IS KE 94 131 My Father's Shadow 내아버지의 그림자	1800-1927 460 IS KE 87 49 Funky Freaky Freaks 풍중중
L9	LOTTE 9	1100-1254 461 IZ KE 114 87 Shape of Mommo 모모의 모양	1700-1828 463 IZ KE 88 100 Don't Tell Mother 셋엄마한테 비밀이야	2000-2159 464 IZ KE 119 105 Rangga & Cintia 랑가 앤 진타
L10	LOTTE 10	1000-1219 465 IS KE 139 83 Black Rabbit, White Rabbit 흑토끼 백토끼	1630-1817 467 IZ 107 92 The Mutation 사람의 탄생	1930-2120 468 IZ 110 93 The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
KT	KOFIC Theater		1530-1653 470 IS KE GW 83 132 Omaha 오마하	1900-2125 471 IZ KE 145 91 The Love of Human 두두먼의 사랑
SH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1300-1510 472 IS KE 130 72 The Lost Bus 로스트 버스	1930-2121 474 IS KE 111 74 The Mastermind 마스터마인드
BC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200-1347 475 IZ KE 107 86 Mothernet A엄마	2000-2222 477 IS KE 142 124 No Beast, So Fierce. 짐승처럼 사냥개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SOHYANG
소향씨아트

BCM
부산시창작미디어센터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P&I	Indieplus 인디플러스	1000-1152 IS 112 93 Two voices into an echo 우아한 시계	1600-1726 IZ 86 91 Maze 미로	1830-2025 IZ 115 88 The Accordion Door 아코디언 도어
C7	CGV 7			2000-2139 IZ KE 99 56 Spying Stars 스파이 스타

		1	2	3	4
BT	BIFF Theatre 아외극장				2000-21:22 478 AI KE 82' 155 Arco 아르크코
BH	Hanuljeon Theatre 하늘연극장		1200-1400 479 IS KE 120' 66 Bugonia 부고니아	15:30-18:04 480 IS KE 154' 80 The Wizard of the Kremlin 크렘린의 마법사	19:30-22:06 481 IS KE 156' 182 In-I In Motion 인-아이 인 모션
B1	Cinema 1 중극장		1200-1354 482 IS KE GV 114' 65 Below the Clouds 구름 아래	16:00-18:06 483 IS KE GV 126' 68 Duse 엘레오노라 두세	20:00-21:31 484 IS KE GV 91' 179 Max Can Wait 마르크스 캔 웨이트
B2	Cinema 2 소극장	09:00-10:49 485 IS KE 109' 149 Imago 이마고	1200-14:08 486 IS KE 128' 106 SAU disaster 재앙 재	15:30-17:57 487 IS KE 147' 78 Silent Friend 사일런트 프렌드	20:00-21:52 488 IS KE GV 112' 151 Put Your Soul on Your Hand and Walk 영혼을 손에 품고 걷는다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0:47 489 IS KE 107' 122 The Great Arch 그랜드아치의 이를 잃는 남자	1200-13:39 490 IS GV 95' 47 By an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15:30-17:39 491 IS KE 129' 69 Eagles of the Republic 공화국의 독수리	19:30-21:09 492 IS KE 99' 56 Spying Stars 스파이스타
C1	CSV 1	10:00-12:02 497 IS KE ♣ 122' 79 The Stranger 프랑수아 오종의 이방인	14:00-15:49 498 IS KE 109' 96 After Dreaming 꿈보다 아픈 밤	17:00-18:39 499 IS KE ♣ 99' 98 Becoming Human 환생: 상실의 끝에서	
C2	CSV 2		12:00-13:50 500 IS GV 110' 93 The Second Child		

25 THU	1	2	3	4
BT	BIFF Theatre 아워극장			20:00-22:07 554 19 KE 6W 127 157, 182 The Lovers on the Bridge 풍네프의연인들
BH	Hanauljeon Theatre 하늘연극장	13:00-14:39 555 15 KE 6W 99 183 Three Colours: Blue 세가지색:블루	16:30-18:30 566 15 KE 120 79 Two Prosecutors 두검사	20:00-21:30 567 15 KE 90 125 Phantoms of July 7월의 유령들
B1	Cinema 1 종극장	09:30-11:37 558 15 KE 127 70 Franz 프란츠 카프카	15:30-17:39 560 15 KE 129 69 Eagles of the Republic 공화국의 독수리	19:30-21:57 561 15 KE 147 78 Silent Friend 사일런트 프렌드
B2	Cinema 2 소극장	11:00-12:24 562 15 KE 94 133 Wild Foxes 와일드 폭스		19:00-21:00 120 BAFA 2025 Graduation Ceremony & Short Film Screening BAFA 2025 수료식 및 단편영화 상영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1:30-13:59 564 19 6W 148 175 Burning 버닝	16:00-17:52 565 15 KE 6W 112 151 Put Your Soul on Your Hand and Walk 영혼을 손에 품고 걷는다	20:00-21:39 566 19 KE 6W 99 173 Election 학사회
C1	CGV 1	14:00-15:27 570 15 KE 87 108 Whisperings of the Moon 달의 속삭임	16:30-18:10 571 15 KE 100 86 On Your Lap 관쿠의 시간	19:30-21:17 572 12 KE 107 86 Multinet AI영화
C2	CGV 2	13:30-15:29 573 15 KE 119 82 ALL GREENS 올 그린스	17:00-18:54 574 12 KE 114 87 Shape of Mommo 모모의 모양	20:00-21:25 575 12 KE 85 106 The River That Hides Our Hands 우리의 손을 감아주는 강
C3	CGV 3	09:30-11:55 576 12 KK 6W 145 91 The Love of Tuman 투먼의 사랑	14:00-16:00 577 19 KK 120 172 Old Boy 올드보이	20:30-21:32 579 15 KE 62 84 Kok Kok Kokokok 콧콧콧, 콧콧콧
C4	CGV 4		14:30-16:09 580 15 KE 99 107 Sand City 샌드 시티	20:30-21:59 582 15 KE 89 85 Kurak 쿠락
C5	CGV 5		13:00-15:10 583 12 KE 130 108 A Useful Ghost 쓸모 있는 귀신	20:00-21:49 585 15 KE 109 101 Full Plate 음반의 부엌
C6	CGV 6	10:00-12:07 586 19 KE 127 87 Tiger 타이거	13:30-15:09 587 19 KE 99 129 Her Will Be Done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지아다	19:30-21:43 589 15 KE 133 107 The Sun Rises on Us All 우리 머리 위의 해살
C7	CGV 7		13:30-14:54 590 15 84 13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한국 단편 경쟁 2	19:30-20:56 592 19 86 13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한국 단편 경쟁 3
CX	CGV IMAX		12:30-14:18 597 15 KE 108 53 Left-Handed Girl 왼손잡이 소녀	19:30-21:42 599 15 KE 132 76 Orphan 나 의 이름은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2	LOTTE 2		14:00-15:46 593 12 KE 106 104 Raindrops on a Roof 지붕 위의 비방울	17:00-18:40 594 15 KE 100 84 If on a Winter's Night 어느 겨울 밤	20:00-22:19 595 15 KE 139 83 Black Rabbit, White Rabbit 흑토끼 백토끼
L3	LOTTE 3			16:30-18:22 596 15 KE 112 71 A HOUSE OF DYNAMITE 하우스 오브 다이내마이트	20:00-22:24 597 19 KE 144 59 Frankenstein 프랑켄슈타인
L4	LOTTE 4		13:30-15:20 598 12 KE 110 66 A Big Bold Beautiful Journey 빅 볼드 뷰티풀	16:30-17:59 599 15 KE 89 127 The Voice of Hind Rajab 힌드의 목소리	
L5	LOTTE 5	11:00-12:50 601 19 KE 110 131 The Mysterious Gaze of the Flamingo 신비로운 불라밍고의 눈빛	14:30-16:20 602 15 KE 110 124 Meteors 소년 하나 둘 셋	17:30-19:17 603 12 6W 107 90 The Gorals 산양들	21:00-22:38 604 15 KE 98 67 Dreams 드림스
L6	LOTTE 6		14:00-15:42 605 15 KE 102 69 Enzo 엔조	17:00-19:17 607 15 KE 137 121 God Will Not Help 신은 돕지 않는다	20:20-22:04 608 15 KE 104 120 The Currents 커런트즈
L7	LOTTE 7		14:00-15:20 608 12 KE 80 58 Without Permission 허락되지 않은	16:30-17:48 609 15 KE 78 126 That Summer in Paris 여름의 파리데뷔	19:00-22:37 610 15 KE 217 129 I Only Rest in the Storm 난 폭풍 속에 쉬어가
L9	LOTTE 9		14:30-15:36 611 15 MD 66 65 Back Home 집으로	17:00-18:43 612 15 KE 103 130 Lucky Lu 루의 운수 좋은 날	20:00-21:40 613 19 KE 100 162 Halabala 할라발라
L10	LOTTE 10		14:00-15:23 614 15 KE 83 132 Omaha 오마하	16:30-18:02 615 12 KE 92 126 Sweetheart 스위트하트	19:30-21:22 616 15 112 93 Two voices into an echo 우아한 시체
KT	KOFIC Theater		14:30-16:09 617 12 KE 99 56 Spring Stars 스프링스타	17:30-19:15 618 15 KE 105 133 Strange River 스트레인지 리버	20:30-22:04 619 15 KE 94 98 Becoming 비커밍
BGM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5:30-17:09 620 12 KE 99 51 Gloaming in Luomu 루오무의 황혼	19:00-20:41 628 15 KE 101 83 Grifflands 길프랜드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KOFIC
영화진흥위원회

BCM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6 FRI	1	2	3	4
BT	BIFF Theatre 아워극장			18:00-22:00 002 6W Closing Ceremony+The Winner of the Busan Award Screening 폐막식 + 부산 어워즈 수상식 상영
B1	Cinema 1 종극장	10:00-12:10 621 130 The Winner of KB Vision Audience Award KB 비전 관객상 수상작		
B2	Cinema 2 소극장	10:00-12:40 623 160 The Winner of the Songwon Citizen Critics Award 송원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0:30-12:30 625 120 The Winner of the Documentary Audience Award 다큐멘터리 관객상 수상작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WHERE MOMENTS UNFOLD

SCREENX는 센터 스크린을 넘어
좌우 벽면까지 하나의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세계 최초 다면 특별 상영관입니다.

상영관 전체를 아우르는 광활한 스크린으로
영화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몰입감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감동의 장면을 눈으로 담아내듯
펼쳐진 스크린으로 SCREENX만의 이야기를
큐레이팅 하여 제작하고 전달합니다.

좁은 화면에서 벗어나
영화와 하나 되는 순간은 SCREENX로 경험해 보세요.

SCREENX
WHERE MOMENTS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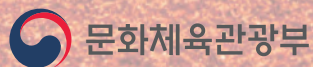
SCREENX
WHERE MOMENTS UNFOLD





Congratulations!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목차 Contents

015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036	티켓 안내	Tickets
043	개막작	Opening Film
044	경쟁	Competition
059	갈라 프레젠테이션	Gala Presentation
064	아이콘	Icons
082	비전	Vision
	- 아시아 - 한국	- Asia - Korea
096	아시아영화의 창	A Window on Asian Cinema
110	한국영화의 오늘	Korean Cinema Today
	- 스페셜 프리미어 - 파노라마	- Special Premiere - Panorama
118	월드 시네마	World Cinema
128	플래시 포워드	Flash Forward
136	와이드 앵글	Wide Angle
	- 한국 단편 경쟁 - 아시아 단편 경쟁 - 다큐멘터리 경쟁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 Documentary Competition - Documentary Showcase
154	오픈 시네마	Open Cinema
160	미드나잇 패션	Midnight Passion
166	온 스크린	On Screen
170	특별기획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in Focus
	- 아시아영화의 결정적 순간들 - 마르코 벨로키오, 주먹의 영화 - 줄리엣 비노쉬, 움직이는 감정 - 우리들의 작은 역사, 미래를 부탁해! - 까르뜨 블랑슈	- Defining Moments of Asian Cinema - Marco Bellocchio, the filmmaker who never stopped raising his fist - Juliette Binoche, Between Motion and Emotion - A Little History of Our Own, 'Take Care of Our Future!' - Carte Blanche
190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s
193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198	포럼 비프	FORUM BIFF
202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206	동네방네비프	BIFF Everywhere
208	작품별 색인	Index of Films

티켓 구매

구분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결제수단
온라인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biff.kr)	9.5-9.26	24시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예매권
BIFF 대표소	영화의전당	아외매표소	9.17-9.26 08:30-20:30 *9.17→예매발권만 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시네마운틴 6층	9.18-9.26 08:30-20:30 *9.26→08:30-15:00	
	CGV센텀시티 7층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층		9.18-9.25	
	영화진흥위원회 2층		9.18-9.25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9.18-9.25	
	동서대학교 소항씨어터 신한카드홀		9.18-9.24	
	메가박스 부산극장 4층		9.18-9.21	

티켓 가격

구분	개막식·폐막식	일반상영작 / 씨네 클래스	액터스 하우스 / 마스터 클래스	미드나잇 패션
가격	30,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티켓 예매·발권 유의사항

- 전 좌석을 **온라인 예매로 판매**합니다.
- ※ 온라인 예매로 매진되지 않거나 취소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화제 기간에 BIFF대표소에서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상영작별 일부 좌석을 야외사거리 BIFF대표소에서 판매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창구 이용 불가)
- 종이티켓이 필요한신 경우 BIFF대표소에서 모바일티켓 제시 후 발권 가능합니다.
- 예매자 과실로 종이티켓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권이 불가**합니다.

취소 및 환불

-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 종이티켓으로 발권한 경우 BIFF대표소에서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 시 1회 최대 2장까지 구매 가능하며, 1장 단위로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예매권과 신용카드로 복합 결제한 경우 전체 취소만 가능합니다.)
- 예매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처리됩니다.
- **취소수수료**
 - 영화제 개막 전(9월 16일까지): 취소수수료 없음
 - 영화제 기간(9월 17일-26일): 티켓 1장 당 1,000원
- 영화제 사정으로 상영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수수료 없이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상영관 입장 안내

-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상영 시작 15분 이후부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상영 시작 후 입장하는 경우 예매한 좌석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 시 티켓(모바일티켓/종이티켓)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티켓 캡처본, 예매완료 알림톡(문자)으로는 상영관 입장이 불가합니다.
- 상영관 입장은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습니다.
- 만 4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입장 불가합니다.
- 상영관 내부에는 주류 및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합니다.
 -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동서대학교 소항씨어터 신한카드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은 생수만 반입 가능
- 트레일러와 엔딩 크레딧을 포함하여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 ※ 게스트와의 만남(GV)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분실물 안내

- 영화제 기간에 습득한 물품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에서 보관합니다.
- 소지품을 분실하셨을 경우 가까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창구 안내

영화제 기간 동안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창구**를 운영합니다.

- 위치: 영화의전당 야외사거리 BIFF대표소
- 운영 기간: 2025.9.17(수)-9.26(금)
- 이용 대상: 만 65세 이상(1960년생 이상), 장애인
- 구매 가능한 상영작: 당일 상영작 및 익일 오전 상영작(12회차) / 개막식·폐막식 제외
- ※ 9월 17일 개막일의 경우, 9월 18일 12회차 상영작만 현장 창구 예매 가능합니다.
- ※ 상영별로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문의

- 콜센터: 1666-9177
- 이메일: cs@biff.kr
- * 운영 기간: 2025.8.26(화)-10.2(목)
- 영화제 기간 09:00~20:30 / 영화제 기간 외 10:00~17:00 (점심시간 12:00~13:30)
- ※ 영화제 기간 외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성희롱 예방

부산국제영화제는 성희롱·성폭력을 반대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

-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02-552-7737
-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051-558-8858
- 긴급을 요할 사: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Ticketing Information

Type	Place	Period	Operating time	Payment
Via online	BIFF website (biff.kr)	9.5-9.26	24-hour	Credit card Debit card Mobile Voucher
BIFF Ticket Box	Busan Cinema Center	BIFF Outdoor Ticket Box	9.17-9.26 08:30-20:30 *9.17 → Only reservation ticket issued	Credit card Debit card Cash
		Cinemountain 6F	9.18-9.26 08:30-20:30 *9.26 → 08:30-15:00	
	CGV Centum City 7F LOTTE CINEMA Centum City 8F		9.18-9.25 08:30-20:30	
	Korean Film Council 2F		9.18-9.25 08:30-20:30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F		9.18-9.25 08:30-20:30	
	Dongseo University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9.18-9.24 08:30-20:30	
	MEGABOX Busan Theater 4F		9.18-9.21 09:00-20:00	

Price

Type	Opening & 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 Cine Class	Actors' House / Master Class	Midnight Passion
Price	30,000 KRW	10,000 KRW	15,000 KRW	20,000 KRW

Notice on Ticket Reservations and Issuance

- Ticket purchases for **all seats are available online at the BIFF website**.
- ※ For the seats that are not sold out online or have been cancelled can be booked at the BIFF Ticket Box during the festival.
- ※ For digitally excluded audiences, we operate the BIFF Outdoor Ticket Box of Busan Cinema Center with a limited number of seats per film.
(This service is available only to eligible users.)
- To receive your paper ticket, please present your mobile ticket at the BIFF Ticket Box.
- Lost or damaged paper tickets **cannot be reissued**.

Cancellation and Refunds

- Cancellation is only possible up to 3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starts.
- Issued tickets can only be cancelled at the BIFF Ticket Box.
- Reservations are possible for up to two tickets at once per screening, and partial cancellation is allowed per ticket.
(For combined payments with mobile vouchers and credit cards, only full cancellation is possible.)
- **Cancellation fees are as follows:**
 - Before the festival (until Sep 16): Cancellation fee will be NOT charged.
 - During the festival (Sep 17-Sep 26): Cancellation fee will be charged per ticket. (KRW 1,000)
- In the case of screening schedule changes or cancellations announced by BIFF, full refunds will be offered until closing day, without any fees.

Theater Regulations

- As a rule, each screening begins on schedule. Entry is allowed until 1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Please note that once a screening begins, reserved seats may not be guaranteed.
- You must present a valid ticket (mobile or paper) at the theater entrance. Screenshots of mobile tickets or reservation confirmation messages (such as E-mail or Texts) will not be accepted and beare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 Admission to the theater is available 15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begins. It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n-site.
Please follow the guidance of the staff and volunteers.
- Ticket holders under the age of 19 are not allowed entry to X-rated movies, even if accompanied by an adult or guardian.
- Children under the age of 4 are not allowed to enter even if they are accompanied by their guardian.
- Alcoholic beverages or food purchased outside the Cinema are not allowed.
- Only bottled water is allowed in the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re, the KOFIC Theater, Dongseo University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and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Open Hall.
- All photography and video recordings are strictly forbidden, including during the trailers and the ending credits.
- ※ In the case of a Guest Visit or other events held in the theater, you may take photos following guidance from staff.

Lost-and-Found

Lost property will be stored at the closest BIFF information desk to the location where the item was acquired.
For lost items, contact the BIFF information desk close to you or the Call Center.

Service Desks For Digitally Excluded Audiences

- We operate a ticketing service center during the festival for audiences who have barriers to accessing the internet and engaging online.
- Location: BIFF Outdoor Ticket Box of Busan Cinema Center
 - Operation Period: Sep 17 (Wed) - Sep 26 (Fri)
 - Eligible Users: Seniors aged 65 and over (born in 1960 or earlier), persons with disabilities
 - Screenings Available for Purchase: Same-day screenings and the next morning's 1st and 2nd screenings excluding the Opening & Closing Ceremonies
 - ※ On the Opening day, September 17, only the first and second showings on September 18 are available at the on-site ticket box.
 - ※ Available tickets are limited, for which we seek your understanding.

Inquiries

- **Call Center: 1666-9177** * Operating Period 2025.8.26 (Tue)-10.02 (Thu)
- **E-mail: cs@biff.kr** * Operating Hours During the Festival 09:00-20:30 / Before the Festival 10:00-17:00 (Break time 12:00-13:30)
※ Does NOT operate on Weekends (Sat-Sun) and Holiday Before the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pose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unseling]

- The Center for Gender Equality in Korean Film: 02-552-7737
- Busan Culture and Art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Center: 051-558-8858
- Women's Emergency Hotline 1366 (Dial 1366 without the area code)

프로그램 섹션 Program Sections

경쟁

한 해 제작된 아시아영화 가운데 뛰어난 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Competition

This section celebrates outstanding Asian films from the year, recognizing exceptional aesthetic accomplishments.

갈라 프레젠테이션

거장 감독의 신작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화제작 가운데 감독이나 배우가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 섹션이다.

Gala Presentation

Influential filmmakers and actors present their films in Busan to celebrate their artistic achievements and engage with the audience.

아이콘

동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Icons

A showcase of the latest works by contemporary iconic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비전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과 아시아의 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으로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Vision

A curated selection of groundbreaking independent films of the year from Korea and Asia, offering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and Asian cinema.

아시아영화의 창

아시아의 중견감독들과 신인감독들의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화제작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최근 아시아영화의 주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A Window on Asian Cinema

Experience the diverse styles and visions of Asian cinema through outstanding works from established directors and emerging talents, capturing the spirit of contemporary Asian filmmaking.

한국영화의 오늘 - 스페셜 프리미어

특별한 대중적 매력과 위상을 지닌 동시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의 최신작 및 대표작을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섹션이다.

Korean Cinema Today - Special Premiere

A showcase of exclusive premieres featuring Korea's latest and most anticipated Korean commercial releases, films that capture special popular appeal and significance.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Korean Cinema Today - Panorama

An introduction to an array of the most significant and popular Korean films of the year, from commercial blockbusters to arthouse gems.

월드 시네마

비아시아권 중견 작가들과 신인 감독들의 신작 및 유수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포함하여 한 해 세계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섹션이다.

World Cinema

A panoramic view of the year in global cinema, featuring new works from established directors and emerging talents outside Asia and award-winning films from prestigious international festivals.

플래시 포워드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선보인 비아시아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관객 투표를 통해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을 수여한다.

Flash Forward

A platform for innovative and original first and second features by emerging non-Asian filmmakers. The winner of the Flash Forward Audience Award is selected by the audience.

와이드 앵글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Wide Angle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오픈 시네마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한다.

Open Cinema

Experience acclaimed new releases and international sensations that blend artistic excellence with broad appeal, screened under the stars at Busan's hallmark outdoor theater.

미드나잇 패션

작품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호러, 스릴러, 액션, SF 등 장르영화의 신작들을 심야에 상영하는 부문이다.

Midnight Passion

A selection of genre films—from horror and thriller to action and sci-fi—that are certain to keep devoted fans awake throughout the night.

온 스크린

영화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를 포괄하는, 그 해의 최신 드라마 시리즈 기대작을 상영하는 부문이다.

On Screen

An exploration of cinema's expanding horizons through screenings of the year's most anticipated drama series.

특별기획 프로그램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그 해의 주제에 따라 주목할 만한 영화인이나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섹션이다.

Special Program in Focus

A themed section illuminating the work of notable filmmakers or examining significant trends in contemporary cinema.



아시아영화진흥기구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he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congratulates
the opening of the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5.



Opening Film 개막작

No Other Choice — 어쩔수가없다



Korea | 2025 | 139min | DCP | color

001 Sep 17 / 20:00 / BT 020 Sep 18 / 09:00 / CX 083 Sep 19 / 11:30 / B1

베니스영화제 경쟁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이병헌)는 더없이 행복했었다. 직장은 무탈했고 아내 미리(손예진)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가정은 평화로웠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은 쇠락하기 시작한다. 취업은 어렵고 자존감은 곤두박질친 지 오래이며 생활고까지 서서히 엄습해 온다. 제지 전문가로서 재취업을 시도하던 중 자신보다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만수는 해괴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한다. <어쩔수가없다>는 동시대 한국영화 창작자들의 매혹적인 협업이 이뤄 낸 최상의 산물이다. 박찬욱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에 더해진, 각본, 촬영, 미술, 의상, 음악 등은 각자 고유한 독창성을 발휘하면서도 <어쩔수가없다>라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조화를 이룬다.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이라는 유능한 배우들의 연기 또한 빛난다. 특히나, 만수 역을 맡은 이병헌의 능란한 몸짓과 표정에는 절박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의 가여운 긴장감이 슬프면서도 우스꽝스럽게 새겨져 있어 관객의 심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어쩔수가없다>에는 세상의 모든 어찌지 못할 막강한 사건과 감정과 사태들이 계통 없이 쳐들어와 무차별하게 뒤흔든다. 어느 소시민의 이 가여운 발광(發狂)을 영화는 시종일관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정한석)

Man-su (Lee Byung Hun), the protagonist of *No Other Choice*, leads a happy life. He has a stable job, a beautiful wife named Miri (Son Ye-jin), and a peaceful family. That is, until the day he is laid off. From that moment, his life begins to unravel. The job hunt proves grueling, his confidence plummets, and hardship steadily closes in. Seeking work as a paper manufacturing specialist, Man-su realizes that his competitors are far more skilled than he is—and he decides to handle this situation in an outrageous way. *No Other Choice* is a high-caliber film born from a remarkable collaboration of leading talents in contemporary Korean cinema. With Park Chan-wook's masterful direction, the script, cinematography, art direction, costume design, and music each retain their singularity while blending seamlessly into a unified whole. The stellar cast—Son Ye-jin, Park Hee Soon, Lee Sung Min, Yeom Hye Ran, and Cha Seung Won—deliver outstanding performances. In particular, Lee Byung Hun portrays Man-su with a pathetic tension, depicting a desperate yet extremely clumsy man whose gestures and expressions evoke both sadness and humor, drawing the audience into his predicament with mixed emotions. In *No Other Choice*, uncontrollable events, emotions, and situations collide without warning, tumbling about chaotically. From start to finish, the film captures the pitiful frenzied outbursts of an ordinary man with a persistent grip on the viewers' attention. (JUNG Hanseok)

- 개막작 상영 시 휴대폰 및 전자장치를 활용한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며, 상영 중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Filming using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mobile phones is strictly prohibited and will be monitored during the screening.



PARK Chan-wook
박찬욱

1963년 서울 출생. <달은... 해가 뜨는 꿈> (1992)으로 데뷔했다. <공동경비구역 JSA> (2000), <복수는 나의 것> (2002), <신열한 금자사> (2005), <가짜> (2016) 등 다양한 연출작을 통해 관객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으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드보이> (2003)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박쥐> (2009)로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헤어질 결심> (2022)으로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아 한국 최초로 총 세 차례 칸영화제의 본상을 거머쥐며 거장으로의 위상을 보였다.

Born in Seoul in 1963, Park Chan-wook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Moon is... the Sun's Dream* (1992). Through a diverse range of films such as *Joint Security Area* (2000), *Sympathy for Mr. Vengeance* (2002), *Sympathy for Lady Vengeance* (2005), and *The Handmaiden* (2016), he has captivated both audiences and critics alike, establishing himself 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Korean cinema. Notably, he won the Grand Prix of the Jury at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Old Boy* (2003), the Jury Prize for *Thirst* (2009), and the Best Director Award for *Decision to Leave* (2022), becoming the first Korean director to win three major awards at Cannes and solidifying his status as a cinematic master.

Competition | 경쟁



뉴 커런트상 후보작 New Currents Award Nominees



World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부산국제영화제는 명백히 '아시아영화'를 중심에 둔 영화제다. 30년 전 출범 당시 '새로운 물결' 색선에 소개된 <하얀 풍선>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하고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아시아영화를 평가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아시아영화'라는 카테고리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날에는 같은 국적을 지닌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차이점과 차별성이 존재하고, 국경을 넘는 공동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어느 나라의 영화'라는 말보다는 '어떤 감독의 영화'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 아시아인들이 만든 영화에는 분명 독특한 특색과 정서가 존재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그렇기에 '아시아영화'를 아시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작업은 유의미해졌으며, 신설된 경쟁 색선을 통해 선보이게 된 14편의 작품은 수천 편의 출품작 가운데서도 신중을 거듭해 선정한 결과다.

경쟁 색선에는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혹은 젊은 거장으로 불리는 이들의 작품이 있다. 한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던 장물 감독이 중국으로 돌아가 만든 세 번째 작품 <루오무의 황혼>은 특유의 따뜻한 유머를 품고 있다. 시적인 리얼리즘의 대가 비록티 자야순다라는 <스파이 스타>를 통해 스리랑카 영화의 대표주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한층 공고히 할 것이다. 비잔의 <광야시대>는 100년에 걸친 시간을 넘나들며 영화에 대한 헌사를 바치고, 미야케 쇼는 <여행과 나날>에서 숨 막히게 아름다운 시적 재현을 선사한다. 여성 감독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선 베이커와 오랫동안 협업한 퍼우스칭의 <원손잡이 소녀>는 대도시 타이베이로 유입된 세 모녀의 고군분투를 묘사하며, 대만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녀>는 서거하는 촉망받는 감독을 주목하는 신호탄으로 기억될 작품이다. 나가타 고토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에서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기력 출중한 캐스팅을 토대로 서스펜스 넘치는 도망극을 선보이고, <69세>로 뉴 커런트 색선 KNN관객상을 수상한 입선에 감독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은 치유와 회복을 통한 성장을 차분하게 그려낸다. 한편, 아시아영화의 미학적 계보를 잇는 작품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출신 하산 나제르의 <허락되지 않은>에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유산을 느낄 수 있고, 이제한 감독이 <소피의 세계>와 <환희의 얼굴>을 통해 구축한 스타일이 <다른 이름으로>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타지키스탄에서 도착한 이자벨 칼란다의 <또 다른 탄생>은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어린 소녀가 깨우치는 인생의 슬픔이 깊은 정서적 울림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재능의 발견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정제된 흐름 속에서 자기만의 리듬을 지키는 <고양이를 놓아줘>의 시가자 다이스케, 패기 가득한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충충충>의 한창록, 독심 있는 데뷔작 <지우려 가는 길>의 유재인은 앞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다.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s always placed 'Asian cinema' at its core. In 1995, when *The White Balloon* by Jafar Panahi was introduced in the 'New Currents' section, it marked the beginning of a journey. Now, thirty years later, in 2025—when Panahi, who went on to win top honors at all three of the major film festivals, has been named Asian Filmmaker of the Year—Busan seeks to present new perspectives on Asian cinema and establish new benchmarks for evaluating it.

There has long been a critique that the category 'Asian cinema' is too broad. Today, even filmmakers from the same country can display sharp differences and distinctions, while cross-border collaborations are flourishing. Increasingly, films are identified less by 'which country' they come from than by 'which director' made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one can clearly discern unique sensibilities and characteristics in works made in Asia by Asian filmmakers. This is why looking at 'Asian cinema' through Asian perspectives has become meaningful, and why the fourteen works selected for this new competition section represent the result of rigorous and thoughtful deliberation among thousands of submissions.

The lineup includes films from both established masters and those already recognized as young auteurs. Zhang Lu, who worked for some time in Korea, returns to China with *Gloaming in Luomu*, infused with his characteristic warm humor. Vimukthi Jayasundara, master of poetic realism, further consolidates his standing as a leading figure in Sri Lankan cinema with *Spying Stars*. Bi Gan's *Resurrection* traverses a century of time as a cinematic homage, while Miyake Sho's *Two Seasons, Two Strangers* offers breathtaking poetic reimaginings. The presence of female directors is also striking. Left-Handed Girl by Tsou Shih-Ching, a longtime collaborator of Sean Baker, depicts the struggl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who migrate to the big city of Taipei. Set in 1980s Taiwan, *Girl* signals the arrival of the promising director Shu Qi. Nagata Koto presents a gripping fugitive drama in *BAKA's Identity*, built upon a tightly woven script and a strong ensemble cast. Lim Sun-ae, who previously won the KNN Award for New Currents Section with *An Old Lady*, returns with *Seven O'Clock Breakfast Club for the Brokenhearted*, a tender portrayal of healing and growth. Attention must also be paid to works that carry forward the aesthetic legacy of Asian cinema. In *Without Permission* by Iranian director Hassan Nazer, one feels the lineage of Abbas Kiarostami. Lee Jeahan, who has cultivated his style through *Sophie's world* and *The face of Hwanhee*, finds it fully realized in *By another name*. From Tajikistan, Isabelle Kalandar's *Another Birth* conveys profound emotional resonance as a young girl, surrounded by beautiful landscapes, awakens to the sorrows of life. And of course, the discovery of new talent is always exhilarating. *Leave the Cat Alone* by Shigaya Daisuke maintains its own rhythm within a carefully controlled flow. *Funky Freaky Freaks* by Han Chang-lok bursts with uncontrollable youthful energy. And Yoo Jae-in's steadfast debut, *En Route To*, introduces a new director whose name you must remember.

Competition 경쟁

Another Birth — 또 다른 탄생



Tajikistan/United States/Qatar | 2025 | 66min | DCP | color

006 Sep 18 / 17:00 / BH 088 Sep 19 / 17:00 / B2 462 Sep 23 / 14:30 / L9



WP

타지키스탄에서 한 편의 시와 같이 아름다운 영화가 도착했다. <또 다른 탄생>은 타지키스탄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녀의 이야기이다. 소녀는 어느 밤, 엄마에게 묻는다. “사람이 슬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요?”, “슬픔 때문에 사람은 사라져 갈 수 있단다.” 소녀는 다시 묻는다. “사라져 간다는 게 뭔가요?”, “인생의 맛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리며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할아버지, 외로운 삶 속에서 점차 시들어 가는 엄마를 바라보며, 소녀는 시를 읊고 현자를 찾아가고 파리(페르시아 신화 속의 요정)를 찾다니면서, 사라져 가는 할아버지와 엄마를 붙잡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타지키스탄의 사다라 계곡을 배경으로, 군더더기 없이 설계된 조명, 정지된 이미지가 사이의 섬세한 긴장감이 이 영화의 시적 정서를 한층 배가시킨다. 소녀가 읊는 시를 타고 엄마의 사랑과 슬픔, 절망이 음악처럼 유려하게 흐른다. 그리고 소녀는 엄마의 슬픔으로, 인생의 맛을 배운다. 타지키스탄계 여성 감독의 주목할 만한 첫 장편이다. (박선영)

A film as beautiful as a poem, *Another Birth* from Tajikistan follows a young girl living in a remote mountain village. One night, she asks her mother, “Can you die from sorrow?”, “It’s definitely possible to wither away from sorrow,” her mother answers. The girl asks again, “What does it mean to wither away?”, “It means to no longer have a taste for life.” As she watches her grandfather barely survive, longing for a son who never returned, and her mother wither away in her lonely existence, the girl reads poetry. She visits a wise man, and searches for Pari (mythical beings from Persian folklore) in a desperate attempt to keep her grandfather and mother from fading. The film’s poetic lyricism is heightened by its sophisticated lighting design and the subtle tension between still images, set against the picturesque Shakh dara Valley. As the girl recites verses, her mother’s love, sorrow, and despair flows like music, and she gets a taste of life through her mother’s sorrow. This is a noteworthy debut feature by a female Tajik filmmaker. (PARK Sun Young)

Isabelle KALANDAR
이자벨 칼란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타지키스탄계 미국인 감독으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영화 미디어학을 전공했다. 단편 <더 월>(2025)을 연출했으며 도하영화연구소의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 첫 번째 장편 연출작인 <또 다른 탄생>을 완성했다. 현재 일명 3부작으로 명명된 연작 장편 연출작인 <여전히,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죽음>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sabelle Kalandar is a Tajik-American filmmaker based in New York. A graduate of Columbia University with a degree in Film and Media Studies, she directed the short film *The Wall* (2025) and completed her debut feature *Another Birth* with a post-production grant from the Doha Film Institute. She is currently working on *Still We Must Live* and *When Soft Voices Die*, two installments of her “On Exile Trilogy.”

Director Isabelle KALANDAR **Executive Producer** Isabelle KALANDAR **Co-producers** Shahnoz ERONSHOH **Script** Isabelle KALANDAR

Cinematographer Janis BROD, Vladimir USOLTSEV **Editor** Kseniia FILIPPOVA **Music** Noah K, Rosie K **Sound** Alexandre KUZIN

Cast Shukrona NAVRUZBEKOVA, Isabelle KALANDAR, Shoirra ABDULGAEZKHONOVA

BAKA's Identity –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Japan | 2025 | 131min | DCP | color

005 Sep 18 / 12:30 / BH 087 Sep 19 / 13:00 / B2 537 Sep 24 / 13:30 / L9

WP

NAGATA Koto
나가타 고토

오사카 출신으로 간세이가쿠인대학교 상학부를 졸업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조감독으로 활동한 후 <연애편지 이야기> (2004)로 영화 연출을 시작했고 장편 <시부야마루아바스토라> (2006), <리틀 디제이> (2007), <산티 데이즈 365일 행복한 호흡> (2014) 등을 만들었다. TV 드라마 또한 연출하여 『장난스런 키스 ~ 러브 인 도쿄』 (2013), 『도로 러브 스토리』 (2020), 『타이문즈 스낵』 (2021) 등을 연출했다. 이 외에도 사세이도, 네슬레 등과 같은 기업 브랜드용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Born in Osaka, she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Commerce at Kansai Gakuin University. After working as an assistant director to Iwai Shunji, she began her directing career with *A Perfect Day for Love Letters* (2004). She went on to direct feature films including *Shibuya Maruyama Story* (2006), *Little DJ: A Little Love Story* (2007), and *Shanti Days: 365 Days of Happy Breathing* (2014). She has also directed television dramas such as *Mischief Kiss: Love in Tokyo* (2013), *Tokyo Love Story* (2020), and *Lion's Snack* (2021). In addition, she has worked on corporate branding videos for companies such as Shiseido and Nestlé.

3일간 벌어지는 도망극을 3인의 시점으로 그려낸 미스터리 서스펜스. 도시를 배회하는 다쿠야와 마모루는 SNS에서 여성인 척 위장하고 외로운 남성들을 유혹해 신분 암거래를 일삼는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손쉬운 돈벌이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범죄 조직에 깊숙이 발을 들인 이들은, 형처럼 가까웠던 가자타니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오려 한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넷플릭스 시리즈 『유유백서』의 키타무라 타쿠미, 아야노 고가 다시 호흡을 맞추며, 신에 하야시 유타가 가세했다. 오야부 하루히코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니시오 준의 원작 소설을 일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각본가 무카이 고스케가 각색했고, 이와이 슌지의 조감독 출신인 나가타 고토가 연출을 맡았다. 범죄 영화 속 주인공들의 끝은 대개 비극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다쿠야, 마모루, 가자타니 역시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화려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 일상과 비밀상, 선과 악, 욕망과 절망의 경계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발을 내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는 복잡한 인간 심리극이자, 젊은 청춘들의 성장담이며, 폭력이 현실에 깊숙이 침투한 현대 대도시를 냉정하게 비추는 자화상이다. (박가연)

BAKA's Identity is a suspenseful mystery depicting a three-day escape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individuals. Takuya and Mamoru wander the city, making a living by posing as women on social media to lure lonely men into an illicit identity trade. What began as an easy way to escape the shackles of poverty has pulled them deep into a criminal organization, and they now try to get out with the help of Kajitani, who is like a brother to them. Kitamura Takumi and Ayano Go, who starred in the massive Netflix hit *Yu Yu Hakusho*, reunite and are joined by newcomer Hayashi Yuta. The film is based on the original novel by Nishio Jun, a recipient of the Oyabu Haruhiko New Writers Award, and was adapted by Japan Academy Prize-winning screenwriter Mukai Kosuke. Directing this ambitious project is Nagata Goto, who previously served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Iwai Shunji. Crime films often lead their protagonists to a tragic ending. Takuya, Mamoru, and Kajitani are keenly aware that their fate is cloaked in uncertainty. Nevertheless, they do not hesitate to take a step forward, treading the boundaries of brilliant light and dark shadows, the 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good and evil, desire and despair. *BAKA's Identity* is a complex human psychological drama, a poignant story of three young men grappling with the weight of adulthood, and a sobering self-portrait of a modern metropolis where violence has deeply penetrated reality. (Karen PARK)

Director NAGATA Koto **Producer** MORII Akira **Script** MUKAI Kosuke **Music** DEWA Yoshiaki **Cast** KITAMURA Takumi, AYANO Go, HAYASHI Yuta, YAMASHITA Mizuki, YAMOTO Yuma, KINAMI Haruka

By another name – 다른 이름으로



Korea | 2025 | 95min | DCP | color

328 Sep 22 / 20:30 / BH 490 Sep 24 / 12:00 / B3 591 Sep 25 / 16:30 / C7

WP

시한부 판정을 받은 영화감독 제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제대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영화가 뭐길래, 자신을 갇아먹으면서까지 하느냐며 책망하는 아내 수진 몰래, 제현은 친구 지영의 도움을 받아 배우들을 만나고 영화를 진척시켜 나간다. 제현의 무모한 감행, 단호한 결심을 수진이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영화를 향한 제현의 이 뜨거운 열망은 후회와 회한, 집념과 체념, 고통과 환희, 죽음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내면의 투명한 얼굴과 다름 없다. 여기까지가 <다른 이름으로>의 전반부다. 세계 안에 깊숙이 매복해 있는 생의 불가해함, 서늘하기에 한층 더 매혹적인 그 세계의 면면과 흐름과 작동을 탐백한 구조와 신묘한 형식으로 있고, 떼고, 세우고, 허물고, 다시 짓기를 시도해 온 이제현 감독의 세 번째 장편이다. 앞부분과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후반부는 한층 더 과감하고 거침없다. 이제 이곳에 제현은 없지만, 아직 영화가 되지 못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을 수진이 영화로 완성하고자 한다. 그것이야말로 수진이 제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자 이유라는 듯이. 꿈과 현실이 무렵없이 이어지고, 유령과의 대화가 스스럼없고, 같은 얼굴의 다른 출현을 목격하며, 프레임 안팎의 긴장, 유머와 페이스, 결과의 영화가 아닌 과정의 영화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 그러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다른 이름으로> 앞에서 홀리듯 마음이 열린다. 영화와 사랑을 가까스로 붙잡고자 하는 이들의 무름은 가장하고 그 끝에 얻는 소박한 깨달음은 벅차다. 감동과 물기 어린 생의 기운은 반짝이며 되살아난다. (정지혜)

Film director Je-hyeon,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terminal illness, wants to make one last proper film in the time he has left. While his wife, Soo-jin, reproaches him, asking what is so important about film that he would destroy himself for it, Je-hyeon secretly meets with actors and moves forward with his movie with the help of his friend Ji-young. It won't be long before Soo-jin discovers Je-hyeon's reckless undertaking and resolute determination. This burning passion Je-hyeon has for film is nothing less than an expression of a complex inner world, one mixed with regret and remorse, obsession and resignation, pain and joy, death and love. This is the first half of *By another name*. This is the third feature film from director Lee Jeahan, who consistently explores the themes of connection, detachment, building, demolishing, and rebuilding with a plain structure and mysterious form. The director captures the incomprehensibility of life deeply embedded within the world, along with the facets, flow, and workings of that world, which are all the more fascinating due to its coolness. The second half, which unfolds after a time gap, is even more daring and unrestrained. Je-hyeon is no longer here, but his screenplay, which has not yet become a film, remains. Soo-jin decides to complete it. It is as if this is her way and her reason for remembering, loving, and living on for Je-hyeon. Dreams and reality connect without boundaries, conversations with ghosts casually occur, and we witness different forms of the same face. The film flows seamlessly, marked by tension between what is inside and outside the frame, humor and pathos, and a focus on the process of filmmaking rather than the result. Then, suddenly you find yourself before *By another name*, your heart opening as if enchanted. The willingness of those who strive to hold on to film and love is commendable, and the simple enlightenment gained at the end is overwhelming. The moving, vibrant energy of life sparkles and is revived. (JEONG Jihye)

Director LEE Jeahan **Producer** KIM Sumin **Script** LEE Jeahan **Cinematographer** KIM Sumin **Editor** Mareummo Film **Music** CHOI Yumsoon **Cast** MOON Inhwan, JUNG Hoelynn, HWANG Miyoung, JUNG Yiju, SUNG Jiwon

En Route To — 지우러 가는 길



Korea | 2025 | 106min | DCP | color

079 Sep 19 / 15:50 / BH 172 Sep 20 / 20:00 / B2 534 Sep 24 / 17:00 / L7

YOO Jaemin
유재민

1985년 출생. 홍익대학교 판화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미술가로 활동했다. 이디엑트,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민동의 워크숍을 통해 영화 연출을 시작했다. 단편 <해피해피쿠렁타임>(2017), <아편이>(2019), <쓰는알>(2021)을 연출했고 <과와만사상>(2023)으로 청룡영화상 청정원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첫 장편 연출작 <지우러 가는 길>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전제작 과정과 장편제작연구 과정 졸업작품이다.

Born in 1985, Yoo Jaemi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rintmaking at Hongik University and works as an artist in Seoul. She started directing films through workshops at Mediact and OhJezemidong, Chungmu Media Center. She directed the short films HAPPYHAPPY COOKINGTIME (2017), Hey, How Are You? (2019), and return to sender (2021), and won the Chung Jung-won Best Short Film award at the Blue Dragon Film Awards for Gwa The Last Name (2023). Her first feature film, En Route To, is her graduation project from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pre-production and feature film production research programs.

보통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윤지는 담임선생 종성과 비밀 연애를 하다 임신까지 했다. 종성은 연락이 닿지 않고 며칠째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종성의 아내 민영이 남편을 찾겠다고 학교로 뛰어다치고 실종 신고까지 한 상태다. 아이를 원치 않던 종성과 다르게 출산해 자신에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기길 바랐던 윤지는 이제 아이를 지우기만 하면, 종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불법적으로 약을 구하고, 동물병원을 찾고, 임신중지를 시도한다. 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온한 여정에 룸메이트 경선이 동행한다. <지우러 가는 길>이 직면한 상황은 심각하고 과격하고 충격적일 만하다. 단지 세속의 세계에서 말하는 사안의 중차대함이나 이후 진행될 일련의 예측할 수 있는 파장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골몰할 마음이 없다는 게 이 영화의 진정한 아심이다. 비밀과 거짓말 사이로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윤지는 한층 당돌하게 욕망을 행동으로 하나씩 옮기고 보기 좋게 깨진다. 인물들은 자신이 믿었거나, 믿고 싶었거나,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실은 얼마나 매정한가를 정확히 목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수하고 낭만적인 학원물이나 윤리극이 아니라 야멸찬 통속의 세계 앞에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마구 흔들리는 격정적 격랑의 드라마이다. 이 난장 속에서도 유머라는 숨구멍, 우정과 동행이라는 출구를 잃지 않고 마침내 자기식의 결론에 이르는 소녀들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는 영화의 독심이 신통하다. (정지혜)

This is no ordinary matter. Yoon-ji, a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 is pregnant from a secret affair with her homeroom teacher, Jong-seong. Jong-seong is unreachable and hasn't shown up at school for days. His wife, Min-yeong, has stormed into the school looking for her husband and even filed a missing person's report. Unlike Jong-seong, who did not want the child, Yoon-ji had hoped to give birth and finally have a family of her own. Now, she firmly believes that if she just gets rid of the baby, Jong-seong will return. She illegally obtains pills, seeks out a veterinary clinic, and attempts to terminate the pregnancy. Her roommate, Kyeong-seon, accompanies her on this anxious, uncomfortable, and unsettling journey. The situation faced in *En Route To* is serious, radical, and potentially shocking. This is not merely because of the gravity of the matter in a secular sense or the series of predictable repercussions that will follow. Rather, the film's true ambition lies in its lack of interest in dwelling on such things. Just as a subtle war of nerves seems to unfold amidst secrets and lies, Yoon-ji boldly carries her desires into action, one by one, only to be spectacularly broken. The characters will witness precisely how merciless the world they believed in, wanted to believe in, or thought they had to believe in, truly is. Therefore, this is not a pure and romantic school drama or a moral tale, but a drama of fierce passion and turbulent waves where both adults and children are violently shaken before a cold-hearted, worldly reality. Yet, even in this chaos, there are girls who do not lose moments of humor or the exit of friendship and companionship, ultimately reaching their own kind of conclusion. The film's fortitude in handling this is remarkable. (JEONG Jihye)

Director YOO Jaemin Executive Producer JOH Gunshik Producer KIM Jihyoung Script YOO Jaemin Cinematographer BAEK Jaeryung

Production Design AHN Dukjin Music LEE Eunjo Music Sound KIM Soohyun Cast SIM Subin, LEE Jiwon, JANG Sun

Funky Freaky Freaks — 충충충



Korea | 2025 | 87min | DCP | color/b&w

161 Sep 20 / 11:30 / BH 255 Sep 21 / 16:30 / B3 460 Sep 23 / 18:00 / L7

HAN Chang-lok
한창록

1990년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뒤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에서 수학했다. 단편 <멜로영화>(2013),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2014), <배창호 SHOW>(2019)를 만들었으며 최근 연출한 <구경>(2024)으로 로테르담 영화제, 루블랭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국내외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Han Chang-lok was born in 1990. After graduating from the School of Film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he studied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has directed the short films Love Film (2013), The Saturday night and Sunday morning (2014), and BAE Chang-ho SHOW (2019). His most recent film, Peepser (2024), has been invited to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the Lublin Film Festival, and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한창록의 수수께끼 같은 첫 번째 영화 제목은 영화 중간에 차례로 등장하는 세 개의 타이틀 '충(衝)동', '충(衝)돌', '충(衝)격'의 앞의 세 글자를 하나로 모은 것이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여학생 지숙, “이 소녀를 지키는 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는 남자 친구 용기, 그들과 어울리는 덤보는 첫 장면 애벌레처럼 꿈지락거리면서 함께 모여 지낸다. 그런데 학교에 ‘꽃미남’ 우주가 전학을 오고 지숙이 한눈에 반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소개하면 클리셰 뒤범벅을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한 이야기는 훨씬 일찍 끝난다. 활기에 가득 찬 카메라는 시종일관 날뛰고, 장면들을 파편화시켜 MTV 콜라주처럼 펼쳐지는 이미지 액션과 후반 작업에서 거의 덧칠한 것 같은 색채의 스펙터를 위로 드림 앤 베이스 사운드는 주인공들의 심장처럼 요동친다. 사랑과 배신의 반복 사이에서 모두 어쩔 줄 모르지만 아무도 이걸 유행가 가사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스꽝스러운 시작은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비통하리만큼 참혹한 상황으로 추락하듯이 달려간다. (정성일)

The enigmatic debut feature by Han Chang-lok takes its original title, *Chung Chung Chung*, or *Funky Freaky Freaks* when translated in English, from the first syllables of three chapter headings that appear midway through the film: ‘Chung-dong’ (impulse), ‘Chung-dol’ (collision), and ‘Chung-gyeok’ (shock). Ji-sook, a high school girl with her own troubles; her boyfriend Yong-gi, who believes that, “protecting this girl is the same as saving the world”; and their friend Dum-bo, hang out together, wriggling about like the caterpillars in the opening scene. However, problems arise when ‘pretty boy’ Woo-joo transfers to their school and Ji-sook falls for him at first sight. From such a setup, one might expect a bundle of clichés, but the story you’re anticipating ends much earlier than you think. The exuberant camera never sits still, fragmenting scenes into image bursts that play out like an MTV collage. Over this spectacle of colors, which seem almost painted over in post-production, a drum and bass soundtrack throbs like the protagonists’ racing hearts. Caught in a cycle of love and betrayal, everyone is at a loss, yet no one would dare call it a cliché pop song lyric. The comical beginning hurtles toward a downfall far more tragically brutal than you can imagine. (JUNG Sung-il)

Director HAN Chang-lok Producer LEE Seung-moo, CHOI Yong-bae Script HAN Chang-lok Cinematographer KIM Jong-soo

Production Design KIM Ye-sle Editor KIM Ji-hyun, HAN Chang-lok Music Livigesh Sound HA Yoon-june

Cast JOO Min-hyeong, BAEK Ji-hye, JEONG Soo-hyun, SHIN Jun-hang



Taiwan | 2025 | 124min | DCP | color

241 Sep 21 | 12:00 / BH 333 Sep 22 | 12:30 / B2 493 Sep 24 | 09:00 / CX

Shu Qi
서기

서기는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일만배-엄
만보>(2001), <쓰리타임즈>(2005), <자객
섬은남>(2015) 등에 출연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또한,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에서
모두 심사위원을 맡은 최초의 대만 배우
이기도 하다. <소녀>은 첫 번째 장편 연출작
으로 베니스영화제, 토론토영화제에 초청
되었다.

Shu Qi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her performances in Hou Hsiao-hsien's films,
including *Millennium Mambo* (2001), *Three
Times* (2005), and *The Assassin* (2015). She
is also the first Taiwanese actor to serve on
the juries of the Cannes, Berlin, and Venice
film festivals. *Girl*, her feature directorial
debut, was invited to both the Venice and
Toronto film festivals.

샤오리는 영화에서 꼭 두 번 웃었다. 리리와 노래방에 갔을 때, 그리고 자신을 혼자 남겨두고 떠난 줄
알았던 리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감정 표현이 없는 소녀 샤오리는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 아빠,
샤오리에게만 유독 가혹한 미용사 엄마,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과 살고 있다. 높은 계단을
올라야 갈 수 있는 꼭대기 작은 집에 사는 샤오리는 아빠가 살림을 때려 부수고 엄마에게 폭력을 가해도,
유일한 자신만의 공간인 캐비닛 옷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악몽을 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어느 날,
리리라는 미국에서 온 전학생을 만나면서 샤오리는 일탈을 꿈꾸기 시작한다. 1988년을 배경으로 한 <소녀>
는 감성적인 화면의 색감과 짙어진 미장센만으로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는 힘이 있다. 엔딩 크레딧에
그저 '여자'로 표시된 샤오리의 엄마는 자신의 현재를 구성하는 과거의 상처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샤오리에게 전가되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소녀>는 등장인물들의 농축된 감정들과
그 감정들의 부딪힘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밀도 있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서사는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와 좁은 공간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카메라를 통해 더욱 힘을 얻는다. <소녀>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한
서기 감독은 수려한 연출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신인 감독의 탄생을 성공적으로
알린다. (박선영)

Hsiao-lee smiles only twice in the entire film—when she goes to karaoke with Li-li, and when Li-li returns after a prolonged
absence. A girl who doesn't show emotions, Hsiao-lee lives with her abusive alcoholic father, harsh hairstylist mother, and a
younger sister who monopolizes their mother's love. They are all crammed in a small apartment atop a building, reachable
only by steep stairs. When her father smashes household items and strikes her mother, Hsiao-lee can only retreat to a corner
of the closet—her only private space—and have nightmares. One day, she meets Li-li, a transfer student from an American
school, and begins dreaming of escape. Set in 1988, *Girl* transports audience to those times through evocative colors and tightly
constructed mise-en-scene. Hsiao-lee's mother, credited only as 'Woman,' is unable to escape from the past wounds that define
her present. Her wounds are directly passed down to Hsiao-lee, creating new ones. *Girl* builds an intricate narrative by layering
the characters' concentrated emotions and their clashes. This narrative grows even more powerful through the actors' detailed
performances and a camera that tenaciously delves into cramped spaces. Writer-director Shu Qi proves her directorial prowess
in this film, successfully announcing herself as a promising new director. (PARK Sun Young)

Director Shu Qi **Executive Producer** YEH Jufeng, QIN Hong **Cinematographer** YU Jing-Pin **Production Design** HUANG Mei-Ching, TU Shuo-Feng
Editor CHANG William Suk-Ping, LAI Kwun-Tung **Music** LIM Giong **Sound** WU Shu-Yao, TU Duu-Chih **Cast** Roy CHIU, 9m88, BAI Xiao-Ying



China | 2025 | 99min | DCP | color

243 Sep 21 | 20:00 / BH 335 Sep 22 | 20:00 / B2 620 Sep 25 | 15:30 / BCM

WP

30분만 걸으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마을 루오무의 게스트하우스. 바이는 3년 전에 받은, 오래 전에
헤어진 남자 친구 왕의 엽서 한 장을 들고 이곳에 찾아왔다. “루오무의 황혼”이라 적힌, 뜻 모를 엽서를
들고 마을을 산책하면서 바이는, 곳곳에서 왕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항상 와인 잔을 들고 다니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리우와 그의 남자 친구 황, 리우의 술친구인 샤오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손님과 마을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바이의 일상에 등장하면서, 조용히 며칠 머물다 가려던 바이의
계획은 조금씩 소란스러워진다. 한동안 한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장물 감독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만든 세 번째 영화인 <루오무의 황혼>은 그의 전작들처럼 따뜻하고 때때로 유머러스하다. 특, 특 던지듯
주고받는 인물들의 대화는 사소하기도 하고, 때로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솔직하고
따뜻하며, 저마다의 결함을 가진 인물들은 묘하게 매력적이다. 도시의 산책자를 자처했던 장물의
카메라는, <루오무의 황혼>에서는 바이를 따라 좁다란 마을 길을 걷다가 멈춰서 360도 패닝하면서
‘아리랑’에 맞춰 등장인물들이 막춤을 추는 장면은 장물 영화의 엿박자 리듬이 담아내는 따뜻한 유머와
위로이다. (박선영)

In Luomu, a town small enough to explore in just 30 minutes, Bai arrives at a guesthouse with a three-year-old
postcard from her ex-boyfriend Wang that's inscribed with the mysterious words 'Gloaming in Luomu.' As she
walks through the town with the postcard, she encounters Wang's traces in different places. Her plans for a
short, quiet stay are soon disrupted by the locals and guests, including Liu, the wine-loving guesthouse owner;
her boyfriend Huang; and her drinking buddy Peng. *Gloaming in Luomu* is Zhang Lu's third film that was shot in
China after years of working in Korea. Like his earlier works, it's filled with warmth and humor. The dialogue scenes,
exchanged in short, almost offhand bursts, are trivial at times yet reveal deep wounds at others. But the tone
remains consistently honest and warm, while the characters, flawed in their own ways, are peculiarly charming.
Zhang's camera, which once wandered the city, now follows Bai along the town's narrow streets, pausing to pan 360
degrees to capture the surrounding mountains and the twilight settling upon them. The scene where the characters
dance to a techno-infused version of 'Arirang' reflects Zhang's gentle humor and comfort in the offbeat rhythm of
his film. (PARK Sun Young)

ZHANG Lu
장물

중국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겸
프로듀서. 첫 번째 장편 연출작 <당사>
(2004)로 로카노영화제에 초청됐으며
<망종>(2005)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커런츠상,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AOC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연출작으로 <두만강>
(2009), <경주>(2014)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춘몽>(2016) 등이
있다. <백담지관>(2023)은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고 남트3대륙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인 몽골피에르상을 수상했다.

A Chinese film director, screenwriter, and
producer. His first feature film, *Tang Poetry*
(2004), was invited to the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ith *Grain in Ear* (2005) he
won the New Currents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AOC Award
during the Critics' Week at the Cannes Film
Festival. His major works include *Qomolangma*
(2009), *Gyeongju* (2014), and *A Quiet Dream*
(2016), which was selected as the opening
film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recent film *The Shadowless Tower* (2023)
was invited to the Competition section of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on the
Golden Balloon Award at the Nantes Three
Continents Festival.

Director ZHANG Lu **Associate Director** LI Siyang, LEI Xiyang **Producer** PENG Jin **Script** ZHANG Lu **Cinematographer** PIAO Songri
Production Design ZHENG Yican **Editor** LIU Xinzhu **Sound** WANG Ran **Cast** BAI Baihe, LIU Dan, HUANG Jianxin

Leave the Cat Alone – 고양이를 놓아줘



© 2025 "Leave the Cat Alone" film partners

Japan | 2025 | 102min | DCP | color

162 Sep 20 / 15:00 / BH 250 Sep 21 / 14:00 / B2 458 Sep 23 / 12:00 / L7



WP

SHIGAYA Daisuke
시가야 다이스케

일본 가나가와 출생. 니혼대학교 예술 학부를 졸업했다. 단편 연출작 <봄 같은 연인>(2017)은 일본 피아영화제, 타마 뉴 웨이브의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되어 상영했으며, 2021년 연출작 <창문>(2021)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아시아 단편 경쟁에서 상영되었다. <고양이를 놓아줘>는 첫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Born in Kanagawa, Japan, he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Art at Nihon University. His short film *Spring Like A Lover* (2017) was selected for the official competition sections of the Pia Film Festival and Tama New Wave in Japan. His 2021 short *Window* was screened in the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of the Wide Angle section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ave the Cat Alone* is his feature debut.

불면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모리는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지 못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사진작가로 성공한 아내 마이코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간다. 한때 연인이었던 모리와 아사코가 우연히 재회하고 안부를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 더듬는 기억 속에서 서로 다른 과거를 마주한다. 집으로 돌아온 아사코를 기다리는 것은, 현재의 연인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다. 그리고 마이코의 전시회에서 모리는, 그녀의 애정 어린 프레임 속에 포착된 자신의 소소한 일상 풍경들을 발견한다. 2021년 단편 <창문>으로 와이드 앵글 섹션에 초청되었던 시가야 다이스케 감독의 장편 데뷔작 <고양이를 놓아줘>는 미묘하게 얽힌 감정의 결을 섬세하고 예민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영화 중반부 모리와 아사코의 기억이 비껴가면서, 시간과 사실은 의도적으로 혼동되고 분절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관되게 담담하고 고요하다. 이처럼 서사적 충실함보다 감정적 개연성에 집중하는 영리한 선택이, 결말에 이르러 마이코가 현관문 앞에서 느끼는 작은 감동을 선사한다.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삶 곳곳에 숨어 있는 사소한 만족들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박가연)

Plagued by insomnia and lethargy, Mori lets time drift aimlessly, unable to create any meaningful music, all while uneasily sharing a home with his wife, Maiko, a successful and driven photographer. When Mori and his former lover, Asako, reunite by chance and catch up, they confront different versions of the past within their own recalled memories. After they part ways, Asako comes home to a warm meal lovingly prepared by her partner, and a rekindled desire to paint again. At the same time, Mori visits Maiko's exhibition, and discovers scenes of his own daily life, captured within her affectionate frames. *Leave the Cat Alone*, the feature debut from director Shigaya Daisuke, who was previously invited to the Wide Angle section for his short film *Windows* (2021), unravels the texture of subtly entangled emotions with a delicate and sensitive gaze. As Mori's and Asako's memories diverge in the middle of the film, time and fact are intentionally confused and fragmented, yet the overall atmosphere remains consistently calm and quiet. The director's deliberate choice to focus on emotional authenticity over narrative completeness delivers a simple, touching moment that Maiko feels at her front door near the end of the film. Perhaps the answer to the question, “Are you happy now?” lies within the small moments of content that find us throughout life. (Karen PARK)

Director SHIGAYA Daisuke Associate Director SHIZUKU Tsukasa Producer ITAYA Hiro

Cinematographer HIRAI Ryo, MISHIRO Fumiya

Editor SAKATA Takahiro Music FUJII Soma Sound SYONO Rentaro, ARAKAWA Syotaro

Costume Stylist MATSUI Hiroki

Cast FUJII Soma, MURAKAMI Yukino, TANIGUCHI Ran

Left-Handed Girl – 왼손잡이 소녀



© 2025 LEFT-HANDED GIRL FILM PRODUCTION COMPANY LIMITED. ALL RIGHTS RESERVED

Taiwan/France/United States/United Kingdom | 2025 | 108min | DCP | color

326 Sep 22 / 12:30 / BH 414 Sep 23 / 12:20 / B3 567 Sep 25 / 12:30 / CX



쉬편과 그의 두 딸, 이안과 이칭은 타이베이에 좁은 집으로 이사한다. 쉬편은 야시장에 조그만 국수 가게를 열고, 이안은 거리의 작은 가게에서 빈랑(베를릿)을 파는 ‘베를릿걸’로 일한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이칭은 엄마의 야시장에서 나름의 생존 방식을 익혀 나간다. 그러나 쉬편의 국수 가게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이안은 가게 주인과 애인 사이이지만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어느 날, 이칭은 할아버지에게 왼손은 ‘악마의 손’이라서, 왼손으로 하는 일은 ‘악마의 일’이니 왼손을 쓰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칭은 어쩔지 자신의 왼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나쁜 일을 하는 것 같다. 복잡하고 활기찬 타이베이의 야시장에서 세 모녀는 각자의 문제를 안고 고군분투한다. <왼손잡이 소녀>는 핸드헬드 촬영, 선명한 색깔, 속도감 있는 편집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타이베이의 야경을 묘사하는 한편, 도시로 유입된 세 모녀가 처하는 경제적, 심리적 곤궁을 사실적이면서도 때로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세 모녀,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이칭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와 인물들이 매력적이다. <왼손잡이 소녀>는 선 베이커 감독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이자 <테이크 아웃>(2004)의 공동 연출자인 쉘우싱의 두 번째 연출작으로, 선 베이커 감독이 공동 각본, 편집, 프로듀서를 맡았다. (박선영)

Shu-Fen and her two daughters, I-Ann and I-Jing, move to a cramped apartment in Taipei. Shu-Fen opens a small noodle shop in the night market while I-Ann works at a betel nut stand as a “betel nut beauty.” Little I-Jing, still in kindergarten, finds her own way to survive in the night market, where her mother works. Unfortunately, Shu-Fen's noodle shop doesn't generate enough profit for the high rent, and I-Ann maintains an unstable romantic relationship with her boss. One day, I-Jing's grandfather tells her not to use her left hand, as it belongs to the devil and is a vehicle for evil deeds. I-Jing begins to feel as though her left hand is doing evil without her knowledge. In Taipei's crowded, bustling night market, the mother and daughters each struggle with their own problems. *Left-Handed Girl* captures Taipei's nightlife through handheld shots, vibrant colors, and fast-paced editing, while portraying the three women's economic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city with realism, peppered with humor. Each has her distinct personality, but the city and people seen through adorable I-Jing's eyes are particularly charming. Sean Baker co-wrote, edited, and produced this second feature by Tsou Shih-Ching, who has long collaborated with him as a producer and co-directed *Take Out* (2004). (PARK Sun Young)

TSOU Shih-Ching
쉘우싱

대만에 미국인 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 배우, 선 베이커와 공동 연출한 <테이크 아웃>(2004)으로 감독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스타렛>(2012), <렌지완>(2015),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 <레드 로켓>(2021) 등 선 베이커의 주요 연출작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첫 번째 단편 연출작인 <왼손잡이 소녀>은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에서 상영했다.

Tsou Shih-Ching is a Taiwanese-American director, producer, and actor. She began her directorial career with *Take Out* (2004), co-directed with Sean Baker, and has since produced several of Baker's films, including *Starlet* (2012), *Tangerine* (2015), *The Florida Project* (2017), and *Red Rocket* (2021). Her first solo directorial venture, *Left-Handed Girl*, premiered in the Critics' Week section at the Cannes Film Festival.

Director TSOU Shih-Ching Executive Producer Alex C. LO, Aditya CHAND, Jennifer JAO

Producer Sean BAKER, Alice LABADIE, Mike GOODRIDGE, Jean LABADIE

Script TSOU Shih-Ching, Sean BAKER Editor Sean BAKER

Cast MA Shih-Yuan, Janel TSAI, Nina YE

Competition 경쟁

Resurrection — 광야시대



China/France | 2025 | 156min | DCP | color
404 Sep 23 / 14:30 / BH

Bi Gan
 비간

1989년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 출생의 영화감독이자 시인으로 장편 연출작 <카일리 블루스>(2015)로 로테르담, 카를로비나리,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로카르노영화제와 금마장영화제에서 최우수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후 두 번째 장편 <지구 최후의 밤>(2018)은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과 로테르담영화제, 토론토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세 번째 영화 <광야시대>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Born in 1989 in Kaili, Guizhou Province, China, Bi Gan is a film director and poet. His feature debut, *Kaili Blues* (2015), was invited to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Rotterdam, Karlovy Vary, and Busan, and earned him the Best New Director awards at both the Locarno Film Festival and the Golden Horse Awards. His second feature,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2018), was selected for Un Certain Regar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also screened at Rotterdam and Toronto. His third film, *Resurrection*, was invited to the Competition section of the Cannes Film Festival.

어느 미래의 광야시대. 꿈꾸지 않는 자들은 영생할 수 있다는 비밀을 발견한 인류는, 비밀리에 계속 꿈을 꾸면서 역사에 혼동을 가져오고 시간의 오류를 만드는 '판타스머'들을 각성시키고자 한다. '빅 아더'는 판타스머를 깨우고 시간을 순차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중 한 빅 아더(서기)는 오랫동안 숨어서 꿈을 꾸는 판타스머(이양천새)를 찾아다닌다. 마침내 판타스머를 맞닥뜨린 빅 아더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 그렇게 판타스머는, 1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네 번의 꿈을 꾀다. 비간의 <광야시대>는 무성영화 같은 프롤로그로 시작된다. 그리고 판타스머가 꾸는 꿈을 통해 SF, 표현주의, 누아르, 슬랩스틱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영화장르들을 번주하고 오마주하면서, 마지막 꿈속에서 마침내 비간의 인장과도 같은 30여 분의 놀라운 롱테이크 신에 도달한다. 네 개의 꿈 장면은 판타스머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각각 전혀 다른 장르와 인물들로 이루어진 짧고 매력적인 영화로, 영화 속의 영화로 콜라주 된다. 에필로그에 이르러 무너져 가는 극장들과 빛으로 사라지는 관객들까지, <광야시대>는 영화사 100년에 대한 비간의 애정 어린 헌사이며 극장의 시대에 대한 다소 이른 노스탤지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시대>가 증명하듯이, 판타스머처럼, 그리고 마치 비간 그 자신처럼, 꿈꾸는 이들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극장의 시대는 계속 될 것이다. (박선영)

In a wild era, humans discover they can live indefinitely if they do not dream. They attempt to wake the 'Fantasmers,' people who continue to dream in secret, causing chaos in history and making time jump. The people tasked with waking Fantasmers to keep time linear are called 'The Big Others.' One of them, played by Shu Qi, searches for a Fantasmer (Jackson Yee) who has been dreaming in hiding for years. When she finally confronts him, the Big Other allows him one last dream, and the Fantasmer dreams four times across 100 years. Bi Gan's *Resurrection* opens with a silent film-style prologue. Through the Fantasmer's dreams, it offers variations on and pays homages to sci-fi, expressionism, noir, slapstick comedy, thriller, and other genres, and, in the last dream, culminates in a remarkable, over 30-minute long take that is like Bi Gan's signature. The four dream sequences are captivating short films in themselves—each with distinct genres and characters, connected only by the Fantasmer's presence—collaged together as nested narratives. With its epilogue showing collapsing theaters and audiences fading to light, *Resurrection* is Bi Gan's affectionate tribute to cinema's centennial and a little too soon for nostalgia for the era of theaters. Yet as *Resurrection* proves, dreamers—like Fantasmers, like Bi Gan himself—will continue to create new films, and the era of theaters will never end. (PARK Sun Young)

Director Bi Gan **Producer** Bi Gan, WAN Juan, SHAN Zuolong, Charles GILLIBERT, YANG Lele **Script** Bi Gan, ZHAI Xiaohui **Cinematographer** DONG Jingsong
Editor Bi Gan, BAI Xue **Music** M83 **Sound** LI Danfeng **Cast** YEE Jackson, Shu Qi, CHAO Mark, LI Gengxi

Competition 경쟁

Seven O'Clock Breakfast Club for the Brokenhearted —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



Korea | 2025 | 108min | DCP | color
327 Sep 22 / 16:30 / BH **447** Sep 23 / 12:00 / L4 **550** Sep 24 / 20:00 / SH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그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저 유명한 첫 문장을 빌려오자면 불행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꼴이 하나도 없다. 행복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인 데 반해 불행은 어떤 퍼즐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백영옥 작가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은 바로 이 상실과 결핍의 퍼즐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제목 그대로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모여 아침 7시에 조찬을 먹고 다 같이 이별영화를 보는 모임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실연기념품을 교환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 자리에, 연인과 헤어진 비행기 승무원 사강(수지)과 컨설턴트 강사 지훈(이진욱)도 참석하게 된다. 실연 후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한 이들의 시간을 그리는 영화는 이들의 사연을 여러 각도에서 다시 복기하며 공감의 통로를 확보한다. 보편적인 이야기, 익숙한 캐릭터에 특별함을 더하는 건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다. 여기에 사연을 설명하기보다 인물의 처지와 감정의 파장을 관찰하는데 집중하는 임선에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타인의 이야기에 생명을 더한다. 과거가 되지 못한 것들이 현재에 계속 말을 걸어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기계적인 위로 대신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의 흔적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송경원)

Borrowing the famous opening line of Tolstoy's novel *Anna Karenina*—"All happy families are alike;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one might say that unhappiness may look similar, but no two cases are ever the same. Happiness is when every piece of the puzzle fits perfectly, while unhappiness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a piece one cannot quite identify. Based on Baek Young-ok's novel, *Seven O'Clock Breakfast Club for the Brokenhearted*, is a story about searching for those missing and lost pieces. As the title suggests, there is a gathering where people nursing heartbreak meet at seven in the morning to share breakfast and watch breakup-themed films together. They also exchange keepsakes from their past relationships and tell their stories. Among them are flight attendant Sa-gang (Suzy), who has just broken up with her partner, and consultant-lecturer Ji-hoon (Lee Jin-uk). The film follows people who have not been able to fully let go after a breakup, revisiting their stories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opening a channel for empathy. What sets apart this universal story and familiar characters is the vitality of the actors' performances. Adding to this, director Lim Sun-ae brings delicate nuance by focusing not on explaining the characters' situations but on observing the reverberations of their emotions, breathing life into the stories of others. What should we do when the past, unresolved, continues to speak to the present? Rather than offering mechanical comfort, the film urges us to reflect on how to face the traces left behind after love has ended. It carries the power to make us contemplate these remnants together. (SONG Kyung-won)

Director LIM Sun-ae **Script** JUNG Yi-an, LIM Sun-ae **Cinematographer** LEE Jin-geun **Production Design** KIM Hee-jin **Editor** PARK Se-young
Music Primary **Sound** LEE Seong-jun **Cast** Suzy, LEE Jin-uk, YOO Ji-tae, KEUM Sae-rok

LIM Sun-ae
 임선애

1978년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에서 국영화사나리오를 전공했다. 첫 번째 장편 연출작 <69세>(2019)로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 섹션 KNN 관객상, 2020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세기말의 사랑>(2023)을 연출하여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됐다.

Born in 1978, Lim Sun-ae majored in fiction film screenwriting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r feature directorial debut, *An Old Lady* (2019), won the KNN Award for New Currents section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Best Women Filmmaker of the Year award in 2020, and the PARK Nam-ok Award at the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SIWFF). She went on to direct *Ms. Apocalypse* (2023), which was invited to the Korean Cinema Today – Panorama section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ying Stars — 스파이 스타



France/Sri Lanka/India | 2025 | 99min | DCP | color

405 Sep 23 / 19:30 / BH 492 Sep 24 / 19:30 / B3 617 Sep 25 / 14:30 / KT

WP

Vimukthi JAYASUNDARA

비목티 자야순다라

1977년 스리랑카 출생. 갈레의 마힌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술 및 정치 운동에 참여하며 작가, 평론가, 사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 세 편의 단편을 연출했으며 <버려진 땅>(2005)으로 장편 데뷔하여 칸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했다. 이후 두 번째 장편 <두 개의 세상>(2009)으로 베니스 영화제와 로테르담영화제, <버섯>(2011)으로 칸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그 외 연출작으로 <마지막 순간의 빛>(2012), <별빛속의 어둠>(2015), <순간>(2019) 등이 있다.

Born in Sri Lanka in 1977, Vimukthi Jayasundara has been active as an author, film critic, and screenwriter. A graduate of Mahinda College in Galle, he has participated in both political and artistic movements. As a teenager, he directed three shorts and made his feature debut with *The Forsaken Land* (2005), which won the Camera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Subsequently, he was invited to major film festivals, including Venice and Rotterdam for his second feature *Between Two Worlds* (2009), and Cannes and Toronto for *Mushrooms* (2011). His other works include *Light in the Yellow Breathing Place* (2012), *Dark in the White Light* (2015), and *Instantaneous* (2019).

우주에서 몇 년을 보내고 막 지구에 도착한 생명공학자 아난디는 최근 지구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일바이브’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산속 외딴 리조트의 격리시설로 보내진다. 풍경은 그림 같고 시설은 고급스럽지만, 아난디는 숨겨진 감시카메라, 지구로 다가오는 UFO, 그리고 이유 없이 잡혀가거나 죽어 나가는 마을 사람들 등 곳곳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다. 최근 일바이브 팬데믹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골함이 도착하자, 아난디의 죄책감과 괴로움은 고조된다. 어느 날 아난디는 숲속으로 도망쳐, 자신을 감시하던 리조트 직원 니타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되고, 세상과 격리된 채 살고 있는 니타 모녀와 교감하면서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스리랑카 영화를 세계에 알린 비목티 자야순다라의 신작 <스파이 스타>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그린 판타지이기도 하다. 비목티 자야순다라 감독 스타일의 절제된 대사와 시적 이미지가 펼쳐지는 가운데 신경을 거스르는 사운드, 신체 절단, 납치와 폭력의 이미지 등이 순간적으로 투입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런 한편 신비로운 초혼의식,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북이의 산보 등을 교차시켜 SF 장르를 비틀면서 아름답고 신비한 영화적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박선영)

Bioengineer Anandi returns to Earth after years in space, only to be quarantined at a remote mountain resort due to exposure to the illvibe virus rapidly spreading across the planet. The resort boasts picturesque scenery and luxurious facilities, but Anadi detects something ominous from the hidden surveillance cameras, a UFO approaching Earth, and the townspeople being taken or killed without explanation. Her guilt and agony intensify when her father's remains arrive—another victim of the illvibe pandemic. One day, Anadi escapes into the woods and takes refuge with Nita, a resort staff member who had been monitoring her, and Nita's mom. By connecting with the mother and daughter, who live isolated from the world, Anadi begins to escape her own pain. *Spying Stars*, the latest from Vimukthi Jayasundara, who brought Sri Lankan cinema to the world, is a sci-fi film set in the near future and a fantasy that paints the world we've lost. The director's signature restrained dialogue and poetic imagery are suddenly interrupted by nerve-wracking sounds, the severing of body parts, and scenes of kidnapping and violence, that heighten tension. At the same time, by interweaving the mysterious ritual of invoking the dead and the recurring image of a turtle's stroll, the film twists the conventions of the sci-fi genre and invites viewers into a cinematic experience both beautiful and enigmatic. (PARK Sun Young)

Director Vimukthi JAYASUNDARA **Executive Producer** Nayomi APSARA, Anuj TYAGI **Producer** Nila Madhab PANDA, Vincent WANG
Cinematographer Eeshit NARAIN **Music** Alokandanda DASGUPTA **Cast** Indira TIWARI, Hidaayath HAZEER, Saumya LIYANAGE, Samanalee FONSEKA, Kaushalya FERNANDO, Shreerupa MITHRA

Two Seasons, Two Strangers — 여행과 나날



Japan | 2025 | 89min | DCP | color

078 Sep 19 / 12:10 / BH 170 Sep 20 / 12:30 / B2 535 Sep 24 / 20:00 / L7

어느 여름, 도시에서 온 여자는 한적한 바닷가에서 어머니의 고향을 찾은 남자와 우연히 만난다. 어느 겨울, 슬럼프에 빠진 작가는 눈으로 덮인 산속에서 홀로 여관을 지키는 주인장을 찾는다. '이'는 몇 해 전, 한 감독의 제안으로 쓴 영화 시나리오를 떠올릴 때마다 여행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멘토였던 교수가 남긴 유품을 지닌 채, 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홀연히 여행을 떠난다. 심은경이 연기하는 '이'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글을 쓰는 행위를 '여행'에 비유한다. 여행의 비밀상성이 안겨주는 놀라움과 당혹감은 비 내리는 바닷속에서 함께 해엄치며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예고하기도 하고, 인근 마을 연못에서 비단잉어를 포획하는 재미가 경찰 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화 속 영화의 여름 바다 풍경과 대비되는 겨울의 설경 속에서 현실의 경계는 몽롱하게 흐려진다. 매혹의 장이 펼쳐진 한여름 낮의 추억, 그리고 한겨울 밤의 꿈 같은 소동은 어느새 차가운 물 속으로 사라진다. 미야케 쇼의 <여행과 나날>은 쓰게 요시하루의 만화 『해변의 서경』과 『혼아라동의 벤상』 두 편을 독특한 액자식 구성으로 엮은 작품이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어 온 촬영감독 쓰키나가 유타는 16mm 필름에 두 계절 속에서 펼쳐지는 두 이방인의 여정을 교묘하게 담아내며,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심은경과 쓰쓰미 신이치의 담백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연기가 돋보인다. (박가연)

One summer, a woman from the city has a chance encounter with a man visiting his mother's quiet seaside hometown. One winter, a scriptwriter in a slump seeks out the innkeeper who tends a remote lodge alone in snow-covered mountains. Whenever 'Li' recalls a film scenario she wrote a few years ago at the director's suggestion, she thinks of travel. Carrying a memento left by her mentor professor, she abruptly leaves on a journey to break free from the confines of words. 'Li,' played by Shim Eun Kyung, likens the act of writing in a non-native language to 'traveling.' The surprise and bewilderment that comes with the unfamiliarity of travel can sometimes signal the start of a new relationship, like swimming together in a rainy sea, and at other times, trigger the playful act of catching koi from a neighborhood pond, that ends with the arrival of the police. In contrast to the summer sea scenery of the film-within-the-film, the snowy winter landscape blurs the boundaries of reality. The memories of a midsummer day's enchantment and the dreamlike chaos of a midwinter night soon dissolve into the cold water. Miyake Sho's *Two Seasons, Two Strangers* weaves together two of Tsuge Yoshiharu's manga, *Scenes from the Seaside* and *Mr. Ben and his Igloo*, into a unique frame-story structure. Cinematographer Tsukinaga Yuta, a long-time collaborator, quietly captures the journeys of two strangers across two seasons on 16mm film. The understated yet compelling performances of Shim Eun Kyung and Tsutsumi Shinichi, who lead the latter half of the film, are especially noteworthy. (Karen PARK)

MIYAKE Sho

미야케 쇼

일본 삿포로 출생의 사나리오 작가이자 감독. 대학 졸업 후 장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여 <굿 포 노thing>(2010)으로 데뷔했다. 2012년 연출작 <물라이브>(2012)은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이후 <나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2018), <나의 눈을 들어다보면>(2022), <새벽의 모든>(2024)을 연출하여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되었다.

A screenwriter and director born in Sapporo, Japan.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Miyake began making feature films and debuted with *Good for Nothing* (2010). His film *Playback* (2012) was invited to the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mpetition. He went on to direct *And Your Bird Can Sing* (2018), *Small, Slow But Steady* (2022), and *All the Long Nights* (2024), all of which were invited to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rector MIYAKE Sho **Executive Producer** SADAI Yuji, GOTO Satoshi **Producer** JOHNAI Masayoshi **Cinematographer** TSUKINAGA Yuta
Editor OKAWA Keiko **Music** Hi'Spec **Sound** KAWAI Takamitsu **Cast** SHIM Eun Kyung, TSUTSUMI Shinichi, KAWAI Yuumi, TAKADA Mansaku

Without Permission — 허락되지 않은



Iran/United Kingdom | 2025 | 80min | DCP | color

242 Sep 21 / 16:30 / BH 334 Sep 22 / 16:30 / B2 608 Sep 25 / 14:00 / L7

WP

Hassan NAZER

하산 나제르

1979년 이란 태생. 19세에 영국에 정착해 애버딘대학교에서 영화와 미디어를 전공했다. 장편 <블랙데이>(2011)를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2012), <유토피아>(2015), <세크 포스트>(2018) 등을 연출했다. 2022년 작 <위너스>는 BAFTA 스코틀랜드 최우수 작품상, 레인댄스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에든버러영화제 관객상 등을 받았다.

Hassan Nazer was born in Iran in 1979. At 19, he moved to the United Kingdom and majored in film and media studies at Aberdeen University.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Black Day* (2011) and directed *We are all sinners* (2012), *Utopia* (2015), and *The Check Post* (2018). In 2022, his film *Winners* (2022) won Best Film at the BAFTA Scotland Awards, Best Feature Film at the Raindance Film Festival, and the Audience Award at the Edinburgh Film Festival.

<허락되지 않은>은 ‘영화를 만드는 영화’를 넘어 영화가 여전히 질문하고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언어임을 증명한다. 망명 중이던 이란 출신 감독은 새 작품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당국은 촬영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잡 착용 의무와 매체 검열이 일상인 사회에서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사막 변두리의 폐허에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소년과 소녀들을 모아서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왜 배우가 되고 싶은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유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와 같은 단순한 질문들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린다. 카메라 앞의 아이들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세계 어디서나 만날 법한 평범한 얼굴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남녀 간 악수조차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노래와 춤을 제약하는 규율, 아프간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에 드리운 미묘한 긴장이 차츰 떠오른다. 메마른 대지는 이 겹겹의 통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답변은 ‘통제된 질서 속 자기표현’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영국으로 이주한 하산 나제르 감독은 <허락되지 않은>을 통해 저항과 해방의 언어로서 영화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그가 던진 질문은 상영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잔향을 남길 것이다. (박성호)

Without Permission goes beyond being a mere ‘film about filmmaking’—it stands as powerful proof that cinema remains the final language capable of questioning and resisting. An exiled Iranian director returns to his homeland to work on a new film, only to be denied permission to shoot by the authorities. Undeterred, he resolves to document the voices of the next generation living in a society where compulsory hijab and censorship are part of everyday life. In the ruins at the edge of a desert, he gathers boys and girls who dream of becoming actors and begins conducting camera tests. With simple questions—“Why do you want to be actors?”, “What is love?”, “Have you ever imagined freedom?”—he gently taps into the depths of their inner worlds. The children in front of the camera, whether shy or outgoing, bear familiar faces one might encounter anywhere. But the reality they inhabit is far from ideal; strict social codes prohibit handshakes between men and women, restrict singing and dancing in public, and subtle tensions emerge between Afghan immigrants and local residents. The arid landscape only sharpens these layers of control, while the children’s innocent answers pierce directly into the theme of ‘self-expression within a system of control.’ Now living in the UK, director Hassan Nazer reaffirms through *Without Permission* the vital role of cinema as a language of resistance and liberation. The questions he raises continue to echo long after the film ends, leaving a lasting resonance in the hearts of its viewers. (PARK Sungho)

· 작품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To protect the crew, their names were decided to remain anonymous.

Gala Presentation | 갈라 프레젠테이션

거장 감독의 신작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화제작 가운데 감독이나 배우가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 섹션이다.

Influential filmmakers and actors present their films in Busan to celebrate their artistic achievements.

Frankenstein

프랑켄슈타인

United States | 2025 | 144min | DCP | color

Director Guillermo DEL TORO 기예르모 델 토로



023 Sep 18 / 19:30 / CX 179 Sep 20 / 15:30 / CX

597 Sep 25 / 20:00 / L3

베니스영화제 경쟁

19세기 중반, 천재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죽은 시체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는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탄생한 ‘크리처’는 무엇이트 파괴할 수 있는 기괴하고 위험한 존재지만, 주변의 환경과 창조주를 관찰하며 점차 인간적인 면모를 갖춰 나간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쫓고 쫓기는 기묘한 여정 속에서 영화는, 책임을 회피하는 창조주와 태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메리 셸리의 고딕 호러 『프랑켄슈타인』을 스크린에 옮긴 <프랑켄슈타인>은 괴수물의 대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오랫동안 천착한 상상의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오스카 아이작과 제이콥 엘로디의 열연, 세심하게 공들인 미술과 의상, 필름의 질감을 품은 듯한 빛과 그림자까지, 모든 요소가 유려한 연출 아래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박가연)

In the mid-19th century, genius scientist Victor Frankenstein, after countless experiments to breathe the spark of life into dead flesh, finally succeeds in creating his own being. Thus is born ‘The Creature’—a grotesque and dangerous entity capable of destroying anything, yet one that gradually develops human-like qualities by observing its surroundings and its creator. Following an odyssey driven by chase and obsession that crosses the boundaries of life and death, the film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or who evades his responsibility and the creature that never asked to be created. *Frankenstein*, which brings Mary Shelley’s gothic horror novel *Frankenstein* to the big screen, is a work that epitomizes the imaginative world that Guillermo del Toro, the undisputed maestro of monster movies, has long explored. The passionate performances of Oscar Isaac and Jacob Elordi, the meticulously crafted aesthetics and costumes, and the film-like texture of light and shadow all com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under masterful direction. (Karen PARK)

Good News

굿뉴스

Korea | 2025 | 135min | DCP | color

Director **BYUN Sung-hyun** 변성현



009 Sep 18 / 11:00 / B1 **080** Sep 19 / 19:50 / BH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필요한 건 약간의 창의력과 그걸 믿으려는 사람들의 의지지.” 1970년 3월 일어난 실제 비행기 납치사건을 영화화한 <굿뉴스>는 ‘스토리’만큼 ‘텔링’의 매력이 돋보이는 독특한 블랙코미디다. 일본 공산주의동맹 적공파는 평양으로 가기 위해 일본항공 비행기를 공중 납치한다. 승무원과 승객들을 위협해 평양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남한 영공에 진입하자 정체불명의 인물 아무개(설경구)의 설계 아래 정보부장 박상현(류승범), 공군 중위 서고명(홍경)이 힘을 합쳐 모두를 속이는 기상천외한 구출작전이 시작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창의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허용하는 이 영화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절묘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도 재미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 <카메이커>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 특유의 능청과 유머가 돋보이는, 마법 같은 화술의 영화다. (송경원)

“All you need is a bit of creativity and the will of people to believe in it.” Based on an actual hijacking incident in March 1970, *Good News* is a unique black comedy where the charm lies as much in the ‘telling’ as in the ‘story’ itself. Japan’s Red Army Faction of the Japan Communist League hijacks Japan Airlines’ flight to go to Pyongyang. When the flight heading to Pyongyang, threatening the crew and passengers, enters South Korean airspace, under the design of the mysterious figure Nobody (Sul Kyung-gu), intelligence chief Park Sang-hyeon (Ryoo Seung-bum) and Air Force lieutenant Seo Go-myeong (Hong Kyung) join forces to launch an audacious rescue operation that deceives everyone on board. While rooted in a true story, the film allows itself the fullest play of imagination, maintaining a delicate balance—neither too heavy nor too light—while never losing sight of entertainment. Directed by Byun Sung-hyun (*The Merciless*, *Kingmaker*), the film brims with his trademark wit and sly humor, delivering a work of magical storytelling. (SONG Kyung-won)

It Was Just an Accident

그저 사고였을 뿐

Iran/France/Luxembourg | 2025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Jafar PANAHI** 자파르 파나히



011 Sep 18 / 15:30 / B1 **217** Sep 20 / 13:00 / L6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은 불확실한 진실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인간성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문제작이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한밤중, 만삭의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운전하던 남자는 개를 치는 사고를 내고 곧 차에 이상이 생겨 낯선 정비소에 들어선다. 정비공 바히드는 남자의 의족 소리를 듣고 과거 자신을 고문한 정보관이라 확신하며 그를 납치한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곧 의심으로 바뀌고 포로가 된 남자의 정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은 억울하게 납치·구금된 소시민들이지만 고문을 당하던 때 모두 안대로 눈을 가린 탓에 누구도 남자의 정체를 단언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가는 트라우마의 심연 속에서,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무너지고 감정은 극단으로 치달는다. (박성호)

Master filmmaker Jafar Panahi’s *It Was Just an Accident* is a powerful work that confronts humanity head-on amid uncertain truths and moral confusion. It’s the winner of the Palme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One night, a man driving with his heavily pregnant wife and young daughter hits a dog. Soon after, his car develops a fault, forcing him to pull into a strange repair shop. Hearing the sound of the man’s prosthetic leg, mechanic Vahid becomes convinced that he is the intelligence officer who once tortured him and proceeds to abduct him. But Vahid’s certainty soon gives way to doubt, and in order to confirm the prisoner’s identity, he seeks help from other victims. These are ordinary citizens who were wrongfully abducted and imprisoned, but as all of them had been blindfolded during their torture, none can say for certain who the man is. In the depths of trauma, where victims turn into perpetrators, the line between justice and revenge collapses, and emotions spiral to the extreme. (PARK Sungho)

KOKUHO

국보

Japan | 2025 | 175min | DCP | color

Director **LEE Sang-il** 이상일



163 Sep 20 / 19:00 / BH **259** Sep 21 / 16:00 / CX

549 Sep 24 / 16:00 / SH

칸영화제 감독주간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일본 전통 연극 가부키 명문가에 편입된 기쿠오는, 친구이자 라이벌인 쉐스케와 인연을 맺는다. 이후 50년 동안 두 남자는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뒤에서 우정과 갈등, 선망과 질투, 연민과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를 이어가며 ‘궁극의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을 키워간다. 이상일 감독의 <국보>는 아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가부키 무대의 완성을 꿈꾸고, 마침내 ‘국보’의 반열에 오른 예술가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영화, 드라마, 연극까지 넘나드는 실력파 배우 요시자와 료가 주연을 맡았으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괴물>(2023)의 구로키와 소야가 기쿠오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 3 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과 다소 낯선 소재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흥행을 질주하며 역대 실사 영화 2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박가연)

After the unexpected death of his father, Kikuo is taken in by a prestigious family renowned for kabuki (traditional Japanese theater), where he forms a bond with his friend and rival, Shunsuke. For the next five decades, the two men continue their relationship both on and off the stage—a relationship where they dance between friendship and conflict, admiration and jealousy, compassion and resentment—as they cultivate a yearning for the ‘ultimate beauty.’ Director Lee Sang-il’s *KOKUHO* portrays the life of an artist who was born as the son of a yakuza, lives through a turbulent era, dreams of perfecting the art of kabuki, and eventually rises to the supreme rank of ‘kokuho’ (national treasure). The lead role is played by the multi-talented Yoshizawa Ryo, who works across film, drama, and theater. Kurokawa Soya, familiar to Korean audiences from *Monster* (2023), portrays Kikuo’s childhood years. Despite its nearly three-hour runtime and the obscure subject matter, the film was a huge box office hit in Japan, setting a new record as the 2nd highest-grossing live-action film of all time. (KAREN PARK)



○ ○ ○ ● europe!
● ○ ● ● voices of
○ ● ○ ● women+
● ○ ○ ○ in film ▶

▶ empowering women
identifying filmmakers

▶ featuring pioneering
talents from Europe

▶ stimulating exchanges
with Busan audiences and
the Asian film industry

europe! voices of
women+ in film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label
by EFP (European Film
Promotion) and BIFF.

EFP (European Film Promotion) is an international network of film promotion institutes from 37 countries from throughout Europe, each representing their national films and talent abroad. Under the EFP flag, these organisations team up to jointly promote the diversity and spirit of European cinema and talent at key film festivals and markets, in particular outside of Europe, with the slogan:

films. talent. spirit.
europe!

europe! voices of women+ in film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5

In partnership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neuropa and EFP are honoured to share the compelling narratives crafted by women+ filmmakers in Europe with audiences in Busan – and to help amplify their voic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following films are part of this year's BIFF programme:

ADAM'S SAKE
by Laura Wandel
Belgium, France
2025

ALPHA
by Julia Ducournau
France, Belgium
2025

THE CURRENTS
by Milagros
Mumenthaler
Switzerland,
Argentina
2025

**DON'T LET
THE SUN**
by Jacqueline Zünd
Switzerland, Italy
2025

FRANZ
by Agnieszka
Holland
Czech Republic,
Poland, Germany,
France, Turkey
2025

**GOD WILL NOT
HELP**
by Hana Jušić
Croatia, Italy,
Romania, Greece,
France, Slovenia
2025

HER WILL BE DONE
by Julia Kowalski
France, Poland
2025

**THE LITTLE
SISTER**
by Hafsia Herzi
France, Germany
2025

ROMERÍA
by Carla Simón
Spain, Germany
2025

SILENT FRIEND
by Ildikó Enyedi
Germany, Hungary,
France
2025

**SOUND OF
FALLING**
by Mascha
Schilinski
Germany
2025

SWEETHEART
by Margherita
Spampinato
Italy
2025

**THAT SUMMER
IN PARIS**
by Valentine Cadic
France
2025

A YEAR OF SCHOOL
by Laura Samani
Italy, France
2025

Icons | 아이콘

동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A showcase of the latest films of contemporary iconic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Alpha

알파

France/Belgium | 2025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Julia DUCOURNAU** 질리아 뒤쿠르노



질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인물들은 신체적으로 극단적인 변화를 겪는다. <로우>(2016)에서는 식인, <티탄>(2021)에서는 금속과의 융합, 그리고 <알파>에서는 혈액으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굳어 석상처럼 변한다. 병상에 누워 비틀린 채 굳어가는 이 형상들은 끔찍하면서도 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알파>에서 특히 가슴을 몽클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감염되었다고 믿는 심 대 소녀 알파와 병에 걸린 중독자 외삼촌 아민 사이에 싹트는 특별한 관계다. 타하르 라힘은 아민 역을 위해 <예언자>(2009), <우수 아즈나부르>(2024)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알아보기 힘들 만큼 체중을 감량하고 강렬한 연기를 펼친다. 그는 죽음을 향해가는 주변인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비록 중독에 시달리지만 본질적으로 선한 아민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든다. 이미지와 주제는 매우 강렬하고 냉혹하지만 <알파>는 무엇보다 혼돈 속의 세상에서도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감동적인 멜로드라마다. (서승희)

In the films of director Julia Ducournau, characters undergo extreme physical transformations. In *Raw* (2016), it's cannibalism; in *Titane* (2021), a fusion with metal; and in *Alpha*, a mysterious disease transmitted through blood turns people into statue-like stone figures. Though immobilized and contorted, those stone figures lying in sickbeds possess a strange, poetic beauty. What resonates most in *Alpha*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lpha, a teenage girl who believes she's been infected, and her uncle Amin, a drug addict suffering from the disease. Tahar Rahim, known for *A Prophet* (2009) and *Monsieur Aznavour* (2024), delivers a transformative performance as Amin, losing a dramatic amount of weight to embody the slowly deteriorating character. Though an addict and nearing death, Amin remains fundamentally good—flawed, but impossible to hate. With its visceral themes and stark imagery, *Alpha* is undeniably intense and unflinching. Yet at its core, it's a powerful melodrama that urges us to hold on to our humanity, even in an intensely chaotic and dehumanizing world. (SEO Seunghee)

260 Sep 21 / 21:00 / CX **454** Sep 23 / 12:00 / L6

칸영화제 경쟁

Back Home

집으로

Taiwan | 2025 | 66min | DCP | color

Director **TSAI Ming-Liang** 차이밍량



251 Sep 21 / 17:30 / B2 **522** Sep 24 / 17:00 / L3

611 Sep 25 / 14:30 / L9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버스 안에 한 청년이 잠들어 있다. 그는 떠나는 것일까, 도착하는 것일까? 무엇이든 간에, 고향은 청년에게 언제나 자신의 자리 한 칸을 기꺼이 내어줄 것이다. 차이밍량은 <데이즈>(2020) 등에서 영화 작업을 함께 해왔던 배우 중 하나인 호응호앙시와 그의 고향인 라오스로 향한다. 그리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라오스의 풍경을 담는다. 놀이공원에서 시작해, 무너져 가는 건물, 종교 유적지, 시장, 그리고 어느 가정의 일상과 라오스 곳곳의 풍경과 소음까지 차곡차곡 이미지를 쌓아가는 차이밍량의 시선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으로>가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 해준 이에게 건네는 선물 같은 영화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집으로>는 다큐멘터리이지만, 첫 장면과 엔딩 장면에는 넌지시 픽션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어느 침실의 정갈한 침대 위에 놓인 하얀 수건을 비추는 영화의 엔딩.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포개 듯한 이 장면은 더할 나위 없는 고향의 속삭임을 전한다. *Back Home*. (안시환)

A young man is sleeping on a bus. Is he leaving or arriving? Either way, his hometown will gladly give him a place to return to. Tsai Ming-Liang heads to Laos, the homeland of Anong Hounghuangsy, who worked with him on *Days* (2020). Tsai brings his camera to capture the country's landscape from his perspective. From an amusement park to crumbling buildings, religious sites, and marketplaces, as well as a family's daily life and the sights and sounds of various places in Laos, Tsai gathers these images without hiding the fact that he is a stranger to this country. Perhaps this is because *Back Home* is a gift of a film, made for someone who has spent years by his side. Though a documentary, the film leaves traces of fiction in its opening and closing scenes. In the final shot, the camera focuses on a white towel placed on a neatly made bed. This scene, seemingly overlapping fiction and documentary, carries a perfect whisper of hometown. *Back Home*. (AHN Sihwan)

Below the Clouds

구름 아래

Italy | 2025 | 114min | DCP | b&w

Director **Gianfranco ROSI** 지안프랑코 로시



122 Sep 19 / 09:30 / L2 **411** Sep 23 / 20:00 / B2

482 Sep 24 / 12:00 / B1

베니스영화제 경쟁

베를린과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곰과 황금사자상을 거푸 받으면서 다큐멘터리의 시선을 이탈리아로 돌리게끔 만든 로시의 신작은 나폴리 지역의 어떤 것을 다룬다. '어떤'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알핏 안게 속 풍경처럼 초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구름 아래>의 작동 방식은 공간이 스스로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베수비오 화산을 언급한 콰토의 문구로 시작해, 거대한 프레스코화는 '유적지와 박물관, 고고학자와 도굴꾼, 소방대와 시민, 전차와 곡물 수송선, 학생과 노동자, 관광객과 선원, 구름과 바다, 지진과 전쟁'을 넓고 자유롭게 그린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처럼 그(것)들 사이엔 경계가 놓여 있지만, 흐릿한 구분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 연결된다. 그렇게 연속성이 유지되고, 인간은 영원의 산을 거슬러 오르는 시지프스가 된다. 흑백으로 컬러를 품은 풍경 이상의 풍경화다. (이용철)

Gianfranco Rosi's new film, following his consecutive Golden Bear and Golden Lion wins at the Berlin and Venice film festivals, redirected the world's documentary gaze toward Italy, specifically dealing with something in the Naples region. It's described as 'something' because, like a landscape in the mist, its focus remains unclear. *Below the Clouds* operates by letting the space speak for itself. Beginning with a quote from Cocteau mentioning Mount Vesuvius, the vast fresco broadly and freely depicts 'ruins and museums, archaeologists and tomb raiders, firefighters and citizens, trams and grain transporters, students and laborers, tourists and sailors, clouds and the sea, earthquakes and wars.' Although boundaries exist between them, like 'past and present, life and death,' these divisions are blurred, allowing all things to become interconnected. In this way, continuity is maintained, and humanity becomes a Sisyphus climbing the eternal mountain. It's a landscape painting beyond a mere landscape, embracing color within its black and white imagery. (LEE Yong Cheol)

A Big Bold Beautiful Journey

빅 볼드 뷰티풀

United States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Kogonada** 코고나다



085 Sep 19 / 20:00 / B1 **496** Sep 24 / 19:30 / CX
598 Sep 25 / 13:30 / L4

지인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사라와 데이비드는, 운명의 장난처럼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환상의 여행을 함께 떠난다. 사랑을 피해 매번 도망치기만 하는 여자와 아직 진실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남자. 길 위에서 발견한 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예고한다. <콜럼버스>(2017)와 <애프터 양>(2021)에 이어, 코고나다는 <빅 볼드 뷰티풀>에서 다시 한번 시간과 기억, 사랑과 상실을 탐색한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과거의 편린들이 감각적인 화면을 통해 사려 깊은 감수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철학적인 질문에 다다른다. 콜린 파렐과 마고 로비의 인상적인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감독 히사이시 조의 섬세한 선율이 감동의 깊이를 더한다. (박가인)

At a mutual friend's wedding, Sarah and David meet by chance and, as if led by fate itself, embark on a fantastical journey guided by a GPS device. Sarah has always run away from love, while David insists that he has yet to find true love. With each door they discover and open along the road, they reflect on the past, confront the present, and glimpse the promise of a new future. Following *Columbus* (2017) and *After Yang* (2021), Kogonada once again explores time and memory, love and loss in *A Big Bold Beautiful Journey*. Fragments of the past, once overlooked, are transformed into moments of profound empathy, ultimately arriving at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how we choose to face life. The captivating performances of Colin Farrell and Margot Robbie are beautifully complemented by the delicate score composed by Hisaishi Joe, which enhances the film's emotional resonance. (Karen PARK)

Bugonia

부고니아

United Kingdom/United States/Korea | 2025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Yorgos LANTHIMOS** 요르고스 란티모스



096 Sep 19 / 17:00 / CX **318** Sep 21 / 12:00 / SH
479 Sep 24 / 12:00 / BH

베니스영화제 경쟁

물류센터 직원 테디는 사촌 동생 돈과 함께 회사 대표 미셸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다. 오직 둘만이 미셸이 지구에 잠입한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외계 행성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납치된 미셸은 자신이 외계인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그녀의 실종을 수사하는 형사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점점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치달는다. <부고니아>는 한국영화 <지구를 지켜라>(2003)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CJ ENM이 기획과 제작에 참여했다. 원작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다크 코미디적 요소를 유지하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특유의 미학과 부조리한 세계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감독의 페르소나인 엠마 스톤이 연기한 미셸은, 성별이 바뀐 캐릭터 설정을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며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 많은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가 흐르는 엔딩은, 원작을 기억하는 관객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씁쓸한 여운을 안겨줄 것이다. (박가인)

* 9.21 상영 종료 후 장준환 감독과 이제훈 배우가 참여하는 스페셜 토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Warehouse worker Teddy, along with his cousin Don, plans to kidnap the company's CEO, Michelle. Only the two of them know that Michelle is an alien who has infiltrated Earth, so they must risk everything to prevent an alien invasion. However, the kidnapped Michelle vehemently denies being an alien, and when a detective investigating her disappearance becomes involved, the situation quickly spirals out of control. *Bugonia* is a remake of the Korean film *Save the Green Planet!* (2003), with CJ ENM participating in its planning and production.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s inventive imagination and dark comedic tone, the film further amplifies Yorgos Lanthimos's signature aesthetics and absurdist worldview. In particular, Michelle—brought to life by the director's muse Emma Stone—radiates a powerful presence that echoes the very spirit of this age, by virtue of the thoughtful decision to swap the character's gender. The ending, set to the haunting melody of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delivers a startling shock and bittersweet echo, even for those who are familiar with and cherish the original. (Karen PARK)

*A Special Talk with director Jang Joonhwan and actor Lee Je-hoon is scheduled after the screening on September 21st.

Dracula

드라큘라

Romania/Austria/Luxembourg | 2025 | 170min | DCP | color

Director **Radu JUDE** 라두 주데



024 Sep 18 / 09:30 / C2 **146** Sep 19 / 20:00 / L9
524 Sep 24 / 11:00 / L4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트란실바니아의 한 관광지 극장에서 『드라큘라』가 상연된다. 무대 위의 드라큘라는 두렵고 매혹적인 이가 아닌 관객이 원하는 대로 변형 가능한 존재로서 등장한다. 무대 안팎에서 배우들과 관객이 드라큘라를 포획하는 놀이를 벌이는 한편, 한 남자가 자신을 영화감독이라 소개하며 AI를 활용해 드라큘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 시도한다. 라두 주데 감독의 형식적 실험이 이번 신작에서 한층 대범해졌다. 그는 루마니아의 상징적인 고전 '드라큘라'를 단순히 리메이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촬영과 AI를 적극 활용해 드라큘라가 지닌 상징성을 해체하고 재결합한다. 의도적으로 선별된 조악한 AI 생성 이미지와 종교, 정치, 젠더, 역사, 신화 등의 주제를 접목해 루마니아가 마주한 현 이슈들을 폭로하고 풍자한다. 범람하는 AI 기술과 가상 이미지 사이에서 재현의 의미까지 되짚는 아심 찬 문제작이다. (조현나)

At a theater in a Transylvanian tourist town, a production of *Dracula* takes the stage. This Dracula is not the fearful, seductive figure we expect but one who changes depending on the audience's whims. On and off the stage, actors and spectators engage in a playful hunt to capture him. Meanwhile, a man introducing himself as a film director attempts a modern interpretation of Dracula using AI technology. In this latest work, Radu Jude pushes his formal experimentation to bold new heights. Rather than simply remaking Romania's classic 'Dracula,' he uses smartphone footage and AI to dismantle and reassemble its symbolism. Combining intentionally-selected crude AI-generated images with themes of religion, politics, gender, history, and myth, he exposes and satirizes the issues facing contemporary Romania. This is an ambitious film that reflects the flood of AI technologies and virtual imagery, as well as the very meaning of representation itself. (CHO Hyunna)

Dreams

드림스

Mexico/United States | 2025 | 98min | DCP | color

Director **Michel FRANCO** 미셸 프랑코



055 Sep 18 / 09:30 / L5 **375** Sep 22 / 09:30 / L5
604 Sep 25 / 21:00 / L5

베를린영화제 경쟁

8편의 전작을 통해 계급, 통제와 억압,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집요하게 변주해 온 멕시코의 거장 미셸 프랑코의 아홉 번째 영화다. 발레 무용수를 꿈꾸는 멕시코 남성 페르난도는 사랑을 밍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한다. 그러나 그의 연인인 미국의 상류층 여성 제니퍼는 그를 적당한 거리에 둔 채 이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애쓴다. 의존과 자선의 경계를 오가는 두 인물 간의 미묘한 사랑의 감정은 계급과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점점 변질되고, 임계점에 도달하자 결국 섬뜩한 파국을 맞이한다. 이민과 인종, 계급의 문제를 남녀의 친밀한 관계에 응축시킨 이 영화는 구조적 불평등이 가장 개인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계급의 위계와 무의식적 지배의 과정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조지훈)

Dreams is the ninth film from Mexican cineaste Michel Franco, who has relentlessly reshaped and reexamined themes of class, control and oppression, and love and death throughout his previous works. Fernando, a Mexican man who dreams of becoming a ballet dancer, believes in love as he illegally crosses the border into the United States. However, his lover Jennifer, an upper-class American woman, tries to manage and control the situation by keeping him at a careful distance. The subtle emotions of love between the two characters, teetering on the edge of dependence and charity, gradually distort under the weight of class and reality, eventually reaching a breaking point and meeting a chilling catastrophe. Condensing the issues of immigration, race, and class into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 film shows how structural inequality manifests in the most personal of spaces. It keenly exposes the class hierarchy and the process of unconscious domination packaged in the word 'love.' (JO Ji-hoon)

Dreams (Sex Love)

사랑을 꿈꿀 때

Norway | 2024 | 111min | DCP | color

Director **Dag JOHAN HAUGERUD** 다그 요한 하우거루드



277 Sep 21 / 13:00 / C5 **456** Sep 23 / 19:30 / L6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17살 요한네는 프랑스어 선생님 요한나를 사랑하게 된다. 직물 아티스트이기도 한 선생님의 집에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한네의 낭만적 상상과 성적 호기심이 부풀어 오른다. 첫사랑의 열병에 휩싸인 요한네는 이 모든 박찬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 글은 곧 요한네의 엄마와 시인인 할머니에게 도달한다. 선생과 학생, 성인과 미성년의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잠시, 엄마와 할머니는 이 글의 문학적 잠재력과 출판 가능성에 눈을 돌린다. 보편적인 첫사랑의 감정이 특별한 쿼어 성장 스토리로 변모하는 과정에는 영화 곳곳에 녹아 있는 지적이고 느긋한 유머, 산뜻한 드라마투르기, 상징적 이미지들이 큰 몫을 한다. 다그 요한 하우거루드 감독의 '섹스, 러브, 드림' 삼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이며, 7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이주현)

Seventeen-year-old Johanne lives in Oslo, Norway, where she falls in love with Johanna, her French teacher and textile artist. While she learns to knit at her teacher's home, Johanne's romantic imagination and sexual curiosity intensify. She begins documenting her emotions and experiences, capturing the heated passion of first love in writing. When Johanne's mother and poet grandmother discover her writing, they are initially concern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d teacher, minor and adult. But soon, they recognize its literary potential and consider publication possibilities. The typical emotions of first love transform into a unique queer coming-of-age story through the intellectual and laid-back humor, refreshing dramaturgy, and the symbolic imagery woven throughout the film. This is the third installment of Dag Johan Haugerud's 'Sex, Love, Dream' trilogy, winning the Golden Bear at the 75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E Juhyun)

Duse

엘레오노라 두세

Italy/France | 2025 | 126min | DCP | color

Director **Pietro MARCELLO** 피에트로 마르첼로



323 Sep 21 / 19:30 / BCM **415** Sep 23 / 20:00 / B3

483 Sep 24 / 16:00 / B1

베니스영화제 경쟁

다시 1920년대로 돌아간 마르첼로의 신작은 마에스트로라 불린 전설적인 연극배우의 이야기이다. 전후 파산에 이른 엘레오노라 두세는 쓰러져 죽음의 문턱에 선다. 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나 새로운 연기에 도전한다. 영화는 말년의 인물을 묘사하면서도 쇠락의 미와 거리를 두며, 그런 점에서 마르첼로의 고전성은 비스콘티나 미조구치의 그것과 다르다. 무솔리니의 다짐을 믿는 두세에서 보듯, 마르첼로의 인물은 때때로 어리석다. 그러한 인간을 고양시키는 것은 예술의 열정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동경,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는 의지의 힘이 그들이 그 길을 걷게끔 돕는다. 앞선 작품의 인물이 문학과 음악을 꿈꿨다면, 두세는 영화에 밀려 죽은 예술이 되어버린 연극을 열망한다. 브루니 테데시는 부들부들 떨리는 마지막 대사에 이르기까지 절정의 연기를 펼치며 실존 인물에게 헌사를 보낸다. (이용철)

Returning once again to the 1920s, Pietro Marcello's new film tells the story of a legendary stage actress known as the maestro. After the war, Eleonora Duse, bankrupt, collapses and stands on the threshold of death. Yet miraculously, she recovers and takes on a new challenge - acting. While the film depicts the latter stage of her life, it maintains a distance from the beauty of decline; in this sense, Marcello's classicism differs from that of Visconti or Mizoguchi. As seen through Duse, who trusts Mussolini's promises, Marcello's characters are sometimes foolish. What elevates such people is their passion for art. Their longing for the future and the will power to brave even death helps them to follow their path. Whereas the protagonists in Marcello's earlier works dreamt of literature and music, Duse yearns for theater, an art that has been pushed aside and nearly forgotten because of cinema. Bruni Todeschi delivers a peak performance, paying tribute to the real-life figure, right up to her trembling final lines. (LEE Yong Cheol)

Eagles of the Republic

공화국의 독수리

Sweden/France/Denmark | 2025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Tarik SALEH** 타릭 살레



098 Sep 19 / 10:00 / C1 **491** Sep 24 / 15:30 / B3

560 Sep 25 / 15:30 / B1

칸영화제 경쟁

타릭 살레 감독의 '카이로 삼부작' 중 세 번째 영화다. <더 나일 힐튼 인시던트>(2017)에서 2011년 이집트 혁명(반독재 정부 시위)과 <보이 프롬 헤븐>(2022)에서 대이맘 선거 이면의 추악한 음모를 다뤘던 살레 감독은 영화가 절대 권력의 우상화 수단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신랄하게 그려냈다. '스크린의 파라오'로 불리는 배우 조지는 이집트 대통령을 찬양하는 전기 영화의 출연 제안을 받아들인다. 더욱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대통령을 위한 연설을 맡으면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고 급기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다. 살레 감독은 영화산업 풍자와 스타의 치정극에 초점을 맞추다가 능숙하게 긴장감 넘치는 정치적 스릴러로 무게중심을 옮겨간다. 삼부작의 두 작품에서 고독한 경찰과 권모술수에 능한 국가안보부 수사관으로 등장했던 파레스 파레스가 이번에는 국민 배우로 변신해 열연을 펼쳤다. 감독의 페르소나답게 부패한 권력이 일으킨 비극을 온몸으로 체현한다. (전종혁)

This is the third film in director Tarik Saleh's 'Cairo Trilogy.' Following his previous films, *The Nile Hilton Incident* (2017), which explored the 2011 Egyptian revolution (anti-authoritarian protests), and *Boy from Heaven* (2022), which uncovered the dark political intrigue behind the election of the Grand Imam, Saleh sharply depicted the downfall of cinema as a vehicle for glorifying absolute power. In this installment, the actor George, known as the 'Pharaoh of the Screen,' accepts a role in a presidential biopic praising the Egyptian leader. On top of that, he is chosen to deliver a speech at a military parade in honor of the president. But things take an unexpected turn, and he soon finds himself entangled in a crisis on the verge of explosion. Starting with a satire of the film industry and a star's messy personal drama, Saleh skillfully shifts the weight of the film into a tense political thriller. Actor Fares Fares, who appeared in the previous two films as a lonely police officer and a cunning national security investigator, now transforms into a beloved national actor and gives a powerful performance. As the director's cinematic persona, he physically embodies the tragedy caused by corrupt power. (JUN Jonghyuk)

Enzo

엔조

France/Begium/Italy | 2025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Robin CAMPILLO** 로뱅 캄피요



036 Sep 18 / 12:00 / C5 **266** Sep 21 / 16:30 / C2

605 Sep 25 / 14:00 / L6

칸영화제 감독주간 개막작

2024년 타계한 로랑 캄테 감독의 유작이다. 그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로뱅 캄피요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한 이 아름다운 공동 작업물에는 두 감독의 영화적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수영장이 딸린 아름다운 빌라에 살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십 대 소년 엔조는 벽돌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드에게 강하게 끌린다. 전쟁 중인 고국으로 돌아갈지 프랑스에 남을지 고민하는 블라드는, 제 부모를 따분한 지식노동자여기는 엔조에게 더 큰 가치를 삼가시키는 어른이자 남자로 다가온다. 함께 우크라이나로 가서 싸우겠다고 '고백' 하는 미성숙한 소년의 열망과 이유 없는 반항심, 실제 눈이 멀고 쉽게 눈을 뜨는 십 대의 한순간들이 인상적으로 담겼다. 엔딩에서 누군가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2017)을 떠올릴 수도 있었다. 78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개막작. (이주현)

This is the final work of director Laurent Cantet, who passed away in 2024. It was completed by his longtime collaborator, director Robin Campillo, in a beautiful joint creation that fuses their cinematic sensibilities with remarkable subtlety. Enzo, a teenage boy from a middle-class family living in a villa with a swimming pool, dreams of becoming a bricklayer. On a construction site, he is drawn to Vlad, a Ukrainian migrant worker torn between returning to his war-torn homeland or remaining in France. To Enzo, who finds his own parents dull and uninspiring as white-collar workers, Vlad emerges as both a role model and a man who awakens him to greater values. The film strikingly captures the immaturity of a boy who 'confesses' that he wants to go and fight in Ukraine with Vlad, alongside his aimless rebelliousness and the fleeting moments of adolescence; the impressive moments of teenagers who are so easily blinded, yet just as quick to open their eyes again. Some may even be reminded of *Call Me by Your Name* (2017) in the final scenes. It was selected as the Opening Film of the Directors' Fortnight at the 78th Cannes Film Festival. (LEE Juhyun)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United States/Ireland/France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Jim JARMUSCH** **짐 자무쉬**



153 Sep 19 / 09:00 / SH **407** Sep 23 / 15:00 / B1
526 Sep 24 / 19:00 / L4

베니스영화제 경쟁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는 3부작 형식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장편 영화이다. 세 편의 이야기는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과 다소 거리를 둔 부모(또는 부모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다룬다. 각 챕터는 현재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펼쳐지는데, '파더'는 미국 북동부, '마더'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고 '시스터 브라더'는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다. 이 영화는 조용하고 관조적이며, 어떠한 판단도 쉽게 내리지 않는 인물 탐구극으로, 멜랑콜리한 감성이 엮여 있는 코미디이다.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is a feature film, though carefully constructed in the form of a triptych. The three stories all concer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their somewhat distant parent (or parents), and each other. Each of the three chapters takes place in the present, and each in a different country. *FATHER* is set in the Northeast US, *MOTHER* in Dublin, Ireland, and *SISTER BROTHER* in Paris, France. The film is a series of character studies, quiet, observational and non-judgmental – a comedy, but interwoven with threads of melancholy.

Franz

프란츠 카프카

Czech Republic/Germany/Poland | 2025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Agnieszka HOLLAND** **아그네즈카 홀란드**



406 Sep 23 / 11:30 / B1 **558** Sep 25 / 09:30 / B1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팔순에 다다른 거장이 누구냐 이름을 아는 작가의 전기에 도전했다. 어느 모로 보나 모험적인 작업인데, 제작진은 '지금껏 제일 거창한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 일찍이 카프카에게 매료된 홀란드는 수십 년의 시간 끝에 영화화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해석이나 이미지와 궤를 달리하고 싶었다. 즉, 카프카에 관한 영화이면서 'Kafkaesque'의 사전적 의미를 따르기보다, 감독이 오랫동안 탐구한 이미지를 집대성한 게 <프란츠 카프카>라 하겠다. 짧았던 생의 모자이크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까지 진입한다.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존재들 -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한편, 현재의 시간과 카프카가 접촉되기를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우울한 신비의 거품을 떼어 내고 되살아난 카프카는 때때로 웃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용철)

An eminent master nearing his eighties has taken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a biographical film about a writer whose name everyone knows. This was an adventurous undertaking by all accounts, with the production team calling it, "the most ambitious project yet." Agnieszka Holland, long fascinated by Kafka, began adapting his life for film after decades, aiming to diverge from conventional interpretations and established images. In other words, while it's a film about Kafka, *Franz* is less about adhering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Kafkaesque' and more about the director's culmination of images she's explored for a long time. The mosaic of Kafka's brief life even ventures into rather specialized areas. It doesn't miss the relationships with the figures who greatly influenced him—family, lovers, and friends—while notably attempting to connect Kafka with the present time. Stripping away his somber, mysterious facade, the revived Kafka sometimes even smiles, which is unexpected. (LEE Yong Cheol)

A HOUSE OF DYNAMITE

하우스 오브 다이내마이트

United States | 2025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Kathryn BIGELOW** **캐스린 비글로**



317 Sep 21 / 09:00 / SH **400** Sep 22 / 20:00 / SH
596 Sep 25 / 16:30 / L3

베니스영화제 경쟁

여성 감독으로서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캐스린 비글로의 최신작은, 평화로운 아침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백악관 참모들, 군 장성, 고위급 관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계 초침은 짹짹씩 돌아가고, "플랜 B가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신생전 시대의 패권 다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우스 오브 다이내마이트>는 <허트 로커>(2008), <제로 다크 서티>(2012)와 마찬가지로, 캐스린 비글로 정치 스릴러 특유의 숨 막히는 긴박감에서부터 무기력한 허탈감까지 112분 동안 쉴 없이 몰아친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현실을 녹여내, 놀라울 만큼 시의적인 작품을 완성했다. (박가연)

The latest work from Kathryn Bigelow—the first female director in Academy Awards history to win Best Director—depicts the tense journey of an unattributed missile heading toward the U.S. mainland on what begins as a peaceful morning. As the White House staff, military generals, and top government officials scramble in confusion, the clock ticks relentlessly, exposing the blatant hegemonic competition in a new Cold War era where there is "no Plan B." Like *The Hurt Locker* (2008) and *Zero Dark Thirty* (2012), *A House of Dynamite* delivers a relentless 112 minutes ranging from suffocating urgency to, ultimately, a crushing sense of futility—hallmarks of Bigelow's signature brand of political thriller. Reflecting the escalating global arms race as an excuse for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the film emerges as an astonishingly timely work. (Karen PARK)

Jay Kelly

제이 켈리

United States | 2025 | 132min | DCP | color
Director **Noah BAUMBACH** **노아 바움백**



232 Sep 20 / 09:30 / SH **319** Sep 21 / 16:30 / SH
341 Sep 22 / 15:30 / CX

베니스영화제 경쟁

수십 년간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군림한 제이 켈리. 연기자로 살아온 그의 삶은 오토이 스크린 위에 남았지만, 정작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데뷔작을 연출했던 감독의 장례식에서 옛 동창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제이 켈리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투스카니로 이어지는 뜻밖의 여정을 시작한다. 노아 바움백의 최신작 <제이 켈리>는 중년의 위기를 맞은 한 남자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가족, 일, 사랑,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로드 무비다. 타이틀롤을 맡은 조지 클루니를 필두로, 애덤 샌들러, 로라 던, 그레타 거윅, 알바 로르바케르, 라일리 키오 등 초호화 캐스팅이 빛을 더한다. (박가연)

For decades, Jay Kelly has reigned as one of Hollywood's top stars. His life as an actor has been etched entirely on screen, and all his memories are movies—yet in the process, he has forgotten how to be himself. Following a chance encounter with an old classmate at the funeral of the director who launched his career, Jay Kelly embarks on an unexpected journey that takes him across Europe, from Paris to Tuscany. *Jay Kelly* is a lighthearted yet tender road movie, where a man grappling with a midlife crisis confronts the ghosts of his long-neglected past and rediscovers the true meanings of family, work, love, and friendship. The all-star cast, led by George Clooney in the title role, joined by Adam Sandler, Laura Dern, Greta Gerwig, Alba Rohrwacher, and Riley Keough, commands every scene they grace with their unforgettable presence, under the masterful direction of Noah Baumbach. (Karen PARK)

La Grazia

라 그라찌아

Italy | 2025 | 133min | DCP | color
Director **Paolo SORRENTINO** 파올로 소렌티노



157 Sep 19 / 12:30 / BCM **246** Sep 21 / 12:30 / B1
568 Sep 25 / 16:00 / CX

베니스영화제 개막작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멀어졌던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이 고전적인 주제는 이 남자가 이탈리아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인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된다. 늘 그랬듯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퇴임을 앞두고 사적인 삶과 정치적 운명 모두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통령 역의 토니 세르빌로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은 <일 디보> (2008)에서 선보였던 날카롭고 풍자적인 권력 비판이라는 주제를 다시 꺼내 든다. 야망과 제도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권력자도 결국 의심과 불안, 그리고 노화와 질병이라는 인간적인 고통 앞에 놓인 존재일 뿐이다. 전설적인 배우 토니 세르빌로의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연기, 소렌티노 감독 특유의 바로크적 미장센, 그리고 이탈리아 궁전의 화려한 장식미가 어우러져 한 편의 오페라와 같은 영화를 완성한다. (서승화)

Entering his twilight years, a man wishes to reflect on his life, reconcile with the past, and reconnect with his children. This conventional narrative arc takes on greater complexity when the man in question is the president of Italy. As his term draws to a close, will he choose to maintain the status quo as always or make a choice that will reshape both his personal life and political legacy? Reuniting with the legendary Toni Servillo in the lead role, Paolo Sorrentino rekindles the sharp, satirical critique of power and authority that defined *Il Divo* (2008). Between ambition and respect for the system, even those at the height of power ultimately face doubt, unease, and the all-too-human suffering of aging and illness. Servillo breathes life into the film with his rich performance oscillating between comedy and tragedy, while Sorrentino completes this political opera with his signature Baroque mise-en-scene and the ornate visual grandeur of an Italian palace. (SEO Seunghee)

The Lost Bus

로스트 버스

United States | 2025 | 130min | DCP | color
Director **Paul GREENGRASS** 폴 그린그래스



126 Sep 19 / 09:00 / L3 **237** Sep 20 / 17:00 / BCM
472 Sep 23 / 13:00 / SH **548** Sep 24 / 12:30 / SH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배경으로, 어린이 22명을 구조하기 위해 스쿨버스의 운전기사과 교사가 사투를 벌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산불이 마을로 번지기 시작하자, 케빈은 병약한 노모와 사춘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서둘러 귀가하던 중,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소로 이송할 버스 기사가 급히 필요하다는 호출을 받고 핸들을 돌린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위험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2013)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매튜 맥커너히가 소시민 영웅 케빈 역을 맡았으며, <본> 시리즈로 잘 알려진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을 맡아, 불꽃이 넘실대고 연기가 자욱한 산속에서 곡예하듯 이어지는 탈출극을 숨 막히게 그려내며, 위험에 맞서는 '아름없는 용기'를 조명한다. (박가연)

Based on a true story, *The Lost Bus* unfo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astating 2018 California wildfires, illustrating the desperate struggle of a school bus driver and a teacher as they fight to rescue twenty two children. As the wildfire begins to consume the town, Kevin is rushing home to care for his ailing elderly mother and teenage son when he receives a call that a nearby elementary school urgently needs a bus driver to evacuate students to a shelter. He turns the bus around, but the road back home grows increasingly dangerous and distant. Matthew McConaughey, who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Actor for *Dallas Buyers Club* (2013), stars as the everyday hero, Kevin. Directed by Paul Greengrass, renowned for the *Bourne* series, the film delivers a breathtaking portrayal of survival through the flame-ravaged, smoke-choked mountains, capturing the intensity of the escape and the unsung courage that drives it. (Karen PARK)

The Love That Remains

사랑이 지나간 자리

Iceland/Denmark/Sweden/France | 2025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Hlynur PÁLMASSON** 흘리누르 파울마손



075 Sep 18 / 16:30 / BCM **473** Sep 23 / 16:30 / SH
544 Sep 24 / 10:00 / KT

칸영화제 칸프리미어 팜도그상

관계가 끝나도 흔적은 도처에 남는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과거가 되어버린 흔적들이 끊임없이 현실을 덮쳐오는 순간들을 콜라주처럼 담아낸 초현실적인 드라마다. 청어잡이 어부 매그너스는 사형했던 아내 안나와 헤어진 후 떨어져 살면서 세 자녀를 공동육아 중이지만 아직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한편 예술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안나는 그렇게 주변을 부유하는 매그너스가 의지하면서도 버겁다. 아이슬란드 시골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삶은 얼핏 조용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격렬로 가득하다. 흘리누르 파울마손 감독은 네 번째 장편영화에서 전작 <갯랜드> (2022)와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다양한 은유를 녹여냈다. 단편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기억의 흔적들이 이별과 친밀함, 현실과 환상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혼란을 더하는 가운데 끝내 따뜻함을 놓치지 않는다. (송경원)

Even when a relationship ends, traces remain everywhere. *The Love That Remains* is a surreal drama that collages such moments, when those remnants of the past relentlessly overwhelm the present. Magnus, a herring fisherman, shares custody of his three children while living apart from Anna, the wife he once loved. Yet he still struggles daily with his longing for her. Anna, meanwhile, dreams of artistic breakthrough, but finds Magnus's drifting presence both a source of support and a burden. Set against the stunning rural landscapes of Iceland, life may appear serene on the surface, yet it is filled with invisible cracks. In his fourth feature film, director Hlynur Pálmasson, much like in his previous work *Godland* (2022), weaves layers of metaphor into the natural world. The fragmented and loosely connected traces of memory cross the boundaries between separation and intimacy, reality and fantasy, adding to the confusion, yet the film never loses its warmth from beginning to end. (SONG Kyung-won)

Magellan

마젤란

Portugal/Spain/France/Philippines/Taiwan | 2025 | 164min | DCP | color
Director **Lav DIAZ** 라브 디아즈



065 Sep 18 / 19:00 / L7 **148** Sep 19 / 19:30 / L10
310 Sep 21 / 18:30 / L9

칸영화제 칸프리미어

<마젤란>은 세계 일주 항해에 나선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탐험의 시간을 가장 낱것의 것에 가깝게 재연한 필리핀의 거장 라브 디아즈 감독의 역사극이다. 아람에 불타는 포르투갈 출신 항해사 마젤란은 스페인 국왕의 후원을 받아 항해에 나선다. 1521년, 그가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을 때 순진한 원주민들은 하얀 피부의 이방인을 신비롭게 여기며 환영한다. 하지만 곧 우월한 무기를 앞세운 정복자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다. 라브 디아즈 감독은 전투의 박진감보다는 폭력이 남긴 여운에 주목하며, 타락한 인간성을 인물들의 건조한 대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낸다. 그는 단순한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그의 열정적인 상상의 형식을 빌려 반복되어 온 폭력의 역사를 성찰하며,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라는 윤리적 시선을 드러낸다. (박성호)

Magellan is a historical drama by Filipino master Lav Diaz that reenacts the expedition of Ferdinand Magellan, who set out on a voyage to circumnavigate the globe, in a manner that is as raw as possible. Burning with ambition, Portuguese navigator Magellan embarks on his voyage with the support of the Spanish king. In 1521, when he arrives in Cebu in The Philippines, the naive indigenous people welcome the white-skinned strangers as mysterious figures. However, they are soon brutally massacred by the conquerors with their superior weapons. Director Lav Diaz focuses on the lingering effects of violence rather than the thrill of battle, gradually revealing the corrupted humanity through the characters' dry dialogue. He goes beyond simply reenacting history, using his passionate imagination to reflect on the history of repeated violence, and reveals an ethical perspective that urges us not to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PARK Sungho)

A Magnificent Life

마르셀의 멋진 인생

France/Belgium/Luxembourg | 2025 | 91min | DCP | color

Director **Sylvain CHOMET** 실뱅 쇼메



082 Sep 19 / 09:00 / B1 **182** Sep 20 / 12:00 / C1
240 Sep 21 / 09:00 / BH

칸영화제 스페셜스크리닝

작가 마르셀 파놀이 자신의 회고록 집필을 두고 고민하던 차에 어린 시절의 그가 유령처럼 눈앞에 나타난다. <마르셀과 파놀>이라는 원제처럼, 영화는 유년 시절과 노년기의 마르셀 파놀을 이분화해 그의 정기를 입체적으로 묘사한다. 어린 시절의 마르셀 파놀은 영화를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며 그가 살아온 삶의 인상적인 순간을 채집한다. 고향 마르세유에서 보낸 마르셀 파놀의 유년기부터 작가, 극작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능력을 펼친 창작자로서의 전성기가 연대기 순으로 담겼다. 이르게 세상을 떠난 가족의 빈자리가 그의 작품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짚어낸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벨빌의 세 쌍둥이>(2003), <일루셔니스트>(2010)에서와 같이 실뱅 쇼메 감독은 애니메이션 속 인물의 유려하고 섬세한 몸짓과 표정 변화를 표현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마르셀 파놀에 대한 실뱅 쇼메 감독의 존중과 존경심이 극에 오른 온기를 더한다. (조현나)

While struggling with writing his memoir, author Marcel Pagnol is suddenly visited by a ghostly vision of his younger self. True to its original French title, *Marcel et Monsieur Pagnol*, the film splits the legendary writer into two selves—childhood and old age—crafting a richly layered biographical portrait. Young Marcel Pagnol acts as the film’s guide, gathering the most memorable moments from his life. From his childhood in his hometown of Marseille to his creative prime as a novelist, playwright, and filmmaker, the film unfolds Marcel Pagnol’s life in chronological order. It also thoughtfully examines how the early loss of family members left a lasting imprint on Pagnol’s body of work. As in *The Triplets of Belleville* (2003) and *The Illusionist* (2010), director Sylvain Chomet devotes meticulous attention to the fluid and expressive gestures, as well as the facial nuances, of his animated characters. His reverence and affection for Marcel Pagnol imbues the film with a gentle warmth. (CHO Hyunna)

The Mastermind

마스터마인드

United States | 2025 | 111min | DCP | color

Director **Kelly REICHARDT** 켈리 라이카르트



039 Sep 18 / 09:30 / C6 **340** Sep 22 / 12:00 / CX
474 Sep 23 / 19:30 / SH

칸영화제 경쟁

선 베이커와 함께 현재 미국 독립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인 켈리 라이카르트 감독의 최신작이다. <역의 지름길>(2010)에서 서부극의 전복을 시도했던 그가 이번엔 하이스트 장르의 관습을 해체하여 재조립한다. 1970년대 매사추세츠의 교외, 베트남 전쟁과 페미니즘 운동의 한복판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장 제임스는 미술관의 그림을 훔친다. 하지만 감독은 뉴 할리우드 시대의 ‘버벅거리는 남자 괴짜’ 캐릭터를 소환하여, 범치 자체보다 어설픈 도둑의 도주, 가족과 일상의 붕괴 등 범죄 이후의 현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형적 남성성에 대한 풍자와 해체를 시도하는 동시에 실패한 가부장의 정서적 풍경을 탐구한다. “무엇을 해내는가”보다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를 묻는 미국의 슬픈 자화상이며, 라이카르트의 영화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장르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훈)

The Mastermind is the latest film from director Kelly Reichardt, who, along with Sean Bak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oices in contemporary American independent cinema. Having attempted to subvert the Western in *Meek’s Cutoff* (2010), she now deconstructs and reassembles the conventions of the heist genre. In the suburbs of 1970s Massachusetts, amidst the Vietnam War and the feminist movement, an ordinary middle-class family man named James steals a painting from a museum. However, the director summons the ‘bumbling jerk’ character type from the New Hollywood era to focus not on the crime itself, but on the reality that follows — the clumsy thief’s escape and the collapse of his family and daily life. Through this, she attempts to satirize and deconstruct typical masculinity while exploring the emotional landscape of a failed patriarch. It is a sad self-portrait of America that asks not what one accomplished, but the reason behind one’s failure. Without doubt, it is the most persuasive reinterpretation of a genre in Reichardt’s filmography. (JO Ji-hoon)

Mirrors No. 3

미러 NO.3

Germany | 2025 | 86min | DCP | color

Director **Christian PETZOLD** 크리스티안 페츨트



022 Sep 18 / 17:00 / CX **245** Sep 21 / 09:30 / B1

칸영화제 감독주간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피아니스트 로라는 낯선 여성 베티에게 구조된 후 그녀의 시골집에 머물게 된다. 베티의 따뜻한 환대와는 달리,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로라에게 냉담하다 못해 거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 공간에서 로라는 자신이 어떤 비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제목이 암시하듯, 로라는 과연 그 누구의 그림자일까? 크리스티안 페츨트는 <미러 NO.3>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 스스로 거짓된 삶을 꾸며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담아낸다. 배우들에게 밀착한 관찰하고 정밀한 연출은 영화를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처럼 흥미롭게 이끈다. 로라 역의 폴라 비어와 베티 역의 바르바라 아우어는 감동적인 연기 호흡을 선보이며 작품의 서늘한 정서를 고조시킨다. 클로드 사브롤의 방식처럼, 크리스티안 페츨트는 평온해 보이는 독일의 시골 마을을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평범한 일상을 환상과 현실의 경계로 끌어올린다. (서승희)

When young pianist Laura survives a car accident, she is taken in by a stranger named Betty at her countryside home. While Betty is friendly, her husband and son are cold and hostile toward Laura. Within the family’s mysterious atmosphere, Laura begins to suspect she may be at the center of their secret. As the title suggests, is Laura a mirror for someone? Christian Petzold captures the stories of people who weave lies about their lives to forget sorrow and loneliness, all within a mysterious and dreamy mood. His concise, precise approach, closely focused on the actors, guides the film with the intensity and suspense of an intriguing thriller. Paula Beer as Laura and Barbara Auer as Betty deliver a moving synergy through their performances, heightening the film’s chilling atmosphere. In Claude Chabrol’s style, Petzold transforms a peaceful town in rural Germany into a space full of unease and suspicion, elevating everyday life to the boundary between fantasy and reality. (SEO Seunghye)

Nouvelle Vague

누벨 바그

France | 2025 | 105min | DCP | b&w

Director **Richard LINKLATER** 리처드 링클레이터



234 Sep 20 / 13:00 / SH **530** Sep 24 / 13:30 / L6

칸영화제 경쟁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이번 프로젝트는 위험한 모험이었다. 그는 장 뤽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1960)의 제작기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영화가 지녔던 에너지와 자유로움까지 되살리려 했다. 흑백 필름, 자연광을 고집한 실의 촬영, 누벨바그의 주역들(고다르, 트뤼포, 진 세버그, 장쥘 벨롱도...)을 연기할 무명 배우들의 기용. 실존 인물들과 놀라움 정도로 많은 이들은 현실과 착각할 만큼 정교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감독은 영화학자들의 연구와 기록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도록 치밀하게 구성했다. 관객은 유쾌하고 매력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인 청년 고다르와 다시 조우한다. 그렇다고 <누벨 바그>가 단순히 영화사 강의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누벨 바그>는 1950년대 말 따분한 일상에 지친 젊고 혁신적인 몽상가들이 기존의 영화 문법을 전복하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린, 유쾌하고 매력적인 코미디다. 링클레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열정을 미래의 영화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다. 영화 만들기를 꿈꾸는 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서승희)

Richard Linklater’s new project was a perilous adventure. Rather than simply recreating the making of Jean-Luc Godard’s *Breathless* (1960), he sought to capture the film’s energy and freedom through black-and-white photography, outdoor shoots with natural light, and unnamed actors to portray the Nouvelle Vague pioneers (including Godard, François Truffaut, Jean Seberg, and Jean-Paul Belmondo). With surprising resemblance to their real-life counterparts, the actors create an elaborate fantasy that could be mistaken for reality. Based on research and documentation by film scholars, Linklater has ensured all dialogue and action reflects historical fact. Audiences once again encounter the young Godard—cheerful, charming, and sometimes aggressive. But *Nouvelle Vague* is more than simple film history. It’s a delightfully enchanting comedy about innovative young dreamers who, tired of everyday life, subverted traditional film grammar to launch a new wave in the late 1950s. Linklater ultimately aims to convey the passion of these dreamers on their journey to becoming future filmmakers. This film is a must-see for anyone dreaming of making films. (SEO Seunghye)

Orphan

나의 이름은

Hungary/United Kingdom/Germany/France | 2025 | 132min | DCP | color
Director **László NEMES** 라슬로 네메스



115 Sep 19 / 13:00 / C5 **325** Sep 22 / 09:00 / BH
569 Sep 25 / 19:30 / CX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전자전이랄까, 아버지 안드라스 엘레스가 종종 그랬듯, 네메스도 아들과 딸 세대를 주체로 삼는다. 차이라면, 네메스는 20세기 아이들이 겪은 어두운 역사에 천착하는 편이다. <나의 이름은>은 헝가리 봉기의 실패 이후 이야기다.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 믿었던 소년에게 야만적인 남자가 나타나 친부라고 주장한다. 소년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정체성을 넘어 원죄의 문제다. 수용소에 죄 없이 갇힌 사람이 아닌, 폭력을 행사한 자가 아버지라면 남겨진 죄의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메스는 공산 통치 아래 숨 막히는 사회 분위기와 과거의 유산으로 상처 입은 소년의 모습을 병치한다. 그 결과, 개인과 영화가 만나는 지점을 통해 역사를 증언하는 방식은 더 정교해졌으며, 영화는 로셀리니 타르코프스키 같은 위대한 선배의 작품과 역사의식을 공유한다. 아이의 눈은 역사의 순수한 심판자다. (이용철)

Call it like father, like son: just as his father András Jeles often did, László Nemes also turns his focus to the generation of sons and daughters. The difference is that Nemes tends to delve into the dark chapters of 20th-century history experienced by children. *Orphan* is set in the aftermath of the failed Hungarian uprising. A boy who believed his father to be a noble man is confronted one day by a brutal stranger who claims to be his biological father. For the boy, the father figure is not just a question of identity, but of original sin. If his father is not an innocent man unjustly imprisoned in a camp, but the one who inflicted violence, how can the boy come to terms with the guilt left behind? Nemes juxtaposes the suffocating atmosphere of life under Communist rule with the inner turmoil of a boy wounded by the legacy of the past. As a result, the film's method of bearing witness to history through the intersection of the personal and the cinematic has become even more refined. The work shares a historical consciousness with the films of great predecessors like Rossellini and Tarkovsky. A child's eyes serve as history's purest judge. (LEE Yong Cheol)

Romeria

로메리아

Spain/Germany | 2025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Carla SIMÓN** 카를라 시몬



166 Sep 20 / 13:00 / B1 **494** Sep 24 / 13:00 / CX

칸영화제 경쟁

<프리다의 그해 여름>(2017), <알카라스의 여름>(2022)에 이은 카를라 시몬 감독의 가족 삼부작 혹은 여름 삼부작.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감독의 자전적 서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에이즈로 일찍 부모를 여읜 18 살 마리아는 아버지 알폰소의 흔적을 찾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비고로 향한다. 오랜 시간 왕래가 없었던 친가 친척들은 마리아를 환영하는 듯하면서도 불편해한다. 엄마를 꼭 닮은 그녀의 존재가 악물 남용으로 사망한 알폰소의 과거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대신 엄마의 일기장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박혀되어 있다. 사랑의 열기와 고통의 시간들이. 마리아는 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이 중첩되는 순간 영화의 공기는 로맨틱해지고 이미지는 더욱 강렬해진다. 78회 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작. (이주현)

Romeria is the third in Carla Simón's family trilogy, or summer trilogy, following *Summer 1993* (2017) and *Alcaràs* (2022). This film is also rooted in the director's autobiographical narrative. Eighteen-year-old Marina, who lost both parents to AIDS at an early age, travels to the port city of Vigo on the Atlantic coast in search of traces of her father, Alfonso. Marina's paternal relatives, who haven't been in contact for a long time, appear to welcome her, but their discomfort is palpable. Marina's resemblance to her mother reminds them of Alfonso's troubled past and his death from drug addiction. What truly preserves the story of her parents is her mother's diary, which documents their shared moments—both the intensity of love and the depths of suffering. Marina steps into those memories. As the past and present, and reality and fantasy, begin to overlap, the film takes on a romantic air and visually becomes increasingly vivid. An Official Selection of the 78th Cannes Film Festival Competition. (LEE Juhyun)

The Secret Agent

시크릿 에이전트

Brazil/France/Germany/Netherlands | 2025 | 160min | DCP | color
Director **Kleber MENDONÇA FILHO** 클레버 멘도사 필루



114 Sep 19 / 09:00 / C5 **358** Sep 22 / 16:00 / C5
510 Sep 24 / 11:00 / C5

칸영화제 감독상, 남우주연상

동시대 가장 중요한 남미 영화감독으로 꼽을 수 있는 브라질의 클레버 멘도사 필루의 신작이다. 1977년 브라질의 군사 독재 시절, 고향 헤시피로 돌아온 마르셀로는 실종된 어머니의 기록을 찾고 아들과 재회하려 하지만 도시는 감시와 망각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감독의 고향이자 모든 전작들의 배경이기도 한 헤시피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공간적, 정서적인 면에서 <유령들의 초상>(2023)과 연결되고, 개인의 진실과 정치적 망각의 충돌은 <아쿠아리우스>(2016)에서 보여준 기억과 자본의 충돌을 연상시킨다. 브라질의 아픈 현대사를 소재로 하여, 정치와 개인의 서사, 기억과 감시, 공간과 정체성을 다양한 장르 안에서 정교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엮어낸 작품으로, <바쿠라우>(2019)의 확장판이자 필루 감독이 쌓아온 세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77회 칸영화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포함한 4개 상을 수상했다. (조지훈)

The Secret Agent is the latest work from Kleber Mendonça Filho, who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filmmakers in South America. Set in 1977 during Brazil's military dictatorship, the film follows Marcelo, who returns to his hometown of Recife in search of records about his missing mother and to reunite with his son, only to find the city entangled in a web of surveillance and forgetting. Taking place across Recife — the director's hometown and the setting of all his previous works — the events in the film connect spatially and emotionally to *Pictures of Ghosts* (2023), while the clash between personal truth and political amnesia recalls the conflict between memory and capital depicted in *Aquarius* (2016). Drawing on Brazil's painful modern history, the film intricately and movingly weaves together the political and the personal, memory and surveillance, space and identity, within a variety of genres. Both an expansion of *Bacurau* (2019) and the culmination of the world Filho has built over his career, the film won four awards at the 77th Cannes Film Festival, including Best Director and Best Actor. (JO Ji-hoon)

Sentimental Value

센티멘탈 밸류

Norway/France/Italy/Denmark/United Kingdom | 2025 | 133min | DCP | color
Director **Joachim TRIER** 요아킴 트리에



095 Sep 19 / 13:30 / CX **455** Sep 23 / 16:00 / L6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가족을 버리고 떠난 영화감독 구스타프는 재회한 딸에게 영화 출연을 제안한다. 하지만 노라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단칼에 거절한다. 전성기가 지난 영화감독 아버지와 연극배우로 성장한 딸의 대립. 즉 노쇠한 아버지의 회한과 핏줄을 거부할 수 없는 딸의 애증은 가족 드라마의 오래된 테마 중에 하나다. 마찰과 균열의 드라마가 임마르 베리만의 영화 스타일로 펼쳐지지만 다행히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연극처럼 파멸로 치닫지 않는다. 가족의 불협화음이 일으킨 긴장과 해소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캐릭터 내면을 파고드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원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2021)에서 사람을 찾아 질주하던 트리에의 뮤즈, 레나테 레인스베는 연극 무대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솜씨로 총망하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가족의 회로애락을 생성해 간직한 집이다. 이 안식처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하어>(2024)에서 보여준 주택의 거실만큼 빛나는 순간을 빛낸다. (전중혁)

Film director Gustav, who abandoned his family, proposes that his estranged daughter star in his new movie upon their reunion. However, Nora flatly refuses, burdened by distrust and resentment toward her father. The friction between a father whose glory days have passed and a daughter who has grown into a stage actress encapsulates a classic family drama theme: an aging father's regret and a daughter's love-hate relationship, compelled by blood ties she cannot fully reject. This drama of clashes and fractures unfolds in a cinematic style reminiscent of Ingmar Bergman, but, thankfully, does not spiral into ruin as in an August Strindberg play. Throughout the tension and resolution brought on by family discord, director Joachim Trier's maturity shines in his unwavering focus on the characters' inner worlds. Renate Reinsve, Trier's muse who passionately sought love in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 (2021), is here full of breath in overcoming her anxiety on stage. Another protagonist is the house itself, which vividly preserves the family's joys and sorrows. This haven produces moments as luminous as the living room featured in Robert Zemeckis's *Here* (2024). (JUN Jonghyuk)

Silent Friend

사일런트 프렌드

Germany/Hungary/France | 2025 | 147min | DCP | color/b&w

Director **Ildikó ENYEDI** 일디코 에네디



069 Sep 18 / 09:30 / KT **487** Sep 24 / 15:30 / B2

561 Sep 25 / 19:30 / B1

베니스영화제 경쟁

<사일런트 프렌드>는 고요하고 농밀한 에네디의 세계에 딱 들어맞는 작품이다. <나의 20세기>(1989)에서 속삭이는 별을 삼입했던 그는 수렁이 200년에 다다른 은행나무를 등장시킨다. 독일 대학가의 식물원 안에서 1908년엔 대학 최초의 여학생이, 1972년엔 수줍은 남학생이, 2020년엔 홍콩의 신경과학자가 한동안 머문다. 찬찬한 관찰자인 그들은 시대의 흐름과 무관한 조용한 존재들이다. 그런 특성이 그들과 은행나무, 제라늄이 소통하게 하는데, 식물은 그들을 바라보고 말을 건넬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응한다. 극 중 시대를 오가는 전개 방식은 은행나무가 감각하고 기억했던 것을 풀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시대별로 다른 톤을 사용했으나, 나무의 의식을 빌려 그들은 하나로 묶이게 된다. 달빛처럼 고요하나 엄숙하지 않고, 평화로우나 지루하지 않은 체험이 삶을 깨운다. (이용철)

Silent Friend is a film that perfectly encapsulates Enyedi's quiet yet intense artistic world. Having featured whispering stars within *My 20th Century* (1989), she now presents a 200-year-old ginkgo tree in *Silent Friend*. Characters from different eras spend time in a German university's botanical garden—the university's first female student in 1908, a shy male student in 1972, and a neuroscientist from Hong Kong in 2020. They are quiet and patient observers, irrelevant to the flow of time. Such traits enable them to communicate with a ginkgo tree and a geranium, allowing the plants not only to watch and engage with the people but to actively respond. The way the story moves through time is much like the ginkgo tree unraveling what it has sensed and remembered. While different tones are used for each era, they are all united through the tree's consciousness. Life is awakened by experiences that are as calm as moonlight yet not solemn, peaceful yet not boring. (LEE Yong Cheol)

Sirât

시라트

France/Spain | 2025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Oliver LAXE** 올리베르 라시



178 Sep 20 / 12:30 / CX **371** Sep 22 / 09:30 / L4

419 Sep 23 / 20:30 / CX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사운드트랙상

아랍어로 '시라트(Sirât)'는 최후의 심판 날, 모든 사람이 건너야 하는 자옥 위의 다리를 뜻한다. 올리베르 라시의 로드무비 <시라트>는 영화적 트립(trip)'이다. 험준한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풍경 속에서, 모로코가 마치 미지의 행성처럼 묘사되는 환각적인 여행이다. <시라트>는 강렬한 음악적 체험이기도 하다. 영화는 거대한 레이브 파티를 조직하는 공동체에 주목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광 울려 퍼지는 테크노 음악 속에서 춤을 추며 밤을 밝힌다. <시라트>는 또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선 한 아버지의 존재론적 여정이다. 그는 이 종말과도 같은 풍경을 가로지르며 내면의 심연을 마주한다. 먼지를 날리며 질주하는 트랙들과 네오펑크 레이버들은 조지 밀러의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2015)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시라트>는 정글을 횡단하며 폭악을 운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윌리엄 프리드킨의 <소서러>(1977)처럼 형이상학적 모험 영화의 면모를 지닌다. 2025년 칸에서 단숨에 가장 충격적인 작품으로 떠오른 <시라트>는 시각과 청각을 압도하는 잊을 수 없는 오디세이이자,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건너는 현대적 순례이다. (서승희)

In Arabic, 'Sirât' refers to the bridge over hell that every soul must cross on the Day of Judgment. *Sirât*, a road movie by Oliver Laxe, is a 'cinematic trip'—an intoxicating journey through rugged mountains and vast deserts, where Morocco is rendered like an alien planet. At the same time, *Sirât* is a powerful musical experience. The film focuses on a community organizing a massive 'rave.' Hundreds of dancers light up the night, moving to the pulse pounding techno beats. But *Sirât* is also an existential journey—a father searching for his missing daughter. While traversing this apocalyptic landscape, he confronts the depths of his own soul. The dust-blown trucks and neo-punk ravers evoke George Miller's *Mad Max: Fury Road* (2015). *Sirât* also exhibits qualities of a metaphysical adventure film, much like William Friedkin's *Sorcerer* (1977), which follows men transporting explosives through the jungle. One of the most shocking films at the 2025 Cannes Film Festival, *Sirât* is an unforgettable sensory odyssey—an overwhelming experience of sight and sound, and a modern-day pilgrimage across the threshold between life and death. (SEO Seunghae)

The Stranger

프랑수아 오종의 이방인

France | 2025 | 122min | DCP | b&w

Director **François OZON** 프랑수아 오종



320 Sep 21 / 20:00 / SH **402** Sep 22 / 16:30 / BCM

497 Sep 24 / 10:00 / C1

베니스영화제 경쟁

프랑수아 오종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1942)을 각색해 흑백의 아름다운 영상미로 1950년대 알제리를 섬세하게 재현한다. 카뮈가 그려낸 태양 아래 짓눌린 해변은 — 현실이자 은유의 공간인 그 불안한 세계 — 오종의 유려한 미장센으로 스크린에 되살아난다. 바로 그 해변에서 주인공 뫼르소는 명확한 이유 없이 한 아랍 청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프랑스 영화계의 젊은 스타 뫼르사탱 부아쟁은 자의식 없이 행동하고 자신의 행위조차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이방인' 뫼르소를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 카뮈 소설의 그 유명한 첫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대신, "아랍인 하나를 죽였다."라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오종의 인상적인 각색은 관객을 어두웠던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 단번에 이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랍인을 살해한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겨졌던 그 시대로. 오종은 그 모순된 도덕의 세계를 냉정하게 응시하며 '부조리'의 본질을 그만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서승희)

François Ozon adapts Albert Camus' *The Stranger* (1942), delicately recreating 1950s Algeria with beautiful black-and-white cinematography. The sun-oppressed beach presented by Camus—that unsettling world, a space of both reality and metaphor—is resurrected on screen through Ozon's elegant mise-en-scène. It is on that very beach that the protagonist, Meursault, pulls the trigger on a young Arab man for no clear reason. The young star of French cinema, Benjamin Voisin, perfectly embodies the 'stranger' Meursault, who acts without volition and perceives his own actions as if they were someone else's. Instead of Camus' famous opening sentence, "Mother died today. Or maybe yesterday, I don't know," Ozon's striking adaptation begins with the protagonist's monologue, "I killed an Arab," leading the audience back to the dark French colonial period. It was an era when the act of not shedding tears at one's mother's funeral was considered a greater sin than murdering an Arab. Ozon gazes coldly at that world of contradictory morality, illuminating the essence of such 'absurdity' from his own perspective. (SEO Seunghae)

Two Prosecutors

두 검사

France/Germany/Netherlands/Latvia/Romania/Lithuania | 2025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Sergei LOZNITSA** 세르게이 로즈니차



084 Sep 19 / 16:00 / B1 **167** Sep 20 / 16:30 / B1

556 Sep 25 / 16:30 / BH

칸영화제 경쟁 프랑수아살레상

현대사를 증언해 온 다큐멘터리의 거장 로즈니차의 드라마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됐다. 소련 공산 치하에서 고초를 겪은 물리학자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중편을 각색했으며, 스탈린 대숙청의 시기에 파멸을 파헤쳐 정의를 실현하려는 젊은 검사의 이야기다. 이면에 작동하는 복잡한 일개와 달리, 영화의 구조는 단순하다. 전반은 형무소의 몇 시간이 배경이고, 후반은 모스크바 출장길을 다룬다. 비판적 시선이 바탕에 깔렸지만, 영화는 고발보다 목격에 중점을 둔다. 무채색의 벽, 문, 복도가 풍기는 감시, 고문, 공포의 냄새는 보는 이의 세포에 각인된다. 자신이 사는 시대가 어떠한지 안다면, 거기서 무엇을 할지 묻고 답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개인의 신념이 부서지고 혁명이 변질될 때, 실패의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앞서 만든 픽션 <둔바스>(2018)의 블랙 유머를 썩 제거한 서늘한 작품이다. (이용철)

The latest drama by Sergei Loznitsa, a master documentarian known for chronicling modern history, was screened in the Competition section at the Cannes Film Festival. The film is adapted from a novella by physicist Georgy Demidov, who suffered under Soviet communist rule. It tells the story of a young prosecutor determined to uncover corruption and pursue justice during Stalin's Great Purge. Despite the complex web operating beneath the surface, the film has a simple structure: the first half takes place over several hours in a prison, and the second half follows a business trip to Moscow. While a critical gaze underlies the film, its focus is less on accusation and more on witnessing. The gray-toned walls, doors, and hallways exude the scent of surveillance, torture, and fear, etched into the viewer's every cell. Once you understand what kind of era you are living in, asking what should be done becomes a natural next step. The real challenge lies in how one accepts the truth of failure when personal beliefs are shattered and revolutions are corrupted. This is a chilling, stripped-down work that removes all traces of the black humor present in Loznitsa's earlier fiction film *Dontbas* (2018). (LEE Yong Cheol)

The Wizard of the Kremlin

크렘린의 마법사

France | 2025 | 154min | DCP | color

Director **Olivier ASSAYAS** 올리비에 아사야스



007 Sep 18 / 20:10 / BH **158** Sep 19 / 16:00 / BCM

480 Sep 24 / 15:30 / BH

베니스영화제 경쟁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줄리아노 다 엠폴리의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완성한 <크렘린의 마법사>는 한 정치 고문의 시선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력 장악 과정을 추적하는 정치 스릴러다. 이 작품은 단순한 전기 영화나 역사 재현을 넘어 현대 러시아 권력의 실체와 그 기원을 깊이 파고든다. 영화는 고르바초프와 엘친의 시대, 페레스트로이카의 자유와 혼란이 공존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새 시대를 꿈꾸며 돈과 성공에 취한 '신흥 러시아인' 중 하나인 바딤 바라노프는 푸틴을 권좌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자신을 파괴하게 될 힘을 스스로 초래한 결과가 된다. 폴 다노와 주드 로의 팽팽한 연기 호흡은 영화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크렘린의 마법사>는 본질적으로 권력, 진실, 그리고 선택의 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오늘날 옛 소련 제국을 둘러싼 전쟁과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서승희)

Based on Giuliano da Empoli's bestseller, director Olivier Assayas's *The Wizard of the Kremlin* is a political thriller that traces Vladimir Putin's rise to power through the eyes of a political advisor. This work transcends a simple biopic or historical reenactment by delving deeply into the reality of modern Russian power and its origins. The film begin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orbachev and Yeltsin eras, a time when the freedom and chaos of Perestroika coexisted. Vadim Baranov, one of the 'New Russians' intoxicated with money and success while dreaming of a new era, plays a decisive role in bringing a man named Putin to the seat of power. However, that choice was also the creation of a force that would soon destroy them. The taut chemistry between Paul Dano and Jude Law injects tension throughout the film. *The Wizard of the Kremlin* is, in essence, a profound reflection on power, truth, and the price of one's choices. It especially offers crucial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roots of the wars and conflicts surrounding the former Soviet empire today. (SEO Seunghee)

The Young Mother's Home

엄마의 시간

Belgium/France | 2025 | 105min | DCP | color

Director **Jean-Pierre DARDENNE, Luc DARDENNE** 장 피에르 다르덴, 뒤크 다르덴



211 Sep 20 / 20:30 / L4 **433** Sep 23 / 10:00 / C5

495 Sep 24 / 16:30 / CX

칸영화제 각본상

희망을 향한 걸음을 멈춘 적 없는 다르덴 형제의 신작 <엄마의 시간>은 다섯 명의 청소년 미혼모가 보호센터에서 함께 살아가며 겪은 이야기를 담는다. 아리안은 만삭의 몸으로 자기를 버린 엄마를 찾아다니고, 펠라는 아기가 남자친구를 잡아둘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거라 믿는다. 제시카는 긴 고민 끝에 아기를 입양시키려 하지만 자신을 방치했던 엄마가 나타나 이를 반대하며 혼란에 빠진다. 미혼모 보호센터에 모인 어린 엄마들의 사연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카메라는 그들을 함부로 연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 보호받아야 할 어린 엄마들은 불행의 상흔을 끌어내고 삶을 바꾸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희생자이지만 희생자로 남길 거부하는 이들의 행동은 다르덴 형제가 선택과 책임 속에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의 총합이라 부를만 하다. 제78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작. (송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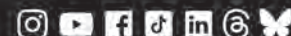
A new film from the Dardenne brothers, who have never stopped walking towards hope, *The Young Mother's Home* tells the story of five teenage single mothers living together in a shelter. Ariane, heavily pregnant, searches for the mother who abandoned her. Perla believes her baby will be the link that keeps her boyfriend from leaving. Jessica, after long deliberation, decides to put her baby up for adoption, but is thrown into turmoil when her own neglectful mother appears to oppose it. None of the stories of the young mothers at the shelter are easy, but the camera does not treat them with careless pity. Instead, it focuses on how these young mothers, who still need protection themselves, fight in their own ways to break the inheritance of misfortune and change their lives. They are social victims, yet refuse to remain victims, and their actions can be called the summation of the Dardenne brothers' way of confronting the world through choice and responsibility. This film is the winner of the Best Screenplay award at the 78th Cannes Film Festival. (SONG Kyung-won)

UNI
FRANCE
All the accents of creativity

Creative — Daring — Socially committed — Poetic — Innovative — Universal

Explore French films & TV programmes in all their diversity

UNIFRANCE.ORG



Vision – Asia | 비전 – 아시아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과 아시아의 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으로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A curated selection of groundbreaking independent films of the year from Korea and Asia,
offering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and Asian cinema.



뉴 커런츠상 후보작 New Currents Award Nominees



World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ALL GREENS

WP

올 그린스

Japan | 2025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KOYAMA Takashi** 코야마 다카시



© 2026 'All Greens' Film Partners

조용한 시골 마을의 생활은 한적하다 못해 따분하기까지 하다. 히데미, 야구치, 이와쿠마, 세 여고생은 각자의 꿈을 꾸면서, 언젠가 지겨운 고향을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 래퍼를 꿈꾸는 히데미는 어느 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탈출을 도와줄 위험한 물건을 손에 넣게 된다. 세 여고생은 훗친 물건으로 돈을 벌어서 최대한 빨리 마을을 빠져나가자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세우고, '올 그린스'라는 이름의 동호회를 만들어 학교 안에서 비밀스러운 일탈을 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위험한 계획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 <올 그린스>는 불투명한 미래 앞에 흔들리는 십 대 청소년의 고민을 경청하면서, 성장통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이 겪는 꿈과 불안을 유쾌하게 담아낸다. (문주하)

Life in a quiet rural town is so peaceful that it borders on boring. High school girls Hidemi, Yaguchi, and Iwakuma each develop their own dreams while plotting to escape their tedious hometown one day. Hidemi, who dreams of becoming a rapper, unexpectedly gets caught up in an incident and comes into possession of a dangerous item that could help her break free. The three girls hatch an outrageous plan to make money from the stolen goods and leave town as quickly as possible, forming an after school club called 'All Greens' to carry out their mischief secretly. Will their risky scheme succeed? *ALL GREENS* intimately expresses the struggles of teenagers wavering before an uncertain future, capturing with wit and warmth the dreams and anxieties they experience under the name of growing pains. (MOON Juhwa)

213 Sep 20 / 12:30 / L5 **390** Sep 22 / 20:00 / L9
430 Sep 23 / 13:00 / C4 **573** Sep 25 / 13:30 / C2

Black Rabbit, White Rabbit

WP

흑토끼 백토끼

Tajikistan/United Arab Emirates | 2025 | 139min | DCP | color

Director **Shahram MOKRI** 샤흐람 모크리



© Roudofeh Rostami

297 Sep 21 / 12:20 / L5 **354** Sep 22 / 09:00 / C4
465 Sep 23 / 10:00 / L10 **595** Sep 25 / 20:00 / L2

<흑토끼 백토끼>는 타임 루프와 현실·환상의 교차, 운명과 우연의 얽힘을 영화적 언어로 풀어내며 불편함과 불안을 탐구해 온 샤흐람 모크리 감독의 최신작이다. 평범한 도시의 저녁, 골동품 가게에서 불법 총기 거래를 하던 한 남자가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처음엔 무관해 보이던 사람들과 사물들의 이야기가 정교하게 맞물리기 시작한다. 중심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이란 고전영화를 리메이킹하는 한 감독이 있지만 전면에 드러나진 않는다. 소품 담당자는 촬영에 쓰일 총기로 사고가 날까 전전긍긍하고, 어머니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꼭 배우가 되겠다고 오디션을 간청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또 다른 한 여성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감옥 같은 일상에 지쳐간다. 불안정한 인간들이 쌓아 올린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어쩌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박성호)

Black Rabbit, White Rabbit is the latest film from director Shahram Mokri, who has long explored discomfort and unease through cinematic language involving time loops, the intersection of reality and fantasy, and the entanglement of fate and coincidence. On an ordinary evening in the city, a man engaged in an illegal firearm deal at an antique shop loses his life due to carelessness. From there, the seemingly unrelated stories of various people and objects begin to interlock with precision. At the center of it is a director in the background, who is remaking a classic Iranian film in Tajikistan. A props manager anxiously worries that the gun to be used in the shoot might cause an accident. A woman begs for an audition, determined to become an actress even if it means going against her mother's wishes. Another woman, though married to a wealthy man, grows weary of a life that feels like a prison. The fear that emerges from a society built by imperfect human beings may, perhaps, be part of a much larger picture. (PARK Sungho)

Girlfriends

WP

걸프렌드

Macao, China/Taiwan/Hong Kong, China/Thailand | 2025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Tracy CHOI** 트레이시 초이



© Serendipity Films

마카오에서 자라 대만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록은 현재 홍콩에서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연출할 기회를 기다린다. 그녀의 파트너 베이 베이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갈등하던 록은 자신의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안정적 토대 위에 안착할 수 없었던 록의 퀴어적 삶은 마카오, 대만, 홍콩을 가로지르는 여정으로 형상화되고, 록의 연애 관계는 불안정한 지반에서 흔들린다. 현재로부터 대학,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가는 역순의 시간을 통해 감독은 과거 자신의 모든 선택과 마주침이 우리의 현재를 구성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마카오, 대만, 홍콩을 경유하여 경력을 쌓아온 감독 자신의 자전적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으로 따뜻한 퀴어 로맨스를 선사한다. (홍소인)

Raised in Macao and having attended college in Taiwan, Lok now lives in Hong Kong, awaiting the opportunity to direct her second film. While her partner Bei Bei seeks stability, Lok is conflicted and embarks on a journey through her past. Unable to settle on stable ground, her queer life unfolds as a journey across Macao, Taiwan, and Hong Kong, and her romantic relationship begins to wobble on an unsteady foundation. Through a reverse chronological timeline that moves from the present back to her college and high school days, the director vividly conveys the simple truth that all of our past choices and encounters make up our present. This fresh, young queer romance seems to be based on the autobiographical experience of the director, who built her career across Macao, Taiwan, and Hong Kong. (HONG Soin)

214 Sep 20 / 16:30 / L5 **293** Sep 21 / 12:10 / L4
437 Sep 23 / 09:00 / C6 **628** Sep 25 / 19:00 / BCM

If on a Winter's Night

WP

어느 겨울 밤

India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Sanju SURENDRAN** 산주 수렌드란



212 Sep 20 / 09:00 / L5 **304** Sep 21 / 13:00 / L7

457 Sep 23 / 09:00 / L7 **594** Sep 25 / 17:00 / L2

202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지원작

새 집과 직장을 얻은 사라는 사랑하는 아비와 함께 델리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다. 전기요금에 집착하고 편견이 심한 집주인과 수시로 전화해 남동생 학비를 독촉하는 엄마가 아니라면 대체로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아버가 전사회와 세미나 비용으로 사라가 고향에 보낼 돈을 써버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방인과 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부모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한 이 도시에서 사라와 아비에게 낙살 좋은 친구 사이먼과 다정하고 해맑은 고피카, 그리고 '노래'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늑한 방 한 칸 없어 연인과 이별한 사이먼이나 찬 비 내리는 겨울밤을 거리에서 보낼 위기에 처한 사라와 아비, 마음의 고향을 잃은 고피카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홀리스'의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최은)

With a new job and apartment, Sara begins a happy life in Delhi with her beloved Abhi. Apart from her heavily prejudiced landlord who's obsessed with electric bills, and her mother constantly calling to demand tuition money for her younger brother, Sara's life is generally peaceful. That is, until Abhi spends the money meant for Sara's family on his exhibition and seminar. In this unwelcoming city hostile to outsiders and daughters, Sara and Abhi, who are not understood even by their parents, are lucky to have easygoing Simon, warm and spirited Gopika, and music. Simon broke up with his lover for lack of even one cozy room for them to stay; Sara and Abhi face the threat of spending cold, rainy winter nights on the streets; and Gopika has lost her spiritual home. All of them, for different reasons, are living through a season of homelessness. (CHOI Eun)

Kok Kok Kokooook

WP

콕콕콕, 코코코

India | 2025 | 62min | DCP | color

Director **Maharshi Tuhin KASHYAP** 마하르시 투힌 카시아프



378 Sep 22 / 20:30 / L5 **432** Sep 23 / 20:30 / C4

536 Sep 24 / 11:00 / L9 **579** Sep 25 / 20:30 / C3

닭 장수인 누르는 애지중지하는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한다. 혹시 전날 마을에서 일어난 뺑소니사고와 관계있나 하여 오토바이를 빌려갔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이방인이며 무슬림인 누르는 그들에게 대화 상대조차 아니다. 장관의 인척이 피해자인 이 사고로 경찰이 점점 압박해오는데, 남수단 난민인 아베베는 너의 아기를 갖고 싶다며 누르를 따라다닌다. 카프카적인 감성과 신화적인 상상력이 만난 이 작품에서 세상은 자주 누르 어깨에 앉은 닭의 시선으로 보인다. 마하르시 투힌 카시아프는 재앙에서 홀로 남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본듯 중인 소수자에 주목했다. 닭이 멸종을 피해 번성한 위대한 공룡이라면, 오토바이가 착취와 억압을 피해 몸을 숨긴 연인이라면, 세상이 그들에게 조금 건넨만한 것일 수 있을까. (최은)

Nur, a chicken seller, notices traces of an accident on his beloved motorcycle. Wondering if it's connected to yesterday's hit-and-run in town, he questions those who borrowed his bike, but people don't find him worthy enough to talk to as he is an outsider and a Muslim. As the victim is related to a minister, authorities gradually close in on him, while Abebe from South Sudan follows him around saying she wants to have his baby. In this film Kafkaesque sentiments are blended with mythical imagination, with the world often seen through the eyes of a chicken perched on Nur's shoulder. Maharshi Tuhin Kashyap zooms in on minorities struggling to find reasons to survive all alone amid catastrophe. If chickens are dinosaurs that transformed to avoid extinction, and the motorcycle is a lover hiding from extortion and oppression, might this world become just a little more bearable for them? (CHOI Eun)

Kurak

WP

쿠락

Kyrgyzstan/Switzerland/Serbia/France/Luxembourg/Netherlands/Italy

| 2025 | 89min | DCP | color

Director **Erke DZHUMAKMATOVA, Emil ATAGELDIEV**
에르케 주마크마토바, 에밀 아타겔디예프



296 Sep 21 / 09:00 / L5

427 Sep 23 / 16:00 / C3

383 Sep 22 / 09:30 / L7

582 Sep 25 / 20:30 / C4

영화는 2020년 비슈케크에서 열렸던 여성들의 시위를 보여주는 뉴스 화면으로 시작된다. 여성 인권을 위한 시위는 이를 반대하는 남성들의 폭력적 개입으로 위기에 처하며, 방관하던 경찰들은 시위하던 여성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키르키스스탄 여성 인권의 현재를 상징하는 현실의 장면에서, 영화는 픽션의 세계로 넘어가 두 젊은 여성의 스토리를 중첩해 보여준다. 비밀리에 웹캠 모델로 일하는 메예림과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나르키자의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 행위예술, 각종 시위 등을 보여 주는 아카이브 필름이 교차되면서 이들이 처하게 되는 극한의 상황이 맥락화된다. '조각보'를 뜻하는 키르키스스탄어 '쿠락'이 상징하는 바처럼, 이 영화는 메예림과 나르키자 뿐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거대한 억압의 카르텔을 뚫고 조각조각 맞물리며 하나의 서사로 직조되는 과정을 힘 있게 그리고 있다. (박선영)

The film opens with newsreel footage of a 2020 women's protest in Bishkek. The rally for women's rights is violently disrupted by opposing men, and police who had been standing by suddenly begin arresting the female protesters. From this scene symbolizing the present state of Kyrgyz women's rights, the film crosses into fiction, layering the stories of two young women—Meerim, who secretly works as a webcam model, and Nargiza, who has just started a romantic relationship. As their stories unfold, archival footage of women's rights exhibitions, performance art, and protests weaves through the narrative, providing context for their extreme circumstances. As suggested by the title 'kurak,' meaning patchwork in Kyrgyz, this film powerfully paints how the voices of various women—not just Meerim and Nargiza, but all the women in the film—break through a massive cartel of oppression, interlocking piece by piece into a single woven narrative. (PARK Sun Young)

Malika

WP

말리카

Kazakhstan/Moldova/Ireland | 2025 | 94min | DCP | color

Director **Natalia UVAROVA** 나탈리아 유바로바



299 Sep 21 / 20:20 / L5

533 Sep 24 / 13:30 / L7

469 Sep 23 / 12:00 / KT

581 Sep 25 / 17:30 / C4

이혼한 엄마와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던 12세 소녀 말리카는 어느 날, 엄마의 연애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아빠로부터, 엄마가 재혼하면 말리카의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다. 엄마와 함께 여름을 보내기 위해 시골의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된 말리카는, 대가족과 자연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엄마의 재혼이 현실화되면서, 말리카의 불안도 고조된다. 카자흐스탄의 인구세태에게 소수민족이면서 보수적인 이슬람교도인 말리카의 가족들에게, 여성의 재혼과 양육권 문제는 전적으로 남성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소녀 말리카의 실존적 불안은, 주제적이고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엄마의 무기력감에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탈리아 유바로바 감독은 아름다운 영상미를 통해 말리카의 고난과 성장의 서사를 숨씨 좋게 풀어냈다. (박선영)

Malika, a 12-year-old girl, leads a happy and free life with her divorced mother. Then one day, her father storms in after hearing about her mom's new relationship, and Malika learns crushing news: if her mother remarries, her father will gain custody of her. In the summer, Malika heads to her grandparents' countryside home to spend time with her mom. There, she enjoys time with her extended family, surrounded by beautiful nature. But when the prospect of her mom's remarriage becomes real, anxiety sets in. For Malika's family, ethnic Ingush minorities and conservative Muslims living in Kazakhstan, decisions about women's remarriages and child custody rest entirely with men. Adolescent Malika's existential anxiety is ultimately connected to the helplessness her mother feels, unable to choose her own fate despite appearing independent and free. Through breathtaking cinematography, Natalia Uvarova conveys Malika's suffering and growth with great dexterity. (PARK Sun Young)

Mothernet

AI엄마

WP

Indonesia/Singapore | 2025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HO Wi Ding** 호위딩



376 Sep 22 / 12:30 / L5 **475** Sep 23 / 12:00 / BCM
511 Sep 24 / 15:00 / C5 **572** Sep 25 / 19:30 / C1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한순간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AI엄마>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소년 라마(알리 픽리)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가까운 미래, 대도시 외곽의 단란한 가정. 사춘기 소년 라마는 돌봄과 이해의 전부였던 어머니(디안 사스트로와르도요)가 예고 없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해커 친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온라인 흔적을 학습한 AI를 만들어낸다. <피노이 선데이>(2010)와 <행복도시>(2018) 등 전작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고독과 연결을 탐구해 온 호위딩 감독은 <AI엄마>에서 따뜻한 가족드라마와 환각으로 일그러진 SF 감수성을 교작한다. 결국 그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박성호)

How can we fill the void if the person we love most disappears in an instant? *Motherne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ma (Ali Fikry), a boy going through a tumultuous adolescence, a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near future, in a happy family on the outskirts of a big city, Rama's mother (Dian Sastrowardoyo) accidentally falls into a coma. As she is Rama's entire world of care and understanding, he joins forces with a hacker friend to create an AI that learns from his mother's online footprint. Director Ho Wi Ding, who explored the concepts of solitude and connection between people in his previous films such as *Pinoey Sunday* (2010) and *Cities of Last Things* (2018), weaves together a warm family drama with a hallucinatory, distorted sci-fi sensibility in *Mothernet*. Ultimately, the question he poses to the audience is, "As what will we be remembered by, and in what ways will we be loved?" (PARK Sungho)

On Your Lap

판쿠의 시간

WP

Indonesia/Saudi Arabia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Reza RAHADIAN** 레자 라하디안



215 Sep 20 / 20:00 / L5 **322** Sep 21 / 16:30 / BCM
391 Sep 22 / 09:30 / L10 **571** Sep 25 / 16:30 / C1

임신한 젊은 여성 사르티카는 뱃속의 아이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도망치듯 해안가의 작은 마을로 들어간다.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는 그녀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다행히 노상에 있는 작은 커피숍의 주인은 그녀를 받아들여 숙식을 제공하지만, 남성 손님의 무릎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 일을 시킨다. 더 잃을 것이 없어 보이는 고단한 삶 속에도 점점 커가는 아들을 보며 힘을 내는 사르티카. 착취와 연민, 편견과 희망이 뒤엉킨 나날 속에서 그녀는 사랑과 존엄을 향한 작은 가능성을 붙잡으려 애쓴다. 그러던 중 유독 눈길을 끄는 트럭 운전사 하디와 만나며 희망을 품게 된다. 배우로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해 온 레자 라하디안의 장편 연출 데뷔작 <판쿠의 시간>은 위기 속 여성의 내밀한 투쟁과 희망의 끈을 깊이 응시한다. (박성호)

Sartika, a young pregnant woman, flees to a small coastal village in search of a better life for herself and the baby she is carrying. She must build a new life, but with no particular skills, she has few means to support herself. Fortunately, the owner of a small roadside café takes her in, providing room and board—on the condition that she serves coffee while sitting on male customers' laps. In a life that seems to have nothing left to lose, Sartika finds strength in watching her son grow. In days tangled with exploitation and compassion, prejudice and hope, she struggles to hold on to a small possibility of love and dignity. That possibility begins to take shape when she meets Hadi, a truck driver whose presence captures her attention. Marking the feature directorial debut of Reza Rahadian—long recognized as one of Indonesia's leading actors—*On Your Lap* offers a poignant gaze into a woman's intimate struggle and her fragile hold on hope in the face of crisis. (PARK Sungho)

Shape of Momo

모모의 모양

WP

India/Korea | 2025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Tribeny RAI** 트리베니 라이



298 Sep 21 / 16:30 / L5 **359** Sep 22 / 12:00 / C5
461 Sep 23 / 11:00 / L9 **574** Sep 25 / 17:00 / C2

비슈누는 델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히말라야 근처의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 아들이 자신을 두바이에 초청해 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할머니, 다소 비효율적이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집안과 마을 일을 꾸러오던 엄마, 시어머니 및 남편과의 갈등을 피해 친정으로 온 임신한 언니를 보면서 비슈누는 최선을 다해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어느 날, 건축가 기안을 만나고 관계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비슈누의 마음도 복잡해진다. 외딴 산골 마을에 사는 여성 3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모의 모양>은 비슈누의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따라간다.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평범하게 선한 사람들 속에서, 한 여성이 누구의 딸이거나 아내이거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영화는 비슈누가 맞닥뜨리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과 사물들을 통해 섬세하게 그려낸다. (박선영)

Bishnu quits her job in Delhi and returns to her hometown near the Himalayas. Her grandmother is counting down the days until her son invites her to Dubai; her mom manages the household and village affairs in her own inefficient way, and her pregnant elder sister has taken refuge at their childhood home to avoid conflict with her mother-in-law and husband. Watching them, Bishnu makes an effort to suggest better paths for them in her own way. Then she meets an architect named Gyan, and as their relationship develops, she finds herself feeling conflicted. A story about three generations of women living in a remote mountain village set against the beautiful Himalayan landscape, *Shape of Momo* closely follows Bishnu's emotional journey. Through the small incidents and situations Bishnu encounters in daily life, the film provides a delicate portrayal of how challenging it is for a woman to exist as an independent human being among good, ordinary people, and not limited by the roles of daughter, wife, or mother. (PARK Sun Young)

Tiger

타이가

WP

Japan | 2025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Anshul CHAUHAN** 안솔 차우한



377 Sep 22 / 16:30 / L5 **438** Sep 23 / 12:00 / C6
540 Sep 24 / 10:30 / L10 **586** Sep 25 / 10:00 / C6

남성 전용 마사지 숍에서 일하며 게이 포르노 오디션에 도전하던 타이가는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집을, 딸에게는 차와 전료소를 물려주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다는 이유로 누나는 타이가의 상속 자격을 부정하며 이웃집을 빌미로 위협한다. 오랜만에 만난 결혼한 친구, 그리고 어린 조카를 돌보는 시간 속에서 타이가는 자신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정 결혼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꾸릴 방법을 모색한다. 어머니의 죽을 이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삶을 이어가던 타이가는, 늦은 깨달음처럼 자신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장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간절히 바란다. 포르노 스타로서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소외감은 더욱 쓰라리고 아프다. 영화는 한없이 적대적인 세상과 투쟁하고, 상처 입은 자신과 화해하는 타이가의 여정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소수자의 삶을 단순히 극적인 장치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사려 깊은 시선을 유지한다. (박가연)

Working at a men-only massage shop and hopping between gay porn auditions, Tiger heads to his hometown one day after hearing his father is critically ill. His father intends to leave the house to his son and the dental clinic to his daughter. However, his sister denies Tiger's right to inherit, threatening him with the prospect of ousting him. Through time spent with a married friend he hasn't seen in years and while looking after his young niece, Tiger realizes that he also wants to be part of a 'family' and begins to explore ways to build one in his own way through a 'friendship marriage.' Having lived a drifting life without a sense of belonging since his mother's death, Tiger desperately yearns for a place to put down roots and for someone with whom he can share love, a realization that comes to him late. The critical sense of alienation that hits him at the very moment success as a porn star is within reach is all the more bitter and painful. The film sincerely portrays Tiger's journey as he fights against a relentlessly hostile world and reconciles with his wounded self, maintaining a thoughtful perspective to the end to avoid simply exploiting a minority's life as a dramatic device. (Karen PARK)

Vision – Korea | 비전 – 한국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과 아시아의 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이는
색션으로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A curated selection of groundbreaking independent films of the year from Korea and Asia,
offering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and Asian cinema.



뉴 커런츠상 후보작 New Currents Award Nominees



World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The Accordion Door



WP

아코디언 도어

Korea | 2025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SON Kyeong-su** 손경수



©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중학교 3학년 지수가 유일하게 골몰하는 건 글쓰기이다. 축구가 정말 재밌어 족궤다는 전학생 현주의 등장은 그런 지수를 다르게 흔들어 깨운다. <아코디언 도어>는 10대의 첫사랑 로맨스의 가능성을 내비치는가 싶더니 예상을 깨고 감잡을 수 없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린시절 겪은 일로 얼마간 기억을 잃은 지수는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가이자 보상처럼 글쓰기라는 재능을 얻는다. 미끄덩하며 기다랗고 꾸물대며 움직이는 괴이한 물질, 생명체, 기호 혹은 신호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와 쓰기의 능력으로 자리했다는 기막힌 상상이 지수의 단단한 신념으로 자리한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자신을 향한 두려움과 관심 가는 상대를 향한 호기심, 질투, 불신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창작의 동력이자 계기이며 독이 되고, 낮은 이미지로 전유된 마음의 상태가 파탄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판타지다. 그 끝은 실로 아찔하고, 아슬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쓰고, 쓰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또 다른 믿음이 자박자박 자라날 것이다. (정지혜)

The only thing middle school third-grader Ji-soo is absorbed in is writing. The appearance of Hyun-joo, a transfer student who says soccer is so fun that she could die from it, awakens Ji-soo in an unexpected way. *The Accordion Door* hints at the possibility of a teenage first-love romance initially, only to defy expectations and turn in an uncontrollable direction. Having lost some of his memory due to a childhood incident, Ji-soo gains a talent for writing, as if it were both the price and compensation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e firmly believes in the astounding idea that a slippery, elongated, squirming strange substance—be it creature, symbol, or signal—entered his body and settled there giving the ability to write. However, that belief shatters into pieces under the weight of fear towards herself, curiosity towards someone he finds intriguing, and the jealousy and distrust that follow. It is a unique fantasy where a painful memory becomes a driving force, an impetus, a poison for creation; and where a state of mind, appropriated into strange images, leads to both breakdown and growth. The end is truly aching and cruel, yet a different belief will quietly convey that the act of writing and re-writing will continue. (JEONG Jihye)

316 Sep 21 / 19:30 / KT **393** Sep 22 / 16:30 / L10
444 Sep 23 / 11:30 / L3 **508** Sep 24 / 15:30 / C4

BEAUTIFUL DREAMER

WP

단잡

Korea | 2025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LEE Kwang-kuk** 이광국



© A BYEOKDOL FILMS

290 Sep 21 / 16:10 / L3 **397** Sep 22 / 19:30 / KT
428 Sep 23 / 19:30 / C3 **542** Sep 24 / 17:30 / L10

한 남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연에게는 아버지였고, 인선에게는 남편이었던 사람. 일상의 틈새와 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해 온 이광국 감독의 다섯 번째 장편 <단잡>은 상실을 마주하는 법을 묻는다. 세 번째 기일이 다가오는 계절에도 남겨진 이들은 여전히 불면에 시달린다. 같은 사람을 잃었으나 같은 사건을 겪은 것은 아니라서, 감정의 무게는 갈수록 버거워서 수연과 인선 사이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 <단잡>은 사랑하는 이의 부재가 드리운 공백 속으로 걸어 들어가 애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탐색한다. 인물들은 그 구멍에 몇 번이고 발이 빠지지만, 우연한 만남과 애써 붙잡은 인연, 그리고 수없이 되감기 하는 추억이 그들을 더디게나마 “평범하고 좋은” 자리로 이끈다. 슬픔과 울분이 고여 있는 곳에서 웃음이 재탄생하는 회복의 기록. (차한비)

A man has taken his own life. To Suyeon, he was a father, and to Inseon, a husband. Director Lee Kwang-kuk - known for capturing subtle emotions in everyday moments and relationships - returns with his fifth feature film *BEAUTIFUL DREAMER*, exploring how we come to face loss. Even as the third anniversary of his passing approaches, those left behind still suffer from sleepless nights. Suyeon and Inseon lost the same person, but they did not go through the same experience, and the weight of grief grows heavier over time, creating a large rift between them. *BEAUTIFUL DREAMER* steps into the void created by the absence of a loved one, exploring how different forms of mourning arise. The characters stumble into that emptiness time and again, yet chance encounters, bonds they cling to, and countless revound memories slowly, if haltingly, lead them back to a “normal and good” place. A record of recovery in which laughter is reborn from where grief and resentment have pooled. (CHA Hanbi)

Coming of Age

WP

철들 무렵

Korea | 2025 | 105min | DCP | color/b&w

Director **JEONG Seung-o** 정승오



204 Sep 20 / 09:00 / L3 **394** Sep 22 / 20:00 / L10
445 Sep 23 / 15:30 / L3 **506** Sep 24 / 19:00 / C3

202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지원작

애수와 유머가 고루 깃든 데뷔작 <이장>(2020)으로 주목받은 정승오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 철택, 생업과 간병을 동시에 떠나는 딸 정미, 가족 내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를 꿈꾸는 현숙, 세 인물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대가족을 스크린에 불러들인다. 풍미를 만들어내는 솜씨는 한층 노련하고 넉넉해졌다. 관계의 복잡성을 보듬으며 몽근하게 끓이던 영화는, 일상의 아이러니와 위트도 놓치지 않고 톡 쏘는 맛을 중간중간 더한다. <철들 무렵>은 가족을 단일한 서사로 묶기보다 그 속에 시대적 경험과 세대 간극, 개인의 욕망까지 차곡차곡 겹쳐 놓기를 택한다.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를 엮으며 가족이라는 연약하면서도 질긴 공동체를 재현하는 힘이 돋보이고, 질병, 노화, 돌봄, 부양 등 현실적 주제를 각 인물이 거처 온 삶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포용력은 든든함을 안긴다. (차한비)

Director Jeong Seung-o, who drew attention with his debut *Move the Grave* (2020), a work imbued equally with melancholy and humor, returns with his second feature. Centering on three characters—Cheoltaek, a father diagnosed with terminal cancer; his daughter Jeongmi, who shoulders both work and caregiving; and Hyeonsuk, who dreams of freedom beyond her role in the family—the film once again brings an extended family to the screen. The craftsmanship that shapes its flavors has grown more seasoned and generous. While gently simmering with an embrace for the complexities of relationships, the film also adds a sharp taste here and there through moments of irony and wit from everyday life. *Coming of Age* chooses not to bind the concept of family into a single narrative but instead layers within it the experiences of an era, generational divides, and individual desires. Its ability to weave together a range of characters and stories stands out, as does the inclusiveness with which it interprets such real-world subjects as illness, aging, care, and support. Through the experiences each character has lived, a reassuring sense of solidity is offered. (CHA Hanbi)

The Gorals

산양들

Korea | 2025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YOO Jaewook 유재욱**



369 Sep 22 / 15:00 / L3 **443** Sep 23 / 19:30 / L2
543 Sep 24 / 20:30 / L10 **603** Sep 25 / 17:30 / L5

WP

고등학교 3학년 인혜와 서희, 정애, 수민은 '미래에 관한 생각'을 제출하라는 선생님의 숙제에 백지를 낸 네 명이다. 그렇다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혜는 학교에서 마련한 귀퉁이 사육장에서 오리와 토끼, 닭을 돌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하굣길에 산으로 이어지는 캠핑장을 발견한 인혜는 학교에서 철거를 결정하자 오리와 토끼, 닭 이주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 서희, 정애, 수민이 가세한다. 당연히 거기서 크고 작은 귀여운 사건들이 생겨나지만, 이 과정은 네 소녀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가는 계절이 장면 안으로 구축구석 스며들면서 영화를 보는 쪽과 자연 안에서 낙원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만 같은 기쁨을 나눌 때 무언가 위로받는 기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정성일)

High school seniors In-hye, Seo-hee, Jeong-ae, and Soo-min are four students who turn in blank papers for their assignment to write about their 'thoughts on the future.' It's not that they don't have plans. For In-hy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aking care of the ducks, rabbits, and chickens in the small breeding ground set up in a corner of the school. After discovering a campsite leading to the mountains on her way home from school, In-hye devises a plan to relocate the ducks, rabbits, and chickens when the school decides to tear down their enclosure. Seo-hee, Jeong-ae, and Soo-min join her in this endeavor. Naturally, a series of adorable incidents, both big and small, arise from this. However, this process is also about the four girls building their own utopia. As the shifting season from summer to fall seeps into every corner of the scenes, you will be filled with a sense of comfort, sharing in the joy of building a paradise within nature alongside the characters. (JUNG Sung-il)

JOURNEY THERE

흐르는 여정

Korea | 2025 | 123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inyu 김진유**



207 Sep 20 / 20:00 / L3 **361** Sep 22 / 19:30 / C6
435 Sep 23 / 16:00 / C5 **541** Sep 24 / 14:00 / L10

WP

춘희는 세상을 떠난 남편 현철과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자그마한 아파트로 이사한다. 남편이 아끼던 그랜드 피아노와 자동차와 함께. 하지만, 새집에 피아노를 들이는 게 여의치가 않자, 이웃 주민 민준의 제안으로 그의 아파트에 두기로 한다. 알고 보니 민준은 지휘자인 데다 엄마를 찾고자 무작정 한국으로 온 사연이 있다. 두 사람의 뜻밖의 만남에 이어 민준이 기특해하는 피아노 꿈나무 성찬까지 가세하면서, 나이도, 경험도, 삶의 경로도 전혀 다른 세 사람의 무해하고 선한 우정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들이 함께하는 얼마간의 시간은 부재하는 이가 남기고 간 과거의 흔적을 가차 있는 미래의 일로 돌리고, 새로이 태어나게 만드는 환원과 재생과 부활의 과정이기도 하다. 시종 품위를 잃지 않고 너른 품으로 생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꺼안은 영화는 의연하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참으로 귀한 우아한 세계이다. (정지혜)

Chun-hee leaves the home she shared with her late husband, Hyun-chul, and moves into a modest apartment, bringing with her his cherished grand piano and car. When it proves impossible to fit the piano into her new place, she accepts her neighbor Min-jun's offer to keep it in his apartment. It turns out that Min-jun is a conductor, and that he has come to Korea on an impulsive journey in search of his mother. Soon, the two are joined by Seong-chan, a promising young pianist whom Min-jun admires. Thus begins an innocent, good-hearted friendship between three people of entirely different ages, experiences, and life paths. The time they share together transforms traces of the past, left behind by those who are gone; they evolve into something with meaning for the future, becoming an act of restoration, renewal, and rebirth. With unwavering grace and an open heart, the film embraces the shimmering moments of life. It is, truly, a rare and elegant world we are fortunate to encounter once again in a long time. (JEONG Jihye)

The Love of Truman

트루먼의 사랑

Korea | 2025 | 145min | DCP | color
Director **KIM Dukjoong 김덕중**



289 Sep 21 / 19:40 / L3 **392** Sep 22 / 12:30 / L10
471 Sep 23 / 19:00 / KT **576** Sep 25 / 09:30 / C3

WP

짐 캐리가 주연인 피터 위어 연출의 1998년 영화 <트루먼 쇼>는 평범하게 살던 트루먼 버뱅크가 사실은 자신이 작은 섬의 세트장에서 일가수일투족을 중계방송 당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한다. 김덕중의 <트루먼의 사랑>은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자신이 트루먼이라고 소개하는 한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따금 이 세트장이 '애러'를 일으켜서 작동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남자는 그럴 9개월 뒤에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트장에서 탈출하는 대신 자신들과 같은 트루먼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영화도 '애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주인공을 옮겨간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진행 속에서 종종 길을 잃을 것이고,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가는 김덕중의 고군분투를 마주할 것이다. (정성일)

Peter Weir's 1998 film *The Truman Show*, starring Jim Carrey, begins when Truman Burbank discovers that his seemingly ordinary life is actually being broadcast live from a set on a small island. Kim Dukjoong's *The Love of Truman* begins when a man on the subway coincidentally meets a woman who introduces herself as Truman. She tells him that this 'set' sometimes experiences 'errors' and stops working. The man comes to believe her nine months later. However, instead of escaping the set, they search for other 'Trumans' like themselves. Then the film itself seems to have an 'error' and shifts its protagonist. While it appears ordinary on the surface, audiences will often get lost in its progression no matter how focused they are, and will witness Kim Dukjoong's own arduous struggle to find what is real among the fakes. (JUNG Sung-il)

Maze

미로

Korea | 2025 | 86min | DCP | color/b&w
Director **SHIN Sun 신선**



288 Sep 21 / 09:00 / L3 **370** Sep 22 / 19:00 / L3
466 Sep 23 / 13:30 / L10 **515** Sep 24 / 20:00 / C6

WP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는 희미는 아버지 사망을 무연고자로 처리하고 돌아와 일을 그만둔다. 그날,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남자가 사무소에 찾아온다. 아내를 사고 낸 남자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 알고 싶다고 의뢰한다. 호기심을 느낀 희미는 그 일을 떠맡는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미로>는 필름 누아르가 아니다. 의뢰한 일은 이야기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별사건 없이 조사하고 전달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 이야기의 심연이 조금씩 열린다. 그러니까 절반이 지나서야 영화가 시작된다. 영화는 느릿느릿 진행되면서 남편과 사고를 낸 남자, 이따금 나타나는 남편의 아내의 플래시백,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희미를 고요하게 오가며 슬픔의 공기를 짙어나간다. 관객은 그 장면들을 음미하듯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정성일)

After dealing with her father's death which was categorized as an 'unclaimed body,' Hee-mi quits her job working at a detective agency. That same day, a man who lost his wife in a traffic accident visits the office. He commissions the agency to find out how the man who caused the accident is living now, as he is curious. Intrigued, Hee-mi takes on the case. Don't get the wrong idea. *Maze* is not a film noir. The requested job is investigated and reported back without much incident, well before the story is even halfway through. It is from there that the abyss of this tale begins to open little by little; in other words, it is only at the halfway point that the film truly begins. As it unfolds at an unhurried pace, moving quietly between the husband, the man who caused the accident, occasional flashbacks of the husband's wife, and Hee-mi, audiences will find themselves savoring scenes that seem to capture the very air of grief. (JUNG Sung-il)

The Mutation

사랑의 탄생

Korea | 2025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SHIN Su-won** 신수원



206 Sep 20 / 16:00 / L3 **395** Sep 22 / 20:00 / C5
467 Sep 23 / 16:30 / L10 **509** Sep 24 / 19:30 / C4

The Observer's Journal

관찰자의 일지

Korea | 2025 | 155min | DCP | color

Director **LIM Junghwan** 임정환



254 Sep 21 / 12:10 / B3 **388** Sep 22 / 13:00 / L9
446 Sep 23 / 19:30 / L3 **512** Sep 24 / 19:00 / C5

202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지원작

WP

외모 때문에 태생과 국적을 끊임없이 해명하며 살아왔던 세오는 어느 날 명품 캐리어와 그 속에 담긴 정제 모를 물건을 보상으로 내걸며 함께 여행할 사람을 찾는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만 돌아오던 와중에 소라가 다가온다. 동성 연인의 흔적을 찾으려는 소라 또한 세오만큼이나 동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견에 갇힌 인물들이 낯선 여정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은, 신수원 감독의 영화들이 줄곧 그려왔듯 사회적 시선과 개인적 회복을 나란히 놓는다. 모델로 커리어를 시작한 한현민, 이주영이 독특한 호흡을 선보이며 ‘돌연변이’의 우정과 성장을 표현한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저만의 리듬을 타는 두 배우의 몸짓은 그 자체로 영화의 메시지가 된다. 또한 문근영과 이정은 등 감독과 전작을 함께했던 배우들이 알맞은 자리에 등장해 반가움과 안정감을 더한다. (차한비)

Se-oh, who has spent his life constantly having to explain his origins and nationality because of his appearance, one day seeks a travel companion—offering a luxury suitcase and the mysterious item inside as a reward. While most respond with suspicion, Sora approaches him. Searching for traces of her same-sex partner, Sora is just as much in need of a companion as Se-oh. As in all of director Shin Su-won’s films, the journey of characters trapped by prejudice takes center stage; they strive to find affirmation of their existence through an unfamiliar voyage, placing societal gaze and personal recovery side by side. Han Hyun-min, who began his career as a model, and Lee Zoo-young deliver a unique chemistry that portrays the friendship and growth of these ‘mutants.’ Their movements, unbound to one place and following their own rhythms, become the film’s message in themselves. In addition, actors such as Moon Geun-young and Lee Jung-eun—who have worked with the director in previous films—appear in well-suited roles, adding a sense of welcome reassurance. (CHA Hanbi)

WP

세 개의 이야기를 연결한 <관찰자의 일지>는 긴장과 유머를 다루는 임정환 감독 특유의 감각과 변화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감독의 오랜 ‘영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 합류해 더욱 기묘하고 풍성한 세계를 자랑한다. 특히 방민아와 박종환은 시간간을 넘나들며 세 편의 이야기에 느슨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연결 고리를 만든다. 이름과 직업을 바꾸고 감쪽같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인물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재미’를 말한다는 것. 누군가는 재미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누군가는 그저 재미있게 일하고 싶다고 항변한다. 영화는 허술한 환상과 빠뜨린 끈란을 교차하며 삶과 창작을 향한 기쁨, 회의, 설렘, 외로움을 털어놓는다. 영화 못지않게 천연덕스러운 배우들 덕분에 <관찰자의 일지>에는 돌연 기습하는 위기와 폭력, 서서히 물드는 애정, 우스꽝스러운 진실 모두 기록된다. (차한비)

Linking three stories together, *The Observer's Journal* showcases director Lim Junghwan’s signature knack for balancing tension and humor, while also signaling a shift in his style. Alongside his long-time ‘cinema friends,’ new faces join in to enrich and further enliven this peculiar, expansive world. In particular, Bang Minah and Park Jonghwan traverse time and space, creating a loose yet reliable thread connecting the three tales. If there’s a commonality among characters who change their names, professions, and seemingly become entirely different people, it’s that they all speak of ‘fun.’ One vows never to give up on it, while another insists they simply want to work with joy. Crossing between clumsy fantasies and painful predicaments, the film confesses the joy, doubt, excitement, and loneliness tied to life and creation. Thanks to its effortlessly natural cast, *The Observer's Journal* manages to capture—alongside its sudden intrusions of crisis and violence—the slow blooming of affection and the absurd truths that emerge along the way. (CHA Hanbi)

The Second Child

두 번째 아이

Korea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YU Eun-jeong** 유은정



291 Sep 21 / 12:30 / L3 **360** Sep 22 / 12:00 / KT
468 Sep 23 / 19:30 / L10 **500** Sep 24 / 12:00 / C2

Two voices into an echo

우아한 시체

Korea | 2025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Kyungrae** 김경래



271 Sep 21 / 20:30 / C3 **368** Sep 22 / 11:30 / L3
424 Sep 23 / 15:00 / C2 **616** Sep 25 / 19:30 / L10

<두 번째 아이>를 처음 보면서 영화 내내 당신이 누리게 될 흥미진진한 추리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몇 가지 힌트를 주는 데서 멈출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코마 상태였던 어린 수안은 깨어나서 언니 수련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본다. 엄마는 계속 말을 피한다. 그런데 수안 앞에 언니와 똑같이 생긴 재인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가 상황을 설명하지만, 잠깐만, 점점 더 엄마의 말도 믿기 어려워진다. 엄마 역에 임수정이 나오는 순간 누구라도 김지운의 <장화, 홍련>(2003)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이 이야기를 비틀었고, 종종 우주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이 개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다. 너무 많은 힌트를 준 것일지 모르겠다. 마지막 장면까지 결론을 미루길 바란다. (정성일)

To avoid spoiling the thrilling pleasure of deduction you’ll experience while watching *The Second Child* for the first time, just a few hints will be provided here. Having been in a coma for the past three years, young Soo-an wakes up and asks where her older sister, Soo-yeon, has gone. Her mother continually avoids the question. Then, a girl named Jae-in, who looks identical to her sister, appears before Soo-an. The mother explains the situation to others, but wait—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believe her words. The moment Lim Soo-jung appears in the role of the mother, audiences will be reminded of Kim Jee-woon’s *A Tale of Two Sisters* (2003). However, this film twists the narrative even further and, with the intervention of fantasies that could be described as cosmic visions, it veers in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Perhaps I have already given too many hints. I recommend you reserve judgment until the final scene. (JUNG Sung-il)

오프닝에서 카메라는 귀를 쫓아져라 응시한다. 내부와 외부를 지닌 굴곡진 신체 기관은 들여다볼수록 동굴을 닮았다. 여자는 듣는 일에 예민하다. 권태기를 극복하자며 매달리는 애인에게 가차 없이 이별을 고한다. “늦었어. 너무 많은 말을 들어버렸어.” 관계는 단호히 종결되고 여자 앞에 곧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상대는 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 나이도 주저지도 직업도 불분명하다. 애초에 형체조차 없으니 실존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렵다. <우아한 시체>는 극단적 설정을 밀어붙이며 시각적 증거 없이도 사랑과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지 집요하게 묻는다. 관객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이, 여자의 맹목적 사랑은 급기야 생명을 탄생시키더니 다른 이에게로 전이되기까지 한다. <우아한 시체>는 사랑의 신화를 새로 쓴다. (차한비)

In the opening, the camera stares intently at an ear. This curved bodily organ, with its inner and outer structures, resembles a cave the closer you look. The woman is sensitive to listening. When her lover pleads to overcome their relationship rut, she mercilessly ends it: “It’s too late. I’ve heard too many words.” The relationship ends decisively, and soon a new love appears before her. The new partner is known only by the name Ben—his age, residence, and occupation all unclear. From the start, he has no tangible form, making his very existence uncertain. *Two voices into an echo* pushes its extreme premise to the limit, persistently asking whether love and trust can endure without any visual proof. As the audience themselves are put to the test, the woman’s blind love ultimately brings forth life—and even transfers to another person. *Two voices into an echo* rewrites the myth of love. (CHA Hanbi)

Winter Days

겨울날들

WP

Korea | 2025 | 84min | DCP | color

Director **CHOI Seung-woo** 최승우



205 Sep 20 / 12:30 / L3 306 Sep 21 / 20:30 / L7

396 Sep 22 / 16:00 / KT 425 Sep 23 / 19:00 / C2

최승우의 두 번째 영화는 제목이 내용이다. 어떤 사건도 생기지 않고,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누가 주인공인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아무 대사도 없으며, 인물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겨울 한 철을 지낸다. 다른 인물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리듬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퇴근 시간 전철 안의 가득 찬 승객들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새벽에 골목길을 내려가고, 깊은 밤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노동의 출퇴근. 누군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집 내부를 철거 공사하는 남자를 더할 것이고, 누군가는 한 여자를 다시 더할 것이다. 그렇지만 텅 빈 네트워크 속에 그들 사이의 공통점은 그해 겨울을 서울에서 춥고 가난하게 일하면서 보내는 것뿐이다. 이야기를 만들지 마라. 이들을 보라. (정성일)

Choi Seung-woo's second film holds its meaning in its title. No incident occurs; as the film unfolds, it's hard to tell who the protagonist is. There is no dialogue. The people say nothing, silently enduring the course of a winter. Other characters remain equally wordless. Even the passengers packed into the subway train at rush hour, who appear repeatedly at regular, rhythmic intervals, do not speak. They walk down an alley at dawn and climb steep stairs late at night, commuting to and from labor. Some might say it is the story of one man. Others might add a man doing demolition work inside a house. Still others might add a woman to the mix. However, within this empty network, the only thing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spending that winter working in Seoul, cold and poor. Do not build a story. Observe them. (JUNG Sung-il)



이희건한일교류재단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Lee Heui Keon Korea-Japan Exchange Foundation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celebration of the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5.
We wish the festival great success.

 재단법인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Lee Heui Keon Korea-Japan Exchange Foundation

A Window on Asian Cinema | 아시아영화의 창

아시아의 중견감독들과 신인감독들의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화제작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최근 아시아영화의 주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perience the diverse styles and visions of Asian cinema through outstanding works
from established directors and emerging talents, capturing the spirit of contemporary Asian filmmaking.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After Dreaming

꿈보다 아픈 밤

Armenia/United States/Mexico | 2025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Christine HAROUTOUNIAN** 크리스틴 하루투니안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길게 드리운 아르메니아. 적으로 오인돼 살상된 아버지의 죽음을 모른 채, 클로데트는 군인 아들과 외딴 수도원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 현실의 경계를 지우는 카메라는 불안한 '꿈 이후' 나른한 몸과 땅에 새겨진 상흔을 시적으로 비춘다. 느릿한 핸드헬드와 번졌다가 수축하는 듯한 초점은 살아남은 자들의 불안정한 호흡을 따라가며 인간 내면의 공허를 포착해 낸다. 약 15분간 전통 음악 속에서 펼쳐지는 집단 결혼식은 전쟁으로 파괴되고 침식한 일상과 친밀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영화의 정점을 찍는다. 꿈처럼 작동하는 이 여정은 관객을 비몽사몽의 세계로 초대하고, 감독이 "제노사이드 브레인"이라고 말한, 세대를 관통해 유전되는 집단 트라우마와 디아스포라의 영구적 불안을 각자의 꿈에 새겨 넣는다. (채경훈)

In Armenia, where the shadows of war still cast their long reach, Claudette embarks on a road trip to a remote monastery with a soldier Atom, unaware that her father has been killed after being mistaken for the enemy. The camera blurs the boundaries of reality, poetically illuminating the languid bodies and scarred landscapes of an uneasy 'post-dream' state. Slow handheld shots and focus that seems to blur and contract follow the unstable breathing of survivors, capturing the emptiness within the human soul. A collective wedding ceremony unfolding to traditional music for approximately 15 minutes dramatically reveals the intimacy and daily life destroyed and eroded by war, marking the film's climactic moment. This dreamlike journey invites audiences into a drowsy, half-conscious world, imprinting upon each viewer's dreams what the director calls the 'genocide brain'—the collective trauma and perpetual anxiety of diaspora that passes through generations. (CHAE Kyeong Hoon)

044 Sep 18 / 14:00 / L2 **145** Sep 19 / 17:00 / L9

184 Sep 20 / 09:00 / C2 **498** Sep 24 / 14:00 / C1

베를린영화제 포럼

AMOEBA

아메바

Singapore/Netherlands/France/Spain/Korea | 2025 | 99min | DCP | color

Director **TAN Siyou** 탄쓰유



031 Sep 18 / 20:00 / C3 **102** Sep 19 / 09:30 / C2

321 Sep 21 / 10:30 / BCM

토론토영화제 디스커버리

BAYAAN

증언

India | 2025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Bikas Ranjan MISHRA** 비카스 란잔 미쉬라



030 Sep 18 / 16:00 / C3 **113** Sep 19 / 20:00 / C4

520 Sep 24 / 16:30 / L2

토론토영화제 디스커버리, 2024 APM 프로젝트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싱가포르. 16세 소녀 추는 이런 싱가포르를 견딜 수가 없다. 아직 태형이 존재하고 길거리에서 껌을 씹는 것조차 불법인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근대적인 폭력을 알레고리로 엮어 싱가포르라는 거대한 수족관을 바라보면 국가 폭력으로 확장된다. 학교 정책에 유일하게 반기를 든 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친구들은 함께 삼합회를 모방한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이들의 어설픈 계획은 곧 학교 측에 발각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기말시험을 잘 치러야만 한다.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은 애국적인 모범답안을 말한다. 그렇다면 추는 어떤 대답을 할까? (김채희)

Singapore, the cleanest and safest country in the world. Choo, a sixteen-year-old girl, cannot stand this version of Singapore. What must it feel like to live in a country where caning still exists and even chewing gum on the street is illegal? When we view Singapore as a giant aquarium through the allegory of premodern violence occurring at school, it expands into state violence. Choo is the only one who rebels against the school policy. Inspired by her courageous actions, her friends agree to form an organization modeled after The Triads. However, their clumsy plan is soon discovered by the school administration, and to avoid punishment, they must perform well on their final exams. In the examination room, her friends give patriotic, model answers. But what answer will Choo give? (KIM Chae-hee)

인도 북부 작은 마을, 사이비 종교지도자 마하라지의 여성 공동체로부터 제발 구해달라는 익명의 편지가 지역신문사로 날아든다. 전설적인 수사관의 외동딸인 루히 형사가 델리에서 수사 책임자로 파견되었는데, 한 소녀가 첫날 실종된 후 변사체로 발견된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 조직적인 학대의 정황이 분명했지만, 공동체 책임자인 니르말라가 방해하고 주민들은 마하라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거둬 생각이 전혀 없어서 증인 한 사람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루히의 부친은 일찍이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할 것인가. 카르텔을 끊고 침묵을 깬 용감한 사람들에게 헌정된 이 작품으로 비카스 란잔 미쉬라 감독은 2025 토론토영화제 디스커버리 부문에 초청되었다. 2024년 APM 선정작이다. (최은)

An anonymous letter arrives at a local newspaper in a small town in northern India, pleading for rescue from a women's community led by cult leader Maharaj. Detective Roohi, the only daughter of a legendary officer, is assigned to investigate the case. On her first day, a girl goes missing and is later found dead. While the circumstances clearly indicate gaslighting, sexual grooming, and organized abuse, Roohi struggles to find witnesses due to interference from community leader Nirmala and townspeople who are grateful to and revere Maharaj. Early on, Roohi's father warned her never to trust anyone. Now, she must decide whom to trust and whom to suspect. Dedicated to those courageous enough to sever ties with cartels and break their silence, this film by Bikas Ranjan Mishra was invited to the Discovery section of the 2025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AYAAN* was selected for the 2024 Asian Project Market. (CHOI Eun)

Becoming

비커밍

France/Kazakhstan/Netherlands/Lithuania/Sweden | 2025 | 94min | DCP | color
Director **Zhannat ALSHANOVA** 자나트 알샤노바



439 Sep 23 / 16:00 / C6 **504** Sep 24 / 13:00 / C3
619 Sep 25 / 20:30 / KT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감독경쟁

이번만큼은 다들 거라던 엄마가 또다시 밀라와 리나 자매를 두고 애인을 만나러 멀리 떠나버렸다. 일찌감치 기대를 접고 비디오게임에 빠져드는 것과 우연히 만난 수영팀에 어떻게든 합류하는 것, 휴가지에 남겨진 어린 리나와 심대의 밀라가 선택한 각자의 생존법이었다. 필요하다면 어른들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이루고 싶었던 밀라는 정해진 레인을 따라 속도를 내면 되는 실내경기와 달리 물살의 세기와 날씨에 맞서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야외경기의 혹독함을 몸으로 익히며 비로소 '선수'가 되어간다. 터닝 포인트에 이른 밀라의 '잠시 멈춤'을 무한히 응원하게 되는 것은 진기한 영화적 체험이다. 카자흐스탄 출신 자나트 알샤노바의 장편 데뷔작이며, 2025년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감독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최은)

This time it would be different, or so their mother promised. Yet once again she abandons Mila and Lina at a hotel to visit her lover far away. Mila and Lina survive by giving up on hope early: Lina losing herself in video games, while Mila joining the swimming team whatever it takes. Mila resorts to methods reserved for grownups just to reach her goal. Unlike indoor swimming, where swimmers simply have to stay in lane and push for speed, outdoor swimming involves fighting the currents and weather while steering your own course. Learning the harshness of outdoor racing through her body, Mila gradually becomes a true athlete. Watching her pause at the turning point is a rare cinematic experience that makes the viewers cheer her on endlessly. This debut feature by the Kazakh filmmaker Zhannat Alshanova competed in the Concorso Cineasti del Presente section at the Locarno Film Festival. (CHOI Eun)

Becoming Human

한생: 상실의 끝에서

Cambodia | 2025 | 99min | DCP | color
Director **Polen LY** 폴렌 리



123 Sep 19 / 12:30 / L2 **203** Sep 20 / 20:00 / L2
499 Sep 24 / 17:00 / C1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칼리지시네마

빠르게 변해가는 캄보디아. 티다는 철거를 앞둔 폐영화관에 거주하는 혼령이다. 어느 날 어린 시절 영화관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하이가 방문하고, 티다와 하이는 금세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티다는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 또다시 살고 싶지 않았던 티다는 내세로 가는 절차를 거부하고 하이라 길을 떠난다. 단편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꾸준히 환경과 사회 문제를 다뤘었던 폴렌 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 2024-2025 비엔날레 칼리지 시네마의 최종 4편에 선정되었다. 티다는 1970년대 참혹했던 크메르루주 시기의 상흔을, 2020 년대를 살아가는 하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타전의 상실을 안고 있다. 담담하게 오가는 티다와 하이의 대화 속에 캄보디아가 알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동시대적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부경환)

Cambodia, a country that is rapidly changing. Thida is a ghost who resides in an abandoned movie theater, soon to be demolished. One day, Hai visits to document childhood memories of the theater, and the two soon feel a strong bond. Thida must leave this place to be reborn in her next life. However, not wanting to live in the human world again, Thida refuses the process of moving on to the afterlife and sets off on a journey with Hai. *Becoming Human* is the feature debut of Polen has consistently addressed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through his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e film was selected as one of the final four projects for the 2024-2025 Biennale College Cinema. Thida carries the scars of the horrific Khmer Rouge period of the 1970s, while Hai, living in the 2020s, bears the loss of his home due to indiscriminate urban development. In the calm, flowing conversations between Thida and Hai, Cambodia's historical trauma and contemporary pain are laid bare. (BOO Kyunghwan)

The Botanist

보태니스트

China | 2025 | 96min | DCP | color
Director **Yi Jing** 이징



202 Sep 20 / 16:00 / L2 **384** Sep 22 / 12:30 / L7
538 Sep 24 / 17:00 / L9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K플러스 국제심사위원대상, 2023 APM 프로젝트

열세 살 아르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예르켄 삼촌이었다. 아르신에게 '식물학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식물채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던 삼촌은 3년 전 눈이 많이 온 겨울 마을을 떠났다. 전설 속의 노인처럼 영생의 샘물을 먹고 어디선가 나무의 일부가 되어 누워있는 걸까, 사마귀처럼 몸을 숨길 나뭇잎을 찾아낸 걸까. 도시의 일자리와 가을 목초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름에 형과 단짝친구와 첫사랑 메이유까지 멀리 떠나가는 와중에, 초원의 눈부신 태양과 개울 가득한 윤슬은 무성한 잎을 키워내듯 홀로 남은 소년을 훌쩍 자라게 했다. 이징 감독은 자신이 나고 자란 신장 북부의 자연과 토속정서를 바탕으로 한 이 데뷔작으로 2025년 베를린에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 국제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최은)

The first to vanish from thirteen-year-old Arsin's life was his uncle Yerken, nicknamed Arsin 'botanist', who taught him everything about collecting plants. Then three years ago, on a snowy winter day, he left town. Has he drunk the elixir of life and become part of a tree like the old man from legend? Or has he found a leaf to hide under like a praying mantis? As work in the city, autumn meadows, and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draw away Arsin's inner circle including his brother, best friend, and first love Meiyu, Arsin grows like the lush leaves of a tree nurtured by brilliant sunlight and shimmering creek water. With this debut film set against the natural beauty and local culture of northern Xinjiang,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Yi Jing won the Grand Prix of the International Jury for Best Film in the Generation Kplus section at the Berlin Film Festival. (CHOI Eun)

A Dance in Vain

헛된, 춤

China | 2025 | 86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ong-chi** 리홍치



209 Sep 20 / 12:30 / L4 **292** Sep 21 / 09:00 / L4
387 Sep 22 / 10:00 / L9

베니스영화제 비평가주간

상하이의 무대 디자이너인 몽키는 석 달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번역스러운 제작자와 허세쟁이 감독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고 임금 채불로 형편마저 곤란한 중에 이 도시에서 몽키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살한 남자친구에 대한 아픈 기억이다. 데뷔작 <애시할파창> (2023) 으로 베니스에서 오리종티 감독상을 수상한 리홍치의 <헛된, 춤>은 "넌 그래도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싶잖아(그쯤은 참아야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들에게 공감이 될 작품이다. 예술이란 쓸모 없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은 높고 현실은 힘겹지만, 한 춤 노란 꽃과 노란 향초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만이 '헛된' 춤을 추며 마음껏 흔들릴 수 있다. (최은)

Monkey, a stage designer in Shanghai, has spent three months searching for housing without success. Exhausted by the unreasonable demands of a fickle producer and pretentious director, and struggling with delayed wages, Monkey is also haunted by the painful memory of her boyfriend's suicide. Following his debut film *Love Is a Gun* (2023), which won him the Orizzonti Award for Best Director at Venice, Lee Hong-chi presents *A Dance in Vain*, which will resonate with anyone who has ever heard, "At least you get to make a living doing what you love (so just suck it up)," or, "You're being too difficult." The film also speaks to those who understand that art is at its most beautiful when it is 'useless.' Ideals soar high and reality remains heavy, but only those who refuse to give up a handful of yellow flowers and yellow candles can keep dancing in vain, swaying freely. (CHOI Eun)

Dear Stranger

디어 스트레인저

IP

Japan/Taiwan/United States | 2025 | 138min | DCP | color
Director **MARIKO Tetsuya** 마리코 데쓰야



051 Sep 18 / 09:00 / L4 **236** Sep 20 / 13:30 / BCM
514 Sep 24 / 16:30 / C6

Don't Tell Mother

싫! 엄마한테 비밀이야

WP

India/Australia | 2025 | 88min | DCP | color
Director **Anoop LOKKUR** 아누프 로쿠르



109 Sep 19 / 20:30 / C3 **208** Sep 20 / 09:00 / L4
463 Sep 23 / 17:00 / L9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란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영화는 꿈을 좇으며 안전한 일상을 추구하던 한 가족이 겪는 파국의 내러티브로 전개된다. 교수 임용을 꿈꾸는 일본인 교수 겐지와 인형극 예술가로 활동하는 대만계 미국인 제인은 아들 카이와 뉴욕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룬 듯 보인다. 제인은 엄마로서의 삶과 밀착될수록 멀어져 가는 자신의 꿈을 잡으려 애를 쓴다. 어느 날 카이가 실종되면서, 잔존하던 기억이 겐지와 제인의 삶을 비집고 들어온다. <디어 스트레인저>는 니시지마 히데토시와 계륵미의 괴력에 가까운 연기와 서스펜스가 맞물려 작동하는 긴장감과 활력으로 가득 찬 비범한 작품이다. 마리코 데쓰야는 비극이 남긴 폐허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섭리를 영화로 증명해 낸다. (문주화)

What shape does the ideal family take? *Dear Stranger* unfolds as a narrative of catastrophe, one that befalls a family chasing their dreams while seeking a peaceful everyday life. Kenji, a Japanese professor aspiring for a tenure-track position, and Jane, a Taiwanese-American puppeteer, appear to have built a happy home in New York with their son Kai. As Jane becomes more deeply immersed in her life as a mother, she struggles to hold on to her own dreams, which seem to drift further away. One day, Kai goes missing, and the fragments of memory that remain begin to intrude upon Kenji and Jane's lives. *Dear Stranger* is an extraordinary work brimming with the tension and vitality generated by the compelling performances of Nishijima Hidetoshi and Gwei Lun-Mei, seamlessly interwoven with suspense. Through the film, director Mariko Tetsuya demonstrates that life's course continues even amid the ruins left behind by tragedy. (MOON Juhwa)

가끔 말썽부리는 형제, 가사를 전담하는 엄마, 결정적일 때 나타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빠, 가까이 살아 도움을 주는 할머니. 아카시와 아디 형제의 가정은 극히 평범해 보인다. 아누프 로쿠르의 첫 장편 <싫! 엄마한테 비밀이야>는 하지만 평범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규범도 아니지 않나, 나지막이 묻는다. 엄마 락시미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시댁으로부터 독립할 기회는 시아버지의 고집과 남편의 우유부단함으로 자주 좌절되고, 가라테를 배우고 싶다는 아카시의 바람은 공부나 하라는 핀잔으로 되돌아온다. 사소한 요구에 담긴 결핍을 헤아리고 당연한 줄 알았던 폭력을 더 참지 않는 것, 익숙했던 돌봄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캐슈너트를 먹다가 문득 떠올리게 될 다정한 영화. (최은)

Occasionally mischievous brothers, a mother who handles all the housework, a father who appears at crucial moments, and a grandmother who lives nearby and offers help—Aakash and Adi's family seems perfectly ordinary. Yet Anoop Lokkur's debut feature *Don't Tell Mother* quietly questions whether what we consider 'ordinary' is natural or even the norm. Their mother Lakshmi wants to start a small business, but her plans for independence from her in-laws are repeatedly thwarted by her father-in-law's stubbornness and her husband's indecision. Aakash's desire to learn karate is dismissed with familiar refrain: focus on studying instead. Recognizing the lack of value in trivial requests, no longer tolerating the violence long taken for granted, and expressing gratitude for family care—all of these are difficult to do. This is a heartwarming film that may come to mind unexpectedly, while chewing on cashew nuts. (CHOI Eun)

The Fox King

여우왕

Malaysia/Indonesia | 2025 | 94min | DCP | color
Director **WOO Ming Jin** 우밍진



218 Sep 20 / 16:00 / L6 **300** Sep 21 / 09:30 / L6
551 Sep 24 / 10:00 / BCM

토론토영화제 센터박스

말레이시아의 한 바닷가 마을. 알리와 아미르는 서로 텔레파시가 통할 만큼 가까운 이란성 쌍둥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이용에 먹을 생각뿐이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괴롭힘당하기 일쑤인 알리와 아미르에게 서로의 존재는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즐거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영어 교사 라라가 새로 부임하면서 두 형제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여우왕>은 <돌거북이>(2022)로 로카르노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한 말레이시아의 우밍진 감독이 연출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슈퍼스타 디안 사스트로와르도요가 매혹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한 라라 역을 맡아 극의 몰입감을 배가시킨다. 형제 간의 경쟁과 질투, 넘볼 수 없는 첫사랑의 아픔, 상실에 대한 부채 의식. 사춘기에 겪는 열병과도 같은 감정적 혼란과 성장통이 뜨거운 남국의 열기 속에 그려진다. (부경환)

In a seaside village in Malaysia, Ali and Amir are fraternal twins so close they can almost communicate telepathically. Their mother has passed away, and their father, far from caring for them, only thinks of how to exploit them. Frequently bullied by their schoolmates, Ali and Amir find in each other their only source of strength and joy. Then one day, a beautiful new English teacher, Lara, arrives, and the two brothers' relationship enters a new phase. *The Fox King* is directed by Malaysian director Woo Ming Jin, who won the FIPRESCI Prize at the Locarno Film Festival for *Stone Turtle* (2022). Indonesian superstar Dian Sastroradoyo plays the enchanting yet mysterious Lara, heightening the film's immersive atmosphere. The feverish emotional turmoil and growing pains of adolescence—sibling rivalry and jealousy, the agony of a first love one cannot possess, and a sense of guilt over a loss—are depicted amidst the heat of the tropical south. (BOO Kyunghwan)

Full Plate

WP

암린의 부엌

India | 2025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Tannishtha CHATTERJEE** 타니슈타 차테르지



052 Sep 18 / 13:00 / L4 **210** Sep 20 / 16:00 / L4
585 Sep 25 / 20:00 / C5

요리를 잘하는 무슬림 암린은 남편 임티아즈가 사고를 당한 후 점점 생활비를 벌기로 한다. 가족의 반대와 검은 허잡에 대한 편견으로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은 중에 그녀는 비건인 파를 부부의 집에서 조리사로서 첫 경력을 시작한다. 낯선 재료와 생소한 조리법으로 좌충우돌하던 암린이 능력을 인정받고 일정을 꽉 채워갈수록 가장인 남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타니슈타 차테르지 감독은 18년 결혼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는 이 부부를 통해 관습과 전통의 억압에 도전하는 여성의 선택을 함껏 응원한다. 간간히 암린의 상상이 삽입된 농담 같은 장면들은 암린에게도 관객에게도 숨 쉴 공간이자 명량한 마법이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단지, 화사한 단 하나의 색깔이 필요할 뿐일지 모른다. 꿈인 줄도 모르고 늘 꿈꾸던 바로 그 색. (최은)

Amreen is a Muslim woman with a talent for cooking. After her husband Imtiaz is injured in an accident, she decides to become the breadwinner. Despite family opposition and difficulty finding work due to prejudice against her black hijab, she lands her first job as a cook for a vegan couple, Parul and Vinod. Although Amreen initially struggles with unfamiliar ingredients and strange cooking methods, she gains recognition and becomes highly sought after. Yet in doing so, her husband's position as head of the household inevitably weakens. Through this married couple facing the biggest crisis of their 18-year marriage, Tannishtha Chatterjee wholeheartedly champions a woman choosing to resist the oppression of customs and tradition. Occasional humorous scenes combined with Amreen's imagination offer viewers breathing space and cheerful magical moments. Perhaps all we need is one radiant color to help us through—the very color we always dreamed of, without knowing if it was even a dream. (CHOI Eun)

Human Resource

휴먼 리소스

Thailand | 2025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Nawapo** **I**THAMRONGRATTANARIT **나와폰 탐롱라따나릿**



143 Sep 19 / 16:00 / L7 **305** Sep 21 / 16:30 / L7

386 Sep 22 / 19:00 / L7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태국 방콕의 고층 빌딩 숲. 인사과에 근무하는 프렌은 여느 회사원처럼 고단한 직장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며칠째 무단결근 중인 준의 일을 해결하는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의사는 뱃속에 새 생명을 갖게 된 프렌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라고 당부하지만, 회사와 가정의 일상은 서서히 그녀를 잠식한다. 영화는 프렌의 시선으로 삶의 미시적인 부분과 개인의 감정을 포착하지만, 그 뒤에는 기형적으로 뒤틀린 현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습이 자리하고 있다. 조금씩 침전되는 삶의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억눌림이 될 때, 오롯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한 여성의 안온함은 물에 씻기듯 사라져 간다. 인간의 가치가 소멸해 가는 사회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모순된 주문일지 모른다. (부경환)

Amid the skyscraper-filled urban jungle of Bangkok, Thailand, Fren, who works in the HR department, endures the exhausting life of an ordinary office worker. Dealing with June's repeated absences without notice, as well as hiring a new employee to fill a vacancy, are not easy tasks. The doctor advises Fren, who now carries a new life within her, not to let stress get to her and to keep her emotions under control. Yet both her work and family life slowly begin to consume her. The film captures the microscopic details of life and personal emotions through Fren's perspective, but behind them loom the distorted structures and unjust customs of modern society. As fragments of life slowly accumulate into a mass of suffocating pressure, the tranquility of a woman who must endure everything on her own is washed away like water. In a society where human value is steadily diminishing, to carry new life and to dream of the future may be, in itself, a contradictory wish. (BOO Kyunghwan)

In the Land of Arto

아르토의 땅에서

France/Armenia | 2025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Tamara** **STEPANYAN** **타마라 스테파난**



056 Sep 18 / 12:30 / L5 **124** Sep 19 / 16:00 / L2

224 Sep 20 / 12:30 / L9 **364** Sep 22 / 09:30 / L2

로카르노영화제 피아짜그란데

프랑스 여인 셀린은 파리에서 아르메니아인 아르토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육 개월 전 남편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녀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셀린은 아이들의 국적 선택에 필요한 남편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힘들게 아르메니아에 도착하지만, 그의 존재를 증명해 줄 서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남편은 이름과 직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긴 채, 오랜 세월을 셀린과 함께했다. 미궁에 빠진 셀린은 이제부터 남편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친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다. 그녀는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신기루가 태버린 남편의 정체를 온전히 대면할 수 있을까? (김재희)

Frenchwoman Celine met and fell in love with Armenian man Arto in Paris, and built a happy life with him, raising two children. But six months ago, without leaving a note, her husband took his own life. It doesn't take long for her to realize how little she truly knew about him. To obtain her husband's birth certificate—required for her children's nationality registration—Celine makes the difficult journey to Armenia, only to find that no documents exist to prove his identity. He had concealed not only his name and occupation, but also the most important fact, all while sharing his life with Celine for many years. Now lost in a maze of mysteries, Celine plunges into the heart of a war zone to uncover why her husband kept everything a secret. In this unending nightmare, will she be able to fully confront the truth about the man who has become a mirage? (KIM Chae-hee)

Ky Nam Inn

사이공의 연인

Vietnam | 2025 | 140min | DCP | color/b&w

Director **Leon** **LE** **리언 레**



144 Sep 19 / 20:00 / L7 **222** Sep 20 / 20:00 / L7

440 Sep 23 / 19:30 / C6 **507** Sep 24 / 11:00 / C4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Love on Trial

연애재판

France/Japan | 2025 | 125min | DCP | color

Director **FUKADA** **Koji** **후카다 코지**



071 Sep 18 / 15:30 / KT **134** Sep 21 / 13:30 / BCM

416 Sep 23 / 09:00 / CX

칸영화제 칸프리티어

전후 10년, 여전히 재건이 한창인 베트남의 사이공. 남편과 사별한 키남은 사이공의 공동주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충정을 공유하는 거주민들은 서로의 일가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수리는 베트남-프랑스 혼혈아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어느 날 위층에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베트남어로 번역 중인 청년 캉이 이사 온다. 집안 배경 좋고 매력적인 그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캉은 이사 온 첫날, 자신을 위가에서 구해준 키남에게 시나브로 빠져든다. 한 쪽의 로맨틱한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의 백미는 두 남녀가 밤새워 사이공 시내를 걸으면서 꿈같은 이별 의식을 치르는 후반부 장면이다. 이 시퀀스는 청년의 내레이션으로 연결되면서 두 사람의 서사를 영원한 현재형으로 머물게 한다. (김재희)

Ten years after the war, Saigon is still in the midst of reconstruction. Widowed Ky Nam runs a small restaurant in a communal housing complex, where residents share a central courtyard and know every detail of each other's lives. She has adopted and is raising Su, a French-Vietnamese mixed-race child. One day, Khang, a young man translating Saint-Exupéry's *The Little Prince* into Vietnamese, moves into the unit upstairs. With his privileged background and natural charm, it is only natural that he draws the attention of those around him. Yet from the very first day, Khang finds himself gradually drawn to Ky Nam, who once saved him from a crisis. The highlight of this film, which evokes the tenderness of a romantic watercolor painting, is the late sequence in which the two walk through the streets of Saigon all night, enacting a dreamlike farewell ritual. Carried along by the young man's narration, the scene leaves their shared story suspended in an eternal present. (KIM Chae-hee)

제이팝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마이는 꿈에 그리던 무대 위에서 사랑을 노래한다. 팬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앨범을 구매하고 환호성을 보내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열성적으로 표현한다. 팬덤 문화는 사랑의 맞교환으로 성립된 동시대의 거대한 판타지이다. 마이는 데뷔 전 알고 지내던 케이와 우연히 재회한 후 사랑에 빠지고,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애 금지'라는 조항을 앞세워 마이를 법정에 세운다. 아이들에게 팬들의 사랑과 개인적인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다. 마이는 아이돌 산업에 내재된 이중 잣대를 마주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후카다 코지의 신작 <연애재판>은 문화산업의 음지를 들춰내면서, 그에 맞서는 한 여성의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얼굴을 섬세하게 응시한다. (문주하)

Mai, a member of a J-pop idol group, sings of love on the stage she has always dreamed of. In return, fans buy albums, cheer on her, and fervently express their love. Fandom culture is a vast contemporary fantasy built on the mutual exchange of love. After an unexpected reunion with Kei, whom she had known before her debut, Mai falls in love. Her agency, citing the 'No dating' clause stated in her contract, takes her to court. For an idol, the love of fans and personal romantic love form a mutually exclusive dilemma. Confronting the double standards embedded in the idol industry, Mai steps down from the stage and begins to speak for herself in the courtroom. Fukada Koji's latest film *Love on Trial* delicately gazes at the calm yet resilient face of a woman who stands up to the shadows within the cultural industry. (MOON Juhwa)

The President's Cake

대통령의 케이크

Iraq/United States/Qatar | 2025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Hasan HADI** 하산 하디



067 Sep 18 / 19:30 / L9 **226** Sep 20 / 18:30 / L9
539 Sep 24 / 20:00 / L9

칸영화제 감독주간 황금카메라상, 관객상

<대통령의 케이크>는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칸영화제에 초청된 최초의 이라크 영화로, 황금카메라상과 감독주간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담 후세인의 갑압적인 철권통치 아래 놓였던 1990년대 이라크. 9살 소녀 라미아는 나이 든 할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지만, 반에서 1등을 차지하는 영리한 학생이다. 전쟁과 그에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는 무너졌지만, 설상가상으로 학교 선생님은 라미아에게 곧 다가올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한다. 아역을 포함한 비전문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기쁨과 슬픔을 절제된 연출로 풀어낸 하산 하디 감독의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은 관객의 기억에 긴 잔상을 남길 것이다. (박성호)

The President's Cake is a film that stirs both the heart and the mind. As the first Iraqi film ever invited to the Cannes Film Festival, it achieved the rare feat of winning both the Caméra d'Or and the Audience Award in the Directors' Fortnight. The film is set in 1990s Iraq under the oppressive, iron-fisted rule of Saddam Hussein. A 9-year-old girl, Lamia, lives a difficult life alone with her elderly grandmother, yet she is a bright student who is first in her class. The economy has collapsed due to the war and subsequent international sanctions. To make matters worse, her teacher instructs her to bake a cake for the president's upcoming birthday. The heartfelt performances of the non-professional actors, including the child actors, add a layer of realism to this miraculous story, creating a deep sense of empathy. Director Hasan Hadi's decisive final scene delivers both joy and sorrow with a restrained touch, leaving a lasting impression in the audience's memory. (PARK Sungho)

Raindrops on a Roof

지붕 위의 빗방울

China | 2025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ZHOU Jiali** 저우자리



046 Sep 18 / 20:00 / L2 **108** Sep 19 / 16:30 / C3
228 Sep 20 / 16:30 / L10 **593** Sep 25 / 14:00 / L2

싱글맘 시닝은 호기심에 찾아간 '심령살롱'에서 과거를 지워준다는 그룹활동에 참여하기로 한다. 언뜻 보아 홀어머니와 네 남매가 함께 겪은 상실과 트라우마에 시닝 혼자 유난히 집착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어머니와 남동생 시안에게도 일상은 자주 가족하다. 뿔뿔이 갈린 주황색 양말 한 짝, 아이가 숨바꼭질하는 옷장, 벗은 마네킹이나 스웨터 같은 평범한 이미지도 이 가족에게는 개인과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날카로운 자극이다. 저우자리의 첫 장편 <지붕 위의 빗방울>은 중요한 것은 사진을 불태워 없애듯이 기억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꺼내놓고 서로 마주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쪼그라든 어머니의 싸구려 스웨터 형태를 되돌리려고 그들이 함께 애쓰는 것처럼. (최은)

Single mother Shi'ning visits a 'spiritual salon' out of curiosity and joins a group activity that promises to erase the past. At first glance, only Shi'ning seems to be obsessively attached to the loss and trauma she, her three siblings, and her mother experienced. But in reality, everyday life is often harsh for her mother and younger brother Shi'an as well. Ordinary images, such as an orange sock hanging on the clothesline, a wardrobe where a child hides, a stripped mannequin, or an old sweater trigger painful reminders of both personal and historical trauma for this family. Zhou Jiali's feature debut *Raindrops on a Roof* suggests that what matters is not cutting out memories like burning photographs but bringing pain into the open and facing one another—much like the family working together to restore their mother's cheap, shrunken sweater. (CHOI Eun)

Rangga & Cinta

랑가 앤 친타

Indonesia | 2025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Riri RIZA** 리리 리자



058 Sep 18 / 20:00 / L5 **140** Sep 19 / 16:30 / L6
464 Sep 23 / 20:00 / L9

오랜만에 만나는 풋풋한 하이틴 로맨스 뮤지컬 드라마. 친타(인도네시아어로 '사랑'이라는 뜻)는 전교생이 다 알 만큼 예쁘고 재능 있는 여학생이다. 교내 백일장에서도 다들 친타의 우승을 예상한다. 그러나 정작 우승의 영예는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랑가라는 남학생에게 돌아간다. 친타는 모든 면에서 자신과 다른 랑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랑가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위태로워져 간다. 인도네시아 영화사의 기념비적 흥행작 <친타에게 무슨 일이?>(2002)는 이후 속편은 물론 스피노프, 단편, TV 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다. 이번 작품은 2002년 원작의 리메이크로 당시 제작자로 참여한 리리 리자가 직접 연출을 맡았다. 싱그러운연서도 애뜻한 10대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제가 곳곳에 녹아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경환)

A youthful high-teen romance musical drama, the kind not seen in a long time. Cinta (meaning 'love' in Indonesian) is a pretty and talented girl well-known throughout her school. Everyone expects her to win the top prize in the school's essay contest, yet the honor unexpectedly goes to Rangga, a boy no one even knew existed. Gradually, Cinta becomes interested in Rangga, who is different from her in every way, and the more her feelings for Rangga develop the rockier her relationships with her friends become. *Ada Apa Dengan Cinta?* (2002) was a great box office hit and a milestone in Indonesian cinema, spawning sequels, spin-offs, short films, and television series. *Rangga & Cinta* is a remake of the original film, directed by Riri Riza, who was a producer on the original. As this story of vibrant yet bittersweet teenage love and friendship unfolds, the film also weaves in social issues that catch audience attention. (BOO Kyunghwan)

Renoir

르누아르

Japan/France/Singapore | 2025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HAYAKAWA Chie** 하야카와 치에



072 Sep 18 / 19:30 / KT **138** Sep 19 / 09:00 / L6

칸영화제 경쟁

11살 소녀 후키는 어찌 된 일인지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는 허구의 에세이를 쓰는가 하면, 영혼과의 대화를 종종 시도한다. 앞에 걸린 아버지를 둔 어린 소녀에게 죽음이란 그저 요원한 것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탐구의 영역에 가깝다. 전작 <플랜 75>(2022)에서 근미래 일본의 노년 사회를 상상했던 하야카와 치에는 이번 신작에서는 1980년대의 도쿄를 회상하며, 아이의 눈앞에 죽음의 여러 형상들을 펼쳐놓는다. 후키는 언젠가 자신에게 도래할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고, 때로는 흉내 내며 미지의 영역을 명랑하게 감각해 나간다. 어린 소녀의 말랑고 단단한 얼굴 위로 삶의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르누아르>는 소마이 신지의 세계와 느슨하게 공명하는 인상적인 성장 드라마이다. (문주하)

Eleven-year-old Fuki is curious about death. She writes fictional essays imagining her own funeral and occasionally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spirits. For a young girl with a father battling cancer, death is not a distant concept, but rather a part of life and an area of curiosity and exploration. After envisioning a near-future Japanese society focused on the elderly in her previous film *Plan 75* (2022), Hayakawa Chie has crafted a new work depicting 1980s Tokyo, examining the many forms death can take from a child's perspective. Fuki observes the adult world that will one day be hers, sometimes imitating it, and cheerfully sensing the contours of this unknown territory. Life's fragments steadily pile up on the girl's clear, resolute face. *Renoir* is an impressive coming-of-age drama that loosely recalls the worlds of Somai Shinji. (MOON Juhwa)

The River That Holds Our Hands WP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강

Hong Kong, China/Vietnam/Korea | 2025 | 85min | DCP | color
Director **CHEN Jianhang** **천젠항**



173 Sep 20 / 09:00 / B3 349 Sep 22 / 19:40 / C2
575 Sep 25 / 20:00 / C2

202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지원작

1950년 베트남에서 화교로 태어난 포 와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따라 캄보디아 친척집에 갔다가 전쟁으로 발이 묶여 가족과 헤어져야 했다. 세월이 지나 심대에 돌아온 중국은 이내 문화혁명의 혼란기에 돌입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테오추 출신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나'는 오래된 흑백사진 한 장을 들고 아주머니의 옛 집을 찾아 호치민으로 떠난다. 조상들과 자손들, 돌아온 이들과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과 손을 이어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유유히 흐르는 고향의 강과 반짝이는 윤슬과 찰랑이는 물소리였다. 영화는 그 소리와 흐름과 이음의 기록이다. 2025년 ACF 후반작업지원작으로, 천젠항의 장편 데뷔작이다. (최은)

Aunt Po Wah, born in Vietnam in 1950 to Chinese parents, was separated from her family when war broke out during a visit to see relatives in Cambodia with her grandmother. Although she was tied up, she later makes her way back to China as a teenager and soon finds herself in the chaotic period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first-person narrator, a documentary director and member of the Teochew ethnic minority group, takes an old black-and-white photograph and heads for Ho Chi Minh City to find Aunt Po Wah's former home. What connects ancestors, descendants, those who returned and those who never did, and those still living in diaspora is the river of their homeland—its shimmering ripples and the babbling sound of water. This film documents the flow and continuation of those sounds. Recipient of the 2025 ACF Post-Production Fund, this is Chen Jianhang's feature debut. (CHOI Eun)

SAI: disaster

재앙 재

Japan | 2025 | 128min | DCP | color
Director **SEKI Yutaro, HIRASE Kentaro** **세키 유타로, 히라세 겐타로**



486 Sep 24 / 12:00 / B2 578 Sep 25 / 17:00 / C3

한 낯선 남자가 사람들의 일상에 불현듯 나타나고, 그와 약하게 연결되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번사체로 발견되기 시작한다. 남자는 선원, 학원 강사, 청소부, 트럭 운전자 등 완전한 타인이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친근한 모습으로 외양을 바꿔가며 여러 도시에 걸쳐 출몰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뚜렷한 동기나 납득할 만한 단서가 없다. 사람들의 죽음은 추적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숙절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재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앙 재>는 죽음의 파편들과 그 사이를 거니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감염되어 가는 무력하고 음울한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자비한 죽음의 연쇄는 공허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비극의 형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잠식한다. (문주화)

A strange man suddenly appears in the midst of people's everyday lives, and those innocently connected to him begin turning up dead. Changing his outward appearance—from sailor to cram school instructor, cleaner, truck driver. He is a complete stranger, yet someone who could easily exist in our everyday life, surfacing in city after city. However, there is no clear motive, no convincing clue. These deaths are not incidents that can be tracked or foreseen, but disasters one must helplessly confront. *SAI: disaster* depicts an enervated, gloomy urban landscape infected by fragments of death and the appearance of a man who moves among them. The merciless chain of deaths, with no discernible beginning or end, infiltrates people's lives as an empty yet inescapable form of tragedy. (MOON Juhwa)

Sand City

샌드 시티

Bangladesh | 2025 | 99min | DCP | color
Director **Mahde HASAN** **마흐디 하산**



436 Sep 23 / 20:00 / C5 501 Sep 24 / 16:00 / C2
580 Sep 25 / 14:30 / C4

카를로비바리영화제 프록시마경쟁 대상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두 개의 삶이 나란히 펼쳐진다. 젊은 여성 엠마는 건설 현장에서 모래를 가져와 고양이 화장실을 채운다. 유리 공장에서 일하는 하산은 직장에서 실리카 모래를 훔쳐 유리를 만들고, 장차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꿈꾼다. 이 독특한 영화에서 두 주인공의 삶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교차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는 모래이다.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듯 모래는 혼잡하고 고립된, 불확실한 대도시 다카의 삶을 상징한다. 눈앞에서 무너져가면서도 끊임없이 건설 중인 도시, 모래 위에 높이 솟아오른 승전탑처럼 그 토대는 불안하다. 촬영감독 마티유 지움비니는 수려한 카메라워크를 통해 두 주인공의 삶뿐만 아니라 다카라는 도시 자체를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홍소인)

Two lives unfold in parallel in Dhaka, Bangladesh. Emma is a young woman who brings home sand from construction sites to fill her cat's litterbox. Hasan, who works at a glass factory, steals silica sand from work to make glass, dreaming of starting his own business one day. In this unique film, the lives of the two protagonists remain at a distance and never intersect. The only thing that connects them is sand. As the title suggests, sand symbolizes the chaotic, isolated, and uncertain life in metropolitan Dhaka, a city that is endlessly under construction even while crumbling before our eyes. Its foundation is unstable, like a transmission tower standing tall in sand. Through elegant camerawork of cinematographer Mathieu Giombini, it portrays Dhaka itself as another main character alongside the two protagonists. (HONG Soin)

The Sun Rises on Us All

우리 머리 위의 햇살

China | 2025 | 133min | DCP | color
Director **CAI Shangjun** **차이상준**



527 Sep 24 / 12:00 / L5 589 Sep 25 / 19:30 / C6

베니스영화제 경쟁

옷 가게를 운영하는 메이윈은 치평과 연애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초음파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전 남편 바오슈와 마주친다. 사실 전 남편은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오랜 세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으며,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그녀와 운명적으로 대면한 것이다. 오갈 데 없는 바오슈는 그녀에게 위탁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배신까지 한 메이윈을 용서할 수 없다. 갑작스레 등장한 전 남편과의 불편한 동거로 인해 남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메이윈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는다. 죄, 용서, 화해가 얽힌 파국의 도덕극, <우리 머리 위의 햇살>의 마지막 장면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전율을 일으키며, 감히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원초적인 정동의 감각을 선사한다. (김채희)

Meiyn, who runs a clothing store, learns she is pregnant while dating her boyfriend Qifeng. While waiting for the results of her ultrasound, she unexpectedly runs into her ex-husband Baoshu in the hospital lobby. Years ago, Baoshu had been wrongfully imprisoned for a crime that she committed. Now released and hospitalized following cancer surgery, he crosses paths with her in a moment that feels fated. With nowhere else to go, Baoshu turns to Meiyn for help, but he is unable to forgive her for ruining his life and betraying him. The uneasy cohabitation with her ex-husband proceeds to throw Meiyn's life into chaos, especially after the breakup with her boyfriend. *The Sun Rises on Us All* is a moral drama entangled in sin,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nd its final scene delivers a visceral jolt, evoking a raw, primal emotion beyond words. (KIM Chae-hee)

A Useful Ghost

쓸모 있는 귀신

Thailand/France/Singapore/Germany | 2025 | 130min | DCP | color
Director **Ratchapoom BOONBUNCHACHOKE** 랏차퐁 분반치촉



216 Sep 20 / 09:00 / L6 **546** Sep 24 / 15:30 / KT
583 Sep 25 / 13:00 / C5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위원대상

<쓸모 있는 귀신>은 '산'자와 '죽은'자의 공존처럼 익숙함과 낯섦이 뒤섞인 작품이다. 장르조차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독창적이지만 관객을 놀라게 해 줄 흡입력이 있는 데다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젊은 여자 귀신 'Nat(다위까 호네)'은 죽음을 거부한 채 진공청소기에 빙의하여 남편 'March(모스트)'를 찾아간다. 그러나 남편의 가족은 두 사람의 재결합을 완강히 반대한다. 그러던 중 그녀의 '쓸모'를 발견하면서 마지못해 그녀를 받아들하게 된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태국 곳곳을 떠도는 원혼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사후세계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하지만 그 원혼들은 지난 70년간 태국의 더딘 민주화 과정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었다. (박성호)

A Useful Ghost blends the familiar and the strange much like the coexistence of the living and the dead. This uniquely original film resists easy genre labels but captivates viewers with its unexpected power, earning the Grand Prix in the Critics' Week at Cannes earlier this year. The story follows Nat, a young female ghost (Davika Hooime), who refuses to accept death and possesses a vacuum cleaner in her quest to find her husband, March (Most). March's family strongly opposes their reunion but upon discovering her 'usefulness,' they reluctantly accept Nat. Her role is to uncover the identities of wandering spirits throughout Thailand and send them to the afterlife. However, these spirits were the souls of those sacrificed during Thailand's slow democratization process over the past 70 years. (PARK Sungho)

Whisperings of the Moon

WP

달의 속삭임

Hong Kong, China/Cambodia/India | 2025 | 87min | DCP | color
Director **LAI Yuqing** 라이위칭



431 Sep 23 / 17:00 / C4 **502** Sep 24 / 19:30 / C2
570 Sep 25 / 14:00 / C1

아버지의 죽음 이후, 연극배우 니사이는 뉴욕에서 고향 프놈펜으로 돌아와 티다와 다시 만난다. 영화는 연인이었던 순간으로부터 7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와 두 사람이 함께 무대의 주연이었던 과거를 오간다. 화려한 주인공이었던 니사이와 티다는 무대 위에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발견하지만, 삶에서 이들은 달콤쌉쌀한 이별을 고해야만 한다. 여성취어영화 <달의 속삭임>은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무대 위에서의 연기 워크숍을 교차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과정을 의미 있게 펼쳐낸다. 흔들리는 핸드헬드 촬영된 카메라가 니사이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대변할 때, 우리는 어느새 니사이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 (홍소인)

After her father's death, theater actor Nisay returns from New York to her home in Phnom Penh and runs into Thida. The film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present, seven years since the two were lovers, and the past, when they shared the stage. As spectacular leading actors, Nisay and Thida found the perfect expression of love onstage, but in life they had to say a bittersweet farewell. By interweaving real-life self-expression with acting workshops on stage, *Whisperings of the Moon* meaningfully conveys the process of discovering one's identity and communicating with the outside world. As the handheld camera and its unsteady movements mirror Nisay's confused emotions, we find ourselves seeing life through her eyes. (HONG Soin)

사회공헌프로그램 : 정겨운 나눔

상영시간표에 (♣)표시가 된 영화를 관람하시면,
티켓판매수입의 일부를 복지기관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한국영화				
이슬이 온다 p.143	사람과 고기 p.116	미아 p.114	완벽한 집 p.115, 164	파파: 인터내셔널 컷 p.115
아시아영화				
고양이를 놓아줘 p.52	사이공의 연인 p.103	췌! 엄마한텐 비밀이야 p.100	암린의 부역 p.101	환생: 상실의 끝에서 p.98
월드영화				
마지막 푸른빛 p.119	스윗 스위트하트 p.126	오마하 p.132	여름의 랑데뷰 p.126	프랑스어 오종의 이방인 p.79

관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회공헌프로그램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굿네이버스와 함께합니다.



Korean Cinema Today – Special Premiere

한국영화의 오늘 – 스페셜 프리미어

특별한 대중적 매력과 위상을 지닌 동시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의 최신작 및 대표작을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섹션이다.

A showcase of exclusive premieres featuring Korea's latest and most anticipated
Korean commercial releases, films that capture special popular appeal and significance.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AUDITION 109

WP

짱구

Korea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JUNG Woo, OH Seong-ho 정우, 오성호**



숨 쉬듯 말하고, 말하듯 연기하는 배우 정우와 <그 겨울, 나는>(2022)으로 섬세하고 단단한 데뷔작을 선보였던 오성호 감독이 공동 연출한 <짱구>는 배우를 꿈꾸는 청년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다. 흥미롭게도 청년의 이름(별명)은 '짱구'다. 그렇다. 정우가 직접 각본을 쓴 <짱구>에는 <바람>(2009)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자전적으로 담겨 있다. 뼈격대지만 치열하고 풋풋한 청년기를 지나는 짱구의 오디션 도전기와 사랑과 우정,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영화는 유쾌하고 유연한 드라마를 펼쳐며 짙은 감정을 쌓는다. 그리고 끝내 가슴 사무치는 순간을 포착한다. 빼어난 배우와 감독의 진가가 선연한 필치를 남긴다. (홍은미)

AUDITION 109, co-directed by actor Jung Woo—who speaks as naturally as he breathes and acts as naturally as he speaks—and director Oh Seong-ho, who made a delicate yet solid debut with *Through My Midwinter* (2022), tells the story of a young man who dreams of becoming an actor in a cheerful way. Interestingly, the young man's name (or rather, nickname) is 'Jjang-gu,' meaning 'bulging head.' Scripted by Jung Woo, *AUDITION 109* once again, carries his autobiographical story, following *Wish* (2009). The film depicts Jjang-gu's struggles through auditions, along with love, friendship, and the vivid scenery of youth and of Busan—awkward yet intense, raw yet endearing. Layer by layer, it builds up an affable and supple drama that ultimately captures moments of piercing emotion. The understated brilliance of its remarkable actor-director duo shines through, leaving behind a striking impression. (HONG Eunmi)

135 Sep 19 / 13:00 / L5 160 Sep 20 / 20:00 / BT

Boss

WP

보스

Korea | 2025 | 99min | DCP | color

Director **RA Hee-chan 라희찬**



062 Sep 18 / 20:00 / L6 130 Sep 19 / 09:00 / L4

308 Sep 21 / 12:30 / L9

1990년대 후반 한 동네를 주름잡던 '식구파'. 이름부터 가족적인 이 조폭 조직은 끈끈한 연대와 탁월한 전투력으로 세력을 키워 작은 도시를 접수한다. 그 중심에 저마다의 기술을 가진 대단한 싸움꾼 순태(조우진), 판호(박지환), 강표(정경호)가 있다. 싸움 기술만큼이나 미래의 영원도 제각각인 그들은 세월이 흘러 차기 보스 자리를 두고 피치 못할 난투를 벌이는데, 어찌 모양새가 심상찮다. 이름 붙이자면 '니가 해라 보스'전일가. 사나이들의 피 타지고 살 떨리는 '보스 양보전'을 시종 폭소로 이끄는 <보스>는 시원한 코믹 액션 영화다. 연기력으로는 물론이고, 때로는 존재만으로도 웃긴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개성 있는 액션 장면이 흥취를 돋우고 웃음을 자아낸다. 속도감 있는 전개, 탄탄한 구성, 힘 있는 코믹 요소까지 두루 갖춘 강력한 오락 영화다. (홍은미)

In the late 1990s, a gang called 'Sikgupa' ruled their neighborhood. With a name that means 'the family clan' the mob expands its influence with strong solidarity and exceptional fighting skills, eventually taking control of a small city. At the center of it all are formidable fighters, each with their own specialty: Soon-tae (Jo Woo-jin), Pan-ho (Park Jihwan), and Kang-pyo (Jung Kyung-ho). Their fighting styles are as varied as their dreams for the future. Years later, when the time comes to decide the next boss, the three are forced into an unavoidable brawl—though the way it unfolds looks far from ordinary. One might even call it a 'You Be the Boss' showdown. *Boss* is a refreshing comic action film that drives its blood-pumping, nerve-racking 'boss concession battle' with constant laughter. The sly performances of actors who are as funny in presence as they are in delivery, paired with distinctive action sequences, heighten the entertainment and spark laughter. With brisk pacing, a solid structure, and powerful comic elements, this is a robust crowd-pleasing action comedy. (HONG Eunmi)

The Great Flood

WP

대홍수

Korea | 2025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KIM Byung-woo 김병우**



운석 충돌로 남극의 얼음이 녹아 대홍수가 세상을 덮친 날, 아파트까지 물에 잠기자 안나(김다미)는 아들 자인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한편 인공지능 연구원인 안나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인력 보안팀 최조범(해수)은 안나가 곧 멸망할 세상에서 새 인류를 창조할 중요한 인물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불현듯 알 수 없는 기억이 엄습하고,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안나는 혼란에 빠진다. <대홍수>는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독특한 SF 디스토피아 타임루프물이다. 망원경보다 현미경에 가까운 이 영화는 거대한 재난에 휩쓸린 인간군의 스펙터를보다 패쇄된 공간 반복되는 상황에 갇힌 한 인간의 불안과 트라우마, 모성에 등 여러 감정을 조영한다. 이미 멸망한 세상처럼 사람이 거의 없는 아파트에서 살길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인물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거대한 재난보다 더 거대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매력적인 미로의 영화다. (송경원)

On the day a meteor strike melts the Antarctic ice and a great flood engulfs the world, the waters rise to submerge even high-rise apartments. An-na (Kim Da-mi) struggles desperately to save her son, Ja-in. Meanwhile, Hae-jo (Park Hae-soo), a member of a private security team, is dispatched to rescue her. He tells An-na, an AI researcher, that she is destin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a new humanity in the world on the brink of collapse. But in moments of crisis, strange memories suddenly overwhelm her, and An-na, who has been research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emotions, finds herself spiraling into confusion. *The Great Flood* is a distinctive SF dystopian time-loop drama that uses a disaster scenario to probe the depths of the human heart. More akin to a microscope than a telescope, the film shifts its focus from large-scale spectacles of human struggle in catastrophe to a more intimate exploration of fear, trauma, and maternal love as experienced by one person trapped in a confined space and caught in endlessly repeating situations. Following An-na's desperate journey for survival in an abandoned apartment complex, where the absence of people feels like the aftermath of the world's end, the audience gradually comes face to face with unexpected truths. This is a labyrinthine film that probes not the enormity of disaster, but the far greater depths of the human soul. (SONG Kyung-won)

041 Sep 18 / 16:00 / C6 131 Sep 19 / 13:00 / L4

312 Sep 21 / 14:00 / L10

The People Upstairs

윗집 사람들

WP

Korea | 2025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HA Jung-woo** 하정우



© (주)비포럼스튜디오

061 Sep 18 / 16:30 / L6 **139** Sep 19 / 13:00 / L6

314 Sep 21 / 19:30 / L10

Project Y

프로젝트 Y

Korea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wan** 이환



© 플러스원 엔터테인먼트

021 Sep 18 / 13:20 / CX **127** Sep 19 / 12:30 / L3

311 Sep 21 / 11:00 / L10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배우 하정우의 네 번째 연출작 <윗집 사람들>은 정성스레 발착하고 이상하게 발랄한 소동극이자, 강렬한 유머를 동반한 농밀하고도 아한 실내극이다. 정아(공효진)와 현수(김성욱) 부부는 부부관계가 너무 왕성한 윗집 사람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밤마다 들려오는 요란한 층간 소음과 교성에 하루하루가 괴롭다. 그럼에도 현수와 달리 정아는 윗집에 사는 수경(이하늬)과 김선생(하정우) 부부에게 호의를 보이며 저녁 자리에 초대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부부의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다. 서로 예의를 차리던 그들 간에 점차 선 넘는 솔직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대화는 모든 성역을 깨부수며 말의 칼춤을 춘다. 노련한 배우들의 리드미컬한 대사와 섬세하고도 과감한 제스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한 부부의 내밀한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한다. (홍은미)

Actor Ha Jung-woo's fourth directorial work, *The People Upstairs*, is a carefully mischievous and oddly spirited farce, as well as a dense and provocative chamber drama infused with sharp humor. Jung-ah (Kong Hyo-jin) and her husband Hyeonsoo (Kim Dong-wook) are plagued by the couple living upstairs who seem to have a very active relationship. Every night, loud noises from above and seductively charged sounds disturb Jung-ah and Hyeonsoo. The constant racket of late-night noise makes their daily life unbearable. Yet unlike Hyeonsoo, Jung-ah shows goodwill toward the people upstairs, Sukyeong (Lee Honey) and Mr. Kim (Ha Jung-woo), even inviting them over for dinner. As expected, the meal quickly descends into chaos. What begins as polite conversation between the couples soon crosses boundaries, giving way to disarmingly candid exchanges. Eventually, their dialogue demolishes every pretense, turning into a verbal sword dance. Guided by the seasoned actors' rhythmic dialogue and gestures that are both subtle and bold, we find ourselves drawn deeper and deeper—until we reach the innermost recesses of a couple's heart. (HONG Eunmi)

화려할수록 어둠도 짙어지는 도시. 미선(한소희)과 도경(전종서)은 오직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냉혹한 현실을 버틴다. 두 사람은 은퇴 후 평범한 삶을 계획하며 낮에는 꽃집, 밤에는 유흥업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만 사기를 당해 꿈이 산산조각 흩어지자 위험한 범죄에 발을 담근다.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된 정보로 유흥가의 실세 토사장(김성철)의 은닉자금을 훔치려던 미선과 도경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을 향해 질주한다. <박화영>(2018), <어른들은 몰라요>(2021)로 청소년들의 어둠을 조명했던 이환 감독이 스타일리시한 범죄 스릴러물로 세계를 넓혔다. 욕망과 연약함 사이를 줄타기하는 이야기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영상과 함께 도시의 어둠을 조망한다. 한소희, 전종서 배우의 아우라를 심분 살린 캐릭터와 <델마와 루이스>(1991)를 연상시키는 콤비 플레이가 극의 쾌감을 더하는 가운데 흡입력 있는 전개로 관객의 시선을 붙드는, 매혹적인 여성 범죄 누아르다. (송경원)

The brighter the lights, the deeper the city's shadows. Mi-sun (Han So-hee) and Do-kyung (Jun Jong-seo) endure the harsh realities of life by relying solely on each other. Dreaming of a quiet life after retirement, they scrape together money—running a flower shop by day and working in nightlife by night. But when their savings are wiped out in a scam, their dream shatters, driving them into the world of crime. Through a chance piece of information, Mi-sun and Do-kyung plot to steal the hidden fortune of Blackjack (Kim Sung-cheol), a powerful figure in the red-light district. Their scheme, however, propels them headlong into an irreversible abyss. After illuminating the dark side of youth in *PARK HWA-YOUNG* (2018) and *YOUNG ADULT MATTERS* (2021), director Lee Hwan broadens his scope with a stylish crime thriller. This story of precarious lives teetering between desire and vulnerability captures the dark underbelly of the city through dazzling, sensuous imagery. With characters that fully harness the aura of Han So-hee and Jun Jong-seo, and a dynamic partnership reminiscent of *Thelma and Louise* (1991), the film heightens its thrills while gripping audiences with a relentlessly compelling narrative—an enthralling work of female-driven crime noir. (SONG Kyung-won)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2025

서울독립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11.27

12.05

서울독립영화제

siff.
kr

Korean Cinema Today – Panorama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An introduction to an array of the most significant and popular Korean films of the year, from commercial blockbusters to arthouse gem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Be My Baby

미아

WP

Korea | 2025 | 98min | DCP | color

Director **YOO Jong-seok** 유종석



129 Sep 19 / 20:00 / L3

169 Sep 20 / 09:00 / B2

503 Sep 24 / 10:00 / C3

원무과에서 일하는 서림(강해림)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데다 사체에 손을 대 쫓기는 상황이다. 동거하던 남자친구마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없다. 실상가상으로, 서림은 쌍둥이 동생 희림(강해림)의 죽음에 연루된 숨이(배강희)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 <미아>는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궁지에 몰린 여자의 팍팍한 생활을 쫓는가 싶더니 복수극의 긴장을 투척하고, 종국엔 철저히 홀로 되지만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인물들의 무서운 현실에 다가간다. <미아>는 범죄물로 위장한 자독한 생존기이다. 무서울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은 우울과 외로움에 맨몸으로 노출된 인물들의 서러운 생존기가 녹진한 공기를 머금고 스크린을 전염시킨다. 단편 영화 <아쿠아마린>(2019),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2022)로 큰 주목을 받았던 유종석 감독의 섬뜩하고 흥미로운 장편 데뷔작이다. (홍은미)

Seorim (Kang Hae-rim), who works in a hospital's administration office, is cornered financially. She can't afford her insurance premiums, has fallen into the clutches of private lenders, and is on the run. To make matters worse, her live-in boyfriend cheats on her and leaves, and she has no one to lean on. As if that weren't enough, Seorim unexpectedly encounters Sumi (Bae Gang-hee), who is entangled in the death of her twin sister Heerim (also played by Kang Hae-rim). *Be My Baby* gradually begins to reveal its true face. At first, it seems to trace the bleak life of a woman trapped in desperate circumstances, only to inject the tension of a revenge thriller, and ultimately approach the terrifying reality of individuals who end up utterly alone but cannot live in isolation. *Be My Baby* is a merciless survival tale disguised as a crime drama. The sorrowful struggle of its characters—laid bare to crushing despair and loneliness—infuses the screen with its heavy, suffocating air. Director Yoo Jong-seok, who garnered attention with his short films *Aquamarine* (2019) and *Light It Up at 2 AM* (2022), makes a chilling and compelling feature debut. (HONG Eunmi)

My Home

WP

완벽한 집

Korea | 2025 | 98min | DCP | color

Director **JEONG Yong-ki** 정용기



057 Sep 18 / 16:30 / L5

137 Sep 19 / 19:30 / L5

164 Sep 20 / 23:59 / BH

309 Sep 21 / 15:30 / L9

가난한 대학생 규빈(장규리)은 당장 기거할 집이 없어 난감하다. 근근이 학교를 다니는데, 목돈이 드는 월세방은 부담스럽고 얻을만한 자금도 없다. 규빈은 동동거리던 중 독거노인과 함께 사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마뜩잖지만 한 집을 찾는다. 그런데 우연찮게 찾은 그곳은 노년의 우아한 여인 금림(배중옥)이 사는 고급 아파트, 그야말로 완벽한 집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에선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영화 시작부터 공포감을 조성해 나가던 <완벽한 집>은 마침내 완벽한 공포 영화로 돌진한다. 추악한 욕망과 무속의 재앙, 잘 설계된 서사와 가슴 쓸어내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출몰하는 귀신을 모두 거느린 영화는 공포 회로를 가속시키며 완벽한 집을 악몽의 집으로 바꿔놓는다. 동시에 결핍에 찌든 인물들의 욕망과 심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며 우리네 삶을 해부한다. (홍은미)

Gyubin (Jang Gyu-ri), a poor college student, finds herself in a desperate situation with no place to live. Struggling just to stay in school, she cannot afford the hefty deposit required for a rental room, nor does she have any means to secure it. While searching desperately, she comes across a program that matches students with elderly people living alone. Reluctantly, she signs up and finds a place—only to discover, by chance, that it's a luxurious apartment belonging to the elegant older woman Geum-rim (Bae Jong-ok). It seems like the perfect home. But not for long. Strange occurrences begin to happen inside the apartment, and from its very opening, *My Home* builds an atmosphere of genuine dread, eventually evolving into a full-fledged horror film. Filled with vile desires, shamanistic curses, a tightly constructed narrative, and relentless apparitions that leave no room to breathe, the film accelerates its horror engine and transforms this 'perfect house' into a nightmare. At the same time, it probes deeply into the desires and psyches of people crushed by deprivation, dissecting the very fabric of our lives. (HONG Eunmi)

The Old Woman with the Knife: International Cut

파과: 인터내셔널 컷

Korea | 2025 | 133min | DCP | color

Director **MIN Kyu-dong** 민규동



049 Sep 18 / 16:00 / L3

128 Sep 19 / 16:00 / L3

223 Sep 20 / 09:00 / L9

전설이 된 킬러가 늙고 쇠약해진 뒤 벌어지는 이야기. 설정부터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에 사연을 공급하게 만드는 액션이 더해져, 삶의 의미와 필요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거듭났다. 사회에 해악이 되는 인간을 처리하는 살인청부업체 '신성방역'에서 40여 년간 활약하며 전설로 불리는 킬러 조각(이혜영)도 세월은 이길 수 없다. 은퇴를 고만하던 조각 앞에 나타난 혈기왕성한 킬러 투우(김성철)는 조각을 적대하면서도 거침없이 접근해 주변을 맴돈다. 구병모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파과: 인터내셔널 컷>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공존하는지를 감각적으로 그린다. 설명을 달아내고 감정을 시각화한 민규동 감독의 연출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다. 무엇보다 배우 이혜영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이 영화를 유일한 순간들로 끌어올린다. 화려한 볼거리와 속도감이 충분한 가운데 고요하고 정적인 호흡들을 놓치지 않는, 보기 드문 액션영화. 제75회 베를린영화제 베를린날레스페셜 부문 초청작. (송경원)

The story of a legendary killer who grows old and frail. From its very premise, the film sparks the imagination, and with action that heightens curiosity about the killer's past, it evolves into a tale of people searching for meaning and necessity in life. Homclaw (Lee Hyeyoung), a legendary contract killer who has worked for about forty years at 'Sinseong Agency,' an organization that eliminates harmful members of society, can no longer resist the passage of time. As she contemplates retirement, a young and vigorous hitman named Bullfight (Kim Sung-cheol) appears—circling around her with a bold, antagonistic energy. Adapted from Gu Byeong-mo's novel of the same name, *The Old Woman with the Knife: International Cut*, portrays, with striking sensibility, how light and darkness push against and pull toward each other in coexistence. Director Min Kyu-dong's restrained yet precise direction visualizes emotions while paring down explanation. Above all, the irreplaceable presence of Lee Hyeyoung elevates the film into a series of singular moments. A rare action film that, amid spectacle and speed, never loses sight of quiet, contemplative rhythms. Official selection of the Berlinale Special section at the 75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ONG Kyung-won)

베를린영화제 베를린날레스페셜

People and Meat

사람과 고기

Korea | 2025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YANG Jong-hyun** 양종현



048 Sep 18 / 12:10 / L3 **106** Sep 19 / 10:00 / C3

307 Sep 21 / 09:30 / L9

입씨름에 주먹다짐까지 했던 형준과 우식, 그들을 타박하던 화진이 한 상에 둘러앉아 소고기뭇국을 나눠 먹는다. 종일 폐지를 줌과 골목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 버티던 이들은 긴말 없이도 서로 사정을 금세 이해한다. 생활고와 외로움 속에서 온기를 발견한 후, 세 사람은 고기를 맛보는 데 열중한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치른 첫 번째 “나쁜 짓”은 서울 전역을 누비는 ‘역투’ 모험으로 이어지고, 도망자가 된 이들은 추적을 따돌리며 젊음 같은 흥분을 되찾는다. 영화는 가벼운 범죄 코미디의 활력 속에서 삶과 죽음을 고찰하는 동시에, 노인 빈곤과 제도의 시각지대라는 현실 문제를 조명한다. 무엇보다 <사람과 고기>는 우정을 이야기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용기가 생기는 순간을 포착하며, 생의 막바지에 다시 청춘을 통과하는 세 친구의 우정을 그린다. 박근형, 장용, 예수정 배우의 거침없는 기운은 “살맛 나는” 생의 질주를 경쾌하고도 몽클하게 완성한다. (차한비)

Hyeong-jun and Woo-sik, who once traded insults and even fists, sit around a table sharing beef and radish soup with Hwa-jin, who used to scold them for such behavior. Enduring each day by collecting waste paper and selling vegetables in alleyways, they quickly understand each other's circumstances without needing many words. After discovering warmth amidst financial hardship and loneliness, the three focus on savoring the meat. Their first 'bad deed,' committed in a daze, leads to a dine-and-dash adventure across all of Seoul. On the run, they slip away from being chased and regain a thrill reminiscent of lost youth. Within the lively energy of a lighthearted crime comedy, the film contemplates life and death while simultaneously shedding light on the real-world problems of elderly poverty and the blind spots of the social safety net. Above all, *People and Meat* is a story about friendship. It captures the moments when courage arises simply from not being alone, and portrays the friendship of three companions passing through a second youth at the end of their lives. The uninhibited energy of actors Park Keun-hyong, Jang Yong, and Ye Su-jeong express this 'zestful' lease on life in ways that are both cheerful and moving. (CHA Hanbi)

Time of Cinema

극장의 시간들

WP

Korea | 2025 | 62min | DCP | color/b&w

Director **LEE Jongpil**, **YOON Ga-eun** 이종필, 윤가은



136 Sep 19 / 16:30 / L5 **175** Sep 20 / 17:00 / B3

313 Sep 21 / 17:00 / L10

영화란 무엇인가. 극장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개의 단편을 묶은 옴니버스 영화 <극장의 시간들>은 영화와 극장, 관객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탐색한다.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는 침팬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매개로 영화의 안과 밖, 관객과 창작자 사이의 벽을 초현실적으로 넘나든다.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남게 되더라고요”라는 영화 속 대사는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정확하게 이 영화를 설명한다.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는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의 제작 현장을 담는다.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어?”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수많은 답변을 쏟아낸다. 현실과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의 말은 뜻밖의 방식으로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단순한 장소로서의 극장이 아닌 영화와 관객 사이에 오가는 시간을 담아낸, 소박하기에 더 깊은 메타 영화다. (송경원)

What is cinema? What does the theater mean to us? The omnibus film *Time of Cinema*, composed of two shorts, explores diverse ways in which films, theaters, and audiences form relationships. Director Lee Jongpil's *Chimpanzee* uses anecdotes about chimpanzees as a medium to transcend, in a surreal manner, the boundari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film, between audience and creator. A line from the film—“What remains are not the stories, but the times we shared”—captures its essence more precisely than any description could. Director Yoon Ga-eun's *Naturally* observes a film set where children are the protagonists. “Can you act in front of the camera as if it were not there?” When asked, the children respond with a flurry of answers. Their earnest discussions about how reality differs from the screen leave audiences with unexpected questions to ponder. This is a modest yet profound work of meta-cinema that captures not simply the theater as a place, but the flow of time exchanged between film and audience. (SONG Kyung-won)

이 디자인은 양국 국기의 핵심 요소인

태극과 단풍잎을 모티브로 하여

한류를 상징하는 파도의 소용돌이에서

단풍잎이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24·2025

CANADA-KOREA

Year of Cultural Exchanges

L'année des échanges culturels

CANADA-CORÉE

캐나다-한국

상호 문화교류의 해

The design depicts a maple leaf emerging from a swirl of waves, symbolising the Korean Wave, with the motif of the Taegeuk and Maple Leaf, key elements of both cultures.

Le dessin représente une feuille d'érable émergeant d'un tourbillon de vagues, symbolisant la vague coréenne, avec le motif du Taegeuk et de la feuille d'érable, éléments clés des deux cultures.

World Cinema | 월드 시네마

비아시아권 중견 작가들과 신인 감독들의 신작 및 유수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포함하여 한 해 세계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섹션이다.

A panoramic view of the year in global cinema, featuring new works from established directors and emerging talents outside Asia and award-winning films from prestigious international festival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Adam's Sake

아담을 위하여

Belgium/France | 2025 | 78min | DCP | color

Director **Laura WANDEL** 로라 완델



070 Sep 18 / 13:00 / KT **452** Sep 23 / 16:30 / L5
528 Sep 24 / 16:00 / L5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개막작

거의 모든 사건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메디컬 드라마. 다르덴 형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짧은 드라마에는 짙은 슬픔과 희망의 공존한다. 주인공은 두 여자다. 홀로 아이를 키워온 젊은 엄마 레베카와 그녀를 돕고 싶은 루시. 이들은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와 수간호사로 만난다. 네 살의 아담은 영양실조로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법원은 레베카와 아들의 면회 시간을 제한하지만 아직 어린 아담은 엄마가 필요하고 레베카 역시 아들이 절실하다. 이 상황에 유일하게 마음을 쓰는 인물은 루시다. 루시는 법원의 결정과 병원의 지침을 따르기보다 의료인이자 엄마로서 아담의 안녕을 걱정한다. 하지만 선의와 연민은 법과 시스템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레벤스만>(2021), <미키 17>(2025)의 아나마리아 바르톨로메이가 겁먹은 어린 새의 눈빛으로 레베카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주현)

Adam's Sake is a medical drama set almost entirely within a hospital. This short film evokes the spirit of the Dardenne brothers, where profound sorrow and faint hope quietly coexist. At its center are two women - Rebecca, a young mother raising her child alone, and Lucy, a nurse who wants to help her. They meet at the hospital, one as the guardian of a patient, the other as the head nurse. Four-year-old Adam is hospitalized with a broken arm caused by malnutrition. Though the court restricts Rebecca's visitation rights, young Adam needs his mother—and Rebecca, in turn, desperately needs her son. Lucy is the only one who truly cares. Rather than blindly follow the court's ruling or the hospital's protocol, Lucy worries for Adam's well-being as both a nurse and a mother. Yet, goodwill and compassion have little power in the face of law and the system. Anamaria Bartolomei—of *Happening* (2021) and *Mickey 17* (2025)—conveys Rebecca's desperation with the frightened eyes of a wounded bird. (LEE Juhyun)

The Blue Trail

마지막 푸른빛

Brazil/Mexico/Chile/Netherlands | 2025 | 86min | DCP | color

Director **Gabriel MASCARO** 가브리엘 마스카루



010 Sep 18 / 08:30 / B1 **142** Sep 19 / 13:30 / L7
559 Sep 25 / 13:00 / B1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

근미래의 브라질을 배경으로 노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국가 정책을 저항하는 한 여성의 여정을 그린 디스토피아 로드무비다. 77세의 테레사는 '은퇴 구역'으로 이송되기 직전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한다. 영화는 국가의 제도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의 의지로 나아가려는 노인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섬세하게 담아낸다. 4:3 화면비는 테레사의 상황과 내면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푸른 달팽이의 환각 장면은 그녀의 복잡한 내면을 시각화하는 한편, 로베르타와의 연대는 <델마와 루이스>를 연상시키는 해방의 정서를 만들어낸다. 정치 사회적 은유와 감각적 스타일을 결합하여 '늙는다는 것'과 삶의 의미를 탐구한 아름답고 유쾌한 반란의 영화로, 올해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이다. (조지훈)

Set in Brazil in the near future, this dystopian road movie follows the journey of a woman resisting a state policy that seeks to exclude the elderly from society. On the verge of being transferred to a so-called 'Senior Colony,' 77-year-old Tereza makes a bold escape in search of freedom. Through her perilous journey to reclaim autonomy from institutional oppression, the film delicately explores the enduring values of freedom and dignity in old age. The 4:3 aspect ratio effectively captures Tereza's constrained reality and inner world, while hallucinatory scenes involving a blue snail visualize her complex emotional landscape. Meanwhile, her bond with Roberta evokes a liberating spirit reminiscent of *Thelma & Louise*. Blending political and social metaphor with striking visual style, this is a beautiful and uplifting film of rebellion—one that contemplates the meaning of aging and life itself. (JO Ji-hoon)

The Chronology of Water

물의 연대기

United States/France/Latvia | 2025 | 128min | DCP | color

Director **Kristen STEWART** 크리스틴 스튜어트



059 Sep 18 / 09:00 / L6 **149** Sep 19 / 10:30 / KT
417 Sep 23 / 13:00 / CX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미국의 여성작가 리디아 유크나비치가 쓴 동명의 회고적 에세이 『물의 연대기』를 영화화한 작품. 단편 연출작들을 발표해 온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야심 찬 장면 데뷔작이다.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와 폭력을 겪은 리디아의 삶을 되짚는 <물의 연대기>는 선형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벗어난 실험적 형식이 돋보이는 영화다. 한때 수영선수였던 리디아가 관통해 온 굴곡진 삶의 여정을 물의 액체성을 비롯한 시적 내레이션, 다층적 사운드, 추상적 몽타주 등의 영화적 장치로 과감하게 재현했다. 이는 삶을 짓기기는 비극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자신을 지켜낸 한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녀의 삶 속으로 가까이 뛰어들어 지지하고 연대하는 대담한 영화적 선언문이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라는 감독의 탄생을 알리는 선명한 신호탄. (문주하)

An adaptation of Lidia Yuknavitch's eponymous memoir, *The Chronology of Water* marks Kristen Stewart's ambitious feature directorial debut after a series of short films. Retracing Lidia's life marked by childhood sexual abuse and violence, *The Chronology of Water* stands out for its experimental form, departing from a linear narrative structure. Once a competitive swimmer, Lidia's turbulent life journey is boldly reimagined through cinematic devices such as the fluidity of water, poetic narration, layered soundscapes, and abstract montages. Refusing to objectify a woman who fought to protect herself amid the tragedies that sought to crush her, the film instead plunges into her life with full solidarity and support—a bold cinematic manifesto. The film heralds the arrival of Kristen Stewart as a talented filmmaker. (MOON Juhwa)

The Currents

커런트

Switzerland/Argentina | 2025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Milagros MUMENTHALER** 밀라그로스 무멘탈레르



532 Sep 24 / 19:30 / L6 **606** Sep 25 / 20:20 / L6

토론토영화제 플랫폼, 산세바스티안영화제 경쟁

아르헨티나 출신의 예술가 리나는 스위스에서 열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어 기쁨을 만끽한다. 귀국하기 전, 충동적으로 강물에 몸을 던진 그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낀다. 딸의 얼굴을 떠올린 뒤 밖으로 뛰쳐나오긴 했으나 이후 리나에겐 물 공포증이 생긴다. 쉽게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지도 못한 채 그는 일상과의 괴리를 느끼며 괴로워한다. 밀라그로스 무멘탈레르 감독은 자신의 세 번째 장편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한 여성의 삶을 좇는다. 가족, 커리어 등 리나가 사력을 다해 이뤄 온 성취는 도리어 족쇄가 되어 그 자신을 옥죄는다. 리나가 느끼는 권태감은 세상과 단절되는 환각으로 치환되곤 한다. 영화는 현실에 다시금 안착하거나 모든 것로부터 도피하는 선택지를 두고 끝없이 갈등하는 리나에게 주목한다. 발화된 말보다 신체를 경유해 인물이 느끼는 혼란과 공포를 온전히 감각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연출했다. (조현나)

Argentine artist Lina savors the joy of being in the spotlight at an award ceremony in Switzerland. Before returning home she impulsively throws herself into a river and feels a strange sense of peace. But when the thought of her daughter crosses her mind, she rushes out, and afterward develops aquaphobia. Finding it difficult to wash herself or even drink, she feels estranged from her daily life. In her third feature film, Milagros Mumenthaler follows the life of a woman suffering from helplessness. The achievements Lina once pursued with fierce determination—her family and career—become stifling constraints. Her ennui manifests as visions of becoming severed from the world around her. The film focuses on Lina’s struggles to choose between settling into reality or running away from it entirely. Through meticulous direction, the director allows the audience to fully sense Lina’s confusion and fear through their body rather than through spoken words. (CHO Hyunna)

Don’t Let the Sun

돈 렛 더 썬

Switzerland/Italy | 2025 | 98min | DCP | color
Director **Jacqueline ZÜND** 자클린 쥘트



193 Sep 20 / 09:00 / C5 **382** Sep 22 / 20:30 / L6
519 Sep 24 / 13:00 / L2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감독 최우수연기상

세 편의 다큐멘터리로 한국 관객에게 꾸준히 소개된 쥘트의 첫 번째 드라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사회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다큐를 만들어온 쥘트의 영화답다. 가족을 못 느낀 채 대리의 삶을 살아온 남자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아빠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소녀와 만난다. 그런데 이젠 SF다. 태양열로 인해 낮엔 외출하기를 꺼리는 미래. 인적이 사라진 백주의 거리는 메말라 바삭거리는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게 은유가 아님은, 그간 쥘트가 다큐를 찍으며 보았던 세상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생기가 사라진 풍경과 달리, 쥘트는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운 태도로 인물을 대한다. 적당한 멜랑콜리는 쥘트 영화 특유의 정서인데, 극의 말미에서 울컥하더라도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곧 크레딧에서 제목 뒤로 숨겨진 문구를 발견할 테니 말이다. (이용철)

This is Zünd’s first drama, following three documentaries that have been steadily introduced to Korean audiences. For a director who has long documented human relationships, a story about a society where someone carries out another’s role is fitting. Here, a man who has lived a proxy life without ever experiencing family meets a girl conceived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who believes she doesn’t need a father. But this is science fiction. Set in a future where people avoid going outdoors during the day because of solar heat, the deserted, sun-scorched streets evoke brittle, dried-out human connections. And yet, this is no mere metaphor—it is rooted in the fragments of reality Zünd has captured through her documentary work. In contrast to the lifeless landscapes, Zünd approaches her characters with warmth and familiarity. A gentle tone of melancholy, characteristic of her films, permeates the story. By the end, even if it moves you to tears, you’ll have to steady yourself—for in the credits, just behind the title, a hidden line awaits your discovery. (LEE Yong Cheol)

Dry Leaf

마른 잎

Germany/Georgia | 2025 | 187min | DCP | color
Director **Alexandre KOBERIDZE** 알렉산드레 코베리제



038 Sep 18 / 18:40 / C5 **091** Sep 19 / 11:40 / B3
476 Sep 23 / 15:30 / BCM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특별언급, FIPRESCI상

God Will Not Help

신은 돕지 않는다

Croatia/Italy/Romania/Greece/France/Slovenia | 2025 | 137min | DCP | color
Director **Hana JUŠIĆ** 하나 유시치



026 Sep 18 / 17:00 / C2 **412** Sep 23 / 09:00 / B3
607 Sep 25 / 17:00 / L6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최우수연기상

두 편의 사랑 이야기 다음으로 코베리제는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를 그린다. 사라진 자의 뒤를 밟는 길의 동행은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질문에 답하는 시골 사람도 종종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 유령의 로드무비 같지만, 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간 이는 결국 큰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면서 나무, 풀, 동물은 더 자주 등장하는데, 데뷔작으로 돌아가 핸드폰으로 찍은 저해상도 이미지에 당황할지도 모른다. 디지털의 파편은 화가가 손에 쥔 붓의 터치와 같아서, 고유한 빛과 속도를 지닌 <마른 잎>엔 '인상주의 영화란 표현을 붙일 만하다. 대상을 지긋이 바라보는 태도나 유머에선 조지아의 위대한 선현 오타르 이오셀리아니를 닮았다. 코베리제는 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의 영화가 시가 될 수 있음을 두 번이나 증명했다. (이용철)

After two love stories, Koberidze depicts a father wandering in search of traces of his daughter. Accompanying the father on this path is (quite literally) an invisible presence, and even the rural people who answer his questions often remain out of sight. Although it feels like a ghostly road movie, the one who moves forward along a line eventually traces a large circle and returns to where he started. As the scenery shifts from city to countryside, trees, grass, and animals appear more frequently, and you might be surprised at the low-resolution images shot on a mobile phone, reminiscent of his debut. The digital fragments are like the brushstrokes in a painter’s hand, and with its unique light and tempo, *Dry Leaf* deserves to be called an ‘impressionist film.’ The way the film lingers over its subjects and its humor reminds us of the great Georgian predecessor Otar Iosseliani. Koberidze has proven twice that a film with a runtime of over three hours can become a poem. (LEE Yong Cheol)

<날 좀 내려봐 뒤>(2016)로 베니스영화제 등에 초대됐던 유시치가 9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장편이다. 낯선 방문자의 낯선 여정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페루 여성 테레사다. 크로아티아 산간마을을 찾았온 그는 이민 간 남자의 부인이라고 말한다. 극의 두 주요 인물은 신성에 의지하는데, 그들의 그림자는 신이 아닌 인간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삶의 고단함은 남성에게 기인한다. 전작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아버지, <신은 돕지 않는다>의 자기중심적인 리더는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다. 소통이 힘든 여성에게, 마찬가지로 홀대받던 여성이 손을 내미는 데 유시치의 마음이 머문다. 데뷔작의 찬란한 엔딩을 기억한다면 이번 엔딩의 유사 배경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유시치에게 굳건한 땅보다 자유로운 해방 공간으로서 물이 소중하다. 거기서 그의 인물은 숨 쉰다. (이용철)

God Will Not Help is Hana Jušić’s second feature film, released nine years after *Quit Staring at My Plate* (2016), which was invited to the Venice Film Festival and other prestigious events. The film tells the story of a stranger’s unfamiliar journey. The protagonist, Teresa, is a woman from Peru who arrives in a Croatian mountain village, claiming to be the wife of a man who emigrated there. The two main characters in the film rely on divinity, but their missteps are due to humans, not God. For women, in particular, the hardships of life stem from men. Like the tyrannical father in her previous work, the self-centered leader in *God Will Not Help* is portrayed as an oppressive force to women. Jušić focuses her attention on scenes where a woman, who has been neglected and silenced, reaches out to another woman struggling to communicate. If you remember the brilliant ending of her debut film, the similar backdrop at the end of this film will bring a warm smile to your face. For Hana Jušić, water is precious as a space of liberation rather than a solid ground. It’s there that her characters breathe. (LEE Yong Cheol)

The Great Arch

그랑다르슈의 이름 없는 남자

France/Denmark | 2025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Stéphane DÉMoustier** 스테판 데무스티에



043 Sep 18 / 10:30 / L2 **181** Sep 20 / 09:00 / C1
489 Sep 24 / 09:00 / B3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부문에 초청된 데무스티에의 신작이다. 그랑다르슈는 파리의 명소이며, 오토 폰 스프레켈센은 이를 설계한 건축가다. 110미터 높이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동안 정치 경제적인 이슈를 낳은 건 익히 알려진 일, 영화는 얼핏 화제거리를 되돌아보는 듯하다. 논쟁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곧잘 영화화하는 데무스티에는 그 와중에 스캔들 아래 묻힌 인간을 반드시 끄집어낸다. 학생을 가르치며 자기 집과 교회 건물을 지은 게 주 경력인, 소박한 시골 아저씨 같은 건축가는 화려한 국가사업엔 어울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컴퓨터보다는 사람의 손을, 그리고 신뢰와 원칙을 중시했던 사람. 잔 기교나 멋을 부리지 않은 스타일의 감독은 그런 인간의 향취를 누구보다 잘 말했을 터, 고집이 세서 구식 인물처럼 보이는 인물에게서 요즘엔 드문 인간의 냄새가 난다. (이용철)

This is the new work by Stéphane D  moustier, invited to the Un Certain Regard section of the Cannes Film Festival. The Grande Arche is a famous landmark in Paris, designed by architect Otto von Spreckelsen.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struction of this 110-meter-high monument stirred numerous political and economic controversies, and at first glance, the film seems to revisit that spectacle. But D  moustier, a filmmaker known for transforming controversial events and figures into cinema, always brings to the surface the human being buried beneath the scandal. The architect, who seems more like a humble country gentleman whose main experience was teaching students and building his own house and a church, was perhaps ill-suited for such a glamorous national project. He was a man who valued the human hand over computers, and prized trust and principles. The director, whose style avoids showy flourishes or affectation, is perfectly suited for detecting the human element of such a person. From this figure, who might appear old-fashioned because of his stubbornness, emanates a form of humanness that is rare these days. (LEE Yong Cheol)

Islands

아일랜드

Germany | 2025 | 121min | DCP | color
Director **Jan-Ole GERSTER** 안올레 게르슈터



025 Sep 18 / 13:30 / C2 **401** Sep 22 / 13:00 / BCM
552 Sep 24 / 13:00 / BCM

베를린영화제 스페셜갈라

테니스 코치 톰은 카나리아 제도의 낙원 같은 리조트에서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땀방이 저글러는 테니스 코트와 향락의 나이트클럽을 오가며 숙취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때 앤과 데이브 부부가 등장하면서 그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한다. 이 부부의 다툼에 서서히 휘말리면서 감정의 눈이 빠진다. 마치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스릴러 세계에 불시착한 듯 매혹적인 불안에 감염된다. 물론 실종과 치명적인 유혹은 필수다. 안올레 게르슈터 감독은 데뷔작 <오 보이>(2012)에서 목적 없이 베를린을 방황하는 젊은이의 초상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준 것처럼 책임감 없는 중년의 톰을 제시한다. 내심 인생의 변화를 원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은 인물이다. 자신의 길에서 도망치듯 발뻘하던 그는 결국 기로에 선다. <칸트를>(2007), <온 더 로드>(2012)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들의 열혈 청춘을 그려냈던 배우 샘 라일리는 세월의 풍파를 각인한 톰의 얼굴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중혁)

Tennis coach Tom leads a bland, repetitive life at a paradise-like resort in the Canary Islands. He constantly shuttles between the scorching tennis courts and hedonistic nightclubs, often battling hangovers. Then, his routine takes a subtle turn when couple Anne and Dave appear, creating a delicate crack in his mundane life. As he gradually gets drawn into their disputes, he falls into an emotional mire, infected by a fascinating unease, almost as if he's crash-landed in a Patricia Highsmith thriller. Disappearances and fatal temptations are, of course, essential. Director Jan-Ole Gerster, who ironically depicted a young man aimlessly wandering Berlin in his debut film *Oh Boy* (2012), now presents the irresponsible middle-aged Tom. Tom secretly desires a change in his life but finds it difficult to act. As he continually makes excuses and tries to run from his own path, he eventually faces a crossroads. Sam Riley, the actor who portrayed a passionate, free-spirited artist in *Control* (2007) and *On the Road* (2012), once again leaves a strong impression as Tom, whose face now bears the marks of time. (JUN Jonghyuk)

The Little Sister

리틀 시스터

France/Germany | 2025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Hafsia HERZI** 합시아 헤지



278 Sep 21 / 16:30 / C5 **342** Sep 22 / 19:30 / CX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배우이자 감독 합시아 헤지는 자신의 세 번째 장편 <리틀 시스터>에서 고등학생 파티마의 여정에 주목한다. 알제리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파티마는 독실한 무슬림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그는 자신의 신앙과 성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 대학에 입학한 뒤로 파티마는 여러 여성과 짧은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중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지나만이 그가 진심으로 교감하는 상대가 되어준다. <리틀 시스터>는 성인이 된 파티마가 겪는 자기 부정과 첫사랑의 균열을 단계적으로 풀어낸다. 밖에선 자유롭게 욕망을 드러내다가도 집 안에 들어서면 파티마는 규율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춘다. 이 간극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던 건 파티마 역의 나디아 멜리트의 역할이 컸다. 지나를 연가한 박지민의 연기 또한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파티마가 지나, 가족과 빛어내는 에너지를 정제하지 않은 채로 담아낸 흥미로운 성장담이다. (조현나)

In her third feature film, *The Little Sister*, actor and director Hafsia Herzi turns her focus to the journey of Fatima, a high school girl. Raised in a devout Muslim household by Algerian immigrant parents, Fatima finds herself torn between her faith and her sexual identity as she prepares to enter university. Once in college, she engages in a series of brief encounters with women, never fully revealing herself to any of them, until she meets Ji-Na through a dating app. Ji-Na becomes the only person with whom Fatima forms a genuine emotional connection. *The Little Sister* gradually unpacks Fatima's self-denial and the cracks in her experience of first love as a young adult. She explores her desires freely outside, but once at home, Fatima conforms herself to the framework of discipline. This tension is powerfully portrayed thanks to Nadia Melliti's performance as Fatima. Park Ji-Min also delivers a compelling performance as Ji-Na. An intriguing coming-of-age story that captures the unrefined energy between Fatima, Ji-Na, and the family. (CHO Hyunna)

Lovely Day

IP

러블리 데이

Canada | 2025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Philippe FALARDEAU** 필리프 팔라르도



076 Sep 18 / 19:30 / BCM **449** Sep 23 / 20:00 / L4
513 Sep 24 / 12:30 / C6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결혼식을 앞둔 알랭,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는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만성적인 복통과 불안 증세는 줄곧 그를 따라다닌다. 그는 여전히 부모의 이혼에서 비롯된, 어린 시절의 회복되지 않은 상처 속에 머무르고 있다. 축하를 위해 모여든 알랭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런 그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요란스럽기만 하다. 신부 버지니는 알랭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못마땅한 마음은 숨기기 어렵다. 순조로운 줄 알았던 결혼식은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점 소란스러워진다. 알랭과 버지니는 예정대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 <러블리 데이>는 <마이 뉴욕 다이어리>(2020)를 연출했던 필리프 팔라르도의 반가운 신작이다. (문주화)

Alain is about to get married. It should be one of the happiest moment of his life, yet he seems somewhat uneasy. Chronic stomach pains and anxiety have long plagued him. He is still stuck in the unhealed childhood wounds that arose from his parents' divorce. Alain's family and relatives who gather to celebrate are loud and boisterous, paying little attention to his state of mind. His bride, Virginie, tries to understand him, but it is hard for her to hide her discontent. What should have been a smooth-sailing wedding day turns increasingly chaotic as a chain of unexpected mishaps unfolds. Will Alain and Virginie be able to finish their wedding as planned, and step into their new life together? *Lovely Day* is the much-anticipated new film from Philippe Falardeau, director of *My Salinger Year* (2020). (MOON Juhwa)

Meteors

소년 하나 둘 셋

France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Hubert CHARUEL** 위베르 샤뤼엘



064 Sep 18 / 16:00 / L7 **220** Sep 20 / 13:00 / L7
602 Sep 25 / 14:30 / L5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쿼어종려상

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낙농업자의 이야기 <블러디 밀크> (2017)로 세자르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위베르 샤뤼엘 감독이 곤경에 빠진 청춘들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티격태격하는 미카와 단은 출구 없는 미로 속으로 갇힌 신세다. 어처구니없는 일탈로 재판을 받고 궁지에 몰린 이들은 결국 핵폐기장 시설에서 일한다. 황량한 지역의 소외된 공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들은 작업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단은 건강마저 악화된다. 일종의 버디 무비처럼 두 동향 친구의 끈끈한 우정과 동병상련이 강렬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폴 키르세르와 이디르 아주글리 듀오의 밀도 높은 연기가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은 켄 로치 감독의 1990년대 영화 속 유쾌한 하층민을 떠올리게 만든다. 쓰디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싸우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초상이다. 우리가 바로 미카이자 단이다. (전종혁)

Hubert Charuel - who won the César Award for Best First Feature with *Bloody Milk* (2017), a story about a young dairy farmer struggling to protect his cattle - returns with a new tale about youth in crisis. Mika and Daniel, bickering under the weight of economic pressure, find themselves trapped in a maze with no way out. Following a ludicrous act of rebellion, they end up in court and are eventually forced to work at a nuclear waste facility. In this desolate, marginalized place, they are reduced to mere tools, weighed down by a growing sense of helplessness. To make matters worse, Daniel, who neglects his own well-being, begins to suffer from declining health. Structured like a buddy movie, the film captures the raw camaraderie and shared plight of the two bosom friends, evoking powerful empathy. The tightly woven performances by Paul Kircher and Idir Azougli leave a lingering impression, reminiscent of the spirited working-class characters in Ken Loach's 1990s films. We can rediscover the image of those who fought not to lose hope amid bitter reality. They are the faces of our time. We are Mika and Daniel. (JUN Jonghyuk)

No Beast. So Fierce.

짐승처럼 사납게

Germany/France/Poland | 2025 | 142min | DCP | color
Director **Burhan QURBANI** 부르한 쿠르바니



249 Sep 21 / 09:30 / B2 **330** Sep 22 / 12:00 / B1
477 Sep 23 / 20:00 / BCM

베를린영화제 스페셜갈라

오랫동안 베를린 암흑가에서는 요크와 랭커스터, 두 이르게 이민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졌다. 전쟁은 요크의 승소로 일단락된다. 그날부터 라시다는 요크 가문의 왕이 되고자 중상모략과 살인, 유혹 등을 동원해 암투를 벌인다. <짐승처럼 사납게>는 파스빈더의 정치성을 계승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독일 감독 부르한 쿠르바니의 신작이다. 감독은 전작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2020)에서 되불린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파시즘이 싹트는 1920년대 독일을 거울삼아 동시대를 비추는 급진적 상상력을 펼쳤다.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차드 3세』를 이롭게 여성 주인공을 앞세운 누아르로 재구성했다. 연극과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켄다 헤메이단이 주인공으로 열연한다. 감독은 카라바조의 회화를 닮은 미장센 속에 권력과 자본을 갈망하는 이민자의 혈투를 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민자가 어떻게 “서구가 숨기고 싶은 상처”이자 짐승처럼 사나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대담히 제시한다. (김경수)

For a long time, a bloody war raged in Berlin's underworld between two Arab immigrant families—the Yorks and the Lancasters. The conflict ends in victory for the York family. From that day on, Rashida sets her sights on becoming the king of the Yorks, engaging in a web of intrigue filled with slander, murder, and seduction. *No Beast. So Fierce.* is the latest work by Burhan Qurbani, a German director of Afghan origin who inherits the political sensibilities of Rainer Werner Fassbinder. In his previous film, *Berlin Alexanderplatz* (2020), Qurbani used Doblin's novel of the same name to reflect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lens of 1920s Germany, a time when fascism began to take root. This time, he reimagines Shakespeare's *Richard III* as a noir with an Arab female protagonist at its center. Actively working in both theater and film, Kenda Hmeidan gives a standout performance as the lead. In mise-en-scene reminiscent of Caravaggio's paintings, the director doesn't stop at depicting a blood-soaked power struggle led by a foreigner yearning for freedom. He goes further, boldly portraying how the immigrant becomes both “a wound the West wants to conceal” and a beast-like figure. (KIM Kyeong Soo)

Phantoms of July

7월의 유령들

Germany | 2025 | 90min | DCP | color
Director **Julian RADLMAIER** 올리안 라들마이어



063 Sep 18 / 13:00 / L7 **150** Sep 19 / 14:00 / KT
261 Sep 21 / 12:00 / C1 **557** Sep 25 / 20:00 / BH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18세기, 왕자의 시종을 들던 로테는 사랑하는 이와 프랑스로의 도피를 꿈꾼다. 혁명이 시작된 프랑스가 독일보다 훨씬 자유로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망치던 중 추격자가 따라붙자 로테는 동굴로 숨어든다. 이후 시종은 현대로 바뀌어 웨이트리스인 우루술라, 취업 비자가 필요한 이란의 초보 유튜버 네다의 하루가 차례로 비춰진다. 올리안 라들마이어 감독은 <7월의 유령들>에서 독일의 한 중부 도시에 살을 꾸민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신분제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 속 평범한 노동자처럼 비춰지던 이들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방법을 강구한다. 중반부까진 인물들이 갈망하는 바와 그로 인한 변화를 그린 뒤 후반부엔 로드무비 형식으로 이들을 한데 모아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살핀다. 마지막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고 독일의 정치사, 사회문제를 거론하는 독특한 모험담이다. (조현나)

In the 18th century, Lotte, who serves a prince, dreams of escaping to France with her beloved as she believes that revolutionary France would offer far more freedom than Germany. Pursued while on the run, she hides in a cave. The story then shifts to the present day, following the lives of Ursula, a waitress, and Neda, a novice YouTuber from Iran in need of a work visa. In *Phantoms of July*, director Julian Radlmaier focuses on women making lives for themselves in a central German city. Although initially depicted as ordinary workers trapped within the structures of feudal society and capitalist systems, they later begin searching for ways to reclaim their lives after pivotal events. The first half of the film explores their desires and the transformations that follow, while the latter half adopts the style of a road movie, bringing the characters together to see what kind of chemistry emerges. A unique adventure tale that maintains its lightheartedness throughout while addressing Germany's political history and social issues. (CHO Hyunna)

Sound of Falling

사운드 오브 폴링

Germany | 2025 | 155min | DCP | color
Director **Mascha SCHILINSKI** 마샤 실린스키



032 Sep 18 / 09:00 / C4 **180** Sep 20 / 20:00 / CX
450 Sep 23 / 09:30 / L5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에 빛나는, 실로 아심 찬 작품이다. 전작에서 이혼한 부모를 주시하는 소녀의 내면을 관찰했던 실린스키는 작정하고 네 세대의 소녀를 불러낸다. 그들은 세기에 걸쳐 다른 시간을 살면서도 같은 공간에 머무는데, 그들의 걸을 지배하는 건 죽음의 기운이다. 각 시간은 정교하게 맞물리며 그들의 관계를 아주 느리게 밝혀내고, 소녀들은 타인 및 바깥 세계를 어둠하게 감지한다. 유령, 죽은 자와 함께 걷는 게 삶이라면, 싱그러운 아이들은 어떻게 현실의 강을 헤엄쳐 건널까. 미세한 틈으로 인물을 바라보라는 듯이, 인물은 4:3의 좁은 화면 속 또 다른 공간에 갇히기 일쑤이고, 액자 속에 고립된 인물과 반대로 카메라는 공기처럼 자유롭게 유영한다. 이에 더해, 사운드와 조명은 세공품을 다루듯 탁월하게 설계되었다. 가히 올해의 아트하우스로 꼽기에 모자람이 없는 작품이다. (이용철)

Winner of the Jury Prize at the Cannes Film Festival, this is truly an ambitious work. Mascha Schilinski, who previously observed the inner world of a young girl watching her divorced parents, now purposefully brings forth four generations of girls. Though they live in different times across centuries, they remain in the same space, overshadowed by the presence of death. Each era is intricately interconnected, revealing their relationships very slowly, and the girls are highly sensitive to others and to the outside world. If living means walking alongside ghosts and the dead, how, then, do these fresh, young children learn to swim across the river of reality? As if urging us to watch the characters through the smallest of cracks, they are often trapped in yet another space within the narrow 4:3 frame, isolated like figures inside a picture frame, while the camera, in contrast, floats freely like air. Furthermore, the sound and lighting are superbly designed, as if handling a work of art. This is, without a doubt, a work worthy of being counted among the art-house films of the year. (LEE Yong Cheol)

Sweetheart

스윗, 스윗하트

Italy | 2025 | 92min | DCP | color

Director **Margherita SPAMPINATO** 마르케리타 스파мп이나토



068 Sep 18 / 20:30 / L10 **279** Sep 21 / 20:00 / C5

453 Sep 23 / 20:00 / L5 **615** Sep 25 / 16:30 / L10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감독경쟁 심사위원특별상, 최우수연기상

코마 소년 니코는 시칠리아에 사는 고모할머니 젤라와 한 달을 보내게 된다. 그의 시골 생활은 첫날부터 엉망진창이다. 와이파이는 안 되고 음식은 도저히 입맛에 안 맞는다. 성격이 과격한 젤라와 노견 프랭크,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한 이웃집, 심술궂은 동네 아이들까지 그 무엇 하나 적응하기 힘들다. 젤라에게 스마트폰까지 압수당한 후 니코는 베이비시터 비올레타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어느 날 니코에게 또래의 소녀 로자가 다가온다. 순식간에 친구가 된 둘은 함께 고모할머니의 비밀을 파헤친다. 마르케리타 스파мп이나토의 <스윗, 스윗하트>는 데뷔작답지 않은 성숙한 연출이 돋보인다. 시칠리아의 여름 풍경 사이에 삽입된 호러와 서스펜스가 기이함을 자아낸다. 이 기이함은 성장 영화의 공식에 지구온난화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동성애 혐오 등 동시대 이탈리아의 사회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과 맞닿는다. 마치 이탈리아에서 찍은 윤가는 감독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첫 장편 작품으로, 올해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두 개의 상을 거머쥔 작품이다. (김경수)

Little boy Nico spends a month with his great-aunt Gela, who lives in Sicily. His rural life is a mess from the very first day. There is no Wi-Fi, and the food is strange. It is hard to adjust to the grumpy Gela, the old dog Frank, the neighboring house rumored to be haunted by ghosts, and the mean local kids—all of which are challenging in their own way. After Gela confiscates his smartphone, Nico misses his babysitter Violetta even more. One day, a girl named Rosa, who is about his age, approaches Nico. They quickly become friends and together they investigate the secrets of his great-aunt. Margherita Spaminato's *Sweetheart* stands out for its mature direction despite being a debut feature film. The horror and suspense interspersed within the summer scenery of Sicily creates a sense of eeriness. This eerines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ilm's realism aesthetic that naturally addresses contemporary Italian social issues—such as global warming, rural depopulation due to aging, and homophobia—within the formulas of a coming-of-age movie. It's as if you are watching a film directed by Yoon Ga-eun, yet shot in Italy. This wonderful debut feature won two awards at this year's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IM Kyeong Soo)

That Summer in Paris

여름의 랑데뷰

France | 2025 | 78min | DCP | color

Director **Valentine CADIC** 발렌틴 카디크



028 Sep 18 / 10:30 / C3 **116** Sep 19 / 16:30 / C5

258 Sep 21 / 12:30 / CX **609** Sep 25 / 16:30 / L7

베를린영화제 퍼스펙티브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여름, 노르망디에 사는 블랑딘은 수영 경기를 보기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복자매의 집에서 지낸다.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발렌틴 카디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블랑딘은 여행객, 즉 관찰자의 시선으로 분주한 도시와 올림픽의 열기를 바라보며 주변인으로 머문다. '아멜리에' 보다는 '월로 씨'에 가까운 그는 파리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존재다. 도시 속의 고독과 만남을 아우르는 그의 행보는 낯설과 친밀함을 동시에 품는다. 코믹한 과짜처럼 등장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을수록 외유내강의 내면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독특한 친화력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카디크 감독은 블랑딘에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조우를 통해 특별한 여름 모험을 선사한다. 바캉스를 다룬 영화답게 프랑스 영화의 찬란한 유산에서 자양분을 얻었다. 에릭 로메르, 자크 로지에, 기욤 브락 등의 영향권 안에 있다. (전종혁)

In the summer of the 2024 Paris Olympics, Blandine, who lives in Normandy, visits Paris to watch the swimming competitions and, after a series of twists and turns, ends up staying at her stepister's house. This is the feature film debut of director Valentine Cadic, exploring how the Olympic festival impacts individual lives. Blandine sees the bustling city and the Olympic fervor from the perspective of a traveler, an observer, remaining on the periphery. Closer to Monsieur Hulot than Amélie, she is a character who makes us rediscover Paris. Her journey, encompassing both solitude and encounters within the city, holds both unfamiliarity and intimacy. At first she appears to be a vaguely comical oddball, but as she goe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her inner strength quietly emerges, and her unique sociability captures attention. Director Cadic presents a special summer adventure through Blandine's unexpected encounters. As a film about vacation, it draws nourishment from the brilliant legacy of French cinema, influenced by figures such as Éric Rohmer, Jacques Rozier, and Guillaume Brac. (JUN Jonghyuk)

The Voice of Hind Rajab

힌드의 목소리

Tunisia/France | 2025 | 89min | DCP | color

Director **Kaouthar BEN HANIA** 카우테르 벤하니아



074 Sep 18 / 13:30 / BCM **159** Sep 19 / 20:00 / BCM

599 Sep 25 / 16:30 / L4

베니스영화제 경쟁

2024년 1월 29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영화화했다. 여섯 살 팔레스타인 소녀 힌드 라잡은 친척과 함께 차로 피신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는다. 차 안의 유일한 생존자 힌드는 가카스로 팔레스타인 적신원사(이슬람권의 적십자) 콜센터와 연결이 된다. 이때부터 적신원사의 오마르와 동료들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다.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은 튀니지의 한 가족이 겪은 비극을 담은 <울파의 딸들>(2023)을 극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에서 재현한 것처럼 꿈 많은 소녀에게 일어난 사건 역시 재구성했다. 울파와 그의 딸들은 영화라는 매체를 경유해 과거와 작별하고 가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반면 <힌드의 목소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장지애(斷腸之哀)를 공유하게 만든다. 이 참담함은 영화가 끝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가자 지구의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전종혁)

On January 29, 2024, a shocking incident in Gaza was turned into a film. Hind Rajab, a six-year-old Palestinian girl, was fleeing by car with her relatives when Israeli forces attacked them. As the sole survivor in the vehicle, Hind barely managed to connect with the Palestinian Red Crescent (the Islamic counterpart to the Red Cross) call center. From that moment on, Omar and his colleagues at the Red Crescent devoted themselves to rescuing the little girl. Director Kaouthar Ben Hania, known for docu-fiction *Four Daughters* (2023) which recreated the tragedy of a Tunisian family, reconstructs here the harrowing events that befell the bright, hopeful little girl. While Olfa and her children in *Four Daughters* explore how a family moves toward healing through the medium of film, *The Voice of Hind Rajab* conveys the pain of unspeakable grief in a way that does not consume or exploit the suffering of others. This devastation does not dissipate when the film ends—for the massacre in Gaza continues to this day. (JUN Jonghyuk)

The Wedding Banquet

결혼 피로연

United States | 2025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Andrew AHN** 앤드루 안



042 Sep 18 / 20:00 / C6 **165** Sep 20 / 09:30 / B1

399 Sep 22 / 17:00 / SH

선댄스영화제 프리마어

학생 비자 만료를 앞두고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유학생 민에게는, 결혼을 두려워하는 남자 친구 크리스가 있다. 크리스의 오랜 친구 안젤라는, 값비싼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여자 친구 리와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 앞에 놓인 굴치 아픈 문제들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결혼 피로연>은 1993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이안 감독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로맨티 코미디다. 시대적 배경이 달라진 만큼, 보수적인 사회적 규범보다는 가족, 연인,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작 각본가 제임스 사무스가 앤드루 안 감독과 함께 각색한 대본은 보웬 양, 릴리 글래드스톤, 켈리 마리트란, 한기찬, 윤여정, 조안 첸 등 호화 출연진의 탄탄한 연기로 더욱 빛난다. (박가연)

Min, an international student facing the expiration of his student visa and pressure to take over the family business, has a boyfriend, Chris, who is afraid of marriage. Chris's longtime friend, Angela, is contemplating the future with her girlfriend, Lee, who wants to have a child through expensive IVF treatments. What could be the easiest way to solve the tricky problems this gay couple and lesbian couple are facing? *The Wedding Banquet* is a remake of Ang Lee's eponymous romantic comedy, which won the Golden Bear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93. With the change in the times, the film focuses more on the personal relationships and conflicts between family, lovers, and friends rather than on the struggle against conservative social norms. The script, adapted by the original screenwriter James Schamus along with director Andrew Ahn, is further illuminated by the solid performances of a star-studded cast including Bowen Yang, Lily Gladstone, Kelly Marie Tran, Han Gi-Chan, Yoon Yuh-Jung, and Joan Chen. (Karen PARK)

Flash Forward | 플래시 포워드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선보인 비아시아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관객 투표를 통해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을 수여한다.

A platform for innovative and original first and second features by emerging non-Asian filmmakers.
The winner of the Flash Forward Audience Award is selected by the audience.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Hana Korea

WP

하나코리아

Denmark/Korea | 2025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Frederik SØLBERG** 프레드릭 쉴베르



프레드릭 쉴베르 감독의 첫 픽션 장편 <하나코리아>는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성 혜선(김민하)의 이야기를 그린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혜선에게 남한은 꿈꾸던 해방구가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무대가 된다. 하나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부터 서울 아파트에서의 독립적인 삶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버겁다. 혜선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영화 전반에 걸쳐 그녀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사론 최가 쉴베르 감독과 함께 공동 각본을 맡아 언어적 뉘앙스를 섬세하게 다뤘다. 김민하의 열연은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며 영화의 몰입도를 높인다. 초반에는 이주민 통합센터 안에 갇혀 있는 듯 고정되고 엄격한 화면 구도가 펼쳐지지만, 혜선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을 얻어 갈수록 화면은 점점 넓어지고 영상은 더 유연해진다. 중국을 거쳐 남북한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쉴베르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한 여성의 보편적인 초상을 그려낸다. 다큐멘터리 <고스트 타운>(2018)의 감독이 연출한 <하나코리아>는 탈북 이주민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담담한 시선으로 포착하며, 해방을 향한 개인의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균형 있게 형상화한다. (허승)

Hana Korea, the first feature film by Frederik Solberg, is based on a true story and illustrates the journey of Hyesun (Kim Minha), a woman who strives to start a new life in South Korea after leaving North Korea. However, South Korea turns out to be another arena in which she must adapt, rather than as a place of liberation. From participating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democracy to living an independent life in an apartment in Seoul, everything is unfamiliar and overwhelming to Hyesun. The letters Hyesun writes to her mother serve as a key device throughout the film, revealing her inner world. Sharon Choi co-wrote the screenplay with the director, delicately handling linguistic nuances, while Kim Minha's enthusiastic performance blurs the boundary between fiction and documentary, making the film highly immersive. While the screen frame is initially limited expressing Hyesun's confinement to the integration center for immigrants, it becomes wider and more flexible as she gains confidence with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rotagonist's journey across China and the two different Koreas, Solberg portrays a universal portrait of women who must reconcile with their past selves in order to move forward. Solberg is known for the documentary *DOEL* (2018), and through *Hana Korea* captures the realities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 without exaggeration nor simplification, offering a balanced portrayal of personal growth and inner transformation on the path towards liberation. (HUR Sung)

040 Sep 18 / 12:30 / C6 195 Sep 20 / 16:00 / C5

523 Sep 24 / 20:00 / L3

Her Will Be Done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France/Poland | 2025 | 99min | DCP | color

Director **Julia KOWALSKI** 줄리아 코발스키



035 Sep 18 / 20:00 / C4 119 Sep 19 / 13:00 / C6

587 Sep 25 / 13:30 / C6

칸영화제 감독주간

성인이 된 나보이카는 새벽마다 신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가족 농장의 온갖 허드렛일에 속박당한 비참한 삶을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기도일 뿐. 어릴 적 악령에 사로잡혀 죽은 어머니처럼 자신에게도 그 악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움켜잡을 수 없게 만든다. 어느 날 그녀 앞에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기질의 산드라가 나타난다. 산드라와 가까워지며 그녀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만끽한다. 그즈음 농장의 소가 밤마다 괴사하는 섬뜩한 사건이 생긴다.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는 프랑스 내 폴란드 이민자에 주목해 온 줄리아 코발스키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이다. 잔작처럼 리얼리즘에 오컬트 장르를 더한 문제작이다. 브라이언 드 팔마의 <캐리>(1976),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크래쉬>(1996) 등 고전 호러를 오마주한 강렬한 이미지와 시적인 미장센이 돋보인다. 빙의를 소재로 마녀사냥의 본질을 묘파하고 전복하는 여성주의 서사도 지적인 흥미를 일으킨다. (김경수)

As an adult, Nawojka prays fervently to God every dawn. She begs to be freed from the miserable life shackled by all the hard labor on her family's farm. Yet her prayers remain just prayers. The fear that she might be haunted by a demon, just like her mother who died possessed by an evil spirit when Nawojka was young, leaves her paralyzed. One day, a rebellious girl named Sandra appears before her. Growing closer to Sandra, Nawojka experiences a sense of liberation for the first time. Around that time, a chilling event occurs—the farm's cows mysteriously die each night. *Her Will Be Done* is director Julia Kowalski's second feature film, focusing on Polish immigrants in France. It is a provocative work that blends realism with elements of the occult. The film features striking imagery and poetic mise-en-scene that pay homage to classic horror films such as Brian De Palma's *Carrie* (1976) and David Cronenberg's *Crash* (1996). Its feminist narrative, which uses possession as a motif to explore and subvert the essence of witch hunts, also provokes intellectual interest. (KIM Kyeong Soo)

I Only Rest in the Storm

난 폭풍 속에 쉬어가

Portugal/Brazil/France/Romania | 2025 | 217min | DCP | color

Director **Pedro PINHO** 페드루 피뉴



199 Sep 20 / 17:30 / C6 409 Sep 23 / 09:00 / B2

610 Sep 25 / 19:00 / L7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사선 여우주연상

세르히오는 사막과 정글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세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풍토병과 기묘한 만남들이다. 세르히오는 '유럽의 백인 남성'을 호기심으로 반기는 사람 혹은 경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며 -한편으론 수동적이고 순진한 태도로- 현지의 환경에 동화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만난 매력적인 두 인물 디아라와 기는 세르히오의 욕망과 진심을 시험한다. 바를 운영하는 현지인 디아라, 브라질에서 이민 온 논바이너리 기 그리고 세르히오 사이에는 묘한 성적 기류가 흐르고, 이들의 관계는 신식민주의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거대 담론을 보다 개인적이고 내밀한 서사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78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사선 상영작으로, 디아라를 연기한 클레오 디아라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주현)

Sergio travels to Guinea-Bissau in West Africa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connecting the desert with the jungle. There, he is met with endemic diseases and strange encounters. Amid people who either greet him with curiosity or regard him with suspicion as a 'white European man,' Sergio tries to find his footing—at times passive and naive—while adapting to the local environment. Two captivating individuals he meets along the way, Diara and Gui, challenge both his desires and sincerity. Diara, a local bar owner, and Gui, a non-binary migrant from Brazil, form a curious triangle with Sergio, their entanglement charged with sexual tension. Their relationship reframes the grand narratives of neocolonialism—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into something more intimate and personal. Selected for the 78th Cannes Un Certain Regard section, the film earned Cleo Diara the Best Actress award for her performance as Diara. (LEE Juhyun)

The Last One for the Road

가는 길에 딱 한 잔 더

Italy/Germany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Francesco SOSSAI** 프란체스코 소사이



033 Sep 18 / 13:00 / C4 **121** Sep 19 / 20:00 / C6
525 Sep 24 / 16:00 / L4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현대사회에서 튕겨 나간 존재인 카를로비안키와 도리아노는 술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사람들이다. 술을 구하러 다니다 건축과 학생 줄리오와 만난 뒤, 셋은 함께 길을 떠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떠난 나그네처럼, 이 영화는 반로트무비적인 로드무비다. 술집은 길로 이어지고, 대화와 기억 속에서 진위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기묘한 음악을 배경으로 과장한 만남과 사건이 벌어진다. 그 결과는, 규정짓기 힘든, 그야말로 소사이 식의 템포를 지닌 파카레스크 영화다. 두 불한당은 요제프 로트의 소설 『성스러운 술꾼의 전설』의 주인공과 닮으면서도 다르다. 그들이 과연 성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다음 세대와 유쾌하게 길을 가며 인생을 떠들 만큼은 된다. 영화를 본 뒤엔 둘 중 하나다. 스카르파의 ‘브리온 묘원’에 가고 싶거나, 소사이의 전작을 마치도록 보고 싶거나. (이용철)

Carlobianchi and Doriano, two men cast adrift from modern society, are people who cannot live a moment without alcohol. In their search for drink, they encounter Giulio, an architecture student, and the three set off on a journey together. With no set destination, they wander like vagabonds—making this film an ‘anti-road movie’ road movie. Bars lead into roads, stories of uncertain truth emerge from conversations and memories, and strange encounters and incidents unfold against a backdrop of uncanny music. The result is a picaresque film with an indefinable quality, carried by Sossai’s distinctive tempo. The two rogues may resemble, yet also diverge from, the protagonists of Joseph Roth’s novel *The Legend of the Holy Drinker*. Whether they are truly ‘holy’ is questionable, but at the very least, they wander cheerfully alongside the next generation, loud and unrestrained in their musings on life. After watching, one of two impulses will likely seize you: either to visit Scarpa’s Tomba Brion, or to devour Sossai’s earlier works with an almost manic enthusiasm. (LEE Yong Cheol)

Lucky Lu

루의 운수 좋은 날

United States/Canada | 2025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Lloyd LEE CHOI** 로이드 리 최



120 Sep 19 / 16:30 / C6 **257** Sep 21 / 09:00 / CX
448 Sep 23 / 17:00 / L4 **612** Sep 25 / 17:00 / L9

칸영화제 감독주관

혼종의 도시 뉴욕. 이민자들에게 이곳은 꿈이 실현되는 곳일까, 아니라면 꿈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소일까. 식당 경영에 실패한 후, 음식 배달부로 일하는 루에게 뉴욕은 절망의 그림자만을 잔혹하게 드리운다. 자전거가 도난당하고 어렵사리 구한 집마저 사기당한 그에게 남은 것은, 다음날 그를 만나러 뉴욕으로 오는 아내와 딸뿐이다. <루의 운수 좋은 날>은 최악의 하루를 보낸 루가 다음날 딸 아아와 뉴욕의 거리를 배회하는 48 시간의 이야기를 트래킹 쇼र्ट로 기록한다. 루의 메마른 시선과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시선이 프레임에 포개어질 때, 영화는 절망에 머무르기를 중단하고 어딘가 남아있을 한 줄기 빛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섬세한 편집과 장편의 배우적 역량이 아름답게 발현된, 생의 에너지가 넘실대는 영화다. (문주화)

New York, a city of hybrids. For immigrants, is it a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or where the impossibilities of dreams are laid bare? After failing in his restaurant business, Lu now works as a food deliveryman, and for him, New York casts only a cruel shadow of despair. His bicycle is stolen, the home he struggled to secure turns out to be a scam, and all he has left is the fact that his wife and daughter will be arriving the next day to see him. *Lucky Lu* chronicles, through tracking shots, the 48 hours in which Lu endures the worst day of his life and then roams the streets of New York with his young daughter, Yaya. When Lu’s dry, weary gaze overlaps in the frame with a child’s innocent one, the film stops lingering in despair and instead seeks out the possibility of a single remaining ray of light. With delicate editing and Chang Chen’s remarkable acting, this is a film brimming with the surging energy of life. (MOON Juhwa)

My Father's Shadow

내 아버지의 그림자

Nigeria/United Kingdom | 2025 | 94min | DCP | color
Director **Akinola DAVIES Jr.** 아키놀라 데이비스 주니어



282 Sep 21 / 17:00 / C6 **379** Sep 22 / 09:00 / L6
459 Sep 23 / 15:00 / L7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황금카메라상 특별언급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에 특별언급된 작품이다. 나이지리아 군부 종식과 민정 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 직후, 아버지와 두 아들이 라고스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다. 나이지리아 정치사에서 중요한 하루를 다룬 만큼, 대도시 사람들의 눈빛에선 혼란과 두려움, 희망과 분노가 용솟음친다. 하지만 영화의 주제는 다른 데 있다. ‘아버지가 간혹 흘리는 코피와 아이가 계속 쳐다보는 하늘’에 감독의 뜻이 숨어 있다. 부재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을 현시(顯示)하는가. 보이지 않는 신처럼, 뼈 빠지게 일하느라 가족의 곁에 있기 힘든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랑과 책임감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다. 감독의 동생은 반자전적 성격을 각본을 쓰면서 가족의 과거 기억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잊지 못할 스코어가 유머와 감동이 공존하는 영화를 더욱 빛낸다. (이용철)

My Father's Shadow was given a special mention for the Caméra d’Or at the Cannes Film Festival. Set immediate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marked the end of Nigeria’s military rule and the transition to civilian government, the story follows a father and his two sons as they return home after spending a day in Lagos. As the film deals with a significant day in Nigerian political history, the eyes of the people in the big city surge with confusion, fear, hope, and anger. Yet, the film’s main theme lies elsewhere. The director’s intentions are hidden in ‘the father’s occasional nosebleed and the sky that the child keeps gazing at.’ How does someone who is absent show love? Like an invisible god, the father, whose relentless work keeps him away from his family, wants to show his lov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to them. The director’s brother, who wrote the semi-autobiographical script, said he sought, “catharsis regarding the family’s past memories.” An unforgettable score further enriches the film, which artfully balances humor and emotion. (LEE Yong Cheol)

The Mysterious Gaze of the Flamingo

신비로운 플라밍고의 눈빛

Chile/France/Germany/Spain/Belgium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Diego CÉSPEDES** 디에고 세스페데스



198 Sep 20 / 13:30 / C6 **276** Sep 21 / 09:00 / C5
601 Sep 25 / 11:00 / L5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대상

1980년대 칠레의 황량한 관산 마을. 노동자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작은 바에는 게이와 트랜스젠더 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어느 날, 눈빛만으로 전염된다는 정체불명의 질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들은 곧 공포와 혐오의 표적이 된다. 이 황량한 지역은 독자에 억눌리고 에이즈에 대한 정보와 예방이 부족했던 당시의 칠레를 상징한다. 디에고 세스페데스 감독은 사회적·정치적 비극, 뮤지컬, 웨스턴, 동화 등의 여러 장르를 능숙하게 결합하며 유니크한 작품을 완성한다. 따뜻한 쿼이 가족 속에서 성장한 11살 소녀 리디아는 자신의 환상 세계를 ‘보아’, ‘양사자’, ‘피라냐’ 같은 동물 이름을 가진 인물들로 채우는데, 그 중심에는 아름다운 트랜스젠더 카바레 아티스트이자 그녀의 어머니 플라밍고가 있다. 이들은 모두 트랜스젠더 카바레 아티스트들이며, 유쾌하고 엉뚱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가 연상되는 이 첫 장편은 사랑과 가족의 유대가 성별을 초월해 자유롭게 흐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승희)

In a desolate mining town in 1980s Chile, a small bar—the only refuge for local laborers—hosts performances by gay and transgender artists. One day, a mysterious disease begins to spread, said to be transmitted through a mere glance. Fear and hatred quickly descend upon the performers, who become scapegoats. This barren setting symbolizes Chile under dictatorship, a time marked by repression and a lack of information and prevention surrounding AIDS. Director Diego Céspedes skillfully blends genres—social and political tragedy, musical, western, and fairytale—to create a truly unique work. At the heart of the story is 11-year-old Lidia, who is growing up within a warm queer family. She fills her imaginary world with characters named after animals like ‘Boa,’ ‘Lioness,’ and ‘Piranha,’ all centered around Flamingo—her beautiful, transgender cabaret artist mother. These characters, all transgender cabaret performers, are whimsical, spirited, and deeply moving. Reminiscent of Pedro Almodóvar’s films, this stunning debut feature illustrates how love and familial bonds can transcend gender, flowing freely and defiantly. (SEO Seunghee)

Omaha

오마하

United States | 2025 | 83min | DCP | color

Director **Cole WEBLEY** 콜 웨블리



283 Sep 21 / 20:30 / C6 **470** Sep 23 / 15:30 / KT
531 Sep 24 / 16:30 / L6 **614** Sep 25 / 14:00 / L10

선댄스영화제 미국영화경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영화는 세계 금융 위기가 도래했던 2008년, 한 가족의 여정을 담고 있다. 마틴은 엘라와 찰리 남매를 다급히 깨워, 차에 몸을 싣는다. 세 가족과 한 마리의 개는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오래된 차를 타고 네브래스카로 향한다. 평범한 여행으로 여긴 산난 아이들과 달리, 아버지 마틴의 얼굴은 그저 고단해 보이기만 한다. 이 여정은 추억을 더하는 평범한 여행이 아닌, 키우던 개와 이별하고 계산대의 물건을 덜어내며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는 체념의 고행길이다. <오마하>는 삭막하고 황량한 미국의 대륙을 가로지르는 애잔한 로드무비이다. 존 마가로의 지친 얼굴은 절망 앞에 선 가정의 일그러진 초상을 처연하게 그려낸다. 콜 웨블리의 섬세하면서 절제된 연출이 빛나는 장편 데뷔작이다. (문주화)

What do we live by? Set in 2008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ilm follows the journey of one family. Martin hurriedly wakes his children, Ella and Charlie, and bundles them into the car. Together with their dog, the family sets off for Nebraska in an old vehicle that can barely start. While the children are excited, thinking it's just an ordinary trip, Martin's face shows nothing but exhaustion. This is no memory-making vacation, but a weary pilgrimage of resignation—one that involves parting with their beloved dog and putting back groceries at the checkout counter to face a painful reality. *Omaha* is a poignant road movie that traverses the bleak, barren stretches of the American continent. John Magaro's weary face hauntingly captures the distorted portrait of a father confronting despair, while Cole Webley's delicate yet restrained direction shines in this impressive feature debut. (MOON Juhwa)

Reedland

리드랜드

Netherlands/Belgium | 2025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Sven BRESSER** 스벤 브레서르



029 Sep 18 / 13:00 / C3 **197** Sep 20 / 09:30 / C6
373 Sep 22 / 16:00 / L4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스벤 브레서스 감독의 데뷔작 <리드랜드>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악을 탐구하는 노인의 여정을 따르는 미스터리극이다. 갈대 자르기 장인 요한은 어느 날 자신의 땅에서 젊은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소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혹은 죄책감에서 시작한 범인 찾기는 점차 집착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폐쇄적인 공동체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다. 조용한 마을에 숨겨진 악을 탐색하는 <리드랜드>는 제목 그대로 갈대의 이미지를 영리하게 활용한다. 마치 미로처럼 모든 것을 가리는 갈대숲은 범죄, 추악함, 공포 심지어 진실마저 숨기기 완벽한 장소다. 갈대가 바람에 속삭이듯 음산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한 역을 맡은 게리트 크눔베의 절제된 연기가 영화 전체를 장악한다. 강렬한 소재, 흡입력 있는 구성 위로 잉마르 베리만, 미하엘 하네케,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이 떠오르는 시적인 호흡이 인상적이다. (송경원)

Director Sven Bresser's debut film, *Reedland*, is a mystery drama that follows the journey of an old man exploring evil after a murder occurs in his small rural village. Johan, a master reed cutter, discovers the body of a young girl on his land one day and is overcome by an inexplicable emotion. His search for the culprit, which begins out of a desire to protect his granddaughter or perhaps from a sense of guilt, gradually turns into an obsession, filling the closed-off community with an unseen tension. *Reedland*, which explores the evil hidden in a quiet village, cleverly utilizes the imagery of reeds as its title suggests. The reed bed, which conceals everything like a maze, is the perfect place to hide crime, ugliness, fear, and even the truth. As an eerie atmosphere continues, as if the reeds are whispering in the wind, the restrained performance of Gerrit Knobbe in the role of Johan dominates the entire film. Layered on top of its powerful subject matter and absorbing structure is an impressive poetic rhythm reminiscent of directors like Ingmar Bergman, Michael Haneke, and Thomas Vinterberg. (SONG Kyung-won)

Strange River

스트레인지 리버

Spain/Germany | 2025 | 105min | DCP | color

Director **Jaume CLARET MUXART** 하우메 클라레트 목사르트



037 Sep 18 / 15:00 / C5 **118** Sep 19 / 09:30 / C6
618 Sep 25 / 17:30 / KT

베니스영화제 오리존디

여름이었다. 십 대 소년 디닥은 가족과 함께 강을 따라 자전거 여행 중이다. 온종일 흘린 땀을 식혀줄 강물에 몸을 던져 수영을 즐기던 어느 날, 디닥은 물속에서 미스터리한 나체의 미소녀 알렉산더를 만난다. 유유히 나타났다가 유유히 사라지는 그의 존재는 디닥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급기야 두 소년은 배를 타고 강으로 도주해 첫사랑의 달뜬 마음으로 함께 밤을 지새운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목에 선명히 남은 자난밤의 추억을 어루만지며 내일을 마주해야 한다.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두 소년의 몽환적 첫 만남부터 쏟아지는 빗 사이를 헐떡이며 달리는 소년들의 이미지까지, <스트레인지 리버>는 한여름 밤의 꿈으로 남을 소년의 첫사랑과 성장통을 예쁘게 도화지에 담아낸다. 유럽의 여름 풍경을 만끽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이주현)

It was summer. Teenage boy Didac is on a cycling trip along the river with his family. One day, while cooling off in the water after a long, sweaty ride, he encounters a mysterious naked boy named Alexander. Appearing and disappearing as effortlessly as the current itself, Alexander leaves ripples in Didac's heart. Eventually, the two boys escape downriver in a boat, spending the night together in the giddy haze of first love. But when morning comes, they must face the new day, still feeling the imprint of the night before lingering on their necks. From their dreamlike first encounter beneath the water to the breathless run through shafts of sunlight, *Strange River* gently paints a tender portrait of a boy's first love and growing pains—like a fleeting midsummer night's dream. Savoring the lush scenery of the European summer is yet another pleasure the film offers. (LEE Juhyun)

Wild Foxes

와일드 폭스

Belgium/France | 2025 | 94min | DCP | color

Director **Valéry CARNOY** 발레리 카르누아



280 Sep 21 / 09:30 / C6 **372** Sep 22 / 12:30 / L4
562 Sep 25 / 11:00 / B2

칸영화제 감독주간 유로파시네마리뷰 최우수유럽영화상, SACD최우수프랑스영화상

복싱부의 에이스 카미유. 그의 승리는 복싱부 전체의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팔에 큰 부상을 입은 뒤부터 카미유는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 사이 복싱부 내부의 서열도 바뀐다. 카미유는 어느새 외면받는 존재가 된다. 테스토스테론 과다 분비의 복싱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영화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섬세하게 소년들의 세계를 탐구한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훈련해 온 소년들은 링 위에서 고민 없이 주먹을 뻗어야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 쓰러뜨리거나 쓰러지거나. 사냥꾼이 되거나 사냥감이 되거나. 과연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 상대를 넘어트리기 직전의 망설임, 우승을 자축하지 않는 승자의 실루엣은 잔혹한 세계의 다른 가능성을 고민하는 이 영화의 감수성을 잘 드러낸다. 78회 칸영화제 감독주간에서 상영, 라벨 유로파 시네마상, SACD상을 거머쥐며 호평받았다. (이주현)

Camille is the star of his school's boxing team, and his victories make the entire team proud. But after a serious arm injury, he is unable to stay focused. Soon the team's hierarchy begins to shift, and before long, he finds himself on the outside. The film opens with intense, testosterone-charged boxing scenes but unfolds as a surprisingly quiet and sensitive exploration of boyhood. These boys have trained relentlessly to be strong, and once they step into the ring, they must strike without hesitation. They only have two options: knock down or be knocked down; hunt or be hunted. But is there really no other choice? The brief hesitation before a knockout punch, the silhouette of a champion who doesn't celebrate, reflect the film's emotional depth as it explores the other possibilities that exist within its brutal world. *Wild Foxes* was screened at the 78th Cannes Film Festival Directors' Fortnight and received critical acclaim, winning both the Label Europa Cinemas and the SACP Prize. (LEE Juhyun)

A Year of School

그 해, 학교에서

Italy/France | 2025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Laura SAMANI 라우라 사마니



281 Sep 21 / 13:00 / C6 374 Sep 22 / 20:00 / L4

434 Sep 23 / 13:00 / C5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IP

첫 장편 <스몰 바디>(2021)로 각종 영화상을 휩쓸며 강렬하게 데뷔한 라우라 사마니 감독이 신작 <그 해, 학교에서>로 돌아왔다. 이번 작품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낯선 땅에서 한 학년을 보내게 된 스웨덴 소녀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낸 완성도 높은 틴 무비다. 남학생으로 가득한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이 된 프레드는 세 소년과 가까워지며 도시의 바와 파티 문화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프레드와의 관계를 통해 소년들은 점차 기존의 마초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 안의 감수성과 진짜 감정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주하며 극복해 나간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들의 우정은 프레드와 안테로 사이에 감정이 싹트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 라우라 사마니 감독이 탁월하게 포착한 것은 다름 아닌, 청춘의 에너지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프레드 역을 맡은 신인 배우 스텔라 웬딕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영화에 경쾌한 팝송 같은 리듬감을 더하며,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감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서승희)

Director Laura Samani, who made a powerful feature debut with the multi-award winning *Small Body* (2021), returns with her new work *A Year of School*. Set in a high school in Trieste, Italy, this highly accomplished teen movie delicately unveils the story of a Swedish girl spending a school year in an unfamiliar land. In a class full of boys, Fred becomes the only girl. As she grows closer to three boys in particular, they begin to explore the bars and party scenes in the city together. Through their relationship with Fred, the boys gradually let go of their macho attitudes and start to express their sensitivity and genuine emotions. One sets out in search of their own path, while another confronts and overcomes the scars of childhood. However, the friendship that once seemed unbreakable begins to crack when feelings develop between Fred and Antero. What director Laura Samani captures so brilliantly is the very essence of youth—their energy and their capacity for change. Newcomer Stella Wendick, who plays Fred, brings a bright and positive energy to the film, adding a pop-song-like rhythm to its tone. Her radiant presence lights up the screen like the sun. (SEO Seunghee)

사회공헌프로그램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 관람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매년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마련합니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음성, 수신기 사용)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해설(자막, 스마트폰 앱 사용)을 제공합니다.

날짜	시간	예매코드	상영관	작품명	페이지
9월 18일(목)	10:30	028	CGV 센텀시티 3관	<여름의 랑데뷰>	126
	13:00	029		<리드랜드>	132
9월 19일(금)	10:00	106		<사람과 고기>	116
	20:30	109		<췌! 엄마한테 비밀이야>	100
9월 21일(일)	09:30	268		<공존이라니, 웃기시네>	146
	17:00	270		<이어달리기>	144
9월 24일(수)	10:00	503		<미아>	114
	19:00	506		<철들 무렵>	89
9월 25일(목)	09:30	576		<트루먼의 사랑>	91
	14:00	577		<올드보이>	172

Wide Angle -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와이드 앵글 - 한국 단편 경쟁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한국 단편 경쟁 1], [한국 단편 경쟁 2], [한국 단편 경쟁 3] 에 해당되는 작품은 각각 묶음 상영됩니다.

The films in the categories as below will be screened in batches: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KC1 한국 단편 경쟁 1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KC2 한국 단편 경쟁 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KC3 한국 단편 경쟁 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Backpike

백파이크

WP KC1

Korea | 2025 | 14min | DCP | color
Director **KIM Eun-seo 김은서**

아티스틱 스윘밍 선수 석희는 한 몸 같던 파트너 영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이상하리만치 초연하다. 하지만 몸은 마음이 회피한 깊은 상실을 숨기지 못한다. 물 밑으로 가라앉는 기본 동작이 되지 않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비하게 마음을 비추는 수중 신이 인상적인 작품. (강소원)

Artistic swimmer Seokhee appears strangely composed after the sudden death of her partner Yeong, who was once her perfect counterpart. Yet her body betrays the deep loss her mind has avoided, as she is unable to submerge herself underwater. A film with impressive underwater scenes that illuminates the heart with clarity and mystery. (KANG Sowon)

125 Sep 19 / 20:00 / L2 **303** Sep 21 / 20:20 / L6 **518** Sep 24 / 20:30 / C7

In Our Sunset

해질무렵

WP KC1

Korea | 2025 | 27min | DCP | color
Director **KIM Soyeon 김소연**

대학 졸업을 앞둔 소연이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는다. 엄마가 사는 형성에서 할머니가 사는 종천까지 여성 삼대가 함께 한 어떤 날이 다큐멘터리처럼 담긴다. 평범하고도 특별한 시간, 심상한 대화에서 읽히는 다정한 마음. 김소연의 영화는 섬섬하게 마음에 꼭 안긴다. (강소원)

Nearing college graduation, Soyeon returns home. From Hoengseong, where her mother lives, to Hongcheon, where her grandmother resides, the days shared by three generations of women unfold like a documentary. Ordinary yet special moments, marked by casual conversations and tender emotions. Kim Soyeon's film sinks deep into the heart with understated charm. (KANG Sowon)

125 Sep 19 / 20:00 / L2 **303** Sep 21 / 20:20 / L6 **518** Sep 24 / 20:30 / C7

Fadeout Cosmos

사라지는 세계

WP KC1

Korea | 2025 | 23min | DCP | color
Director **LIM Jin-hwan 임진환**

누군가의 꿈을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무 살 현진의 마지막 꿈은 어떠해야 할까? 현진의 꿈은 온통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된 아련한 청춘의 영화다. 미래적 상상에서 시작하여 가장 고전적인 감정의 형태에 다가가는 SF 판타지. (강소원)

What if there were operators who could craft people's dreams? What should the final dream of Hyeonjin, a twenty-year-old facing death, look like? His dream unfolds like a wistful youth film, centered on a single name. A sci-fi fantasy that begins with futuristic imagination and drifts toward the most timeless form of emotion. (KANG Sowon)

125 Sep 19 / 20:00 / L2 **303** Sep 21 / 20:20 / L6 **518** Sep 24 / 20:30 / C7

Poetry Syndrome

이상현상

WP KC1

Korea | 2025 | 21min | DCP | color
Director **OH Seyeon 오세연**

도심 숲 정자에서 두 청춘이 시 낭독 모임을 가진다. 여자가 먼저 가져온 시를 읽는다. "많이 좋아하면 귀신이 돼." 여자는 시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데 남자는 시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문득 반전이 온다. 설레는 시선, 미묘한 유머, 기발한 시, 그리고 위트 넘치는 연출. (강소원)

Two young souls meet for a poetry reading in an urban forest pavilion. The woman begins: "If you love too much, you become a ghost." She hopes to convey her feelings through poetry, but the man is fixated on the form. Then comes an unexpected twist. Fluttering glances, subtle humor, ingenious poetry, and Oh Seyeon's unmistakable touch. (KANG Sowon)

125 Sep 19 / 20:00 / L2 **303** Sep 21 / 20:20 / L6 **518** Sep 24 / 20:30 / C7

Into the Light

빛 속으로

WP KC2

Korea | 2025 | 22min | DCP | color
Director **LEE Nakjung 이나경**

보육원에서 사는 열일곱 살 박선은 배우가 꿈이다. 하지만 열여덟 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해야 한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방황하던 선이 '소원을 이뤄주는 굴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때다. 미래의 나를 만나는 판타지와 어두운 통로라는 은유를 통과하는 독특한 성장담. (강소원)

Living in a group home, 17-year-old Park Seon dreams of becoming an actor. But she must leave and face life alone at 18. Caught between her reality and dream, Seon hears of a 'wish-granting underpass.' A unique coming-of-age tale with the metaphor of passage through a dark tunnel and the fantasy of meeting one's future self. (KANG Sowon)

201 Sep 20 / 12:30 / L2 **380** Sep 22 / 13:00 / L6 **590** Sep 25 / 13:30 / C7

It Sounds Louder on Rainy Days

비 오는 날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WP KC2

Korea | 2025 | 30min | DCP | color
Director **KIM Sang-yun 김상윤**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방문한 지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가족들이 반대한 결혼을 한 그녀는 대놓고 냉대하는 아버지 앞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몇 장면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걸어도 걸어도>를 떠올리게 하는 가족 드라마. (강소원)

On her father's birthday, Jihee visits her childhood home with her husband and child, feeling anxious. Having married against her family's wishes, she shrinks under her father's coldness until tensions finally erupt. A family drama with moments that evoke Kore-eda Hirokazu's *Still Walking*. (KANG Sowon)

201 Sep 20 / 12:30 / L2 **380** Sep 22 / 13:00 / L6 **590** Sep 25 / 13:30 / C7

The Cheat

포섭

WP KC3

Korea | 2025 | 25min | DCP | color
Director **KIM Keon-woo 김건우**

결혼을 앞둔 대기업 직원 도영은 회사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동석하게 된다. 자신을 국장원 직원이라 소개한 남자는 도영에게 인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쩌지 점점 솔깃해진다. 온전히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된 초반 10분이 넘는 롱테이크에 연기와 연출의 공력이 실린다. (강소원)

On the brink of marriage, Doyeong, an employee of a major corporation, meets a man in a café who claims to work for the NIS. His unbelievable story draws him in. A 10-minute long take of their opening conversation highlights the synergy between performances and direction. (KANG Sowon)

200 Sep 20 / 09:00 / L2 **381** Sep 22 / 17:00 / L6 **592** Sep 25 / 19:30 / C7

Very Very Strange Love

베리 베리 스트레인지 러브

WP KC3

Korea | 2025 | 30min | DCP | color
Director **SONG Heesook 송희숙**

송이는 아주아주 이상한 여자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매일 같이 맞선 자리에 나가서는 호감도 없는 맞선남과 섹스하는 상상에 빠지고 한다. 그녀의 성적 판타지는 밀도 끝도 없지만 그럴 정도로 파고들다 보니 영화가 어느새 다른 자리에 가 있다. 김윤지라는 배우의 발진. (강소원)

Songji is a very, very peculiar woman. Pressured by her mother, she attends blind dates daily and drifts into sexual fantasies about men she feels no attraction to. Her erotic imagination knows no bounds, but as the film obsessively follows her inner world, it shifts into unexpected territory. A stunning discovery of actor Kim Yoonji. (KANG Sowon)

200 Sep 20 / 09:00 / L2 **381** Sep 22 / 17:00 / L6 **592** Sep 25 / 19:30 / C7

Into the Night

시적허용

WP KC2

Korea | 2025 | 11min | DCP | color
Director **JUNG Dabin 정다빈**

시 수업을 같이 듣는 주원과 소윤이 옥상에 앉아 해 지는 풍경을 바라본다. 해가 지는 것이 싫은 주원과 그의 시작(詩作)을 도와야 하는 소윤. 소윤은 그의 귀에 자전과 공전을 멈춰'라고 속삭인다. 자연의 섭리를 호오(好惡)로 말하던 소년이 마침내 밤의 시를 허용하게 된다. (강소원)

Juwon and Soyun, who are in the same poetry class, sit on a rooftop watching the sunset. Juwon resents the setting sun, and Soyun must help him write a poem. She whispers into his ear: "Stop spinning and revolving." The boy who once judged nature's rhythms by his own likes and dislikes finally allows the night into his poetry. (KANG Sowon)

201 Sep 20 / 12:30 / L2 **380** Sep 22 / 13:00 / L6 **590** Sep 25 / 13:30 / C7

Noise Cancellation

노이즈 캔슬링

WP KC2

Korea | 2025 | 22min | DCP | color
Director **CHOI Jihee 최지혜**

일터에서 팔을 다친 미주는 신재 처리를 받기 위해 고투를 벌이는 와중에 밤마다 들리는 이웃집 비명소리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공작한 비명소리, 과민한 그녀의 청각. 공포영화의 틀을 빌어 사회적 재난의 집단적 드라마가 은유적으로 펼쳐진다. (강소원)

After injuring her arm at work, Miju fights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Yet she also endures sleepless nights, haunted by screams from her neighbors that only she can hear due to her hypersensitive hearing. A collective drama of social disaster unfolds through the lens of a horror film. (KANG Sowon)

201 Sep 20 / 12:30 / L2 **380** Sep 22 / 13:00 / L6 **590** Sep 25 / 13:30 / C7

A Man Who Takes Pictures of Flowers

꽃 사진을 찍는 남자

WP KC3

United States | 2025 | 14min | DCP | color
Director **Yoo LEE 이우현**

40년간 야생화를 찍은 사진작가 김정명의 삶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진다. 그가 찍은 150만 장의 스틸 사진이 타임랩스 비디오로 재현되어 스톱모션 캐릭터와 조화롭게 결합된다. 그 위에 김정명의 보이스오버가 얹힌다. 자극적 아름답고 고유한 세계가 안기는 간결한 행보. (강소원)

The life of Kim Jung Myung, who spent 40 years photographing wildflowers, unfolds in stop-motion animation. His 1.5 million still photographs are transformed into time-lapse video, seamlessly woven together with stop-motion characters. Layered with Kim's own voiceover, the film constructs a profoundly beautiful and singular world that offers quiet, unassuming happiness. (KANG Sowon)

200 Sep 20 / 09:00 / L2 **381** Sep 22 / 17:00 / L6 **592** Sep 25 / 19:30 / C7

Yellow Ghost

노란 옷의 유령

WP KC3

Korea | 2025 | 17min | DCP | color
Director **PYUN Seokhoon 편석훈**

푸른스름한 새벽의 서울역. 폐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인 노래를 흥얼대며 역 광장을 가로지른다. 그가 잠깐 잠든 사이 도시는 깨어나고 일상이 시작된다. 문득 노인의 시선은 뒤돌리고 영화에는 다른 시선들이 난입한다.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모호하고 생생한 심리적 재난극. (강소원)

Seoul Station at dawn. An old man crosses the plaza, humming as he pulls a cart full of discarded paper. During his brief sleep, the city awakens and daily life resumes. Suddenly, his sense of time warps, and the film is interrupted by other gazes. What dream did he have? A hazy yet vivid psychological disaster unfolds. (KANG Sowon)

200 Sep 20 / 09:00 / L2 **381** Sep 22 / 17:00 / L6 **592** Sep 25 / 19:30 / C7

와이드 앵글 - 아시아 단편 경쟁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The films in the categories as below will be screened in batches: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SC2 아시아 단편 경쟁 2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IP International Premiere

WP SC1

WP SC1

WP SC1

IP SC1

WP SC1

WP SC2

WP SC2

IP SC2

WP SC2

WP SC2

Wide Angle - Documentary Competition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10s Across the Borders

WP

10점 만점에 10점

Philippines/Singapore/Germany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CHAN Sze-Wei** 찬즈웨이



호모포비아인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온 말레이시아의 테디, 모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필리핀의 자이자, 태국인 성 노동자 어머니와 노르웨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선. 동남아시아 볼룸 씬을 이끄는 세 사람의 여정이 펼쳐진다. <10점 만점에 10점>은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인종 차별에 반기를 들고 언더그라운드 볼룸 씬을 조명하는 법아시아 퀴어 영화다. 여기에 뉴욕의 전설적인 볼 무대가 더해진다. 제목이 암시하듯 찬즈웨이 감독이 꿈꾸는 것은 볼 경연의 점수판이 일제히 10점인 무대가 국경을 넘어 펼쳐지는 광경이다. 마지막 순간 동남아 뒷골목과 뉴욕 번화가를 교차하는 이들의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는 국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계급을 넘어 무지개 저 너머로 향한다. 미국 볼룸 씬을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 <파리는 불타고 있다>(1990)의 동남아시아 버전. (강소원)

This film follows three leading characters of Southeast Asia's ballroom scene—Teddy from Malaysia who ran away from his homophobic father, Yzya from the Philippines who found beauty in herself after being rejected by the modeling world, and Sun who was born to a Thai sex worker mother and Norwegian father. *10s Across the Borders* is a pan-Asian queer film that confronts homophobia, transphobia, and racism while celebrating the region's underground ballroom culture, interwoven with New York's legendary ball scene. As the title suggests, Chan Sze-Wei envisions a world where every ballroom judge across borders awards a perfect 10. In the film's finale, the performers' surreal performance cuts between Southeast Asia's back alleys and New York's bustling streets, dissolving boundaries of nation, gender, race, age, religion, and class to soar beyond the rainbow. This is Southeast Asia's answer to the seminal documentary about the New York ball culture, *Paris is Burning* (1990). (KANG Sowon)

192 Sep 20 / 20:00 / C4 **265** Sep 21 / 13:00 / C2

385 Sep 22 / 16:00 / L7

2022 ACF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지원작

Baima Boy

IP

바이마 소년

United States/China/France | 2025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YE Bingjun** 예병준



151 Sep 19 / 16:30 / KT

356 Sep 22 / 16:30 / C4

421 Sep 23 / 15:30 / C1

아디는 엄마가 집을 나서던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네 살 때의 일이다. 엄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줄 잘라 빨간 실로 묶어 선반에 올려놓고 캐리어를 끌고 떠났다. 그리고 11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열다섯 살의 아디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만큼이나 원망을 품고 오토바이 무리와 쏘다니거나 여장을 한 채 SNS 스트리밍에 열을 올린다. <바이마 소년>은 일지리를 찾아 부모가 도시로 떠난 뒤 시골에 남겨진 '방치 아동'이 6천만 명에 이르는 한 중국적 '현상'에서 출발한 이야기다. 사실 아디는 그 '현상'의 표본이라기엔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무엇보다 이 소년은 몇 편의 픽션을 겹쳐놓은 듯한 극적인 인물이라 보는 내내 온갖 감정들을 불러온다. 열다섯에서 열여덟 살의 아디를 계절마다 따라간 영화는 마지막 순간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소년의 말에 이르러 비로소 환해진다. 현대 중국에 대한 날카로운 스케치이자 빛나는 성장 드라마. (강소원)

Adi vividly remembers the moment his mom left home. He was four. She cut off a lock of her hair, tied a red thread around it, and walked out with a luggage bag. For 11 years, she didn't return. Now fifteen, Adi resents his mother as much as he misses her. He roams the streets with a biker gang and pours his energy into streaming in drag on social media. *Baima Boy* began from the contemporary Chinese phenomenon of nearly 60 million children left behind in rural towns by parents seeking work in cities. In truth, Adi's situation is too complex to be considered typical. Above all, he is such a dramatic character, as if several fictional lives have been layered into one, that watching him stirs up a flood of emotions. Following Adi from ages 15 to 18 through the seasons, the film finally shines in its last moments when he declares that he is no longer who he once was. *Baima Boy* is a sharp sketch of contemporary China and a brilliant coming-of-age drama. (KANG Sowon)

Habibi Hussein

WP

나의 친애하는 후세인

Palestine/Germany/Saudi Arabia/Sweden | 2025 | 93min | DCP | color

Director **Alex BAKRI** 알렉스 바크리



팔레스타인의 영화관 '시네마 예난'의 마지막 영사기사 후세인 다르비는 지금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독일 NGO 단체가 예난의 버려진 영화관을 복원하러 왔을 때 후세인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예전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50년 된 영사기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그는 웨스트뱅크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급기야는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는 시도까지 감행한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그는 끝끝내 모른다. 바크리 감독은 그의 시대착오적인 고군분투를 친근한 시선으로 드라마틱하게 담아낸다. 감독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몰입은 후세인의 그것과 꼭 닮았다. 영화 원제의 '하비비'는 팔레스타인어로 '나의 사랑'이라는 뜻이었는데, 후세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지만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찬사를 감독은 영화로 대신한다. 과거 팔레스타인 영화 문화와 한 인물에게 바치는 이중의 헌사. (강소원)

Hussein Darby, the last projectionist of Cinema Jenin in Palestine, thought it a golden opportunity. When a German NGO came to restore the theater, Hussein was ready to prove his skills. He believed that it would help him get his job back. To revive the 50-year-old projector, he travels across the West Bank and even attempts to enter Israel. But he doesn't know that his era has already passed. Alex Bakri captures this anachronistic struggle with a warm, friendly gaze. The passion and commitment in Bakri's lens mirrors Hussein's own. 'Habibi' in the title means 'my beloved.' This is a cinematic tribute from the director, giving Hussein the praise he longed for but never heard: Hussein, you are the best. (KANG Sowon)

191 Sep 20 / 16:30 / C4

315 Sep 21 / 09:30 / KT

426 Sep 23 / 13:00 / C3

Ikaino

이카이노 전기

WP

Korea | 2025 | 99min | DCP | color/b&w

Director **LEE Wonsik 이원식**



104 Sep 19 / 16:30 / C2 **274** Sep 21 / 16:30 / C4
516 Sep 24 / 14:00 / C7

‘이카이노’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의 이름이다. 행정적으로는 이미 50여 년 전에 삭제된 지명이지만 이카이노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말해야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카이노 전기>는 쓰루하시 시장에서 야채, 정육, 곡창, 옷 가게를 하며 살아온 1세대에서 4세대에 걸친 재일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복송 계획 등을 거쳐 헤이트 스피치와 한류열풍이 공존하는 동시대까지, 이카이노의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잘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그중 야쿠자가 될 뻔했던 정육점 사장 부영철의 가게 넘치는 일화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몇 편의 영화, 몇 권의 책을 응축한 듯한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 생생한 구체성으로 역사책을 가뿐히 제치는 탁월한 전기(伝記). (강소원)

‘Ikaino’ refers to a neighborhood in Osaka, Japan, home to a large community of Zainichi Koreans. Though erased from official records over fifty years ago, its name still carries memories and stories. *Ikaino* follows four generations of Zainichi Koreans who built their lives selling vegetables, meat, offal, and clothes at the Tsuruhashi Market. Spanning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liberatio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the Korean War, and the repatriation of Zainichi Koreans to North Korea, to the present day where hate speech and the Korean Wave coexist, the people of Ikaino have lived with a heightened sense of Korean identity, more acutely than Koreans themselves. In particular, the spirited tales of Bu Youngcheol, a butcher who nearly became a yakuza, leave a strong impression. This exceptional chronicle unfolds like an epic, condensing the weight of numerous films and books into one vivid, detailed narrative that surpasses history books. (KANG Sowon)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WP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Korea | 2025 | 115min | DCP | color/b&w

Director **CHOI Jeongdan 최정단**



152 Sep 19 / 20:00 / KT **190** Sep 20 / 12:30 / C4
346 Sep 22 / 09:20 / C2

명망 높은 인문학자 김우창의 내밀한 삶과 사유의 세계를 탐색한 21년의 기록. 김우창은 나무와 하늘과 산이 잘 보이고, 계단이 많고 지붕이 새는 집에서 아내 설순봉과 함께 40년째 살고 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새로 들이지 않은, 유물로 가득한 집. 자식들은 아사를 종용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다. 자녀들이 말하는 아버지 김우창은 ‘변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편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집이 곧 김우창이다. 지금 그는 책 더미에 파묻혀 마지막 저서를 완성하려 하지만 글 쓰는 능력을 유지할 나이를 지났다고 느낀다. 이미 감을 잡았겠지만, 그의 학문적 성취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이 영화의 관심사가 아니다.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우주적 사유를 담은 영화이며 무엇보다 학문적 사유와 실제 삶을 일치시켜 나간 탁월하고 유별난 한 인물에 대한 희귀한 초상화다. (강소원)

A record of the highly respected humanist Kim Uchang’s private life and intellectual world spanning 21 years. For 40 years, he has been living with his wife Sul Soonbong in a house with lots of steps and a leaky roof, where the open sky and the mountains can be seen. His children urge him to move, but he has no such intention. It’s because, according to his children, Kim believes that what remains unchanged is ethically right and that comfort is evil. The house, therefore, represents Kim himself. Amid piles of literature, he struggles to finish his last book, feeling he is past the age where he can maintain his writing skills. As you may have already guessed, this film is not concerned with publicizing his academic achievements.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is a film that explores the cosmic thinking about death and life. Above all, it is a rare portrait of an extraordinary, peculiar man who leads a life in complete agreement with his scholarly philosophy. (KANG Sowon)

Panic Button

IP

패닉 버튼

Kyrgyzstan/Czech Republic | 2025 | 86min | DCP | color

Director **Samara SAGYNBAEVA 사마라 사긴바예바**



027 Sep 18 / 20:30 / C2 **107** Sep 19 / 14:00 / C3
189 Sep 20 / 09:00 / C4

사마라 사긴바예바의 첫 번째 장편 <패닉 버튼>은 자동차와 말이 차선도 없이 뒤섞여 달리는 혼동의 도로로 시작된다. 난생처음 보는 일촉즉발의 광경이지만 곧 거기에도 어떤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자동차도, 말도 마침내는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리라는 믿음. <패닉 버튼>은 그런 혼동의 키르기스스탄을 무대로 한 정치 다큐멘터리다. 사마라의 남편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알리 토크타쿠노프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밀수 스캔들을 파헤치고 있다. 어느 날 내부고발자의 제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알리의 취재는 곧 제보자의 피살 소식과 함께 그들 부부를 체코의 언론사 사무실에 갇힌 삶으로 이끈다. 감독은 패닉 버튼을 손에 쥔 채 2019년부터 5년여에 걸친 그들의 싸움을 차분한 보이소버로 전한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사긴바예바 감독만이 만들 수 있는 영화다. (강소원)

Samara Sagynbaeva’s debut feature *Panic Button* opens on a chaotic road where cars and horses race side by side, with no lanes to separate them. It’s a never-before-seen scene of near-collision, yet somehow a sense of order emerges—a belief that somehow cars and horses will eventually reach their destinations. *Panic Button* is a political documentary set in the turbulent Kyrgyzstan. Samara’s husband, investigative journalist Ali Toktakunov, is digging into the corruption of a smuggling scandal involving a high-ranking official after receiving a phone call from a whistleblower. When the informant is murdered, his investigation forces him and his wife to exile, confined to a Czech newsroom. With a calm voiceover, Sagynbaeva recounts their over five-year struggle since 2019, living with a panic button always in her hand. But more than anything, this is a film that only Sagynbaeva could make. (KANG Sowon)

Raining Dust

WP

이슬이 온다

Korea | 2025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JU Romi, KIM Taeil 주로미, 김태일**



105 Sep 19 / 20:00 / C2 **230** Sep 20 / 10:00 / KT
275 Sep 21 / 20:00 / C4

2024 ACF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지원작

‘기억하고 싶었다. 주로미, 김태일 감독은 영화의 제작 의도를 간명한 첫 자막으로 밝힌다. 너무나 간명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꽂히는 말. 주로미, 김태일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먹고 살아야겠다.” 그들이 기록하려는 태백 광산의 마지막 광부들은 이 말로 영화를 연다. 막장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케이지 솟 위에 얹힌 영화의 첫 대사다.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 광부들이 입 모아 자욱이라 부르는 곳. 너무 가난했고, 먹고 살아야겠기에 들어왔지만 사를 만에 관두려 했던 일이 30여 년을 넘겼고 그동안 ‘좋은 끝은 못 봤다.’ 마지막 광부들로 시작한 영화는 38년 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고 성완희 열사와 그 동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탄식 같은 반문이 또다시 마음을 건드린다. “가난에 찌들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까지 궁지로 내몰았을까?” <이슬이 온다>는 위대한 노동/노동자를 기록하고 기억하려, 마음으로 찍은 영화다. (강소원)

“We wanted to remember.” Directors Ju Romi and Kim Taeil reveal their intentions with *Raining Dust* through this subtitle—so simple and clear it strikes viewers’ hearts. They keep records to remember. The film opens with the words of Taebaek’s last miners: “I had to earn a living.” These are the first words, spoken over the shot of a cage descending endlessly into a mine—the place that the miners of the soon-to-be-closed Jangseong Mining Station call hell. They began working out of poverty, needing to make a living somehow. Though they planned to quit after three days, they ended up staying for over 30 years, and in all that time, they saw nothing good. The film begins with the last remaining miners and leads to the story of the late Seong Wanhee, who set himself on fire, and his fellow workers. And a lament-like question touches the heart again: why were people trapped in extreme poverty driven to such desperate circumstances? *Raining Dust* is a film made from the heart to record and remember the greatness of labor and laborers. (KANG Sowon)

Relay Race

이어달리기

Korea | 2025 | 88min | DCP | color

Director **KO Hyoju** 고효주



270 Sep 21 / 17:00 / C3 **355** Sep 22 / 13:00 / C4
517 Sep 24 / 17:00 / C7

WP

한 남자가 새벽 공기를 뚫고 달린다. 제주의 숲을, 산을, 도로를 밤낮없이 달리다가 마라톤에도 나간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갇혀 있다.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참사 생존자 김동수 씨. 그의 마지막 구조 활동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고, 세월호 침몰지점에서 자해를 해서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동수 씨는 그날 마지막 5분의 기억이 없다. <이어달리기>는 김동수와 가족들의 이야기이며 트라우마에 관한 영화다. 영화라는 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는 데에 지극히 무능하지만 고효주의 카메라는 이 가족들 곁에 공기처럼 머무르며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낸다. 이제까지의 세월호 영화 중 상처 가까이로 가장 깊숙이 다가간 아픈 영화이지만 매 순간 마음을 어루만지는 눈부신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다. (강소원)

A man runs through the crisp early morning air—through the woods, mountains, and roads of Jeju. He runs day and night, even in a marathon. Yet his heart remains trapped in the Sewol ferry on April 16, 2014. Kim Dongsoo, who survived the tragedy, became known as the 'hero in blue pants.' The nation watched his final rescue efforts, and later, the news of his self-harm during the Sewol ferry incident hearings. But he remembers nothing of the last five minutes of that day. A story about Kim and his family, *Relay Race* is a film about trauma. Though film is utterly inadequate to capture the invisible, Ko Hyoju's camera remains like air by his family's side, transparently reflecting their inner worlds as they struggle to live with their pain. This is a searing work that approaches the deepest wounds of the Sewol ferry tragedy, yet also a brilliant family drama that gently touches our aching hearts. (KANG Sowon)

Singing Wings

노래하는 황새 깃털

Iran/Georgia/Belgium | 2025 | 73min | DCP | color

Director **Hemen KHALEDI** 헤멘 칼레디



272 Sep 21 / 09:30 / C4 **351** Sep 22 / 13:00 / C3
521 Sep 24 / 20:00 / L2

WP

이란의 쿠르드족 할머니 카디제에게는 두 가지 과업이 있다. 하나는 고압 전선에 날개를 다쳐 홀로 마을에 남은 황새를 치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딸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다. 카디제 할머니에게 황새의 이주를 돕고 딸의 이주는 만류하는 데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다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일 뿐. 게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기로는 자식이 황새보다 더 하다. <노래하는 황새 깃털>은 황새 서식지인 쿠르디스탄의 그림 같은 풍광을 배경으로 동분서주하는 카디제 할머니를 따라간다. 보고 싶노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녀의 타고난 유머 감각과 명량한 낙천성이 영화의 동력이자 핵심이다. 이곳이 고향인 칼레디 감독은 쿠르드족의 민족적 고난 대신 이들의 맑은 성격과 단순한 삶을 최선의 방식으로 스크린에 옮겨놓는 것을 택했다. 동화 같은 세계의 우화 같은 이야기. (강소원)

Khadijeh, an elderly Kurdish woman from Iran, has two pressing tasks - one, to care for a stork whose wings were injured by high-voltage wires and left behind; and two, to dissuade her daughter from emigrating to the UK. In her mind,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helping the wounded bird migrate and preventing her own daughter from migrating. It's just that they cannot be achieved by willpower alone. And of the two, changing her daughter's mind is far more difficult. *Singing Wings* follows Khadijeh's busy life, set against the picturesque Kurdistan, a stork habitat. The elderly woman's innate sense of humor and cheerful optimism that will draw smiles from audiences are the driving force and heart of this film. Khaledi, a native of this region, chooses not to dwell on the Kurdish people's hardships, but instead to bring their pure spirit and simple way of life to the screen in the best possible light. It is a fable that unfolds in a world of fairytales. (KANG Sowon)

Where We Stay for a While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Korea | 2025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WANG Mincheol** 왕민철



273 Sep 21 / 12:30 / C4 **350** Sep 22 / 09:10 / C3
423 Sep 23 / 12:00 / C2

WP

청주동물원 사람들을 그린 <동물, 원>(2018)과 야생동물구조센터 사람들을 다룬 <생츠퍼리>(2022)에 이은 왕민철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이번에는 반달기슴곰 생츠퍼리다. 곰 농장을 인수받아 곰 생츠퍼리로 바뀌려하려는 '프로젝트 문 베어' 팀의 이야기는 소재에서 전작의 연장선상에 놓인 듯 보이지만 이 영화는 좀 다르다.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육 곰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노동인지를 알아챌 즈음, 우리의 사선은 그 일을 지원한 이들에게로 옮겨진다.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은 강원도 화천에서 열세 마리의 곰을 돌보며 사는 90년대생 여자 넷의 이야기다. 아마도 이 청춘들은 여기 단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것이다. "곰을 돌보는 경험에 내 삶에서 필요할까?" 그렇게 한 사람이 떠나니 다른 사람이 온다. 최단 코스를 검색하는 대신 멀리 돌아가고 때론 멈추어 주변을 둘러보는, 좀 다른 청춘들이 긴 사색을 불러온다. (강소원)

Wang Mincheol, who documented Cheongju Zoo staff in *Garden, Zoological* (2018) and a wildlife rescue center in *Sanctuary* (2022), returns with his third film—this time, an Asian black bear sanctuary. While the story of Project Moon Bear, about transforming a bear farm into a sanctuary, seems to continue his earlier themes, this film takes a different turn. Just as viewers come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caring for captive bears who can never return to the wild, the volunteers' own stories emerge. *Where We Stay for a While* follows four women, born in the 1990s, caring for 13 bears in Hwacheon, Gangwon-do. Their stay is temporary, and they'll probably move on soon. "Do I need the experience of caring for bears in my life?" they wonder. Yet when one leaves, another arrives to take her place. This film casts a tender gaze on youth who are a little different, choosing the long way around over the shortest path, pausing to take a look around rather than rush forward. (KANG Sowon)




Wide Angle - Documentary Showcase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부산시네필상 후보작 Busan Cinephile Award Nominees

 World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Coexistence, My Ass!

공존이라니, 웃기시네

United States/France | 2025 | 95min | DCP | color

Director **Amber FARES** 앰버 파레스



이렇게 유대인 어머니와 루마니아계 유대인 아버지를 둔 노암 슈스터-엘리아시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한계를 자각하고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그녀의 쇼는 빠르게 주목받지만,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이후 그녀가 쌓아온 세계와 신념은 깊은 혼돈에 빠진다. 감독은 5년에 걸쳐 노암의 활동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며 무대 위 농담과 현실 사이의 균열을 세심하게 포착하는 한편, 유머를 통해 정량과 억압의 구조를 알리는 그녀의 내면과 변화를 응시한다. “공존은 동등한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영화의 메시지는 그럴듯해 보이는 ‘공존’이라는 말의 허상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복잡한 상황’이라는 말로 진실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최근 제작된 유사 주제의 작품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이는 성찰과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는 수작이다. (조지훈)

Noam Shuster Eliassi, born to an Iranian Jewish mother and a Romanian Jewish father, was once a peace activist who, upon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at path, turned to stand-up comedy. Her comedy quickly gained attention, but after Hamas's attack and Israel's bombing of Gaza in October 2023, the world and the beliefs she had built begin to unravel into profound confusion. Over the course of five years, Amber Fares closely follows Noam's journey alongside shifting global events, capturing the tension between jokes told on stage and the starkness of reality. At the same time, the film deeply observes her inner transformation and commitment to using humor as a means of exposing the systems of occupation and oppression. The film's message—"Coexistence is only possible between equals"—pierces through the illusion of so-called 'coexistence' and powerfully challenges those who hide behind the phrase, "It's complicated," to avoid confronting the truth. An abundance of works have tackled similar themes recently, but this film stands out for its striking insight and emotional resonance. (JO Ji-hoon)

045 Sep 18 / 17:00 / L2 268 Sep 21 / 09:30 / C3
389 Sep 22 / 17:00 / L9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다큐멘터리경쟁

Dear Juhee

주희에게

Korea | 2025 | 96min | DCP | color

Director **JANG Juhee, BU Seongpil, KIM Seonghwan**

장주희, 부성필, 김성환



267 Sep 21 / 19:30 / C2 366 Sep 22 / 16:00 / L2
420 Sep 23 / 12:30 / C1

Grounding

착지연습

Korea | 2025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MA Minji** 마민지



186 Sep 20 / 16:30 / C2 284 Sep 21 / 09:00 / L2
344 Sep 22 / 16:00 / C1

예술계의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 연대자들이 힘을 모아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상-여자 착지술' 팀을 결성한다. 예술을 매개로 한 이들의 회복 실천은 몸과 감각을 되찾는 생활 방식이자 정치적 행동이다. 장편 데뷔작 <버블 패밀리>(2017)로 부동산 신화의 이면을 기록했던 마민지 감독은 이 작품에서 이 팀의 결성 과정, 연대와 토론, 치유와 실패의 현장을 기록한다. 생존자이기도 한 감독은 카메라를 든 채 팀의 일원으로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며, 기록과 참여가 맞물리는 '수행적 다큐' 방식을 택한다. 영화는 팀원들의 활동과 내면을 교차시키면서 이들이 삶의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트라우마 이후의 삶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상실된 가능성의 회복임을 상기시키면서 고통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에 관객이 귀 기울이게 한다. (조지훈)

학창 시절 영화감독을 꿈꾸었던 장주희 감독은 백혈병에서 회복한 후 장애인생활자립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거기서 그녀는 다큐 감독 부성필과 와상장애인 선철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인숙과 알게 된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유년의 기억과 긴 투병 생활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았던 장 감독의 시선과 내면은 이들과 만나면서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한다. 장 감독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세 명의 주요 인물을 따라가는 장 감독의 개인적 여정이지만, 영화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권, 세월호의 구조 지연 진상 규명, 제주 4·3항쟁,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 사회 곳곳의 진짜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성장하는 개인의 여정을 담은 장주희의 내밀한 에세이이자, 세 명의 감독이 함께 세상의 모든 '주희'들에게 건네는 우정과 연대의 편지다. (조지훈)

After recovering from leukemia, Jang Juhee, who once dreamed of becoming a filmmaker, begins working at a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 she meets documentary director Bu Seongpil, disabled and bedridden Seon Cheol-gyu, and In-sook, who lost a family member in the Sewol ferry tragedy. Shaped by childhood memories of domestic violence and years of illness-induced isolation, Jang's gaze and inner world begin to expand through these individuals. Narrated in Jang's own voice, the film follows her personal journey alongside the three individuals, while also confronting realities of Korean society, such as the right to mo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investigation into the delayed rescue efforts on the Sewol ferry,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the struggles of contract workers. In this sense, this film is both an intimate, self-addressed essay from Jang and a letter of friendship and solidarity from the three directors to all the 'Juhees' of the world. (JO Ji-hoon)

예술계의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 연대자들이 힘을 모아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상-여자 착지술' 팀을 결성한다. 예술을 매개로 한 이들의 회복 실천은 몸과 감각을 되찾는 생활 방식이자 정치적 행동이다. 장편 데뷔작 <버블 패밀리>(2017)로 부동산 신화의 이면을 기록했던 마민지 감독은 이 작품에서 이 팀의 결성 과정, 연대와 토론, 치유와 실패의 현장을 기록한다. 생존자이기도 한 감독은 카메라를 든 채 팀의 일원으로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며, 기록과 참여가 맞물리는 '수행적 다큐' 방식을 택한다. 영화는 팀원들의 활동과 내면을 교차시키면서 이들이 삶의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트라우마 이후의 삶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상실된 가능성의 회복임을 상기시키면서 고통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에 관객이 귀 기울이게 한다. (조지훈)

Sexual violence victims, survivors, and allies in the art world unite to form Sang-yeoja's Grounding Tactics, a collective that supports sexual assault survivors' recovery through art. Their activities are a way of reclaiming their bodies and senses and also a form of political action. Ma Minji, who recorded the hidden side of the myth of real estate successes in her debut feature *Family in the Bubble* (2017), documents the formation of this collective, capturing moments of solidarity, debate, healing, and failure. As a survivor herself, Ma not only films but also participates in the collective's planning and operations, adopting a 'performative documentary' approach that merges documentation and participation. The film interlaces the activities and inner lives of the collective's members, capturing their fight to reclaim the possibilities of life. Through this journey, it reminds us that the goal after trauma is not merely survival but the recovery of lost possibilities, and invites the audience to listen to the stories that continue beyond pain. (JO Ji-hoon)

Hair, Paper, Water...

머리카락, 종이, 물...

Belgium/France/Vietnam | 2025 | 71min | DCP | color

Director **TRU’ONG MINH Quý, Nicolas GRAUX**

츠영민귀, 니콜라 그로



183 Sep 20 / 19:30 / C1 262 Sep 21 / 17:00 / C1
441 Sep 23 / 14:00 / L2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감독 황금표범상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초청작 <비엠티와 남>(2024)의 츠영민귀와 벨기에 출신 니콜라 그로의 공동 연출작이다. 60년 전 동굴에서 태어나 현재는 마을에서 손주들을 돌보는 룝족의 여성 하우의 일상과 정제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라져 가는 언어와 기억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포착한다. 삶의 흔적과 시간성을 의미하는 ‘머리카락’, 구술로만 이어져 온 룝어 문자의 부재와 보존의 욕망을 은유하는 ‘종이’, 시간처럼 흐르며 세대를 잇는 전승을 상징하는 ‘물’은 영화의 제목이자, 영화의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키워드다. 영화는 룝어의 마지막 화자 중 한 명인 하우가 손주들과 나누는 단어와 침묵을 통해 사라져 가는 언어와 존재의 진동을 조용히 응시한다. 16mm 필름의 질감과 4:3 화면비는 이러한 정서에 밀도를 더한다. 감각을 통해 기억을 전하고, 침묵 속에 언어를 새기는 감각적 민속지이자 시적 다큐멘터리.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 감독 부문 황금표범상 수상작이다. (조지훈)

Co-directed by Trương Minh Quý (director of *Viet and Nam* (2024), Cannes Un Certain Regard) and Belgian filmmaker Nicolas Graux, this film captures the fading flows of language and memory through the daily life of Hàu, a Ruc woman born in a cave 60 years ago who now lives in a village caring for her grandchildren. The three titular motifs—hair, evoking life’s traces and passage of time; paper, representing the nonexistent Ruc script, once passed down orally and now longed for as a means of preservation; and water, symbolizing both time’s flow and the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e—serve as the film’s structural pillars. Through words and silences shared between Hàu, one of the last speakers of the Ruc language, and her grandchildren, the film quietly contemplates the vibrations of a disappearing language and people. The grain of 16 mm film and the 4:3 aspect ratio heighten the emotional density. It is a sensory ethnography and poetic documentary that conveys memory through the senses and, inscribes language into silence. (JO Ji-hoon)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빨간 나라를 보았니?

Korea | 2025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HONG Youngah 홍영아**



112 Sep 19 / 16:00 / C4 285 Sep 21 / 12:40 / L2
345 Sep 22 / 19:00 / C1

경상북도는 지난 30년간 단 한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한국 정치 지형에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방송작가 출신의 홍영아 감독은 2022년 지방선거부터 2024년 총선까지, 이 불모지와 같은 빨간 나라에서 파란 점퍼를 입고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고된 선거 여정을 기록한다. 경북도지사 후보 임미애와 그의 남편이기도 한 김현권 후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출마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도 쉼 달가워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고, 울동을 하며, 밝고 씩씩하게 거리 유세를 이어나간다. 영화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이들의 가망 없는 싸움을 통해 패배를 전제로 한 도전의 의미를 물으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한국 정치와 지역 선거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조지훈)

Nicknamed the ‘heart of conservatives’, Gyeongsangbuk-do (North Gyeongsang Province) is the conservative stronghold of Korean politics, having not elected a single liberal Democratic Party member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ast 30 years. From the 2022 local elections to the 2024 general election, TV-writer-turned-filmmaker Hong Youngah documents the uphill battle of Democratic Party candidates, clad in signature blue jackets, in this ‘land of the red.’ Despite facing certain defeat, gubernatorial candidate Lim Mi-ae, her husband and fellow candidate Kim Hyun-kwon, as well as other candidates and campaigners, steadfastly maintain upbeat spirits against overwhelming odds as they hand out business cards to disgruntled passersby, shake lots of hands, and dance during street campaigns. Through their hopeless fight, a political David versus Goliath, this film questions the undertaking of a challenge that is destined to fail, while laying bare the harsh realities of local elections and Korean politics where hope and despair are intertwined. (JO Ji-hoon)

I, Poppy

양귀비와 나

India/France | 2025 | 83min | DCP | color

Director **Vivek CHAUDHARY 비벡 차우두리**



110 Sep 19 / 09:00 / C4 287 Sep 21 / 20:30 / L2
343 Sep 22 / 13:00 / C1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귀비 재배를 허가한 지역인 라자스탄에서 오랫동안 양귀비를 재배하며 살아온 한 가족의 생존과 타협, 정의와 저항 사이의 딜레마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어머니는 양귀비를 정성스레 키우지만 불합리한 면허 제도와 공무원들의 뇌물 요구 때문에 농사를 계속하기 어렵다. 아들은 이런 부조리에 맞서 마약 단속국 간부를 고발하고 투옥시키지만, 그 대가로 재배 허가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는 위기를 맞는다. 오랜 시간 이들의 일상과 저항의 현장을 취재해 온 감독은 양귀비밭의 정적과 저항과 폭력의 긴장을 병치시키면서, 카스트 제도의 부조리, 제도의 부패, 가족의 분열이라는 다층적 주제를 심도 있게 풀어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가 통제하는 작물 뒤에 숨은 착취와 저항의 역사를 고요하게 담아낸다. 북미 최대의 다큐멘터리영화제인 핫독스에서 최우수국제장편상을 수상한 2025년 상반기 화제작. (조지훈)

This documentary follows a family navigating survival, compromise, justice, and resistance in Rajasthan, India, where opium poppy cultivation has been officially legalized. While the mother carefully tends to the poppies, a corrupt licensing system and government officials’ demands for bribes threaten their livelihood. In defiance, the son exposes narcotics officers, resulting in their imprisonment. Yet as a result, the family loses their farming license, deepening their hardship. The director, who has been documenting the family’s daily life and acts of resistance over a long period, skillfully juxtaposes the stillness of poppy fields with the tensions of resistance and violence, exploring multilayered themes, including the absurdities of the caste system, institutional corruption, and fractured family ties. In doing so, the film quietly captures the history of exploitation and resistance behind the crops controlled by the state. Named the Best International Feature Documentary at Hot Docs, the largest documentary film festival in North America, this documentary is one of the most notable works of the first half of 2025. (JO Ji-hoon)

Imago

이마고

France/Belgium | 2025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Déni OUMAR PITSAEV 데니 우마르 피차예프**



196 Sep 20 / 19:30 / C5 413 Sep 23 / 16:00 / B3
485 Sep 24 / 09:00 / B2

칸영화제 황금농상,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위원상

조지아의 판키시에 도착한 데니 우마르 피차예프 감독은 친척의 환대를 받는다. 1986년 체첸 공화국에서 태어나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처럼 부츠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는 이곳에서 새 삶을 갈망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체첸 국경에서 가까운 판키시에 집을 짓고 살 계획이다. 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체첸 남성처럼 결혼해 가족을 이루길 바라는 반면 데니는 어린 시절 꿈꾸던 나무 위의 집에 정착한다. 그가 그토록 원하는 집은 전쟁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한다. 8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한 감독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장면에서 소통으로 변화를 이끄는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힘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 남긴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부자간의 불화 등 가슴에 응어리진 사연이 여를 향기 흩날리는 아름다운 땅에서 펼쳐진다. 이 평화로운 땅은 얽히고설린 감정을 치유하는 장소이자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희망의 터가 된다. (전종혁)

Upon arriving in Pankisi, Georgia, director Déni Oumar Pitsaev is warmly welcomed by relatives. Born in the Chechen Republic in 1986, he has lived a rootless, drifting life, never truly settling down like floating grass. Now, in Pankisi, he longs to begin a new life. Unable to return to his homeland, he plans to build and live in a house near the Chechen border. While his mother hopes he will marry and start a family like a traditional Chechen man, Déni remains fixated on a treehouse, a dream from childhood. For him, this house represents freedom—a life unshackled from war and constraint. In one deeply moving scene, the director reunites with his father after eight years and engages in an open-hearted conversation. Through this moment, we glimpse the true power of documentary film: transformation through genuine communication. The painful, unresolved stories—the emotional scars left by war, the fraught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unfold against the backdrop of a beautiful landscape rich in the scent of summer. This tranquil land becomes both a place of healing for tangled feelings and a ground of hope for rebuilding family bonds. (JUN Jonghyuk)

Numakage Public Pool

누마카게 시립 수영장

Japan | 2025 | 80min | DCP | color

Director **OTA Shingo** 오타 신고



187 Sep 20 / 20:30 / C2 **367** Sep 22 / 19:30 / L2
505 Sep 24 / 16:30 / C3

The Ozu Diaries

오즈 야스지로의 일기

United States/Japan | 2025 | 140min | DCP | color

Director **Daniel RAIM** 대니얼 라임



286 Sep 21 / 16:30 / L2 **362** Sep 22 / 15:00 / C6
422 Sep 23 / 18:30 / C1

비즈니스영화제 비즈니스클래식

도쿄 교외 사이타마 시에 위치한 '누마카게 시립 수영장'은 52년간 도시 속의 '바다'라 불리며 지역 주민들의 여름을 책임져왔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름 수영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한다. 영화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제안한 슬픔의 5단계(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를 서사의 골격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과 나란히 놓는다. 그리고는 수영장 안팎의 풍경과 수영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간의 상실'을 슬픔의 보편적 언어로 기록해 나간다. 감독은 이 소중한 기록들 사이에 극영화적 요소를 슬쩍 끼워 넣어, 이 공간의 또 다른 의미를 영화적인 방식으로 상기시키기도 한다. 상실의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유쾌하게 담아낸 수작으로,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은 각자의 기억 속 '잃어버린 장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조지훈)

Affectionately nicknamed 'the ocean,' Numakage Public Pool in Saitama, just outside Tokyo, has defined summer for local residents for 52 years. Yet, in the summer of 2023, the city demolishes the pool against the wishes of the community. Framed around Elisabeth Kübler-Ross's five stages of grief—denial, anger, bargaining, depression, and acceptance—the film juxtaposes the death of a place with the death of a person. Layering the scenery from inside and outside the pool with personal stories, it documents the loss of space in the universal language of sorrow. The director subtly weaves dramatic elements into these valuable record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the space of the pool in a cinematic way. A remarkable film that plainly yet also humorously captures the ache of loss, it will guide each viewer to their own 'lost place' in memory after the credits roll. (JO Ji-hoon)

일본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의 생애와 그의 영화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크라이테리온 컬렉션과 채널을 위해 약 30편에 달하는 거장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대니얼 라임은 오즈의 가족과 쇼치쿠 스튜디오 아카이브가 제공한 일기, 노트, 편지, 그림, 사진, 홈 무비 등 희귀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내면과 영화적 뿌리를 탐색한다. 여기에 오즈의 말을 중심으로 카가와 교코, 빔 벤더스, 구로사와 기요시, 뤽 다르덴 등 오즈의 생전 동료들과 동시대 거장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영화는 단순한 전기적 나열을 넘어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로 나아간다. 긴 시간을 건너 오즈와 나란히 앉아 그의 삶과 시선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시네마의 정수에 다가서려는 친밀한 기록인 동시에 오즈를 향한 아름다운 헌사이다. (조지훈)

The Ozu Diaries is a documentary about the life and cinematic world of Japanese master filmmaker Yasujiro Ozu. Daniel Raim, who has created around 30 documentaries on great filmmakers for The Criterion Collection and Criterion Channel, explores Ozu's inner world and artistic roots using rare materials provided by Ozu's family and the Shochiku Studio archives, such as diaries, notebooks, letters, drawings, photographs, and home movies. Along with Ozu's own words, the voices of his contemporaries and great directors—including Kyoko Kagawa, Wim Wenders, Kiyoshi Kurosawa, and Luc Dardenne—are added. The film goes beyond a simple biographical recounting, evolving into a meditation on the question, "What is cinema?" It is an attempt to sit alongside Ozu across time, to understand his life and perspective, serving as both an intimate record seeking the essence of cinema and a beautiful tribute to Ozu. (JO Ji-hoon)

Put Your Soul on Your Hand and Walk

영혼을 손에 품고 걷는다

France/Palestine | 2025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Sepideh FARSI** 세피데 파르시



263 Sep 21 / 20:00 / C1 **488** Sep 24 / 20:00 / B2
565 Sep 25 / 16:00 / B3

칸영화제 ACID

칸영화제 ACID 섹션에서 상영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유배자 신분인 이란 감독이 10월 7일 전쟁 이후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는 사진작가와 연결된다. 2024년 4월부터 1년에 걸쳐 진행된 화상 통화와 포토 에세이를 결합한 형식을 취했는데, 영화 속 몇 가지 미디어는 절박한 소통과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다. 어려서부터 전쟁적 상황을 겪었던 두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매번 기적과 같은 만남을 지속한다. 기근에 가까운 삶을 배겨 내는 하수나의 희망은 평화와 일상의 회복이다. 파르시의 탄식과 하수나의 미소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하지만, 영화를 본 뒤엔 차마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란 명제를 내뱉을 수 없다. 영화제에 초대하는 통화 이후 벌어진 상황은 영혼의 생채기를 부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 언젠가 만나지는 약속' 사이에서 길을 잃은 자의 슬픔이 맴돈다. (이용철)

This film caused a tremendous sensation after being screened in the ACID section of the Cannes Film Festival. An Iranian director, living in exile, connects with a photographer who has been staying in Gaza since the outbreak of the war on October 7. The film adopts a format that combines video calls and photo essays conducted over the course of a year starting in April 2024, and several forms of media within the film reflect the desperate communication and dire circumstances. Both Farsi and Hassona have experienced war-like conditions since childhood and the two continue to have miraculous meetings, never knowing when they will end. Hassona, enduring a life close to famine, hopes above all for peace and the restoration of daily life. As Farsi laments and Hassona's smile harbors a glimmer of hope, after watching the film, one cannot easily utter the phrase, "life must go on." The events that unfold after the phone call inviting the photographer, Fatem Hassona to the film festival leave wounds on our souls. The sadness of those lost between 'the belief that this too shall pass' and 'the promise to meet someday' lingers on. (LEE Yong Cheol)

The Rose: Come Back to Me

더 로즈: 컴 백 투 미

United States/Korea | 2025 | 87min | DCP | color

Director **Eugene YI** 이성민



168 Sep 20 / 20:30 / B1 **365** Sep 22 / 12:30 / L2
545 Sep 24 / 13:00 / KT

2017년 홍대 거리 공연에서 시작한 한국 인디 록 밴드 '더 로즈'는 통째로 트레이닝으로 요약되는 K-팝 시스템 밖에서 성공한 드문 사례다. 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지만, 2019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영화는 '더 로즈'의 결성에서부터 위기와 도전, 실패와 회복을 거쳐 결국 코철틀라 무대에 서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을 담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내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공연 영상과 무대 뒤 일상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음악을 만들어나가려는 창작 과정과 내적 풍경,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성취를 함께 보여준다. 음악 때문에 절망하고, 음악을 들고 다시 일어난 '더 로즈'의 용기 있는 여정은, 팬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자 음악과 진심의 힘을 확인하는 소중한 영화적 체험인 동시에 대세가 된 K-팝 시스템이 가진 여러 문제들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트라이베카영화제 장편영화 부문 초청작. (조지훈)

The Rose, a Korean indie rock band that began performing on the streets of Hongdae in 2017, stands as a rare success story outside of the tightly-controlled, training-centered K-pop system. Since their debut, the band has inspired a global fandom, but in 2019 their career came to a halt following a conflict with their agency. This film follows The Rose on their turbulent journey, from their formation through to crises and endeavors, from failure to recovery, culminating in performing at Coachella. Interweaving intimate interviews with performance footage and behind-the-scenes moments, it reveals the band's creative process, inner world, and musical achievements as they fight to make music on their own terms. Their courageous path, marked by despair and the strength to rise again through music, is both a perfect gift for their fans and a moving cinematic experience that reaffirms the power of music and sincerity. At the same time, it offers a chance to reflect on the numerous issues in the now-dominant K-pop system. Featured in Tribeca Film Festival's Spotlight+ section. (JO Ji-hoon)

Sky, Wind, Stars and the Island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섬

Japan/Korea | 2025 | 9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Myung-yoon** 김명운



103 Sep 19 / 13:00 / C2 **194** Sep 20 / 12:30 / C5

442 Sep 23 / 16:30 / L2



독도 경비대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김명운은 일본인 아내와 아들 노아와 함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의 외딴 마을 쿠미로 이주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 섬은 장엄한 자연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상징의 땅이기도 하다. 감독은 이주 후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독도와 오키섬을 둘러싼 역사, 생태, 기억을 탐색해 나간다. 카메라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독도를 두고 국경과 언어, 세대와 관점이 교차하는 현장을 기록한다. 영화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확인시켜 주지만 아들 노아와 일본 소년 이츠키의 만남은 서로를 이해하는 길 위에 놓인 희망이기도 할 것이다. 경계 위에서의 공존과 화해의 가능성을 묻는 여정이자 '섬'이 품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다. (조지훈)

Documentary filmmaker Kim Myung-yoon, a former member of the Dokdo Police Security Detachment, relocates with his wife and son, Noah, to Kumri, a remote village in Japan's Oki Islands. A UNESCO Global Geopark, the Oki Islands boast majestic natural beauty, but also serve as a politically charged symbol, with Japan asserting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calling it, "Takeshima." As Kim builds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and engages with their perspectives, he explores the histories, ecologies, and memories surrounding Dokdo and the Oki Islands. His camera captures the blue ocean and striking landscapes while documenting the complex intersections of borders, languages, generations, and viewpoints. Though the film reveals unbridgeable divides, the friendship between Noah and the Japanese boy Itsuki offers a hope for understanding. This film is a journey about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on the border and a special record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an island. (JO Ji-hoon)



ITALIAN CINEMA

at the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LASH FORWARD COMPETITION

A YEAR OF SCHOOL
by **Laura Samani**
world sales Rai Cinema
International Distribution

THE LAST ONE FOR THE ROAD
by **Francesco Sossai**
world sales Lucky Number

ICONS

BELOW THE CLOUDS
by **Gianfranco Rosi**
world sales The Match Factory

DUSE
by **Pietro Marcello**
world sales The Match Factory

LA GRAZIA
by **Paolo Sorrentino**
world sales The Match Factory

WORLD CINEMA

SWEETHEART
by **Margherita Spampinato**
world sales Fandango

MIDNIGHT PASSION

THE HOLY BOY
by **Paolo Strippoli**
world sales Fandango

SPECIAL PROGRAM MARCO BELLOCCHIO'S

FISTS IN THE POCKET 1965

A LEAP IN THE DARK 1980

DEVIL IN THE FLESH 1986

VINCERE 2009

GOOD MORNING, NIGHT 2003

MARX CAN WAIT 2021

EXTERIOR NIGHT 2022

PORTOBELLO 2025

Open Cinema | 오픈 시네마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한다.

Experience acclaimed new releases and international sensations that blend artistic excellence
with broad appeal, screened under the stars at Busan's hallmark outdoor theater.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5 Centimeters Per Second WP

초속 5센티미터

Japan | 2025 | 121min | DCP | color

Director OKUYAMA Yoshiyuki 오쿠야마 요시유키



신카이 마코토가 2007년에 발표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영화. 원작의 재현에 충실하면서도,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언어를 놓치지 않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정감을 유려하게 엮어냈다. <새벽의 모든> (2024)에 출연했던 마츠무라 호쿠토가 유년 시절에 만난 첫사랑과의 추억에 머물고 있는 주인공 타카키 역을 맡았다. 영화는 SNS가 등장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2009년까지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첫사랑의 애환함과 그 기억을 자신의 일부로 체화한 채 살아가는 젊은 남녀의 순수하고 아련한 몸짓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초속 5센티미터>는 목가적인 풍경의 질감을 서정적으로 담아내는 가운데, 느리지만 아름답게 흘러갔던 지난 시대의 빛나는 감수성을 새로이 각인시킨다. (문주화)

A live-action adaptation of Shinkai Makoto's 2007 animated film of the same name. This film stays faithful to the original while embracing the language of cinematic framing, weaving together a sense of familiarity and freshness with graceful sensitivity. Matsumura Hokuto, who appeared in *All the Long Nights* (2024), plays Takaki, a man still clinging to memories of his first love from childhood. Spanning from the early 1990s—before the advent of social media—to 2009, the film vividly captures the tender emotions of first love and the pure, wistful gestures of a young man and woman who carry those memories as part of themselves. *5 Centimeters Per Second* lyrically conveys the textures of pastoral landscapes, imprinting anew the sensibilities of a bygone era that flowed more slowly, yet more beautifully, than today. (MOON Juhwa)

073 Sep 18 / 19:30 / SH 324 Sep 22 / 20:00 / BT

Arco

아르코

France | 2025 | 82min | DCP | color

Director Ugo BIENVENU 우고 비엔베누



225 Sep 20 / 15:30 / L9 478 Sep 24 / 20:00 / BT

칸영화제 스페셜스크리닝

디즈니의 <앤티맨> 시리즈 작업에 참여한 프랑스 그래픽노블 작가 우고 비엔베누가 이번에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SF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관과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르코>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 제작자인 배우 나탈리 포트만은 이 젊은 감독의 섬세한 비전과 긍정적인 메시지에 깊이 감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75년, 자연이 너무 위험해져 아이들은 돔 안에서 지내고 부모와 떨어져 로봇에 의해 양육된다. 열 살 소녀 아이리스는 어느 날, 자신이 먼 미래에서 왔으며 무지개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말하는 동갑내기 소년 아르코를 만나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친구와의 우정, 그를 돕는 로봇 미키, 그리고 어른들의 통제를 피해 도망치는 이들의 모험은 자연스럽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E.T.>(1982)를 떠올리게 한다. 흥미진진하고 유쾌한 모험극 <아르코>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미래와 거대한 숲 위의 플랫폼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서승희)

Ugo Bienvenu, a famous French graphic novel artist who worked on Disney's *Ant-Man* series, now presents a sensuous and beautiful science fiction animation. Reminiscent of Hayao Miyazaki's perspective on nature, *Arco* is filled with a message of hope for us all. Actress Natalie Portman, here credited as a producer, has stated that she was deeply moved by the young director's delicate vision and positive message. In the year 2075, nature has become too dangerous, and children live inside a dome, raised by robots without parents. One day, ten-year-old Iris discovers a ray of hope when she meets Arco, a boy her age and says he can fly through the sky on a rainbow. The friendship with a friend who came from the sky, a helpful robot named Mikki, and their adventure escaping the control of adults are naturally reminiscent of Steven Spielberg's *E.T.*(1982). *Arco* is not only an exciting and delightful adventure but also beautifully and movingly depicts a future where time travel is possible and everyone lives peacefully on a platform above a vast forest. (SEO Seunghee)

AUDITION 109 WP

짱구

Korea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JUNG Woo, OH Seong-ho 정우, 오성호



숨 쉬듯 말하고, 말하듯 연기하는 배우 정우와 <그 겨울, 나는>(2022)으로 섬세하고 단단한 데뷔작을 선보였던 오성호 감독이 공동 연출한 <짱구>는 배우를 꿈꾸는 청년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다. 흥미롭게도 청년의 이름(별명)은 '짱구'다. 그렇다. 정우가 직접 각본을 쓴 <짱구>에는 <바람>(2009)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자전적으로 담겨 있다. 뼈격대지만 치열하고 풋풋한 청년기를 지나는 짱구의 오디션 도전기와 사랑과 우정,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영화는 유쾌하고 유연한 드라마를 펼쳐며 짙은 감정을 쌓는다. 그리고 끝내 가슴 사무치는 순간을 포착한다. 빼어난 배우와 감독의 전기가 선연한 필치를 남긴다. (홍은미)

AUDITION 109, co-directed by actor Jung Woo—who speaks as naturally as he breathes and acts as naturally as he speaks—and director Oh Seong-ho, who made a delicate yet solid debut with *Through My Midwinter* (2022), tells the story of a young man who dreams of becoming an actor in a cheerful way. Interestingly, the young man's name (or rather, nickname) is 'Jjang-gu,' meaning 'bulging head.' Scripted by Jung Woo, *AUDITION 109* once again, carries his autobiographical story, following *Wish*(2009). The film depicts Jjang-gu's struggles through auditions, along with love, friendship, and the vivid scenery of youth and of Busan—awkward yet intense, raw yet endearing. Layer by layer, it builds up an affable and supple drama that ultimately captures moments of piercing emotion. The understated brilliance of its remarkable actor-director duo shines through, leaving behind a striking impression. (HONG Eunmi)

135 Sep 19 / 13:00 / L5 160 Sep 20 / 20:00 / BT

Bring Him Down to a Portable Size

오빠를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로

Japan/China/France | 2025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NAKANO Ryota** 나카노 료타



047 Sep 18 / 09:00 / L3 403 Sep 23 / 20:00 / BT

IP

오빠가 죽었다.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그가, 결혼해 아이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금세 또 이혼을 했다. 그렇게 한평생 이기적이고 민폐 덩어리였던 오빠가 갑자기 죽어 한 종의 재가 되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나홀이면 충분할까? 리코는 미워하던 오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행복 목욕탕>(2016), <조금씩, 천천히 안녕>(2019), <아사다 가족>(2020)에서 가족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데 일가견을 보인 나카노 료타 감독은 <오빠를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로>를 통해 가족이니까 해야 할 말들, 그러나 가족이기에 오히려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에 대해 신중하게 묻는다. 시바사키 고우와 오다기리 조는 무겁고 불편할 수 있는 소재를 가볍게 힘쎈 연기로 소화해, 마침내 희망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박기안)

Riko's brother is dead. A good-for-nothing who never got a proper job, constantly pestered his younger sister for money, and didn't even attend their mother's deathbed. Just when it seemed he was living well after getting married and having a child, he quickly got divorced. He was selfish and a burden all his life, and suddenly died. Is four days enough to wrap up a person's life? Riko leaves home to see off the brother she used to hate, on his final journey. With *Bring Him Down to a Portable Size*, director Nakano Ryota—who is talented for unfolding family stories with warmth and humor in films like *Her Love Boils Bathwater* (2016), *A Long Goodbye* (2019), and *The Asadas* (2020)—questions the things that need to be said because you are a family, yet are often left unsaid for that very reason. Shibasaki Ko and Odagiri Joe handle the potentially heavy and uncomfortable subject matter with light, relaxed performances, offering a hopeful ending note. (Karen PARK)

The Final Piece

파이널 피스

Japan | 2025 | 123min | DCP | color
Director **KUMAZAWA Naoto** 구마자와 나오토



003 Sep 18 / 20:00 / BT 600 Sep 19 / 09:00 / L5

WP

산속에서 발견된 시체, 장인이 만든 고가의 장기말이 같이 묻혀 있다. 베테랑 형사와 신입 형사가 사건을 추적하는 현재와 불우한 천재 장기 기사의 과거가 교차되면서, 숨겨진 비극의 실체가 드러난다. 한국영화 <승부>(2025)가 바둑이라는 익숙치 않은 소재를 실화의 힘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파이널 피스>는 장기에 미스터리적 요소를 결합해 관객의 흥미를 높인다. 베스트셀러 소설 『반상의 해바라기』를 스크린으로 옮긴 <파이널 피스>는 시작과 동시에 사건 용의자를 공개한다. 이어지는 두 시간 동안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장기라는 소재로 치밀하게 직조한 인생의 열망과 굴곡, 형사 콧비가 일본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속도감 있는 전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일본의 청춘 스타 사카구치 켄타로와 연기의 명인 와타나베 켄의 흡입력 있는 연기 덕분일 것이다. (박기안)

A dead body is discovered in the mountains, buried with an expensive, handcrafted shogi (Japanese chess) piece. As the present-day investigation by a veteran detective and a rookie detective unfolds, it intertwines with the past of a tragic, genius shogi player, revealing the truth of a hidden tragedy. Like *The Match* (2025) overcame the unfamiliar subject of Go through the power of a true story, *The Final Piece* combines the game of shogi with mysterious elements to heighten the audience's interest. The film, adapted from the bestselling novel *The Sunflower on the Shogi Board*, reveals its suspect at the very beginning, but it maintains gripping tension for the remaining two hours. Director Kumazawa Naoto meticulously weaves the aspirations and setbacks of life through the subject of shogi, and sets the pace as the detective duo travels nationwide searching for clues. Above all, the captivating performances of heartthrob Sakaguchi Kentaro and charismatic Watanabe Ken are the highlights of the film. (Karen PARK)

The Lovers on the Bridge

퐁네프의 연인들

France | 1991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Leos CARAX** 레오스 카락스



554 Sep 25 / 20:00 / BT

베를린영화제 포럼

레오스 카락스는 세 번째 장편에서 <나쁜 피>(1986)의 전설적인 커플을 다시 모아 화려한 현대 멜로드라마를 선보인다. 줄리엣 비노쉬는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를, 드니 라방은 거리의 곡예사를 연기한다. 점차 아둔 속으로 침잠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역을 맡은 줄리엣 비노쉬의 열연은 단번에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다정함, 폭력성, 절망, 순수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다시 한번 전설적인 연기를 펼친다. 야성적이면서도 순수한 미של 역은 여전히 줄리엣 비노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파리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연인들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 곳곳을 누비고, 레오스 카락스 감독은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장면들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불꽃이 터지는 하늘, 퐁네프 위에서의 춤, 자하철 속 광란의 질주, 센 강 위를 가르는 수상스키까지. <퐁네프의 연인들>의 모든 이미지는 장엄하면서도 서정적인, 미친 사랑에 바치는 시처럼, 그렇게 우리를 압도한다. (서승희)

In his third feature film, Leos Carax reunites the legendary couple from *Bad Blood* (1986) to present a spectacular modern melodrama. Juliette Binoche plays a painter losing her sight, and Denis Lavant plays a street performer. The incredible performance of Juliette Binoche, in the role of a woman gradually sinking into darkness while falling passionately in love with a man who has nothing, captivates the audience at once. She embodies tenderness, violence, despair, and innocence with her entire being, delivering yet another legendary performance. The role of the wild yet pure Michèle is still considered one of Juliette Binoche's signature works. Paris is another protagonist in this film. The lovers roam throughout the city as it celebrates the bicentennial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director Leos Carax fills the screen with fantastical scenes that are impossible to look away from. A sky bursting with fireworks, a dance on the Pont Neuf, a frantic race through the metro, and water skiing across the Seine River — every image in *The Lovers on the Bridge* overwhelms us, grandiose yet lyrical, like a poem dedicated to a mad love. (SEO Seunghye)

Measure in Love

WP

타년타일

Hong Kong, China | 2025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KUNG Siu Ping** 공시우핑



239 Sep 21 / 20:00 / BT 363 Sep 22 / 11:00 / C6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중력의 벽으로 양분된 세계. '오로라 존'과 '에버그린 존'으로 나뉜 세계는 시간과 중력이 왜곡되어, 오로라 존의 하루는 에버그린 존의 일 년이 된다. 황폐한 에버그린 존에는 맑은 공기도, 꽃도, 약품도, 심지어 식량도 부족하다. 오로라 존에서 일주일에만 한 번씩 에버그린 존에 방문하는 '하얀 비둘기' 의료봉사단의 일원인 앤진은 첫 방문에서 좀독독질을 하는 열세 살 소년 타토를 만난다. 앤진에게 첫눈에 반한 타토는 그녀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의료봉사단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한다. <타년타일>은 두말할 것 없는, 허광한의 영화이다. 목숨을 걸고 시간의 벽을 넘나들면서 중력을 거스르는 사랑을 이어가는 앤진과 타토의 사랑은, 허광한과 안젤라 유엔의 사랑스러운 연기에 힘입어 생명력을 얻는다. <상경너>로 일명 '상천자'를 양산하며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허광한이 군 복무 후 첫 복귀작을 들고 부산의 관객을 직접 찾는다. 대만의 베테랑 감독이자 배우인 실비아 창이 제작을 맡아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에 힘을 보탰다. (박선영)

After a massive earthquake, the world is split into two—Aurora Zone and Evergreen Zone—separated by the Wall of Gravity, which distorts time and gravity differently on both sides. One day in the Aurora equals an entire year in the Evergreen. The barren Evergreen suffers from shortages of clean air, flowers, medicine, and even food. On her first weekly visit to the Evergreen, Anne-Jean, a member of the White Doves from the Aurora, runs into a thirteen-year-old petty thief named Tato, who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Wanting to be closer to her, he decides to join the White Doves. *Measure in Love* is unmistakably Hsu Kuang-Han's film. The love between Ann-Jean and Tato, which transcends time and defies gravity as they risk everything, comes alive through the charming performances of Hsu Kuang-Han and Angela Yuen. Hsu Kuang-Han, widely known for *Someday or One Day*, has gained many fans affectionately known as "Someday or One Day Freaks." He is visiting Busan to meet audiences with his first film since completing military service. Veteran Taiwanese director and actor Sylvia Chang produced the film, lending her support to this beautiful love story. (PARK Sun Young)

The Shadow's Edge

포풍추영

China/Hong Kong, China | 2025 | 141min | DCP | color

Director **Larry YANG** 래리 양



© IQM Pictures/Tab Tickets/Hainan Pictures

077 Sep 19 / 20:00 / BT 547 Sep 24 / 19:30 / KT

마카오의 상징과 같은 윈 호텔을 무대로, 한 무리의 범죄 조직이 경찰과 최첨단 감시 시스템 '스카이 아이'를 뚫고 수심억 달려를 훔쳐 달아난다.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은퇴한 전설의 경찰 황더중(성룡)이 복귀하게 되고, 어린 시절에 황의 파트너였던 아버지를 잃은 허추귀(장쯔펑)가 황의 팀으로 합류한다. 황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전설적인 범죄자 푸룽성(양가휘)이 범죄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한다. 최첨단 시스템을 통한 범죄와 수사가 이뤄져도, 전설의 범죄자와 전설의 경찰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증명해 낸다. 잘 짜여진 합을 맞춰 선보이는, 우아하고도 에너지 넘치며 위트와 박력이 있는 성룡표 액션은 명불허전이다. 또한, 초 단위로 변장을 바꿔가며 냉혹한 범죄자의 얼굴과 자애로운 노인의 얼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스틸 넘치는 액션을 보여주는 양가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놀랍다.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세븐틴 멤버 준의 연기도 화려한 액션 속에 매끄럽게 녹아든다. (박선영)

Evading the police and the state-of-the-art Sky Eye surveillance system, a crew of thieves steal billions of dollars from the iconic Wynn Macau. When the investigation stalls, legendary police officer Wong Tak-chung (Jackie Chan) is pulled out of retirement and joined by He Qiuguo (Zhang Zifeng), the daughter of Wong's deceased former partner. Wong intuitively suspects that the legendary criminal Fu Longsheng (Tony Leung Ka-fai), who mysteriously vanished years ago, is behind the heist. Despite the high-tech nature of the crime and the investigation, the legendary criminal and police officer demonstrate a strong presence. Jackie Chan's action scenes - elegance yet energetic, wit yet powerful - truly live up to his reputation. Also Tony Leung Ka-fai, is particularly striking in the thrilling action scenes, effortlessly switching between the cold visage of a criminal and the warm, gentle face of an elderly man in seconds. JUN, a member of the K-pop boy band SEVENTEEN, also delivers a performance that seamlessly blends into the film's dazzling action sequences. (PARK Sun Young)



PNU

FILM

IN

STI

TUTE

E cinema@pusan.ac.kr

W pnufilm.pusan.ac.kr

Midnight Passion | 미드나잇 패션

작품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호러, 스릴러, 액션, SF 등 장르영화의 신작들을 심야에 상영하는 부문입니다.

A selection of genre films—from horror and thriller to action and sci-fi—that are certain to keep devoted fans awake throughout the night.

심야 상영 일정	Midnight Passion 1 미드나잇 패션 1	Exit 8 8번 출구 Weapons 웨폰 Honey Don't! 하니 돈트! 008 Sep 18 / 23:59 / BH
	Midnight Passion 2 미드나잇 패션 2	Protector 프로텍터 Halabala 할라발라 The Furious 분노의 추격 081 Sep 19 / 23:59 / BH
	Midnight Passion 3 미드나잇 패션 3	Bride of the Covenant 귀목 : 피의 혼례 My Home 완벽한 집 The Holy Boy 홀리 보이 164 Sep 20 / 23:59 / BH
	Midnight Passion 4 미드나잇 패션 4	Exterior Night 엑스테리어, 나이트 244 Sep 21 / 23:59 / BH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Bride of the Covenant

IP

귀목 : 피의 혼례

Vietnam | 2025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LE-VAN Kiet** 레반 끼엣



111 Sep 19 / 12:20 / C4

164 Sep 20 / 23:59 / BH

553 Sep 24 / 16:30 / BCM

19세기 베트남. 어린 신부 나이는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부 가문으로 시집온다. 피로 새긴 혼인 서약과 엄격하면서도 기이한 가법에 숨이 막혀 가던 나이는 끝내 부 가문에 도사린 욕망과 저주를 목격한다. 그 근원에는 목신(木神)과 맺은 꿈을 수 없는 가문의 맹약이 있다. 깊은 밤, 오래된 대저택의 사까래를 타고 퍼지는 기이한 진동은 목신의 존재를 한층 섬뜩하게 부각시킨다. <퓨리>(2019)에서 묵직한 여성 액션을 선보였던 레반 끼엣 감독이 이번에는 베트남의 토속 신앙과 보디 호러를 결합해 아시아 포크 호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유교적 가부장제와 욕망으로 뒤틀린 가족사, 이에 짓눌린 여성의 한은 피에 젖은 육체로 형상화되고, 목조 고택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잠들어 있던 공포를 깨워 불면의 밤을 부른다. (채경훈)

19th-century Vietnam. Young bride Nhai marries into the wealthy and prestigious Vu family. Suffocated by a blood-sealed marriage vow and the family's strict yet bizarre code of conduct, she ultimately bears witness to the desires and curses festering within the household. At the root lies an unbreakable pact the family has made with the tree god. In the dead of night, strange vibrations traveling along the beams of the old mansion make the presence of the tree god all the more chilling. Director Le-Van Kiet, who showcased powerful female-driven action in *Furie* (2019), now fuses Vietnamese folk beliefs with body horror to open a new chapter in Asian folk horror. A family history warped by Confucian patriarchy and unchecked desire, and the deep-seated resentment of a woman crushed beneath it, take corporeal form in blood-soaked flesh. The creaking timbers of the wooden manor awaken dormant terrors, summoning a sleepless night. (CHAE Kyeong Hoon)

Exit 8

8번 출구

Japan | 2025 | 95min | DCP | color

Director **KAWAMURA Genki** 카와무라 겐키



008 Sep 18 / 23:59 / BH

097 Sep 19 / 20:30 / CX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일상에서 접하는 비디오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선사한다. 그러나 언제나 소용할 수 있었던 게임의 시공간 속에 실제로 갇힌다면, 그곳은 유희의 공간이 아닌, 무한히 되풀이되는 악몽의 장소가 된다. <8번 출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동명의 비디오 게임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원작 게임의 규칙에 따른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가던 길을 되돌아갈 것’ 지하철 통로라는 단순하면서도 폐쇄적인 공간과 반복되는 탈출의 실패는 심연의 공포를 이끌어낸다.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변칙들이 투입하면서, 서스펜스의 회로는 더욱 복잡해진다. 게임의 구조를 영화의 프레임으로 영만하게 변환한 도전적인 작품이자,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매혹될 스릴러이다. (문주화)

Video games in everyday life offer the greatest pleasures one can experience in a virtual space. But if you were to become truly trapped within the time and space of a game—where you once had the option to simply switch it off—that place would no longer be one of play, but a site of an endlessly repeating nightmare. *Exit 8* is based on the globally popular video game of the same name, with its narrative adhering to the original game's rule: ‘If you notice any anomalies, turn back the way you came.’ The simple yet claustrophobic setting of a subway passage and the repeated failures to escape draw forth a deep, unsettling terror. Unexpected irregularities intrude, adding new layers of the suspense. This is a bold work that deftly transforms the structure of a game into cinematic framing, and a thriller that will fascinate anyone surviving through the repetitive routines of modern life. (MOON Juhwa)

Exterior Night

엑스테리어, 나이트

Italy/France | 2022 | 330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244 Sep 21 / 23:59 / BH

칸영화제 칸프리미어

<굿모닝, 나이트>(2003) 이후 19년 만에 마르코 벨로키오는 알도 모로 납치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시 한번 파헤친다. 구로사와 아키라리의 <라쇼몽>(1950)처럼 <엑스테리어, 나이트>는 붉은 여단에 납치된 정치인 알도 모로의 이야기를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각기 다른 인물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간다. 알도 모로 자신은 물론 그의 아내, 교황, 내무부 장관, 그리고 납치에 가담한 붉은 여단의 여성 등. 각자의 시각에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난다. 영화는 알도 모로의 망령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탈리아 정치의 무대를徘徊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하다. (서승희)

“제 중요한 관심사는 인물들의 내면, 특히 모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그가 혼자이고, 포로이며, 권력을 박탈당한 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모로는 일종의 순교자처럼 되어버렸지만, 그것은 그의 의지와는 상반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약점이라기보다 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정치적 폭로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리베라시옹, 2023

Nineteen years after *Good Morning Night* (2003), Italian master Marco Bellocchio delves into the truth behind the official narrative of the Red Brigades kidnapping and murder of Aldo Moro. Similar to Kurosawa Akira's *Rashomon* (1950), *Exterior Night* structures the story in six episodes, each to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Moro himself, his wife, the Pop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a Red Brigades member who took part in the kidnapping. Through their eyes, Bellocchio rewrites history, gradually exposing the truth of the incident. The film seems to remind us that the specter of Aldo Moro continues to haunt the Italian political stage to this day. (SEO Seunghee)

“What interested me most was going inside the characters, especially Moro... I wanted to show him alone, a prisoner, stripped of power, surrounded by people he didn't understand and who didn't understand him. To reveal his human fragility, his absolute desire to live. Moro became a kind of martyr, but against his will. He didn't want to die! What I wanted to portray was not so much his weaknesses but his humanity. The political revelations—although they are present—were not what motivated me.”
— Marco Bellocchio, interview with Elisabeth Franck-Dumas, *Liberation*, March 9, 2023

The Furious

분노의 추격

Hong Kong, China | 2025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TANIGAKI Kenji** 다니가키 겐지



081 Sep 19 / 23:59 / BH **219** Sep 20 / 19:30 / L6

토론토영화제 미드나잇매드니스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된 딸을 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더 잔혹해져야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그런데 이 익숙함에, 한때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지금은 기억에서 멀어진 액션이 가미되며 <분노의 추격>은 자신의 매력을 완성한다. <분노의 추격>을 연출한 다니가키 겐지는 일본 출신이지만 홍콩에서 스텐트 배우에서 출발해 스텐트 코디네이터, 무술 감독 등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한 감독이다. 액션 감독 출신답게 다니가키 겐지는 쿵푸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가상 이미지의 시대에 CG의 힘을 최소화한 채, 배우의 몸이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액션을 날 것 그대로 구현한다. 결국, <분노의 추격>이 구출하려는 대상은 단지 딸이 아니라, 점점 잊혀가는 몸의 영화적 표현들, 즉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쿵푸적인 안무와 그것이 주는 날 것의 쾌감이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영화다. (안시환)

We are all too familiar with the story of a father rescuing his daughter from human traffickers, or a father forced to become ever so brutal to punish cruel criminals. Yet this familiar plot, combined with action that was once familiar but has now become a distant memory, gives *The Furious* its particular charm. Tanigaki Kenji, who directed *The Furious*, was born in Japan but built his career in Hong Kong as a stunt actor, stunt coordinator, and action director. True to his action roots, Tanigaki desperately struggles to revive kung fu for modern audiences. In the age of virtual images, he minimizes the use of CGI and instead presents the fullest extent of raw, unfiltered action that an actor's body can achieve. Ultimately, what *The Furious* rescues is not only the daughter but also a form of cinematic expression of the body that is slowly fading from memory: kung fu-style choreography where bodies collide, and the raw pleasure it brings. And that, in itself, is enough for this film. (AHN Sihwan)

Halabala

할라발라

Thailand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Eakasit THAIRAAT** 에아카시 타이랏



081 Sep 19 / 23:59 / BH **613** Sep 25 / 20:00 / L9

실제 출입이 제한된 태국 남부 국경지대의 할라발라 원시림. 무자비한 형사 단은 탈옥한 갱단 두목 톨을 뒤쫓아 할라발라의 저주받은 마을 바도우로 들어선다. 그 순간, 밀림은 거대한 포식자로 돌변한다. 80년대식 슈트 크리처, 만화적 클로즈업, 그리고 실물 특수효과로 구현된 슬래셔 액션이 스크린을 절단하고, 저주파 사운드는 내장을 쓸어내는 듯한 공포를 더한다. 식인 부족 바도우의 불길한 토렘과 원시적 리듬, 할라발라의 끈적한 습도에 정신을 온전히 부여잡을 이가 과연 있을까! 폭력과 공포에 잠식당하는 순간,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미드나잇 패션이 보장하는 '심야 각성', 관객의 눈꺼풀을 아드레날린으로 박제할 정글 호러 서바이벌의 극한 체험, 정글 속으로 기꺼이 삼켜질 준비가 되었는가! (채경훈)

In the restricted border zone of southern Thailand lies the untouched Halabala rainforest. Ruthless detective Dan pursues escaped gang leader Tub into Batow, a cursed village deep within Halabala. In that instant, the jungle transforms into a colossal predator. '80s-style suited creatures, comic book-style close-ups, and slasher action rendered with practical special effects slice through the screen, while low-frequency sound adds a gut-churning layer of fear. The ominous totems and primal rhythms of Batow's cannibal tribe, combined with Halabala's sticky humidity, test the limits of rationality—who can keep their sanity intact? As violence and terror consume all, the question remains: who is the real monster? With *Midnight Passion* guaranteeing a "late-night awakening," this is an extreme jungle horror survival experience that will pin your eyelids open with adrenaline. Are you ready to be swallowed whole by the jungle? (CHAE Kyeong Hoon)

The Holy Boy

홀리 보이

Italy/Slovenia | 2025 | 123min | DCP | color

Director **Paolo STRIPPOLI** 파올로 스트리폴리



164 Sep 20 / 23:59 / BH **418** Sep 23 / 16:30 / CX

529 Sep 24 / 19:30 / L5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장편 데뷔작 <클래식 호러 스토리>(2021)에서 호러 장르의 컨벤션을 맘껏 이용해 피의 향연을 펼쳤던 파올로 스트리폴리 감독이 이탈리아 산골로 안내한다.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교사 세르지오는 평온한 레미스로 전근을 간다. 새출발을 위한 정소로 안성맞춤인 마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곳의 15세 소년 마테오와 포옹하면 누구나 마을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마테오에 대한 공동체의 의존이 과도해지자 세르지오는 그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 영화는 <캐리>(1976)와 <렛 미 인>(2008)처럼 상처 입기 쉬운 주인공의 감성과 양면성을 다루지만, 이탈리아 호러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초자연적 현상을 활용한 서스펜스를 증폭시킨다. 포크 호러와 심리 스릴러를 정교하게 결합한 스트리폴리 감독은 아픔을 극복할 수 없는 공동체의 집단 광기와 소년의 폭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신비한 소년을 둘러싼 소동을 통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 즉 슬픔의 의미에 대해 반문한다. (전종혁)

In his feature debut *A Classic Horror Story* (2021), director Paolo Strippoli reveled in the conventions of the horror genre, crafting a bloody spectacle. Now, he leads us into the rural heart of Italy. Sergio, a teacher bearing scars from the past, transfers to the tranquil village of Remis. The seemingly perfect setting for a new start, however, hides a stunning secret. Anyone who hugs Matteo, a 15-year-old boy, finds peace of mind. But as the community grows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boy, Sergio strives to save him. Much like *Carrie* (1976) and *Let the Right One In* (2008), the film explores the vulnerability and duality of a wounded protagonist. However, it reimagines these themes through an Italian horror lens, amplifying the suspense with supernatural elements. Blending folk horror and psychological thriller with precision, Strippoli walks a fine line between a community gripped by mass hysteria and a boy spiraling out of control. The communion surrounding the mysterious boy invites us to reflect on what makes us human—namely, the meaning of sorrow. (JUN Jonghyuk)

Honey Don't!

하니 돈트!

United States | 2025 | 88min | DCP | color

Director **Ethan COEN** 에단 코엔



008 Sep 18 / 23:59 / BH **451** Sep 23 / 13:30 / L5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시골 마을의 수상한 교회에 얽힌 기이한 죽음들을 파헤치는 사립 탐정 하니.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당당히 밝히지만, 어리석은 남자들은 그녀의 말도, 그녀의 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니는 개의치 않고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데이트 폭력을 겪는 조카를 격정하고, 경찰관 엠지와 황홀한 밤을 즐긴다. 에단 코엔 감독이 누아르 영화의 관습을 비틀겠다는 의도로 연출한 영화는 정작 ‘누가 범인인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다분히 의도된 플롯의 느슨함을 주연배우의 존재감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서브스탠스>(2024)의 매혹적인 ‘수’를 연기했던 마가렛 켈리는 <하니 돈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과시한다. (박가인)

Honey, a private investigator, digs into a series of bizarre deaths connected to a suspicious church in a rural town. She openly declares that she "likes girls," but foolish men don't take her words or her work seriously. Unbothered, Honey tenaciously pursues the case while worrying about her niece, who is with an abusive boyfriend, and enjoying ecstatic nights with a sexy cop who goes by the name MG. The film is the second installment in Ethan Coen's trilogy, who wanted to make a film that twists the conventions of film noir, and seems quite uninterested in the question of 'who is the culprit.' This deliberately loose plot is instead filled to the brim by the presence of its lead actress. Margaret Qualley, who played the captivating Sue in *Substance* (2024), and shows off an upgraded level of charm in *Honey Don't!* (Karen PARK)

My Home

완벽한 집

Korea | 2025 | 98min | DCP | color

Director **JEONG Yong-ki 정용기**



057 Sep 18 / 16:30 / L5 **137** Sep 19 / 19:30 / L5
164 Sep 20 / 23:59 / BH **309** Sep 21 / 15:30 / L9

WP

가난한 대학생 규빈(장규리)은 당장 기거할 집이 없어 난감하다. 근근이 학교를 다니는데, 목돈이 드는 월세방은 부담스럽고 얻을만한 자금도 없다. 규빈은 동등거리던 중 독거노인과 함께 사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마뜩잖지만 한 집을 찾는다. 그런데 우연찮게 찾은 그곳은 노년의 우아한 여인 금림(배종옥)이 사는 고급 아파트, 그야말로 완벽한 집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에선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영화 시작부터 공포감을 조성해 나가던 <완벽한 집>은 마침내 완벽한 공포 영화로 돌진한다. 추악한 욕망과 무속의 재앙, 잘 설계된 서사와 가슴 쓸어내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출몰하는 귀신을 모두 거느린 영화는 공포 회로를 가속시키며 완벽한 집을 악몽의 집으로 바꿔놓는다. 동시에 결핍에 찌든 인물들의 욕망과 심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며 우리네의 삶을 해부한다. (홍은미)

Gyubin (Jang Gyu-ri), a poor college student, finds herself in a desperate situation with no place to live. Struggling just to stay in school, she cannot afford the hefty deposit required for a rental room, nor does she have any means to secure it. While searching desperately, she comes across a program that matches students with elderly people living alone. Reluctantly, she signs up and finds a place—only to discover, by chance, that it's a luxurious apartment belonging to the elegant older woman Geum-rim (Bae Jong-ok). It seems like the perfect home. But not for long. Strange occurrences begin to happen inside the apartment, and from its very opening, *My Home* builds an atmosphere of genuine dread, eventually evolving into a full-fledged horror film. Filled with vile desires, shamanistic curses, a tightly constructed narrative, and relentless apparitions that leave no room to breathe, the film accelerates its horror engine and transforms this 'perfect house' into a nightmare. At the same time, it probes deeply into the desires and psyches of people crushed by deprivation, dissecting the very fabric of our lives. (HONG Eunmi)

Protector

프로텍터

United States/Korea | 2025 | 90min | DCP | color

Director **Adrian GRUNBERG 애드리언 그룬버그**



081 Sep 19 / 23:59 / BH **177** Sep 20 / 09:00 / CX

WP

미 특수부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니키는 딸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딸 클로이 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떨어져 지냈던 시간의 공백만큼 두母女 사이의 틈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클로이는 16번째 생일날 외출을 했다가 납치를 당하고, 니키는 거대 조직에 맞서 72시간 안에 딸을 되찾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한다. 경찰과 군대는 니키를 표적으로 삼고, 시간은 잔인하게 흐른다.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는 <프로텍터>는 니키 역을 맡은 밀라 요보비치의 처절한 사투를 추적하는 액션 장르는 표방하면서, 폭력을 초월한 근원적인 모성애로 수렴하는 강렬한 드라마로 완성된다. (문주화)

Nikki, who once served her country with distinction as a member of the U.S. Special Forces, missed out on her daughter's childhood. After her husband's death, she returns to be with her daughter Chloe. But the time they spent apart has left a gap between them that shows no sign of closing. On her 16th birthday, Chloe goes out and is kidnapped, forcing Nikki into a perilous race against time—72 hours to rescue her daughter from a powerful criminal organization. Targeted by both the police and the military, Nikki fights as the clock ticks mercilessly on. Unfolding at a rapid pace, *Protector* follows Milla Jovovich's fierce struggle in the role of Nikki, delivering not only as an action thriller but also as an intense drama that ultimately converges on the primal force of maternal love that transcends violence. (MOON Juhwa)

Weapons

웨폰

United States | 2025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Zach CREGGER 잭 크레거**



008 Sep 18 / 23:59 / BH **398** Sep 22 / 13:30 / SH

새벽 2시 17분, 17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단 한 명만이 남았다. 하룻밤 사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에 홀린 듯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FBI까지 개입했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담임교사는 학교로부터 휴직을 강요당하고, 교장은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며,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경찰은 수상한 노숙자를 뒤쫓는다.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는 이들의 사연은 점차 퍼즐처럼 맞물리며, 사라진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진다. <바바리안>(2022)으로 호러 팬들의 찬사를 받은 잭 크레거 감독의 신작 <웨폰>은 대담한 스토리텔링, 앙상을 캐스트의 강렬한 연기, 공포를 극대화하는 촬영과 사운드, 긴장과 유머가 교차하는 연출이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었다.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공포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이라면 반드시 극장에서 관람해야 할 작품이다. (박가연)

At 2:17 AM, 17 children disappeared, and only one remained. As if entranced by the 'Pied Piper', students from the same class vanished without a trace overnight. Even with the FBI involved, the children's whereabouts are a complete mystery. Amidst the chaos, the their teacher is forc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from the school, the principal is hounded by protesting parents, and a police officer with an anger management disorder pursues a suspicious homeless person. The stories of these individuals, overlapping through a series of coincidences, gradually fit together like a puzzle, leading to clues to find the missing children. *Weapons*, the new film from director Zach Cregger, who received acclaim from horror fans for *BARBARIAN* (2022), is a masterful blend of bold storytelling, powerful performances from its ensemble cast, terror-inducing cinematography and sound, and direction that skillfully alternates between tension and humor. It is a must-see in theaters for fans that have been waiting for a fresh and well-crafted horror film. (Karen PARK)



On Screen | 온 스크린

영화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를 포괄하는,
그 해의 최신 드라마 시리즈 기대작을 상영하는 부문입니다.

An exploration of cinema's expanding horizons through
screenings of the year's most anticipated drama serie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As You Stood By

WP

당신이 죽었다

Korea | 2025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LEE Jeong-lim** 이정림



완벽을 꿈꾸는 범치는 우리를 어떻게 매혹하는가. 백화점 명품관 직원 은수(전소나)는 유능한 면모 뒤에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한 은수는 친구인 동화 작가 희수(이유미)의 행보를 바라지만 희수의 남편 진표(장승조)가 폭력을 일삼는다는 걸 알게 된다. 희수를 구하기로 결심한 은수는 완벽한 살해계획을 세우고, 한편 은수의 주변에 맴돌게된 사업가 소백(이무성)은 은수의 수상스런 행동들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렇게 희수를 구한 줄 알았지만 죽거나 죽이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의 수레바퀴는 두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오쿠타 히데오 작가의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를 옮긴 <당신이 죽었다>는 몰입할 수밖에 없는 서사와 섬세한 연출이 매력적인 서스펜스물이다. 가정폭력과 살인 계획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휘둘리지 않고, 인물의 심리와 관계의 복잡성을 예민하게 포착해낸 시선이 미덥다. 무엇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배우들의 절묘한 감정연기가 마지막 빈칸을 채운다. (송경원)

How does the dream of a perfect crime fascinate us so irresistibly? Eun-su (Jeon So-nee), a luxury department store clerk, hides deep scars beneath her competent exterior. Unable to free herself from the trauma of childhood domestic abuse, she wishes happiness for her friend, a children's book author Hee-su (Lee You-mi), yet discovers that Hee-su's husband, Jin-pyo (Jang Seung-jo), is violently abusive. Determined to save her friend, Eun-su devises a flawless murder plan. Meanwhile, a CEO So-baek (Lee Mu-saeng) who is hanging around Eun-su, silently observe her suspicious behaviors. Believing she has finally rescued Hee-su, Eun-su soon realizes that the vicious cycle of violence, where one must either kill or be killed, will not easily release its grip. Adapted from *Naomi & Kanako* by Okuda Hideo, *As You Stood By* is a suspense drama distinguished by its immersive narrative and finely tuned direction. Rather than being swept away by the provocative subject matter of domestic violence and murder, the film keenly observes the characters' psychology and the tangled complexity of their relationships. Above all, the actors' perfectly balanced performances—never excessive, never lacking—fill in the story's final blank with precision. (SONG Kyung-won)

050 Sep 18 / 20:00 / L3 117 Sep 19 / 20:00 / C5

Dear X

WP

친애하는 X

Korea | 2025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LEE Eungbok, PARK Sohyeon** 이응복, 박소현



053 Sep 18 / 16:30 / L4 141 Sep 19 / 20:30 / L6

극도로 매력적인 또 하나의 악녀 캐릭터가 등장한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력을 겸비한 소시오패스 백아진(김유정). 그녀는 주위 남자들을 이용해 제 앞길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유년기부터 남달랐던 서늘한 기질을 아름답게 굳은 얼굴 뒤에 숨긴 채 그녀는 누구보다 잔혹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참혹한 가정환경과 쉽지 않은 학교생활 안에서 제거 대상 X들을 해치우는 그녀의 뛰어난 용병술과 연기력으로 놀랍지만, 그녀보다 더 악질인 제거 대상들이 쓰러져 나갈 때마다 안기는 카타르시스가 상당히 짜릿하다.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친애하는 X>는 치밀한 각본과 배우들의 호연, 유려한 이미지의 조화가 쾌감을 안기는 멜로 스릴러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연출자 이응복이 박소현과 공동 연출을 맡았다. (홍은미)

Another irresistibly captivating femme fatale makes her entrance: Baek A-jin (Kim Youjung), a sociopathic character blessed with both striking beauty and razor-sharp intellect. She manipulates the men around her, using them to eliminate every obstacle in her path one by one. From childhood, she has hidden her chilling nature behind a flawlessly composed face, carving out her way forward with unmatched cruelty and precision. Amid a nightmarish home life and harsh school days, her tactical cunning and extraordinary acting skills in disposing of her "Target X" list are astonishing—but the true thrill comes from the catharsis delivered each time an even more vile target falls before her. Based on a popular webtoon, *Dear X* is a melodramatic thriller that blends a meticulously crafted screenplay, stellar performances from actors, and sleek visual imagery into a sharp, exhilarating experience. Directed by none other than Lee Eungbok and Park Sohyeon, the film needs little further introduction. (HONG Eunmi)

Last Samurai Standing

WP

이쿠사가가미: 전쟁의 신

Japan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FUJII Michihito, YAMAGUCHI Kento, YAMAMOTO Toru**

후지이 미치히토, 야마구치 켄토, 야마모토 토루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후 무인의 시대는 저물고, 호화로운 삶에 취한 상류층은 전염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민중들을 외면한다. 이 혼란의 시대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주최한 배틀로얄에 거액의 상금을 노리고 292명의 사무라이가 참전한다. 자객 수지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때 내려놓았던 칼을 다시 빼어 들지만, 상대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게임 속에서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이쿠사가가미: 전쟁의 신>은 오카다 준이치가 주연은 물론 무술감독, 프로듀서까지 1인 3역을 소화한 화제작으로, 일본 최정상 배우들이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총출동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시리즈다. 스케일과 완성도 면에서 일본 드라마 제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기안)

In the late 19th century, after the Meiji Restoration, the era of the samurai came to an end. Lost in the allure of luxury, the upper class willfully ignores the suffering of the impoverished masses amid rampant pandemics. In this era of turmoil, 292 warriors, lured by a massive cash prize, enter a battle royale hosted by a mysterious figure. The assassin Shujiro, to protect his family, once again draws the sword he had set aside, but in this brutal game where one must kill to survive, the ghosts of a past he wanted to keep buried are resurrected. *Last Samurai Standing* is a highly-anticipated project in which Okada Junichi takes on three roles: lead actor, action choreographer, and producer. This mega-blockbuster series boasts an all-star cast of Japan's top actors in both lead and supporting roles. With unprecedented scale and uncompromising quality, it is destined to redefine the landscape of Japanese drama production. (Karen PARK)

004 Sep 18 / 09:00 / BH 588 Sep 25 / 16:30 / C6

The Murky Stream

WP

탁류

Korea | 2025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CHOO Changmin** **추창민**



060 Sep 18 / 12:30 / L6 **132** Sep 19 / 16:30 / L4

“백성이 입을 닫고 살아야 태평성대지.” 『추노』의 천성일 작가가 14년 만에 선보이는 액션 사극 <탁류>는 조선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여드는 경강의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뢰배들의 혼탁한 다툼을 그린다. 과거를 감추고 마포 나루에서 일하며 품삯을 버는 시율(로운)은 월배 무덕(박지환)의 패악질에 시달린다. 한편 아버지의 상단을 이어받고자 하는 당찬 여인 최은(신예은), 올곧은 관리가 되고자 하는 신임 종사관 정천(박서함)까지, 세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은 경강 일대의 풍운을 몰고 온다. 휴남새 나는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공간의 디테일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추창민 감독의 탄탄한 미장센이 특히 돋보이는 가운데, 얹히고설킨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이 극의 흡입력을 더한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최초 한국 사극답게 안정감 있는 전개 위에 이전 사극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요소들을 개척하려는 크고 작은 시도들이 미덥다. (송경원)

“When the people keep their mouths shut, that is when peace reigns.” Written by Chun Sungil, the screenwriter of *The Slave Hunters*, *The Murky Stream* marks his return to the action period drama after 14 years. The film depicts the ruthless struggles of ruffians over the rights to Gyeonggang, the hub where all the money and goods of Joseon converge. Si-yul (Rowoon), who hides his past while earning a living at Mapo ferry dock, suffers under the tyranny of the thug Mudeok (Park Jihwan). Meanwhile, Choi-eun (Shin Yeeun), a bold young woman determined to succeed her father's merchant guild, and Jeong-cheon (Park Seoham), an upright new official aspiring to integrity, come together with Si-yul. The fateful encounter of these three unleashes turbulence across the Gyeonggang region. Director Choo Changmin's meticulous mise-en-scène, which maximizes the earthy textures of life and place, is especially striking. The tension that arises from entangled relationships further heightens the film's immersive power. As the first-ever Korean period drama produced as a Disney+ original series, it offers a stable narrative structure while taking bold steps to pioneer elements rarely seen in traditional historical dramas. (SONG Kyung-won)

The Resurrected

WP

회혼계

Taiwan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Leste CHEN, HSU Chao-jen** **천정다오, 쉬자오런**



054 Sep 18 / 20:30 / L4 **154** Sep 19 / 12:00 / SH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되어 희생된 딸들의 어머니 왕휘춘과 차오칭. 휘춘의 딸 진진은 몇 년째 의식불명 상태이고 칭의 딸 신이는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수많은 소녀들을 끔찍하게 희생시킨 범죄자 창 쉬카이이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사형대에서 악물 주입을 통해 조용히 숨을 거두고, 참회하는 듯했던 그의 가족들은 범죄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전히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각자의 삶의 산산함을 겪던 휘춘과 칭은, 이제 창을 소생시켜 그들만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부조리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회혼계>는 법도, 언론도, 사회도, 심지어 가족도 줄 수 없었던 위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두 여성의 여정을 그린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톱스타 서기와 리신제가 주연을 맡아, 극단으로 치닫는 밀도 있는 감정 연기와 액션을 선보이며 최고의 앙상블을 보여준다. (박선영)

Wang Hui-chun and Chao Ching are mothers whose daughters were kidnapped by a scam organization. Hui-chun's daughter Jin Jin has been in a coma for years, and Ching's daughter Hsin-yi was brutally murdered. Chang Shih-kai, who viciously victimized numerous girls, is quietly executed by injection without a word of apology, and his family, who seemed repentant, continue to enjoy a happy, wealthy life built on criminal profits. Hui-chun and Ching, each enduring hardships in their lives, decide to resurrect Shih-kai to exact their revenge. Their first step is to break free from the absurdity and oppression surrounding them. *The Resurrected* follows two women who take measures into their own hands to get the justice that the law, media, society, and even family failed to provide. Asian superstars Shu Qi and Lee Sinje take on the lead roles, delivering intricate emotional performances pushed to the extreme and actions. (PARK Sun Young)

Romantics Anonymous

WP

로맨틱 어나니머스

Japan/Korea/Indonesia | 2025 | 94min | DCP | color

Director **TSUKIKAWA Sho** **츠키카와 쇼**



133 Sep 19 / 20:30 / L4 **233** Sep 20 / 16:30 / SH

어린 시절엔, 이립의 나이가 되면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쇼콜라티에 하나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버겁고, 재벌 2세 소스케는 결벽증으로 인해 사람과의 접촉을 꺼린다. 이처럼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두 사람이지만, 초콜릿을 매개로 한 우연한 만남은 관계 맺기에 서툰 이들의 조심스러운 로맨스로 이어지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평범한 고민들과 공명한다. 한일 공동으로 제작된 <로맨틱 어나니머스>는 오구리 쉐와 한효주가 주연을 맡았으며, 연출과 각본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힘을 모아 완성했다. 아카니시 진이 소스케의 친구 히로 역으로 출연하며, 박혜경의 감미로운 「고백」의 일본어 리메이크 버전이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다. (박가연)

When you are young, you believe that by the time you turn thirty, you will be a composed adult, effortlessly navigating whatever life throws your way. But in reality, chocolatier Hana struggles even to make eye contact with others, and Sosuke, heir to a confectionery company, avoids human touch due to mysophobia. Though both fear exposing their own imperfections, a chance encounter over chocolate leads these two hesitant souls, clumsy at forming relationships, into a cautious romance. Their story is one that resonates with the ordinary struggles of today's youth, who dream of living more meaningful lives. The Japan-Korea co-production *Romantics Anonymous* stars Oguri Shun and Han Hyo-joo, with the direction and screenplay also completed through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alents from the two countries. Akanishi Jin appears as Sosuke's friend, Hiro, while a Japanese remake of Park Hey Kyoung's sweet ballad 'Confession' adorns the ending credits. (KAREN PARK)



Special Program in Focus I

특별기획 프로그램 I

아시아영화의 결정적 순간들

올해로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출범 이래 '아시아영화'의 정체성과 비전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빛나는 작품들을 세계에 소개했고, 수많은 아시아 창작자들과 깊이 교류해 왔다. 세월이 흐르며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도, 동시대의 거장으로 우뚝 선 이들도 있다. 우리는 그 모두를 기억하며, 그 기억을 발판 삼아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아시아영화 100'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억과 성찰을 바탕으로 2015년 시작되어, 5년 주기로 전 세계 영화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아시아 영화의 흐름과 가치, 그리고 시대적 울림을 기록해 왔다. 34개국 161명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 평론가, 연구자,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한 이번 세 번째 조사에서는 총 118편(동점작 포함)이 선정되었다. 특별전 "아시아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은 이 가운데 오늘의 시선으로도 여전히 깊은 감동과 가능성을 품은 10편이 스크린에 오른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를 비롯해, 2000년 뉴 커런츠상 수상작 <내가 여자가 된 날> (마르지에 메쉬키니), 중국 사회의 격변을 예리하게 포착한 <스틸 라이프> (자장카), 사라져가는 극장에 대한 차이밍량·이강성의 애절한 작별 <안녕, 용문객잔>, 중국 노동자들의 삶을 장대한 시선으로 기록한 <철사구> (왕빙), 홍콩 누아르의 완성도를 새롭게 정의한 <흑사회> (두가봉)를 선보인다. 한국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을 각색해 세계적 찬사를 받은 <버닝> (이창동)과 최근 뉴욕타임스 '세계 영화 100선'에 재등재된 <올드보이> (박찬욱)이 상영되며, 일본에서는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 배우 아키라 유아가 직접 소개하는 자신의 대표작 <아무도 모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2021 칸영화제 각본상을 포함해 전 세계 유수 영화상을 휩쓴 <드라이브 마이 카> (히마구치 류스케)가 선정되었다.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상영을 넘어, 상영 후 감독과 배우가 직접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탄생 배경과 창작 과정, 그리고 아시아 영화가 품은 미학적·사회적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관객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영화가 걸어온 길과 남겨온 흔적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는 118편의 선정작과 국내외 영화인들의 애정 어린 에세이를 담은 『아시아영화의 결정적 순간들 - 1996년 이후 최고의 아시아영화 100』을 발간한다. '내가 사랑한 아시아영화'라는 주제로 쓰인 글들은 단순한 비평을 넘어, 각자의 인생과 맞닿은 영화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상영관에서의 감동이 책 속 이야기로 확장되며, 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관객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남기를 바란다. 아시아 영화사의 결정적 장면들이 다시 스크린 위에서 펼쳐질 시간. 이번 특별전이 남길 순간이 또 다른 세대의 '결정적 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동주최: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한국영상자료원
Co-Organized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Film Institute, Korean Film Archive

Defining Moments of Asian Cinema

This year marks the 30th edi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since its inception in 1996 has continuously explored the identity and vision of 'Asian cinema.' Along the way, it has introduced countless brilliant works to the world and fostered deep exchanges with numerous Asian filmmakers. Time has passed—some have left us, while others have risen as towering masters of cinema in our era. We remember them all, and with those memories as our foundation, we take another step forward.

The 'Asian Cinema 100' project, launched in 2015 on the basis of such remembrance and reflection, has been conducted every five years through surveys of film experts worldwide. It has documented the flow, values, and resonance of Asian cinema across generations. For this third round, 161 directors, producers, actors, critics, scholars, and festival programmers from 34 countries participated, and a total of 118 works (including ties) were selected. From these, 10 films that still evoke deep emotion and hold promise today will be screened in the special program, 'Defining Moments of Asian Cinema.'

Among them are *This Is Not a Film* (Jafar Panahi, winner of this year's Asian Filmmaker of the Year Award); *The Day I Became a Woman* (Marziyeh Meshkini), winner of the 2000 New Currents Award; *Still Life* (Jia Zhang-Ke), a piercing depiction of China's social upheavals; *Goodbye, Dragon Inn*, a poignant farewell to vanishing movie theaters from Tsai Ming-Liang and Lee Kang-Sheng; *Tie Xi Qu: West of the Tracks* (Wang Bing), an epic chronicle of Chinese laborers' lives; and *Election* (Johnnie To), which redefined the Hong Kong noir genre. From Korea, the lineup features *Burning* (Lee Chang-dong), the Murakami Haruki adaptation that won worldwide acclaim, and *Old Boy* (Park Chan-wook), recently re-listed in *The New York Times*' '100 Best Films of the 21st Century.' From Japan, audiences will see *Nobody Knows* (Kore-eda Hirokazu), presented by its lead actor Yagira Yuya, who won Best Actor at Cannes, and *Drive My Car* (Hamaguchi Ryusuke), which swept prestigious awards worldwide including Best Screenplay at the 2021 Cannes Film Festival.

Co-organized b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Film Institute and the Korean Film Archive, this special program goes beyond simple screenings: post-screening Q&A sessions with directors and actors will offer audiences insights into the creative process, the backgrounds of these works, and the aesthetic and social meanings embedded within Asian cinema. Viewers will be able to encounter, in one place, the paths and traces left by Asian cinema that have taken place over the past few decades.

In addition, the festival will publish *Defining Moments of Asian Cinema - 100 Best Asian Films Since 1996*, which compiles the 118 selected films along with heartfelt essays by filmmakers and critics from Korea and abroad. Written under the theme 'My Beloved Asian Films,' these essays transcend criticism to capture cinematic moments intertwined with personal lives. In this way, the emotions experienced in the theater extend into the pages of the book, lingering in memory long after the festival has ended. It is time for the defining moments of Asian film history to unfold once more on the screen. The festival hopes that the moments created by this special program will become the 'defining moments' for a new generation.



국문



English

아시아영화 100 설문 결과 보러가기
View the Asian Cinema 100 Survey Results

The Day I Became a Woman

내가 여자가 된 날

Iran | 2000 | 74min | DCP | color

Director **Marziyeh MESHKINY** 마르지에 메쉬키니



093 Sep 19 / 20:30 / B3 238 Sep 20 / 20:30 / BCM

베니스영화제 CinemAvvenire Award 신인상

Goodbye, Dragon Inn

안녕, 용문객잔

Taiwan | 2003 | 82min | DCP | color

Director **TSAI Ming-Liang** 차이밍량



066 Sep 18 / 17:00 / L9 339 Sep 22 / 20:30 / B3

베니스영화제 경쟁 FIPRESCI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영화 <내가 여자가 된 날>은 하바, 아후, 후라 세 여성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엮는다. 9살 생일을 맞은 소녀 하바는 오늘이 여자가 된 날이라며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도,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서도 안 된다는 말을 듣는다. 젊은 여성 아후는 남편과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군의 여성들과 함께 바닷가 일주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경주에 참여한다. 노년 여성 후라는 거대한 뱀목에 물건을 가득 싣고 망망대해로 항해를 떠난다. 이 이야기는 하루 동안 세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일 수도,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한 여성의 평생에 거친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여성의 삶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이면서도 독자적인 경험의 구조를 매력적으로 펼쳐낸 여성영화의 고전을 스크린으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홍소인)

The Day I Became a Woman, a landmark in Asian women's cinema, weaves together the stories of three women—Hava, Ahoo, and Hooraa—into a series of episodes. On her ninth birthday, a young girl named Hava is told that today is the day she becomes a woman, and she is no longer allowed to go outside or play with boys. A young woman, Ahoo, defies her husband and family to participate in a women's bicycle race along a coastal road. An elderly woman, Hooraa, loads a giant raft with her belongings and sets sail into the open sea. This narrative could be about the events that happen to three women in a single day, or it could be the lifelong story of one woman progressing through childhood, youth, and old age. We invite you to see this classic of women's cinema on the big screen, which captivantly unfolds the universal yet unique structure of the female experience. (HONG So-in)

이제 폐관이 될 북화극장의 마지막 상영작인 <용문객잔>의 상영이 끝나고 극장이 밝아지면, 카메라는 스크린의 시점으로 텅 빈 객석을 바라본다. 그렇게 극장은 아주 한참이나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매표소 직원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객석을 정리한다. 마치 죽은 자를 떠나보내기 위한 염(殮)의 의식을 치르듯. 이 장면이야말로 <안녕, 용문객잔>의 모든 것으로 보인다. <안녕, 용문객잔>은 여인의 발자국 소리, 빗소리, 영사기 소리, 곳곳의 삐걱거리는 소리 등 극장의 작은 숨소리에서부터 누군가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하고 거둬들인 마음까지도 소중히 다룬다. 그렇게 북화극장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사연을 만들던 유령들을 기억한다. 북화극장을 배회하던 유령들, 끝내 극장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돈다. 매년 가을의 부산에 모이는 유령들처럼. (안시환)

When a screening of the film *Dragon Inn* ends and the lights come on, the camera gazes at the empty seats from the screen's perspective. It was the final screening at an old theater that is soon to be shut down, and for a long time it has been this way. The ticket attendant with a limp cleans the seats, laboriously walking up and down the steps. She works almost as though she is performing a ritual cleaning, shrouding the cinema's 'corpse' to bid farewell to the deceased. This scene captures everything about *Goodbye, Dragon Inn*, at least for me. The film tenderly handles the theater's quiet 'heartbeats'—the woman's footsteps, the pitter-pattering of rain, the projector's hum, and even creaks from the building—along with a teardrop suspended from someone's eye and feelings quietly swallowed in silence. In this way, it remembers the old theater and its ghosts, who created their own stories in their own corners. These ghosts who wander the old theater, unable to leave even at the end, linger still-like the ghosts who gather in Busan every autumn. (AHN Sihwan)

Old Boy

올드보이

Korea | 2003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Chan-wook** 박찬욱



092 Sep 19 / 16:30 / B3 **577** Sep 25 / 14:00 / C3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한국영화 걸작들이 쏟아진 2003년, 그 격전지 한가운데에서 강렬한 충격을 안기며 한국 너머 세계를 뒤흔든 영화를 꼽으라면 제일 첫 줄은 누가 뭐라 해도 <올드보이>의 뒤흔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두 번째인 이 영화는 동명의 일본만화를 바탕으로 전에 없던 복수극을 창조했다. 오늘날 대중 수습하며 살던 평범한 샐러리맨 오대수(최민식)는 어느 날 괴한에게 납치당해 15년 동안 감금당한다. 잡혀 올 때와 마찬가지로 풀려날 때도 갑자기 내란자진 오대수는 우연히 알게 된 여인 미도와 함께 자신을 가둔 범인 이우진(유지태)을 찾아 나선다. 박찬욱 감독 고유의 감각적이고 강렬한 미장센이 보는 이를 현혹하는 가운데 예측 불허의 서사가 불현듯 심장을 옥죄다. 2분 40초의 원 테이크 장도리 액션 등 전체를 압도하는 부분들이 실 새 없이 반짝이는 걸작. 신화적 원형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언뜻 익숙하고 모범적이면서도 모든 장면이 비범하다. (송경원)

Among the masterpieces that Korean cinema produced in 2003, a year of fierce competition, the film that delivered the most shocking impact—reverberating far beyond Korea to shake the world—was, without question, *Old Boy*. The second installment in PARK Chan-wook's 'Vengeance Trilogy,' the film is based on a Japanese manga of the same title but reinvents it into a wholly unprecedented revenge drama. Oh Dae-su (Choi Min-sik), an ordinary salaryman who muddled through life day by day, is suddenly abducted and imprisoned for fifteen years. Just as abruptly as he was captured, he is released, thrown back into the world. Teaming up with a young woman named Mi-do, whom he meets by chance, Dae-su sets out to track down his captor, Lee Woo-jin (Yoo Ji-tae). PARK Chan-wook's unique visual style—sensuous and striking—seduces the viewer, while the unpredictable narrative tightens its grip on the heart. From the legendary 2-minute 40-second single-take hammer fight to countless other unforgettable sequences, the film dazzles with brilliance at every turn. A masterpiece that feels at once archetypal and exemplary, yet in every scene utterly extraordinary—*Old Boy* has become nothing less than mythic. (SONG Kyung-won)

Tie Xi Qu: West of the Tracks

철서구

China | 2003 | 558min | DCP | color

Director **WANG Bing** 왕빙



188 Sep 20 / 11:30 / C3

토론토영화제 리얼투릴

* 상영 중 인터미션 3회(15분, 60분, 15분) 진행

* 3 intermissions (15 min, 60 min, 15 min) are scheduled during the screening.

21세기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상징적 얼굴인 왕빙의 신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세기가 열리고 가파르게 전개되는 산업 개혁의 파고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떠밀려가고 내쳐지는 중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이 잿빛 이미지에 담긴다. 중국 인민의 초상이라는 왕빙의 영원한 주제가 첫선을 보이는 순간이다. 20세기 끝 무렵 작은 DV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선양시 티에서 공업지구로 향한 왕빙은 그곳에서 2년간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때 이미 대부분의 공장들은 폐업 상태였다. 한때 100만 명에 이르던 그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닫자 하나둘 사라지고 왕빙이 만난 이들은 티에서 자구의 마지막 노동자들이다. 1부 녹, 2부 폐허, 3부 선로로 구성된 <철서구>는 러닝타임 558분에 이른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스크린으로 확인할 차례다.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항방을 바꾼 왕빙의 기념비적인 데뷔작. (강소원)

Here begins the myth of Wang Bing, the symbolic face of 21st century Asian documentary cinema. He captures the lives of Chinese laborers and their families, as they are swept up, pushed around, and cast aside by the turbulent industrial reforms that have unfolded rapidly at the turn of the new century. This is the moment Wang's eternal subject, capturing portraits of the Chinese people, makes its debut.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e took a small DV camera to the Tiexi district in Shenyang and spent two years with laborers. Most factories had already shut down by then. The laborers, who once numbered a million, had gradually left as the factories closed, and the last remaining workers in the district are who Wang Bing documents. Consisting of three parts titled 'Rust,' 'Remnants,' and 'Rails,' *Tie Xi Qu: West of the Tracks* runs 558 minutes. Now it is time to witness on screen why the film demands such a length. This is the monumental debut film by Wang Bing, who changed the course of Asian documentary cinema. (KANG Sowon)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Japan | 2004 | 141min | DCP | color

Director **KORE-EDA Hirokazu** 고레에다 히로카즈



013 Sep 18 / 09:00 / B2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1988년 도쿄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부모의 방치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네 남매의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네 번째 영화다. 감독은 아역배우들에게 대본 없이 상황만 설명한 채 그들의 감정이 이야기의 흐름에 조응하길 기다리며 1년 넘게 촬영을 이어갔다. 스스로 아이이면서도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 이키라 역을 맡은 아키라 유야는 전무한 연기 경험에도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낸다. 특히 후반부 동생의 시신을 묻으러 가는 장면에서 그의 연기는 절정에 이른다. 고독과 책임, 무력감이 교차하는 순간, 유야는 망연한 눈빛과 굳은 표정, 느린 걸음과 침묵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응축시키며 관객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놓는다. 이 영화로 그는 칸영화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조지훈)

Based on a true incident that occurred in Tokyo in 1988, *Nobody Knows* is Kore-eda Hirokazu's fourth feature film and a delicate portrayal of four siblings surviving amid parental neglect and social indifference. For over a year, the director filmed without a formal script, simply explaining each situation to the young actors and patiently allowing their emotions to shape the narrative organically. With no prior acting experience at all, Yagira Yuya plays Akira, the eldest son who must care for his younger siblings while still a child himself. He delivers a remarkably nuanced performance through natural expressions and gestures, convincingly conveying the character's complex inner world. His acting reaches its emotional peak in the latter part of the film, particularly in the scene where he sets out to bury his sibling's body. In that moment, Yuya channels an overwhelming mix of loneliness, responsibility, and helplessness, distilling unspeakable emotion into his vacant gaze, stoic face, slow steps, and heavy silence, leaving a profound impact in our minds. Yagira Yuya became the youngest ever recipient of the Best Actor Award at Cannes for his performance. (JO Ji-hoon)

Election

흑사회

Hong Kong, China | 2005 | 99min | 35mm | color

Director **Johnnie TO** 두기봉



566 Sep 25 / 20:00 / B3

칸영화제 경쟁

영화산업의 시스템과 감독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화적 스타일을 완성한 이를 작가라 부를 수 있다면, 두기봉은 홍콩의 작가임이 분명하고, <흑사회>는 그의 작가적 날인으로 가득한 영화다. <흑사회>는 그 뿌리를 홍콩 누아르에 두면서도, 이내 자신만의 스타일과 세계관으로 그 장르적 성격을 내파하며 홍콩 누아르를 새롭게 정의한다. 삼합회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면적 인물에서 입체적인 인물로 변모하는 록의 모습이나, 그런 아버지의 이면을 목격하고 정신적 혼돈에 빠진 아들의 모습은 홍콩 누아르 특유의 낭만적 분위기를 해체하려는 <흑사회>의 영화적 방향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두기봉에게 낭만적 영웅은 '개의 먹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흑사회>는 수정주의 웨스턴과 닮았다. 신화화된 장르를 해체하고, 그 자리를 풍속화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흑사회>는 2005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이다. (안시환)

If an auteur is defined as someone who perfected their cinematic style through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film industry systems and creators, then Johnnie To is certainly an auteur of Hong Kong cinema. And *Election* is a film that bears his authorial signature through and through. While rooted in Hong Kong noir, *Election* transforms the genre's characteristics through its own style and worldview, redefining Hong Kong noir. Lok's transformation from a flat character who upholds the traditional values of the triad into a round character of complexity, or the image of his son who is traumatized after witnessing his father's dark side and descends into psychological turmoil, clearly reveal the director's authorial style - transforming the romantic atmosphere characteristic of Hong Kong noir into something new and intricate. For To, a romantic hero is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than 'dog food.' In this respect, *Election* resembles the revisionist Western in dismantling the mythology of its genre and replacing it with a portrait of social reality. *Election* was selected for the Competition section of the 2005 Cannes Film Festival. (AHN Sihwan)

Still Life

스틸 라이프

Hong Kong, China/China | 2006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JIA Zhang-Ke** **지아장커**



016 Sep 18 / 20:20 / B2 221 Sep 20 / 16:30 / L7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스틸 라이프>의 엔딩의 외줄타기. 이 장면은 탄광의 일지리를 희망 삼아 길을 나선 노동자들의 모습과 함께 등장한다. 자신의 터전이었던 곳, 그 아름답던 곳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자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탄광이다. 결국, 외줄타기는 그들이 품는 희망의 모습이다. 최상의 대가인 생존이 최악의 대가인 죽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은 그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아장커는 그 단 한 컷의 외줄타기 속에 삶의 존재성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담는다. 15년 만에 산밍 부부가 재회하는 모습 뒤로 건물 하나가 또다시 주저앉는다.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밍은 다시 찾은 가족을 위해 외줄타기 같은 삶을 살아나기로 한다. 그것이 삶이다. 한마디로 <스틸 라이프>는 사려 깊은 영화다. (한시환)

In the final shot of *Still Life*, the tightrope walk scene appears onscreen alongside laborers setting out on the road, their hopes pinned on coal mining jobs. For those who must destroy the very place that was once their livelihood with their own hands—that beautiful place—the perilous coal mine has become their only hope of survival. In the end, the tightrope walk represents the hope they cling to. Though their greatest reward is mere survival, which seems meager compared to the ultimate price of death, they will give everything for that life. In that single tightrope walking scene, Jia Zhang-Ke captures the essence of existence, the very reason to live. Behind Sanming and his wife reuniting after fifteen years, a building collapses. Even if the whole world crumbles this way, Sanming will continue living, as if walking a tightrope, for the family he has found again. That is life. *Still Life* is, ultimately, a profoundly contemplative film. (AHN Sihwan)

This Is Not a Film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France | 2011 | 78min | DCP | color
Director **Jafar PANAHI, Mojtaba MIRTAHMASB**
자파르 파나히, 모즈타바 미르타마스브



014 Sep 18 / 13:10 / B2

칸영화제 스페셜스크리닝

영화 제작을 20년간 금지당하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감독에게 가택연금은 창작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하지만 <씨름>(2000)과 <붉은 황금>(2003)의 국제적인 성공에 이어 창작열에 불타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집요함은 멈출 수가 없다. 그는 동료 다큐멘터리 감독 모즈타바와 함께 휴대전화와 캠코더로 기록을 남긴다. 무겁게만 느껴지는 작품의 배경과는 달리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는 은은한 단맛이 풍겨 나오는 따스한 차 한잔의 포근함처럼 관객을 매료시킨다. 새로운 영화에 대한 구상을 말하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르네 마그리트풍으로 비꼬는 제목은 창작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메타적인 응답이다. 무기명으로 가득 찬 엔딩크레딧을 보며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는 이 작품을 통해 관객은 그의 따스한 이웃으로 초대된다. (박성호)

For a director banned from filmmaking for twenty years and sentenced to six years in prison, house arrest is tantamount to a death sentence for creativity. However, following the international success of *The Circle* (2000) and *Crimson Gold* (2003), the tenacity of director Jafar Panahi, who burns with creative passion, cannot be stopped. He and his fellow documentary filmmaker Mojtaba Mirtahmasb create a record of his confinement using a mobile phone and a camcorder. Despite the heavy circumstances surrounding its production, *This Is Not a Film* captivates the audience like the cozy warmth of a cup of tea with a hint of subtle sweetness. The René Magritte-style ironic title—implying that talking about an idea for a new film is not the same as making one—is a meta-response to a reality that suppresses creation. As you watch the ending credits filled with anonymous names, the film leaves you with the question, “What is a film?” and through it, the audience is invited to become his warm-hearted neighbor. (PARK Sungho)

Burning

버닝

Korea | 2018 | 148min | DCP | color
Director **LEE Chang-dong** **이창동**



227 Sep 20 / 19:30 / L10 564 Sep 25 / 11:30 / B3

칸영화제 경쟁 FIPRESCI상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각색한 <버닝>은 두 남녀와 정체불명의 남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그린 영화다. 종수는 우연히 어릴 적 동네 친구 해미를 만난다. 종수는 밝지만 공허한 분위기를 풍기는 해미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해미는 종수에게 고양이를 부탁한 채 돌연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얼마 뒤 해미는 젊고 부유하지만 뭘 하는지 의심스러운 남자 벤과 함께 귀국한다. 세 남녀의 팽팽한 긴장을 그린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 미스터리 스릴러를 골격으로 삼지만 여전히 이창동의 연장선에서 세계를 그리고 이해한다. 카메라는 죄의식을 가진 주체의 내면을 직접 파고드는 대신 죄의식을 둘러싼 상황과 풍경, 비유하자면 퍼져나가는 파장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쪽에 가깝다. 미니멀한 스토리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 있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각 장면마다 상징적인 요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촘촘한 메타포의 그물을 형성한다. 특히 음악과 사운드의 조율이 실로 탁월하다. 감독이 바라본 상실, 분노, 혼란 등 시대의 분위기를 영화적 형식으로 해체한 뒤 이미지에 투영한 드물고 귀한 시도다. (송경원)

Based on Murakami Haruki's short story, *Barn Burning*, *Burning* is about the enigmatic relationship between three people. Jongsu meets childhood friend Haemi, who seems to be lively but somewhat hollow, and falls for her. But Haemi asks him to take care of her cat while she takes off for Africa. When she returns, she is with the young and rich but mysterious Ben. The tight tension among the three classifies this film as a mystery thriller, but it is still an extension of Lee Chang-dong's world. Rather than directly burrowing into the inner life of the guilty, the camera sensitively captures the butterfly effect of everything surrounding guilt. The storyline is minimal, but filled with unbelievably dense scenes full of symbolic elements making up a tight-knit net of metaphors. The harmony of music and sound is exceptional. The film is rare and valuable attempt by the director to disband this era's mood of loss, anger and chaos in filmic form and project it into an image. (SONG Kyung-won)

Drive My Car

드라이브 마이 카

Japan | 2021 | 180min | DCP | color
Director **HAMAGUCHI Ryusuke** **하마구치 류스케**



018 Sep 18 / 14:00 / B3 147 Sep 19 / 15:00 / L10

칸영화제 각본상

하마구치 류스케의 여덟 번째 장편영화로, 연극 연출가 가후쿠가 초청받은 연극제에서 배정된 전속 운전자 미사키와 함께 겪게 되는 치유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배우 니시지마 히데토시가 있다. 그는 배신과 상실을 연이어 경험한 가후쿠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절제된 연기로 담아낸다. 가후쿠는 연극 『바나 아저씨』의 다국적 배우들과 연습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과 대면하게 된다. 니시지마는 가후쿠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내면화하면서 관객을 조용히 영화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픔, 후회, 이해, 그리고 용서를 통과해 다시 삶을 선택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니시지마 히데토시의 섬세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대표작이다. (조지훈)

Drive My Car, Hamaguchi Ryusuke's eighth feature film, follows the healing journey of theater director Kafuku and his assigned chauffeur Misaki during a theater festival. At the heart of this story is actor Nishijima Hidetoshi, who delivers a restrained and deeply moving performance as Kafuku—a man grappling with betrayal and loss. While rehearsing *Uncle Vanya* with a multinational cast, Kafuku forms new relationships and is gradually confronted with the emotions he had long buried within himself. Nishijima masterfully internalizes Kafuku's subtle emotional shifts, quietly drawing the audience into the film. Through this nuanced portrayal, the film unfolds a profound journey of healing and recovery, moving through pain, regret, understanding, and ultimately, forgiveness. It is a definitive work that showcases Nishijima Hidetoshi's delicate yet grounded performance at its finest. (JO Ji-hoon)

Special Program in Focus II

특별기획 프로그램 II

마르코 벨로키오, 주역의 영화

Marco Bellocchio, the filmmaker
who never stopped raising his fist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이자 이탈리아의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는 안토니오니, 파올리니,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와 동시대를 호흡한 인물로, 현대 영화사에서 가장 강렬하고 저항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온 감독입니다.

60년 전 스물다섯의 벨로키오는 첫 장편 <호주머니 속의 주먹> (1965)을 발표합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누벨바그에 대한 이탈리아의 응답', '이탈리아 영화의 새로운 세대 선언문'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60년대 청년 세대가 겪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그린 이 영화는 지금 보아도 여전히 대담하고 혁명적인 걸작입니다. 주인공이 내지르는 분노의 절규는 이후 60년간 이어질 벨로키오 영화 세계의 주제를 예고합니다. 줄곧 사회적·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영화들을 통해 시대와 맞서는 벨로키오 감독은 반세기가 넘도록 치켜들었던 주먹을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듯 보입니다.

벨로키오는 관객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매혹적인 영상을 창조해온 '이미지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호주머니 속의 주먹> (1965)에서의 거칠고 격렬한 이미지는 주인공의 광기 어린 살의와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승리>와 <익스테리아, 나이트>에서는 오페라처럼 몽환적이고 절제된 이미지를 펼쳐 보입니다. 몇몇 장면은 카라바조의 영암법(카로스쿠로)을 연상시키며, 마치 살아있는 회화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승리>에서의 실험적인 아카이브 영상 활용은 영화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그와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회고전 마르코 벨로키오, 주역의 영화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적 규범에 맞서 싸우는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허공으로의 도약>, <육체의 악마>, <승리>에서는 여성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하는데, 감독은 일관되게 가부장적 권위를 해체해야 할 억압적 구조로 묘사해 왔습니다.

마르코 벨로키오는 현대 이탈리아 역사에 가장 예리한 시선을 던진 감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승리>에서는 파시즘과 맞서고, <굿모닝, 나잇>과 <익스테리아, 나이트>에서는 1970년대의 테러리즘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폭력적 이데올로기와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날카롭게 추적합니다. 최신작 <쁘르토펬로> (2025)에서는 '정의'조차 어떻게 무고한 이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왜곡된 권력이 될 수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또한 <마르크스 켄 웨이트> (2021)는 벨로키오가 자신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으로, 감독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담겨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벨로키오의 영화에서 '과거'는 현재를 위협하는 유령이자,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60년간 그가 만든 50편이 넘는 걸작들은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급하고 여전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한 청년이자 저항의 시네아스트, 마르코 벨로키오. 이 거장과 함께하는 뜨거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승희)

One of the greatest living filmmakers and a towering figure of Italian cinema, Marco Bellocchio breathed in the same era as Antonioni, Pasolini, and Bertolucci. He has consistently created some of the most powerful and rebellious works in modern film history.

Sixty years ago, at the age of twenty-six, Bellocchio released his debut feature *Fists in the Pocket* (1965). Hailed as 'Italy's answer to the French New Wave' and 'a manifesto for a new generation of Italian cinema,' the film symbolically portrays the resistance of the youth of the 1960s against social oppression. Even today, it remains a bold and revolutionary masterpiece. The protagonist's furious cries of rage foreshadow the themes that would define Bellocchio's work over the next six decades. Since then, Bellocchio has continued to confront the times through films that dream of liberation from social and political oppression, seems never to have lowered the fist he has rais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Bellocchio is also a true 'maestro of images,' crafting a mesmerizing visual that sears itself into the viewer's memory. In *Fists in the Pocket* (1965), the raw and violent imagery aligns perfectly with the protagonist's murderous madness; in *Vincere* or *Exterior Night* he unfolds dreamlike and visuals, as if in an opera; while certain scenes evoke the chiaroscuro of Caravaggio, like true living paintings. The experimental use of archival footage in *Vincere* stands as a remarkable example of how cinema can remember history and engage in a dialogue with it.

The films presented in this retrospective, 'Marco Bellocchio, the filmmaker who never stopped raising his fist,' all center on characters who defy social conventions, no matter the cost. In *A Leap in the Dark*, *Devil in the Flesh*, and *Vincere*, women take the lead as agents of resistance, as Bellocchio consistently portrays patriarchal authority as an oppressive structure that must be dismantled.

Marco Bellocchio is among the directors who have cast the sharpest eye on modern Italian history. In *Vincere*, he confronts fascism; in *Good Morning, Night* and *Exterior Night*, he directly addresses the terrorism of the 1970s, keenly exposing the dangers of violent ideology and the abuse of power. His latest work, *Portabello* (2025), exposes how even 'justice' can become a distorted form of power that drives the innocent into hell.

Meanwhile, *Marx Can Wait* (2021) is a courageous self-examination, in which Bellocchio confronts his own family history and personal past, occupying a unique place in his filmography.

In Bellocchio's cinema, the 'past' is both a haunting ghost threatening the present and an object of reflection. The more than fifty works he has created over the last sixty years are not mere retrospectives; they continue to pose urgent and essential questions for today.

An eternal youth, a cinéaste of resistance—Marco Bellocchio. We invite you to join us on this passionate journey with this master filmmaker. (SEO Seunghee)

Fists in the Pocket

호주머니 속의 주먹

Italy | 1965 | 110min | DCP | b&w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247 Sep 21 | 16:30 / B1 336 Sep 22 | 10:00 / B3

베니스영화제

* 영화 상영 전 'BIFF 시네마 마스터 명예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Before the screening, a ceremony will be held to present the BIFF Cinema Master Honorary Award.

A Leap in the Dark

허공으로의 도약

Italy/France/Germany | 1980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253 Sep 21 | 09:00 / B3 337 Sep 22 | 13:00 / B3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마르코 벨로키오의 첫 장편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프랑스 누벨바그에 대한 이탈리아식 응답으로 평가받으며 평단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한 부르주아 청년이 가족에 맞서며 점차 광기로 치닫는 반항의 여정을 그린 <호주머니 속의 주먹>은 지금 보아도 여전히 대담하고 혁명적인 걸작이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이 토해내는 분노의 절규는 이후 60년간 마르코 벨로키오 필모그래피 전체를 관통하며 울려 퍼진다. (서승희)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만들었을 때 나의 첫 번째 욕망은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나는 24세나 25세쯤 된 아주 젊은 나이였고, 연출로 학위를 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예산으로 작은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촬영은 방학마다 방문했던 보비오에서 진행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 작업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 마르코 벨로키오, 라디오 프랑스, 2023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Marco Bellocchio's debut feature, *Fists in the Pocket*. The film was met with critical acclaim as Italy's answer to the French New Wave. Depicting the rebellious descent of a bourgeois youth as he turns against his family and spirals into madness, *Fists in the Pocket* remains a bold and revolutionary masterpiece even today. The protagonist's explosive cries of rage echo powerfully throughout Bellocchio's entire filmography over the six decades that followed. (SEO Seunghee)

“When I made *Fists in the Pocket*, my first desire was to understand who I was. I was very young, only 24 or 25, and I had just earned my directing diploma, but that wasn't enough. I needed to test myself. So, with a very practical mindset, I decided to make a small film on a modest budget. We shot everything in Bobbio, the town where I spent all my holidays. Filming in such a familiar environment, in my mother's and father's houses, was a great help.”
— Marco Bellocchio, interview with Radio France, 2023

“비극이든 불행이든 모두 어린 시절로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허공으로의 도약>에 대한 벨로키오의 설명이다. 베르히만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이 강렬한 드라마는 억압적인 사회의 순응주의에 맞서는 한 여성의 반란을 그린다. 미셀 피콜리와 아누크 에메는 1980년 칸영화제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았는데, 한 편의 영화로 남녀 배우가 동시에 상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벨로키오는 탁월한 연출력으로 남매가 함께 사는 아파트를 과거와 현재가 뒤엉키는 어둠의 미로로 변모시키며 영화의 배경을 마치 유령의 집처럼 불안감을 자아내는 정신적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서승희)

“주인공 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라며 어린 형제자매들을 부모처럼 보살폈어요. 이 부르주아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여동생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다른 길'을 선택하죠. 가족은 그녀의 도피와 반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직 '광기'로만 받아들입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Cinema Sessanta, 1980

“There is no tragedy, no misfortune that has not been prepared by our childhood,” said Bellocchio about his film *A Leap in the Dark*. This powerful drama, reminiscent of Ingmar Bergman's work, depicts a woman's rebellion against conformity in an oppressive society. Michel Piccoli and Anouk Aimee won Best Actor and Best Actress awards at Cannes in 1980 for their performances, an unprecedented feat where two actors from the same film claimed both honors. Bellocchio, with his masterful direction, transforms the apartment shared by the siblings into a dark labyrinth where past and present intertwine, and reimagines the film's setting as a psychological space that evokes an eerie sense of unease, like a haunted house. (SEO Seunghee)

“The two protagonists have lived together since birth, assuming parental roles for their younger siblings. Their bourgeois life is marked by a kind of stagnation, where everything feels perpetually frozen in place. That is, until the sister chooses a different, unconventional path that defies the norms of ordinary life. The rest of the family is unable to grasp the meaning behind her escape, her act of rebellion, and instead interpret it as madness.”
— Marco Bellocchio, interview with Cinema Sessanta, January-February 1980

Devil in the Flesh

육체의 악마

Italy | 1986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248 Sep 21 / 20:30 / B1 329 Sep 22 / 09:00 / B1

칸영화제 감독주관

고등학교생인 한 청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여겨지는 연상의 여인과 격렬한 사랑에 빠진다. 이들의 사랑은 가족과 사회에 정면으로 맞서는 반란이 된다. 그녀의 약혼자는 붉은 여단의 일원으로 수감 중인데, 국가와 협조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약속받은 '협력자'(펜티토)다. 벨로키오는 <육체의 악마>에서 남성 중심의 법과 질서에 맞서 싸우는 한 여성의 초상을 아름답고 강렬하게 그려낸다. 특히 이 영화의 솔직하고 거러짐 없는 러브신은 1986년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고다르트의 <미녀 갱 카르멘>(1983)에서 주연을 맡았던 마루슈카 데르메르는 <육체의 악마>에서도 관능적이고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다. 이들의 사랑을 감독은 비극으로 그리지 않는다. 육체적 정신적인 러브스토리로 <육체의 악마>는 벨로키오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밝은 작품 중 하나다. (서승희)

“레이몽 라디게의 원작 소설을 각색해 저희 세대에게 의미 있는 갈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는 '전복적인' 방식에 대한 탐구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순응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복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전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칸영화제 감독주관 프로그램 노트, 1986

A high school student falls passionately in love with an older woman deemed mentally unstable. Their relationship becomes an act of rebellion that clashes with familial expectations and societal norms. The woman's fiancé, a member of the Red Brigade, is currently imprisoned. As a 'pentito' he's been promised a reduced sentence in exchange for cooperating with the authorities. In *Devil in the Flesh*, Bellocchio creates a beautiful, powerful portrait of a woman fighting against a male-centered system of law and order. In particular, the film's frank and unreserved love scenes delivered a fresh shock to audiences in 1986. Maruschka Detmers, known for her lead role in Jean-Luc Godard's *First Name: Carmen*, brings both sensuality and emotional depth to her portrayal of the rebellious woman. Despite the challenges in the protagonists' relationship, Bellocchio steers the film away from tragedy. A physical and psychological love story, *Devil in the Flesh* stands as one of the most bright works in his filmography. (SEO Seunghee)

“By adapting Raymond Radiguet's novel, I wanted to recreate a conflict that would resonate with my generation. This film is a study of the subversive ways of falling in love with a woman. Since there is a new form of conformism in our society, there must also be a new form of subversion. For me, subversion today must be collective, and it is society itself that needs to be changed.”
— Marco Bellocchio, Program Note for Directors' Fortnight at the Cannes Film Festival, 1986

Good Morning, Night

굿모닝, 나잇

Italy | 2003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252 Sep 21 / 20:30 / B2 331 Sep 22 / 16:30 / B1

베니스영화제 경쟁

1978년, 공산당과 기독교민주당 사이에서 역사적 타협을 주도한 알도 모로 총리의 납치와 살해 사건은 이탈리아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벨로키오는 이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조국의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매혹적인 미학을 구현하는 <굿모닝, 나잇>은 1970년대 정치적 폭력을 다룬 작품 중 가장 지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영화다.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어떻게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가?” (서승희)

“저는 2000년대에 <굿모닝, 나잇>을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25년 전에 벌어진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단순히 붉은 여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내세워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젊은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한 인간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의 이념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Le blog du cinéma, 2016

The 1978 kidnapping and murder of Prime Minister Aldo Moro, the architect of the historic compromise between the Italian Communist Party and Christian Democracy, remains one of the most shocking events in Italian modern political history. Bellocchio revisits this incident with his own lens, confronting the history of his homeland with an unflinching gaze. With a haunting aesthetic that weaves reality and dream together, *Good Morning, Night* stands as one of the most intellectual and profound films of the 1970s that grappled with the political violence of the era. At its core, the film poses a timeless and piercing question: How did young idealists become monsters? (SEO Seunghee)

“I made *Good Morning, Night* in the 2000s, and it tells the story of a tragedy that took place 25 years earlier. (...) So this film isn't simply about recounting the actions of the Red Brigades, but rather about describing and portraying the process of dehumanization these young terrorists underwent in the name of ideology. They end up killing a man because he represents an idea.”
— Marco Bellocchio, interview with “Le blog du cinéma,” 2016

Vincere

승리

Italy/France | 2009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332 Sep 22 / 20:00 / B1 429 Sep 23 / 09:30 / C4

칸영화제 경쟁

파시스트 정권의 잔혹함을 드러내기 위해 벨로키오는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숨겨진 연인이자 그의 아들의 어머니였던 한 여성의 삶을 되짚는다. 그리고 절대 권력에 맞서 평생 진실을 추구했던 그녀에게 마침내 정의를 되찾아준다. <승리>에서 벨로키오는 남성 지배 구조를 파시즘과 동일 선상에 놓는다. 오페라처럼 유려하게 흐르는 미장센 속에서 젊은 무솔리니는 명암의 경계에 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우의 얼굴은 뉴스 필름 속 실존 인물인 무솔리니로 치환된다. 벨로키오는 이를 통해 한 인간이 자만심으로 가득 한 정치적 괴물, 즉 파시스트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승리>는 여전히 현대 영화사의 결작 중의 결작으로 남아 있다. (서승희)

“저는 이 여성, 그리고 타협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 안락함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많은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솔리니의 다른 연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모든 것을 — 자신의 재산까지도 — 바쳤던 그 남자의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칸영화제 프로그램 카탈로그, 2009

To shed light on the brutality of the Italian fascist regime, Marco Bellocchio traces the life of a woman—Benito Mussolini's secret lover and mother to his son. He restores justice to this woman, who spent her entire life confronting powers far stronger than herself to reveal the truth. In *Vincere*, Bellocchio equates male dominance with fascism. In a mise-en-scène that flows with the elegance of opera, the young Mussolini is positioned at the threshold between light and darkness. Then the actor playing Mussolini transforms into the real Mussolini of newsreels, and through this shift the director shows how a human becomes a concealed political monster—a fascist. *Vincere* remains a masterpiece of modern cinema. (SEO Seunghee)

“I was deeply moved by this woman and by her absolute refusal to compromise. In truth, she could have accepted a return to the shadows—she might even have greatly benefited from it, as many of Mussolini's other mistresses did... But not her. She wanted to assert her own identity. She couldn't accept the betrayal of a man she had loved with absolute devotion, to whom she had given everything, including her inheritance.”
— Marco Bellocchio, Cannes Film Festival program, 2009

Marx Can Wait

마르크스 캔 웨이트

Italy | 2021 | 91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101 Sep 19 / 20:40 / C1 484 Sep 24 / 20:00 / B1

칸영화제 칸프리미어

마르코 벨로키오의 <눈, 입>(1982)은 주인공이 쌍둥이 형의 자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형에게 ‘자본론’을 읽어보라고 권하자, 형은 짧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마르크스 캔 웨이트” 그로부터 40년 후, 벨로키오의 다큐멘터리 <마르크스 캔 웨이트>를 보면 그 대사가 다름 아닌 감독 자신의 쌍둥이 형제 카밀로 벨로키오가 실제로 했던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르크스 캔 웨이트)는 단순한 다큐멘터를 넘어, 벨로키오 감독의 진솔한 고백이며 한 사람을 이해하고 진실에 닿으려는 탐구의 여정이다. (서승희)

“우리 가족의 비극을 극영화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어요. <마르크스 캔 웨이트>를 만든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당시에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이 비극이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 같은 주제로 다시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그 비극의 진실을 더 깊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저와 형제자매들이 그의 고통과 불안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건넨 도움이 얼마나 부족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프랑스 퓌르 라디오, 2023

Marco Bellocchio's *Eyes and Mouth* (1982) begins with the protagonist returning to his hometown upon hearing the news of his twin brother's suicide. In one scene, the protagonist asks his brother to read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and his brother answers briefly and calmly. “Marx can wait.” Forty years later, Bellocchio's documentary *Marx Can Wait* reveals that those three words were actually spoken by the director's twin brother, Camillo. *Marx Can Wait* is more than just a documentary; it is Bellocchio's heartfelt confession and a journey of inquiry—an attempt to understand a person deeply and to approach the truth. (SEO Seunghee)

“When I used fiction to tell this family tragedy, I was less free than I am today. I am much freer now, after making *Marx Can Wait*. My mother was still alive then, and I was afraid for her, because this tragedy had shaken the entire family... Making a second film about the same topic allowed me to recognize the truth of this tragedy more deeply. I still don't understand why my brother took his own life. But I've come to understand that my siblings and I never grasped the magnitude, the depth of his suffering and anguish. We all have acknowledged the inadequacy of the help we gave.”
— Marco Bellocchio, interview with France Culture Radio, October 30, 2023

Exterior Night

익스테리어, 나이트

Italy/France | 2022 | 330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244 Sep 21 / 23:59 / BH

칸영화제 칸프리미어

Portobello

쁘르뜨벨로

Italy/France | 2025 | 127min | DCP | color/b&w

Director **Marco BELLOCCHIO** 마르코 벨로키오



100 Sep 19 / 17:30 / C1 410 Sep 23 / 16:00 / B2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굿모닝, 나잇>(2003) 이후 19년 만에 마르코 벨로키오는 알도 모로 납치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시 한번 파헤친다. 구로사와 이키라리의 <라쇼몽>(1950)처럼 <익스테리어, 나이트>는 붉은 여단에 납치된 정치인 알도 모로의 이야기를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각기 다른 인물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간다. 알도 모로 자신은 물론 그의 아내, 교황, 내무부 장관, 그리고 납치에 가담한 붉은 여단의 여성 등. 각자의 시각에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난다. 영화는 알도 모로의 망령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탈리아 정치의 무대를徘徊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하다. (서승희)

“제 중요한 관심사는 인물들의 내면, 특히 모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그가 혼자이고, 포로이며, 권력을 박탈당한 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모로는 일종의 순교자처럼 되어버렸지만, 그것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약점이기보다 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정치적 폭로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리베라시온, 2023

Nineteen years after *Good Morning, Night* (2003), Italian master Marco Bellocchio delves into the truth behind the official narrative of the Red Brigades kidnapping and murder of Aldo Moro. Similar to Kurosawa Akira's *Rashomon* (1950), *Exterior Night* structures the story in six episodes, each to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Moro himself, his wife, the Pop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a Red Brigades member who took part in the kidnapping. Through their eyes, Bellocchio rewrites history, gradually exposing the truth of the incident. The film seems to remind us that the specter of Aldo Moro continues to haunt the Italian political stage to this day. (SEO Seunghee)

“What interested me most was going inside the characters, especially Moro... I wanted to show him alone, a prisoner, stripped of power, surrounded by people he didn't understand and who didn't understand him. To reveal his human fragility, his absolute desire to live. Moro became a kind of martyr, but against his will. He didn't want to die! What I wanted to portray was not so much his weaknesses but his humanity. The political revelations—although they are present—were not what motivated me.”
— Marco Bellocchio, interview with Elisabeth Franck-Dumas, *Libération*, March 9, 2023

정의라는 이름 아래 집행되는 사법이 때로는 큰 부정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비극과 스릴러의 경계에서 <쁘르뜨벨로>는 실존 인물 엔조 토르토라 (1928-1988)의 충격적인 실화를 따라간다. 인기 TV 프로그램 'Portobello'의 진행자로 국민적 사랑을 받던 그는 마피아와의 연루 혐의로 하루 아침에 나라으로 떨어진다. <익스테리어, 나이트>에서 알도 모로를 연기했던 파브리치오 지푸니가 이번에는 토르토라로 분해 진실을 외면한 사법 체계에 맞선 한 인간의 고통과 투쟁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훔미로노 스릴러이자 치밀한 법정 드라마인 (쁘르뜨벨로)는 언론과 사법, 그리고 마피아가 얽힌 이탈리아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또한 이 작품은 사법이라는 이름의 권력이 한 무고한 개인을 어떻게 짓누르고 침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쓸쓸한 초상이다. (서승희)

“토르토라는 엄청난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랜 사법적 오디세이 끝에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투사였지만 그 싸움은 그를 병들게 했고 결국 그의 이른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토르토라를 ‘성인(聖人)’ 같은 인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물과 이야기에 담긴 복잡한 위양상을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 마르코 벨로키오, 바라라이어터, 2024

Can a justice system, executed in the name of justice itself, become the very force that gives rise to the gravest injustice? Walking the line between tragedy and thriller, *Portobello* retraces the shocking true story of Enzo Tortora (1928-1988), a real-life figure whose life was upended by one of Italy's most infamous miscarriages of justice. Beloved as the host of the wildly popular TV program 'Portobello', Tortora falls from grace overnight after being falsely accused of involvement with the mafia and drug trafficking. Fabrizio Gifuni, who left a deep impression as Aldo Moro in *Exterior Night*, takes on the role of Enzo Tortora, bringing nuanced depth to Tortora's pain and struggle as he fights against a judicial system that refuses to face the truth. A gripping thriller and a meticulously constructed courtroom drama, *Portobello* incisively captures the tangled web of media, judiciary, and organized crime in Italian society. It is a somber portrait of how power, cloaked in the language of justice, can silence and destroy an innocent life. (SEO Seunghee)

“Tortora suffered a great injustice: arrested, tried and convicted, he was fully acquitted only after a long judicial odyssey. He was a fighter, but the fight made him sick and led to his premature death. I didn't want to turn Tortora into a saint-like figure, but rather to explore the complexities and nuances of his character and story.”
— Marco Bellocchio, *Variety*, September 25, 2024

Special Program in Focus III

특별기획 프로그램 III

줄리엣 비노쉬, 움직이는 감정

Juliette Binoche, Between Motion and Emotion

줄리엣 비노쉬는 고통을 직시한다. 온몸으로 통과하고, 그 끝에 허락된 환희를 발견한다. 그리고 웃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극강의 고통과 불꽃처럼 터지는 희열을 동반하고 있음을 이 배우는 말해왔다. 남편과 딸을 자동차 사고로 잃은 후 돌베에 손등을 갈듯이 긁어버리던 <세 가지 색 : 블루>의 줄리, 연인을 잃고 멀어져 가는 시력을 붙잡는 채 폭죽이 터지는 다리 위에서 행복인지 통증인지 알 수 없는 춤을 추던 <퐁네프의 연인들>의 미셀, 아들을 잃은 비통함을 눈이 아니라 다리 사이 소변으로 흘려보내던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의 어머니 안나처럼. 빛바래져 가는 관능과 젊음(<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유전되지 않은 재능에 대한 슬픔까지(<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외면하지 않고 바라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세상, 뺏기고 사라져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세계. 줄리엣 비노쉬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한 영화의 미장센이 된다. 레오스 카락스, 크쥐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 올리비에 아사야스, 허우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트란 안 흥까지 다국적의 창작자들이 매혹된 것은 고통 앞에 놓인 이 배우의 얼굴이다. 줄리엣 비노쉬는 상실과 박탈로 비워진 백지장 같은 얼굴 위로 감정의 레이어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 그리고 서사의 언덕 위에 천천히 응집시킨 감정의 폭풍을 마침내 일으킨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신선한 삶의 생각이 점시를 채우는 <프렌치 수프>의 요리사 외제니처럼 줄리엣 비노쉬는 쓰디쓴 삶을 초콜릿처럼 녹여내고, 그 에너지로 다시 사랑을 꿈꾼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아이처럼 깔깔 웃는다. 그 환희는 온몸으로 표출된다. 안무에 갇히지 않은 채 상대의 우주와 조화롭게 스며드는 줄리엣 비노쉬의 몸짓은 <퐁네프의 연인들>로부터 다큐멘터리 연출자 <인-아이 인 모션>에서도 유유히 이어진다. 결국 줄리엣 비노쉬가 음성, 표정, 몸짓 같은 육체의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전달하려 하는 것은 감정이다. 형태를 규정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질량과 중력으로 존재하는 감정. 그 힘을 때론 부표로, 때론 발판으로 삼아 이 배우는 여기까지 흘러오고 달려왔다. 결국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배우의 본령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줄리엣 비노쉬는 그 감정을 품은 채 영화의 강으로 투신한다. 그리고 어디로든 흘러간다. (백은하)

Juliette Binoche directly confronts suffering. She experiences it with her entire body and discovers the bliss allowed to her at the end. And she laughs. She has expressed that being alive ultimately encompasses both extreme agony and explosive bliss. Like Julie in *Three Colours: Blue*, who, after losing her husband and daughter in a car accident, drags her hand along a stone wall, scraping her knuckles raw, like Michèle in *The Lovers on the Bridge*, who danced, either in happiness or in pain, on the bridge after losing her lover, under bursting fireworks as her eyesight fades; like Anna in *The Wait*, who lets the profound grief of losing her son flow from her body not as tears from her eyes but as urine between her legs. From fading sensuality and youth (*Clouds of Sils Maria*) to disappointment over talent that wasn't inherited (*The Truth*), she doesn't avoid confronting harsh realities—worlds where her loved ones are gone, where nothing remains after everything has been taken away and vanished. Juliette Binoche's face in itself becomes the most vital element of the film's mise-en-scene.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Leos Carax, Krzysztof Kieslowski, Olivier Assayas, Hou Hsiao-hsien, Kore-eda Hirokazu, and Tran Anh Hung, have been captivated by her face in moments of suffering. On her face, emptied by loss and deprivation, she builds emotions layer by layer. And at the narrative's climax, she finally unleashes the emotional storm that has gradually built inside. Just like the chef Eugénie in *The Taste of Things*, who faces death by filling plates with life's energy more powerful than anyone else, Binoche melts the bitterness of life like chocolate and uses that energy to dream of love again. And she laughs like an innocent girl, expressing joy through her entire body. Her fluid movements, free from fixed choreography and harmonizing with her partner's universe, continue from *The Lovers on the Bridge* to the documentary *In-1 In Motion* which she directed. In the end, what Binoche aims to convey through all the facets of body language, including voice,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are her emotions. Emotions that have no shape or form but possess undeniable mass and gravity. With their power serving as a buoy at times and a stepping stone at others, she allows the gravitas to flow through her. Knowing better than anyone that an actor's calling is to convey emotions, Binoche embraces hers and throws herself into the river of cinema, flowing wherever it takes her. (Una BECK)

In-I In Motion

인-아이 인 모션

France | 2025 | 156min | DCP | color
Director **Juliette BINOCHÉ** 줄리엣 비노쉬



099 Sep 19 / 13:30 / C1 481 Sep 24 / 19:30 / BH

산세바스티안영화제 스페셜스크리닝

“이게 사랑일까?” 자식처럼 이글러 격정적으로 사랑했던 연인은 질투하고, 의심하고, 증오한 끝에 다시 서로를 꺼안는다. 무용극 ‘In-I(En-Je)’는 사랑의 모든 과정과 형태를 담았던 작품이다. 무대 벽면에 배인 땀의 흔적을 따라, 환희와 광기가 뒤엉킨 사랑의 궤적을 온몸으로 그려내는 두 사람은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와 영국 무용가 아크람 칸이다. 서로의 춤과 연기의 조력자가 된 비노쉬와 칸은 때론 길을 찾는 구도자처럼 간절히 손을 잡고, 때로는 사나운 적군처럼 치열하게 맞선다. 이들에게 무대 준비 과정은 단순히 외면의 대사와 동작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다. 각자의 경험과 트라우마까지 대면하는 내면의 작업이다. 7개월에 걸친 치열한 준비 과정을 담은 마리옹 스탈랭스의 다큐멘터리와 2008년 공연 실황을 엮어, 17년 후 줄리엣 비노쉬가 다큐멘터리 <인-아이 인 모션>으로 재탄생시켰다. (백은하)

"Is this love?" Lovers who were drawn to each other like magnets and loved passionately end up embracing each other again after jealousy, doubt, and hatred. The dance theater piece 'In-I (En-Je)' is a work that captures all the processes and forms of love. With the sweat stains still on the stage walls, the two people who trace the trajectory of a love entangled with ecstasy and madness with their entire bodies are French actress Juliette Binoche and British dancer Akram Khan. Becoming collaborators in each other's dancing and acting, Binoche and Khan at times hold hands earnestly like seekers on a path, and at others, fiercely confront each other like savage enemies. For them, the stage preparation process is not simply a time to learn external lines and movements; it is an internal work of confronting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and traumas. Marion Stalens' documentary, which captured the intense 7-month preparation process, has been woven together with footage of the 2008 live performance, revived 17 years later by Juliette Binoche as the documentary *In-I In Motion*. (Una BECK)

The Lovers on the Bridge

퐁네프의 연인들

France | 1991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Leos CARAX** 레오스 카락스



554 Sep 25 / 20:00 / BT

베를린영화제 포럼

레오스 카락스는 세 번째 장편에서 <나쁜 피>(1986)의 전설적인 커플을 다시 모아 화려한 현대 멜로드라마를 선보인다. 줄리엣 비노쉬는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를, 드니 라방은 거리의 곡예사를 연기한다. 점차 어둠 속으로 침잠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역을 맡은 줄리엣 비노쉬의 열연은 단번에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다정함, 폭력성, 절망, 순수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다시 한번 전설적인 연기를 펼친다. 여성적이면서도 순수한 미셀 역은 여전히 줄리엣 비노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파리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연인들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 곳곳을 누비고, 레오스 카락스 감독은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장면들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불꽃이 터지는 하늘, 퐁네프 위에서의 춤, 지하철 속 광란의 질주, 센 강 위를 가르는 수상스키까지. <퐁네프의 연인들>의 모든 이미지는 장엄하면서도 서정적인, 미친 사랑에 빠지는 시처럼, 그렇게 우리를 압도한다. (서승희)

In his third feature film, Leos Carax reunites the legendary couple from *Bad Blood* (1986) to present a spectacular modern melodrama. Juliette Binoche plays a painter losing her sight, and Denis Lavant plays a street performer. The incredible performance of Juliette Binoche, in the role of a woman gradually sinking into darkness while falling passionately in love with a man who has nothing, captivates the audience at once. She embodies tenderness, violence, despair, and innocence with her entire being, delivering yet another legendary performance. The role of the wild yet pure Michèle is still considered one of Juliette Binoche's signature works. Paris is another protagonist in this film. The lovers roam throughout the city as it celebrates the bicentennial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director Leos Carax fills the screen with fantastical scenes that are impossible to look away from. A sky bursting with fireworks, a dance on the Pont Neuf, a frantic race through the metro, and water skiing across the Seine River — every image in *The Lovers on the Bridge* overwhelms us, grandiose yet lyrical, like a poem dedicated to a mad love. (SEO Seunghee)

Three Colours: Blue

세 가지 색 : 블루

France/Poland | 1993 | 99min | DCP | color
Director **Krzysztof KIESLOWSKI** 크쥐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



090 Sep 19 / 09:00 / B3 555 Sep 25 / 13:00 / BH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키에슬로브스키의 작품 세계를 총정리한 <세 가지 색> 연작 중에서도 <블루>와 <레드>는 각별한 평가를 받는다. 카락스, 테시네 등과의 작업으로 일찍이 명성을 쌓던 비노쉬는 <블루>로 베니스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했다. 비노쉬라는 배우를 떠올릴 때 먼저 떠오르는 눈빛의 힘이 가장 강렬하게 빛난 작품이 <블루>다. 가족을 잃어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이 내면의 자유를 얻는 과정을 다룬 작품은 제목과 달리 마침내 찬란함에 도달한다. 주인공의 평온한 경지를 표현하고자 고민했을 키에슬로브스키는 비노쉬의 얼굴 이미지와 송고한 음악의 결합으로 그것을 이루어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 즈비그니에프 프레이스네르는 합창이 포함된 대규모 관현악곡을 통해 인물의 기원에 배어든다. (이유철)

Among the *Three Colours* trilogy, which encapsulates Krzysztof Kieslowski's body of work, *Blue* and *Red* particularly stand out for their special acclaim. Juliette Binoche, who had already built a reputation through her collaborations with filmmakers like Leos Carax and André Téchiné, rose to the status of a world-class actress when she won the Best Actress Award at the Venice Film Festival for her performance in *Blue*. When one thinks of Juliette Binoche, the power of her gaze is what comes to mind first, and it shines most intensely in *Blue*. Centering on a woman devastated by the loss of her family who gradually attains inner freedom, the film, contrary to its title, ultimately arrives at radiance. Kieslowski, who must have contemplated how to express the protagonist's state of serenity, achieved it through the combination of Binoche's facial expressions and sublime music. Indeed, music is one of the film's crucial themes, and Zbigniew Preisner's score, featuring large-scale orchestral pieces with a choir, permeates the character's very origins. (LEE Yong Cheol)



Special Program in Focus IV

특별기획 프로그램 IV

우리들의 작은 역사, 미래를 부탁해!

한국 신예 여성 감독 5인이 자신들의 영화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 영화 한 편씩을 선정 및 상영하고 해당 작품의 선배 감독들과 대화를 나눈다. 빛나는 재능의 신인들이 과거의 독창적인 한국영화들을 오늘날 다시 마주하고 환기하면서, 미래의 한국영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꿈꾼다.

A Little History of Our Own, 'Take Care of Our Future!'

Five emerging Korean women directors each select and screen a film that has profoundly shaped their cinematic vision, followed by in-depth conversations with the senior filmmakers behind those works. As these promising talents revisit distinctive Korean films of the past and rekindle their creative spirit, they join together to envision the future of Korean cinema.

공동주최: 한국영상자료원 | Co-Organized by: Korean Film Archive

Art Museum by the Zoo

미술관 옆 동물원

Korea | 1998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LEE Jeong-hyang** 이정향



231 Sep 20 / 19:30 / KT 353 Sep 22 / 20:00 / C3

결혼식 비디오를 찍는 춘희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말년휴가를 나온 철수가 다짜고짜 찾아와 애인의 행방을 묻는다.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남녀의 짧은 동거가 시작되는데, 둘에게는 공통점도 있다. 춘희와 철수는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다. 둘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담아 함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다. <미술관 옆 동물원>이 여전히 한국 멜로물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가 견지하는 일상적인 평범함에 기인한다. 인위적인 극적 장치, 과장된 연기, 신파의 감정 없이도 한 세계가 사랑으로 물들 수 있음을 진귀하게 증명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춘희로 분한 심은하의 맑게 피어난 얼굴과 꾸밈없는 연기 없이 이 영화의 성취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4년 후,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로 극장가에 <집으로...>(2002) 신드롬을 일으킨 이정향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남다른)

Choon-hee, who makes a living filming wedding videos, dreams of becoming a screenwriter. One day, Cheol-soo, on his final military leave, barges into her home, demanding to know the whereabouts of his girlfriend. Thus begins a brief cohabitation between the two who couldn't be more different. And yet, they share one thing in common: both are failures in love. Together, they begin writing a screenplay infused with their unfulfilled longings. *Art Museum by the Zoo* remains one of the most beloved works of Korean melodrama, ironically because of its steadfast embrace of the ordinary. Without relying on artificial plot devices, exaggerated performances, or melodramatic sentimentality, the film proves—most preciously—that an entire world can be imbued with love through the simplest of means. Above all, it would be impossible to speak of the film's achievements without mentioning Shim Eun-ha, whose luminous face and unaffected performance as Choon-hee form the heart of the story. Four years later, director Lee Jeong-hyang would ignite a cultural phenomenon with *The Way Home* (2002), the tale of a grandmother and her grandson. *Art Museum by the Zoo* is the director's feature debut. (NAM Daeun)

Jealousy Is My Middle Name

질투는 나의 힘

Korea | 2002 | 125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Chan-ok** 박찬옥



174 Sep 20 / 12:30 / B3 264 Sep 21 / 09:00 / C2

로테르담영화제 타이거상

2000년대 초반 한국영화계는 단편영화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줬던 감독들의 데뷔작이 관객들을 찾았고 그중에 여성 감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질투는 나의 힘>은 이런 현상을 대표하는 영화다. 박찬옥은 20대 후반 대학원생 원상(박해일)과 40대 문학잡지 편집장(문성근)과 30대 사진기자 성연(배중옥)의 관계를 통해 연애 감정과 질투와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원상의 마음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한다. 빈부의 격차와 나이와 경험과 생각의 차이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파고들어 표면과 심층을 오가며 뻘뻘하고 생생하고 나른하고 절박한 감정의 결을 켜켜이 쌓아간다. 박해일의 말간 얼굴에 문득 스치는 차가운 눈빛과 자기모멸을 날 것 그대로 내뿜는 송곳 같은 대사와 상심한 자의 애처로운 표정과 미숙한 투정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지리멸렬한 삶,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상투적인 연애, 강력한 욕망과 은근한 유혹과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나오는 건 박해일이 부르는 김추자의 노래 『꽃잎』으로 충분하다. (박인호)

In the early 2000s, Korean cinema saw the debuts of directors who had already displayed distinct styles through their short films, and among them, the rise of female directors was especially notable. *Jealousy Is My Middle Name* is a defining example of this trend. Through the relationships between Wonsang (Park Hae-il), a graduate student in his late twenties; the editor-in-chief of a literary magazine in his forties (Moon Sung-keun); and a photojournalist in her thirties, Seongyeon (Bae Jong-ok), director Park Chan-ok captures with hyperrealism the restless state of Wonsang's heart as he wavers between romantic feelings, jealousy, love, and desire, unable to find his footing. Disparities in wealth, age, experience, and thought are woven into the subtle emotions of human relationships, moving between surface and depth, layering tones that are shameless, vivid, languid, and desperate all at once. The fleeting cold glint in Park Hae-il's clear face, the razor-sharp lines that lay bare raw self-loathing, the pitiful expressions of heartbreak, and the immature pouts still stir us to this day. Out of a life of tedium, unattainable goals despite one's efforts, clichéd romance, overpowering desire, quiet temptation, and the shadow of death, what emerges is enough to be carried by Park Hae-il's rendition of Kim Choo-ja's song 'Petals'. (PARK Inho)

Memento Mori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Korea | 1999 | 97min | DCP | color

Director **KIM Tae-yong, MIN Kyu-dong** 김태용, 민규동



357 Sep 22 / 20:00 / C4 584 Sep 25 / 16:30 / C5

로테르담영화제

김태용, 민규동 감독이 장편 데뷔작으로 공동 감독한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는 <여고괴담>(1998)의 속편으로 알려졌지만, 전편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선택한다. <여고괴담>이 학생과 학교라는 대립 구도를 축으로 관습적인 장르의 화법에 충실했다면, 이 영화는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관계를 따라가며 모호한 심리적 미스터리로 집중한다.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조, 교환일기와 캠코더 등을 도입한 신선한 전개, 동성애를 비롯한 심대들의 다양한 욕망과 감정은 이 영화가 시도한 새로운 지평으로 불릴 만하다. 여자 고등학교에 서린 불안과 분노와 슬픔의 서정을 공포 장르 안에서 예민하고도 대담하게 풀어낸 연출이 돋보인다. 김규리, 박예진, 이영진, 공효진 등의 풋풋한 시절을 확인할 수 있다. (남다른)

Memento Mori, co-directed by Kim Tae-yong and Min Kyu-dong in their feature debut, was marketed as a sequel to *Whispering Corridors* (1998), yet it takes a decisively different path. While the first film focu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students and the school within a conventional horror framework, this installment instead traces the intricately entangled relationships of its characters, centering on an ambiguous psychological mystery. Its structure moves fluidl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past and present, while fresh narrative devices such as shared diaries and camcorder footage enrich its texture. By exploring homosexuality alongside the myriad of desires and emotions of adolescence, the film boldly opened up new territory in Korean cinema. Within the horror genre, it sensitively yet audaciously unravels the anxieties, anger, and sorrow lingering in the atmosphere of a high school for girls. It also offers a fresh glimpse of Kim Gyuri, Park Ye-jin, Lee Young-jin, and Kong Hyo-jin in their early years. (NAM Daeun)

Take Care of My Cat

고양이를 부탁해

Korea | 2001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JEONG Jae-eun** 정재은



256 Sep 21 / 20:00 / B3 352 Sep 22 / 16:10 / C3

로테르담영화제 특별언급

“스무 살, 섹스 말고도 궁금한 건 많다.” 21세기 초입, 포스터 속 색다른 선인과 함께 한국영화사에서 본 적 없는 스무 살 청춘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인천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 다섯 명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 각자의 길을 모색 중이다. 영화는 학벌 중심주의의 편견, 빈곤한 삶의 조건, 정체된 일상 등을 대면하면서도 이들의 현재를 이루는 관계의 활기와 마음의 요동을 세심하게 주목한다. 무엇보다 ‘인천’의 고유한 역사성과 분위기를 청춘의 한 시절 안에서 되살려내며 현실을 응시하면서도 몽상을 포기하지 않는 영화의 감각이 더없이 탁월하다. 항구와 공항이 공존하는 시공간의 유동성이나 쇠락한 과거와 미지의 미래를 품은 풍경은 인물들의 내면과 절묘하게 공명한다. 정재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남다운)

“At twenty, there’s more to be curious about than just sex.”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this striking declaration on a poster announced the arrival of twenty-year-olds unlike any seen before in Korean cinema. Five classmates who graduated from a commercial high school in Incheon do not go on to university; instead, they step into society for the first time, each searching for their own path. The film closely observes the prejudices of an education-obsessed society, the conditions of poverty, and the stagnation of daily life, while also paying tender attention to the energy of their relationships and the turbulence of their inner worlds. Above all, it brilliantly revives the distinct historicity and atmosphere of ‘Incheon’ within a moment of youth, achieving a vision that gazes unflinchingly at reality while refusing to abandon dreams. The fluidity of time and space—where harbor and airport coexist—and landscapes imbued with both a decaying past and an unknown future resonate exquisitely with the characters’ inner states. This is director Jeong Jae-eun’s feature debut. (NAM Daeun)

Waikiki Brothers

와이키키 브라더스

Korea | 2001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YIM Soon-rye** 임순례



171 Sep 20 / 16:00 / B2 269 Sep 21 / 12:30 / C3

임순례의 데뷔작 <세 친구>(1996)가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고 담담하게 보여줬다면, 두 번째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청년기 끝자락에 다다른 남성들의 쇠락을 쓸쓸하고 애잔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며 전국 소도시를 떠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고향에 돌아온 성우는 와이키키 호텔에서 연주를 하고 어릴 적 같이 밴드 활동을 했던 친구들과 기타학원 선생님과 첫사랑 인회를 만난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사라졌거나 사라질 것들에 대한 애달픈 노래이며, 쓸쓸하고 신산한 삶에 잠시 마음 둘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한 절실한 노래다. 무엇보다 하나씩 성우 곁을 떠나가는 풍경과 사람들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영화다. 바닷가를 질주하는 빛나던 청춘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추고 술 마시며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인생도 아름답다. 무엇보다 어떠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인물들이 끝끝내 지켜내는 품위를 지켜보는 임순례의 태도에 뭉클함을 느낀다. 마지막 신이 주는 감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 각인될 것이고 이열, 박원상, 황정민, 오지혜의 얼굴 또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박인호)

While Yim Soon-rye’s debut *Three Friends* (1996) quietly yet vividly depicted the transition from boyhood to adulthood, her second film *Waikiki Brothers* tenderly observes men grappling with the twilight of their youth. After years of performing in nightclubs and drifting through small towns across the country, Seongwoo returns to his hometown for the first time since graduating high school. There, he plays at the Waikiki Hotel and reunites with friends from his old band, his former guitar teacher, and his first love, Inhee. *Waikiki Brothers* is a wistful song for things that have vanished or are about to disappear, and an earnest song for those seeking a brief place of rest in a lonely, arduous life. Above all, it is a film deeply etched with the traces of landscapes and people who, one by one, drift away from Seongwoo’s side. Dazzling youth racing along the seaside expresses a beautiful life, but so too is the life that ends a grueling day by singing, playing, dancing, and drinking in a nightclub. What moves the heart most is Yim Soon-rye’s attitude toward her characters—never losing sight of the dignity they preserve to the very end, no matter the humiliation or shame. The emotional weight of the final scene will only deepen with time, and the faces of Lee Eol, Park Won-sang, Hwang Jung-min, and Oh Jee-hye will shine forever. (PARK Inho)

Special Program in Focus V

특별기획 프로그램 V

까르뜨 블랑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국내외의 영화 및 문화계 명사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영화를 직접 선정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나눈다. 감독 봉준호, 감독 매기 강, 배우 강동원, 소설가 은희경, 언론인 손석희가 참여한다. 영화에 관한 명사들의 소중하고 흥미로운 사적 경험과 감상을 듣는 한 편, 관객의 소양과 안목 또한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arte Blanche

Prominent figures from Korea and the international film and cultural industries each select a film they cherish and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 audience. Participants include director Bong Joon-ho and Maggie Kang, actor Gang Dong-won, novelist Eun Huigyeong, and journalist Sohn Suk-hee. Through the personal and engaging reflections of these leading figures, the program offers audience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cinematic perspective and deepen their appreciation of film.

공동주최: 한국영상자료원 | Co-Organized by: Korean Film Archive

Dog Day Afternoon

뜨거운 오후

United States | 1975 | 125min | DCP | color

Director **Sidney LUMET** 시드니 루멧



294 Sep 21 / 15:40 / L4

산세바스티안영화제 남우주연상

“올해로 개봉 50주년이다. 실화, 사회적 소수자, 비극,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통렬함 그래서 당시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봐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영화. 무엇보다도 알 파치노다.” — 언론인 손석희

1972년 뉴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을 영화화한 시드니 루멧의 1970년대 대표작 중의 하나다. 강도 써니(알 파치노)와 쉐(존 카제일)는 은행에 1,100달러밖에 없자 직원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한다. 루멧의 사실적이고 흡인력 있는 연출과 정교한 편집은 알 파치노의 안티 히어로적 태도를 공고히 하고, 격정적이고 어둡고 패배감에 무너져가는 연기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뜨거운 오후>는 베트남전 패전, 참전 군인들의 부적응, 워터게이트 사건, 극성스러운 미디어의 행태, 게이 인권, 페미니즘이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던 1970년대의 혼란을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낸다. 이상주의자인지 무모한 범죄자인지 로맨티시스트인지 폭력적인 부적응자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알 파치노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록이기도 하다. (박인호)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ilm. It’s a story of truth, marginalized voices, tragedy, and a searing critique of the media. At the time, it couldn’t be seen in Korea—but it should have been. Above all, it’s Al Pacino.” — Journalist SOHN Suk-hee

One of Sidney Lumet’s signature works of the 1970s, *Dog Day Afternoon* is based on a real bank robbery that took place in New York in 1972. When robbers Sonny (Al Pacino) and Sal (John Cazale) discover there is only \$1,100 in the bank, they take the employees hostage and face off against the police. Lumet’s realistic, gripping direction and meticulous editing cement Al Pacino’s antihero persona, amplifying his performance—one of fervor, darkness, and the slow collapse into defeat. *Dog Day Afternoon* unfolds the turbulence of 1970s America—marked by the Vietnam War defeat, veterans’ struggles to readjust, the Watergate scandal, an aggressive media, and the era’s gay rights and feminist movements—within a confined space. It is also a record of Pacino’s blood, sweat, and tears, portraying a character who cannot be easily defined as an idealist, reckless criminal, romantic, or violent misfit. (PARK Inho)

Eureka

유레카

Japan | 2000 | 217min | DCP | b&w

Director **AOYAMA Shinji** **아오야마 신지**



408 Sep 23 / 18:00 / B1

칸영화제 경쟁 FIPRESCI상

“조용히 다가와 천천히 스며들고, 마침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뒤흔드는 정서적 울림. 이제 우리 길을 떠난 아오야마 신지의 걸작.” — 감독 봉준호

<유레카>는 아오야마 신지의 '기타큐쇼 3부작(<헬프리스>, <새드 베케이션>)'중 두 번째 영화이며 그의 대표작뿐 아니라 21세기 영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유레카>는 존 포드의 <수색자>(1956)와 오즈 야스지로와 장 뢰 고다르를 경유해 새로운 삶과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영화에 도달한다. 모노톤의 촬영과 느린 형축트래킹과 음악이 나른하고 불길하고 스산하고 불안한 나날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풍광과 햇살과 바람과 인물들의 걸음과 몸짓에 공명하며 고요하면서도 서늘한 무드를 만든다. 슬픔과 상실을 견뎌내는 인물의 더딘 회복을 기다려주는 아오야마 신지의 마음에 감동하자마자 그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다. 신지의 죽음 이후 <유레카>의 마지막 씬에서 우린 무엇을 보게 될까. 아니,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은 무얼까. (박인호)

"It approaches in silence, settles in with unhurried grace, and ultimately stirs the deepest chambers of the heart. A masterpiece from Aoyama Shinji, a farewell gift from one who has now left us." — Director BONG Joon-ho

Eureka is the second installment in Aoyama Shinji's 'Kitakyushu Trilogy' (which includes *Helpless*, *Sad Vacation*). It stands not only as his representative work but also as one of the essential films in any discussion of 21st-century cinema. *Eureka* reaches new lives, new landscapes and new cinema screens, traveling through the echoes of John Ford's *The Searchers* (1956), Ozu Yasujiro, and Jean-Luc Godard. Shot in monotone with slow lateral tracking and music, the film records in detail their languid, ominous, bleak, and anxious days into its very form. Also it resonates with the landscape, sunlight, wind, footsteps, and gestures and creates a mood both tranquil and chilling. We come to realize his absence right after being moved by Aoyama Shinji's heart that patiently waits for his characters to recover, slowly, from grief and loss. What will we witness in the final scene of *Eureka* after Shinji's death? No - what is that we can no longer see in the final scene? (PARK Inho)

The Host

괴물

Korea | 200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BONG Joon-ho** **봉준호**



295 Sep 21 / 20:00 / L4

칸영화제 감독주간

“<괴물>을 보기 전에는 한 영화가 그렇게 많은 분위기를 오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영화를 통해 여러 가지 분위기가 하나의 영화 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 감독 매기 강

봉준호 영화에서 심연은 매혹의 대상이자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이다. <괴물>은 한국사회에 다각도로 숨겨진 심연을 정밀하고 우스꽝스럽고 무심하고 애뜻하게 찾아 나선다. 심연은 시커먼 한강물과 괴물이 숨어 사는 교각과 한강의 남북을 따라 극명하게 다른 풍경과 가족 관계와 국가와 시민의 관계와 한국과 미국의 관계까지 아우른다. 돌연변이로 태어난 괴물은 장르적 상상에도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를 들어받고 위협하다 포획되어 죽어가고, 한강은 시커먼 것을 보지 못하는 “둔한 것들”의 장소에서 응시의 장소로 변해간다. 끝을 알 수 없는 수직의 깊이와 횡적으로 강변을 달리던 운동이 멈춘 심연에 죽음이 아닌, 탄생과 각성이 남겨진다. 이 심연은 골목길과 염마의 약재상과 면화실, 계단 아래 숨겨진 공간과 터널과 가파른 오르막길로 이어질 터다. (박인호)

"Before watching *The Host* I didn't know a film could move through so many different tones, drama, comedy, horror, and then do it all over again. This film taught me that many tones can coexist within a single film, it's all about knowing how to balance them." — Director Maggie KANG

In Bong Joon-ho's films, the abyss is both an object of fascination and a source of fear and terror. *The Host* seeks out such an abyss hidden throughout Korean society with precision, humor, detachment, and tenderness. This abyss encompasses the murky waters of the Hangang River, the bridge piers where the monster lurks, and the stark contrasts along the river's north and south banks; all the while spanning landscapes, family dynamics, as well as the ties between the state and its citizens, and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orn a mutant, the monster crashes into Korean society, threatening it, becoming captured, and ultimately perishing. The Hangang River is transforming from the place of "idiots" to the point of focus. In the abyss where the endless vertical depth and the horizontal movement along the riverbank come to a halt, what remains is not death, but birth and awakening. This abyss will go on to connect to alleyways, the mother's herbal shop, the visitation room, hidden spaces under staircases, tunnels, and steep uphill roads. (PARK Inho)

Small, Slow but Steady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Japan | 2022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MIYAKE Sho** **미야케 쇼**



338 Sep 22 / 16:30 / B3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

“침묵에 집중하고, 허공 한가운데에 쓰고,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끼리 강가에서 인사를 나누는 영화.” — 소설가 은혜정

청각 장애를 지닌 여성 복서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하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극복과 승리를 목적으로 삼는 스포츠 영화가 아니다. 철거를 앞둔 오래된 체육관이 배경이며, 복서 게이코의 훈련과 시합은 일상을 견고히 지탱하는 반복적인 활동으로 그려진다. 게이코만이 아니라, 노쇠해진 몸으로 게이코를 돌보는 체육관 관장, 게이코의 훈련을 돕는 코치들, 응원하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승부를 펼치는 상대 선수 모두의 존재감도 세심하게 담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16mm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들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고요하게 지속되는 작은 움직임들을 아름답게 포착해낸다. 게이코를 연기한 기사이 유키노는 복싱에 입문한 지 3개월 만에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가 완성한 복싱 장면들은 마치 뮤지컬 영화 속 안무처럼 활기찬 리듬으로 빛난다. (남다은)

"A cinematic poem of silence, words traced in the air, and a riverside farewell between those who have wounded each other." — Novelist EUN Huijeong

Based on the autobiography of a female boxer with a hearing disability, *Small, Slow but Steady* is not a sports film about overcoming hardship or achieving victory. Set in an old gym on the verge of demolition, the training and matches of boxer Keiko are portrayed as repetitive activities that quietly and steadfastly support her daily life. The film carefully captures not only Keiko but also the presence of those around her: the aging gym owner who looks after her despite his frail body, the coaches who train her, her supportive family, her coworkers, and even her opponents in the ring. Shot on 16mm fil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images beautifully record the small, persistent gestures that continue amid restrictive circumstances. Kishii Yukino, who plays Keiko, had only been training in boxing for three months when the shoot began, yet the boxing sequences she delivers radiate with a lively rhythm, as if they were choreography in a musical. (NAM Daeun)

Woochi

전우치

Korea | 2009 | 136min | 35mm | color

Director **CHOI Dong-hoon** **최동훈**



019 Sep 18 / 19:00 / B3

“많은 분이 ‘원조 K-히어로물’이라고 말하며 주시는 작품인 만큼 오랜만에 큰 스크린에서 함께 즐기고 싶다.” — 배우 강동원

최동훈은 다수의 캐릭터가 선했던 쪽과 악한 쪽을 오가며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장르 안에서 시원하게 풀어낼 줄 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뒤흔들리며 쉽사리 판단하기 힘든 모호한 정체를 맞닥뜨리게 조율하며 캐릭터와 사건에 따라 영화의 리듬을 변화무쌍하게 다룬다. <전우치>는 무협과 코미디와 판타지를 가미해 시공을 넘나들고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며 꿈과 삶과 진짜와 가짜와 현실과 영화를 자유롭게 변신시킨다. 분신술을 펼치고 바람을 일으키고 현실을 변형시키는 전우치와 화담의 대결은 바람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비상과 굴러 떨어지는 육체의 둔중함이 현란한 편집에 의해 긴장감을 높인다. 결국 영화가 움직임이란 것을 증명하듯 <전우치>는 실 새 없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비상과 추락이 만들어내는 속도의 쾌감을 선사한다. (박인호)

"*Woochi* is a film many call the original K-superhero movie, and I'm excited to enjoy it with audiences on the big screen again after such a long time." — Actor GANG Dong-won

Choi Dong-hoon knows how to unravel the complexities of human relationships within genre cinema—where numerous characters waver between good and evil until, in the end, no one can truly be trusted. The characters are swayed by circumstance, and these ambiguous identities are deftly orchestrated. He nimbly shifts the rhythm of the film depending on the characters and events. *Woochi* blends martial arts, comedy, and fantasy, leaping across time and space, weaving between reality and the fantastic, and freely transforming dreams, life, truth, illusion, and even cinema itself. The showdown between Jeon Woochi (Gang Dong-won), who conjures clones, summons winds, and bends reality, and nemesis Hwadam (Kim Yoon-suk) generates a visceral thrill: the light, airy flight of wind and the heavy thud of bodies crashing to the ground are heightened through dazzling editing. (PARK Inho)

Special Screenings | 특별상영

Dancing Village: The Curse Begins

댄싱 빌리지 : 저주의 시작

Indonesia | 2024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Kimo STAMBOEL** 키모 스타보엘



094 Sep 19 / 09:30 / CX

Heat

히트

United States | 1995 | 170min | DCP | color
Director **Michael MANN** 마이클 만



012 Sep 18 / 19:20 / B1

무당의 지시를 받은 밀라는 사촌 유다와 친구들과 함께 자와섬 동쪽 끝 '춤추는 마을'로 향한다. 전설 속 팔찌 '카와투리히'를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한 순간, 촌장과 수호자가 사라진 기묘한 정적이 그들을 맞이한다. 곧 마을을 지배하는 수수께끼의 무희 '바다라우히'가 모습을 드러내고, 밀라는 팔찌를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액막이 '다우'로 선택되어 저주받을 운명 앞에 놓인다.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흥행에 성공한 전작의 프리퀄로,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신화와 전설의 고리를 확장했다. 시리즈 최초의 IMAX 촬영과 음산한 사운드 디자인, 정밀한 시각적 디테일이 결합해 괴물 같은 세계를 직조한다. 기괴한 불편함이 연속되는 가운데, 바다라우히의 춤은 끝나지 않은 악몽처럼 맴돈다. (박성호)

Following a shaman's instructions, Mila heads to 'Penari Village' on the eastern tip of Java island with her cousin Yuda and their friends. Their mission is to return the legendary bracelet, 'Kawaturih.' However, upon arriving in the village, they are greeted by a strange silence, marked by the disappearance of the village chief and its guardian. Soon, the enigmatic dancer who rules the village, 'Badarawuhi,' reveals herself, and Mila is faced with a dire fate: if she does not return the bracelet in time, she will be chosen as the ritual sacrifice, 'Dawuh,' and be cursed. This film is a prequel to the previous box-office hit based on a novel, expanding the cycle of myths and legends rooted in a real event that occurred in Indonesia. The first installment of the series to be shot in IMAX, it weaves haunting sound design with intricate visual detail in crafting a monstrous world. Amidst a continuous stream of bizarre discomfort, Badarawuhi's dance lingers like a nightmare that never ends. (PARK Sungho)

현대 범죄 영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되는 마이클 만의 다섯 번째 장편영화다.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 조직의 리더 닐 맥컬리와 집요한 강력반 형사 빈센트 한나의 추격전을 그린다. 범죄자와 형사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두 인물은 고독, 직업 윤리, 집착이라는 공통된 내면을 공유하고 있다. 마이클 만은 차갑고 넓은 LA 야경과 절제된 색감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공간에 투영하고, 실제 군사 훈련과 현장 사운드로 총격전의 리얼리즘을 극대화했다. 장르의 문법을 완벽하게 구현한 동시에 재창조한 범죄극으로, 이후 범죄 누아르 장르의 교본이 되었으며 <다크 나이트>(2008)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 니로가 처음 마주한 전설적인 장면으로도 유명하다. 마이클 만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위해 직접 선정한 작품이며, 현재 <히트> 2편이 제작 중이다. (조지훈)

Widely regarded as a masterpiece of contemporary crime cinema, Michael Mann's fifth feature film follows the cat-and-mouse chase between Neil McCauley, the meticulous and ruthless leader of a criminal organization, and Vincent Hanna, a relentless LAPD detective. Within the opposing framework of criminal and cop, the two men share an inner world marked by loneliness, professional ethics, and obsession. Mann projects the characters' psychology onto the cold, expansive nightscapes of Los Angeles, using restrained color palettes, real military training, and on-location sound to heighten the realism of the gunfights. Perfectly executing and simultaneously reinventing the genre's conventions, the film set the standard for the crime noir genre, influencing countless works—including *The Dark Knight* (2008). The legendary scene in which Al Pacino and Robert De Niro face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on screen is remembered to this day. *Heat* is the solo film Michael Mann handpicked to screen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ts sequel is currently in production. (J.O.Ji-hoon)

KPop Demon Hunters (Special Sing-along)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 싱어롱)

United States | 2025 | 99min | DCP | color
Director **Maggie KANG, Chris APPELHANS** 매기강, 크리스 애플한스



235 Sep 20 / 20:00 / SH

Life of Hollywood Kid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Korea | 1994 | 116min | DCP | color
Director **CHUNG Jiyoung** 정지영



017 Sep 18 / 10:00 / B3 086 Sep 19 / 09:00 / B2

산세바스티안영화제 FIPRESCI상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만들어진, 케이팝 산업의 온갖 클리셰를 오컬트 장르에 결합한 애니메이션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헌터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가 비행기에서 'How It's Done'을 부르며 악귀들과 맞서는 도입부에서 누가 반하지 않을까? 어느새 'Soda Pop'의 중독적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되고, 'Golden'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Your Idol'에 이르러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지나치게 정직한 제목 때문에 아직 관심을 망설이고 있더라도, 이미 수십 번 반복 관람한 열혈팬이라 해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싱어롱 이벤트로 상영되는 이 작품이 선사할 시청각적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가연)

* 본 행사는 싱어롱 이벤트로, 상영 중 일부 구간에서 잠전 상태로 녹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엔딩 크레딧 시에는 불을 켜고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No one could have predicted that an animated film blending every cliché of the K-pop industry with the occult—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he very birthplace of pop music—would become such an unprecedented sensation. Yet, who could resist the electrifying opening sequence, where HUNTR/X members Rumi, Mira, and Zoey wage a fierce battle against demons aboard a roaring airplane—all while belting out 'How It's Done'? Before you know it, you'll find yourself humming the infectious melody of 'Soda Pop,' moved to tears by 'Golden,' and brought to your knees by 'Your Idol.' *KPop Demon Hunters* has evolved into a cultural brand in itself. Whether you're still hesitating because of its on-the-nose title, or a die-hard fan who's already watched it countless times, this film—presented as a sing-along event on the big screen—delivers an audiovisual experience that you simply cannot not miss. (Karen PARK)

* This event is a sing-along screening. Please note that recording may take place during certain darkened sections of the film, and filming may also occur with the lights on during the end credits.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어린 시절부터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린 병석(최민수, 김정현)의 영화에 미친 삶과 병석에게 매료된 것을 계기로 영화에 빠져들었던 명길(독고영재, 홍경인)이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영화에 대한 영화다. 정지영은 두 인물의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을 지배했던 영화와 극장과 우정에 대해 4.19혁명, 베트남 전쟁, 심지어 스크린 쿼터 투쟁 기록까지 삼입하며 꼼꼼히 묘사한다. 도제 생활을 하며 현실과 영화라는 환상의 괴리를 경험하고 영화계의 일원이 된 명길과 할리우드로 가겠다는 병석의 도파적인 꿈은 화해할 수 없고 끝내 비극으로 향한다. 병석이 중학생 시절 높은 절벽에서 강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그에게 수면은 무수한 별빛이 반짝이는 스크린이자 모험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스스로의 삶마저 속인 영화라는 꿈을 자양분 삼아 살아간 그는 꿈과 말과 사랑과 우정과 세상과 영화마저 잃었지만, 그의 마지막 도약을 담은 정치화면은 허공이라는 스크린을 불러낸다. 불멸의 삶만 영화가 아니라 불멸의 죽음 또한 영화라는 듯이. (박인호)

Life of Hollywood Kid is a film about films. Specifically, it's about the movie-obsessed life of Byungseok (Choi Min-soo, Kim Jung-hyun), who has from childhood adored Hollywood cinema to the point of losing touch with reality. Along for the journey is Myeong-gil (Dokko Young-jae, Hong Kyoung-in), who, inspired by Byungseok, fell into the world of movies and began creating films of his own in real life. Director Chung Jiyoung meticulously depicts the films, theaters, and friendship that shaped the two characters from their teenage years to adulthood, weaving in historical moments such as the April 19 Revolution, the Vietnam War, and even records of the screen quota protests. Myeong-gil experience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fantasy of film through an apprenticeship and eventually becomes part of the film industry. Yet Byungseok, whose escapist dream is to go to Hollywood, finds their paths irreconcilable, with their story ending in tragedy. Since the day in middle school when he leapt from a high cliff into a river, the water's surface for Byungseok had been both a screen glittering with countless starlights and a world full of adventure. Nourished by the dream of cinema—a dream that ultimately deceived even his own life—he lived on, only to lose his dreams, his words, his love, his friendship, the world, and even the movies themselves. Yet the freeze-frame capturing his final leap conjures the screen of the sky, as if to suggest that not only immortal life, but also immortal death, can be cinema. (PARK Inho)

Mr. Kim Goes to the Cinema

WP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

Korea | 2025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KIM Dong-ho** 김동호



015 Sep 18 / 16:40 / B2 185 Sep 20 / 13:00 / C2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연출한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며, 공직에서 은퇴한 그가 영화인의 시선으로 극장과 영화의 현재를 기록한 풍경화다. 팬데믹 이후 급변한 영화 생태계 속에서 감독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극장과 영화제를 순례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러 영화인들로부터 극장과 영화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고민을 듣는다.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고레에다 히로카즈, 차이밍량, 가린 누그르호 등 국내외의 주요 영화인들도 가까이 그의 카메라 앞에서 영화와 극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들려준다. 극장의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된 여정은 영화에 대한 정서적 기록으로 나아가고 결국 영화관의 본질과 영화의 지속 가능성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극장과 영화를 여전히 사랑하는 한 노(老) 영화인의 조용하고도 진심 어린 러브레터다. (조지훈)

The first feature documentary directed by Kim Dong-ho, former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is film captures the present landscape of theaters and films across Asia through the eyes of a seasoned film professional. Now retired from public service, Kim travels with his camera to document the post-pandemic cinematic ecosystem, visiting theaters and film festivals in Korea, Japan, Taiwan, Indonesia, and beyond, and gathering memories and concerns from filmmakers along the way. Prominent figures like Lee Chang-dong, Park Chan-wook, Bong Joon-ho, Kore-eda Hirokazu, Tsai Ming-Liang, and Garin Nugroho eagerly share their thoughts on the fate of theaters and the future of cinema. What begins as a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theaters evolves into an emotional chronicle an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essence and sustainability of cinema. Ultimately, this is a quiet, heartfelt love letter from an elderly cinephile to the art he cherishes. (JO Ji-hoon)



프로그램 이벤트

* 모든 프로그램 이벤트 세부 사항은 사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장소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민석소극장

자파르 파나히, 스토리텔링의 힘

자파르 파나히의 영화는 늘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서사를 넘어 삶을 기록하고 반추하는 창의적 공간으로서의 영화를 증명한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 파나히 감독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 그 물음을 관객과 나눈다.

일시 9월 18일 (목) 18:30 - 20:00
예매코드 805
진행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영어

마이클 만, <히트>를 다시 말하다

거장 마이클 만 감독이 <히트>의 30주년을 맞아,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20세기 최고의 범죄 영화로 꼽히는 자신의 대표작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일시 9월 19일 (금) 16:00 - 17:30
예매코드 806
진행언어 한국어, 영어

세르게이 로즈니차, 증언의 방식: 바라보고 기억하다

이용철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는 거장의 영화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9월 20일 (토) 16:00 - 17:30
예매코드 807
진행언어 한국어, 영어

마르코 벨로키오, 주먹의 영화

현대 영화사의 살아 있는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는 국가, 종교, 권력에 맞서 싸워온 감독일 뿐 아니라, 탁월한 미학적 성취를 이룬 위대한 예술가다. 감독의 첫 장편 <호주머니 속의 주먹>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정성일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다.

일시 9월 21일 (일) 14:00 - 15:30
예매코드 808
진행언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줄리엣 비노쉬, 움직이는 감정

세계적인 여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그녀가 지닌 다채로운 감성과 움직임의 미학을 집중 조명한다. 배우연구소 백은하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줄리엣 비노쉬를 가까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9월 25일 (목) 18:00 - 19:30
예매코드 809
진행언어 한국어, 영어

Program Events

* Program event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Master Class

Venue Minseok Theatre, B1F, DSU-KIT Centum Campus

Jafar PANAHI, The Power of Storytelling

Jafar Panahi's films continually ask, "What is cinema?" He shows that cinema goes beyond narrative, becoming a space to record and reflect on life. In this Master Class, Panahi shares his creative journey and this fundamental question with the audience.

Date & Time Sep 18 (Thu) 18:30 - 20:00
Code 805
Language Persian, English, Korean

Michael MANN Revisits *Heat*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Heat*,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crime dramas of the 20th century, legendary filmmaker Michael Mann reflects on his landmark film.

Date & Time Sep 18 (Fri) 16:00 - 17:30
Code 806
Language English, Korean

Sergei LOZNITSA, The Art of Witnessing

Moderated by film critic Lee Yong Cheol, Director Sergei Loznitsa's Master Class will serve as a key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cinematic world of a true master.

Date & Time Sep 20 (Sat) 16:00 - 17:30
Code 807
Language English, Korean

Marco BELLOCCHIO, the filmmaker who never stopped raising his fists.

Marco Bellocchio, a living master of contemporary cinema, is not only a director who has long challenged the forces of nation, religion, and power, but also a great artist known for his remarkable aesthetic achievements.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his debut feature film, *Fists in the Pocket*. This Master Class will be moderated by renowned film critic Jung Sung-il.

Date & Time Sep 21 (Sun) 14:00 - 15:30
Code 808
Language Italian, Korean

Juliette BINOCHE, Between Motion and Emotion

The Master Class by world-renowned actress Juliette Binoche will focus on the rich emotional range and the aesthetics of movement she brings as both an actress and a director. Hosted by Una Beck, actrolgist 'Una Labo Actrology', this Master Class offers a rare opportunity to gain a deeper and more intimate understanding of Juliette Binoche.

Date & Time Sep 25 (Thu) 18:00 - 19:30
Code 809
Language English, Korean

오픈 토크 & 야외무대인사		Open Talk & Outdoor Stage Greeting	
장소	영화의전당 BIFF 야외무대	Venue	BIFF Outdoor Stage, Busan Cinema Center
오픈 토크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의 감독과 배우들이 약 50분 간 자유롭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	Open Talk	Filmmakers and actors sit down for in-depth film talk in a casual atmosphere (50-min duration)
야외무대인사	올 해 초청된 작품들의 감독과 배우들이 약 20분 간 영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Outdoor Stage Greeting	Directors and actors of the films invited to BIFF meet the audience outdoors and briefly introduce their latest work. (20-min duration)
* '아주담담'과 '스페셜 토크'의 자세한 내용은 p.194~19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lease refer to pp. 194-195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Talk-to-Talk' and 'Special Talk.'	

9월 18일(목) Sep 18 (Thu)	11:00 - 11:20	야외무대인사	탁류	Outdoor Stage Greeting	<i>The Murky Stream</i>
	11:30 - 12:20	오픈 토크	프로젝트 Y	Open Talk	<i>Project Y</i>
	12:30 - 13:20	오픈 토크	보스	Open Talk	<i>Boss</i>
	13:30 - 14:20	오픈 토크	어쩔수가없다	Open Talk	<i>No Other Choice</i>
	14:30 - 14:50	야외무대인사	연애재판	Outdoor Stage Greeting	<i>Love on Trial</i>
	15:00 - 15:50	오픈 토크	사람과 고기	Open Talk	<i>People and Meat</i>
	16:00 - 16:20	야외무대인사	하나코리아	Outdoor Stage Greeting	<i>Hana Korea</i>
	16:30 - 16:50	야외무대인사	랑가 앤 친타	Outdoor Stage Greeting	<i>Rangga & Cinta</i>
9월 19일(금) Sep 19 (Fri)	11:00 - 11:50	오픈 토크	윗집 사람들	Open Talk	<i>The People Upstairs</i>
	12:00 - 12:20	야외무대인사	대홍수	Outdoor Stage Greeting	<i>The Great Flood</i>
	12:30 - 12:50	야외무대인사	초속 5센티미터	Outdoor Stage Greeting	<i>5 Centimeters Per Second</i>
	13:00 - 13:20	야외무대인사	파과: 인터내셔널 컷	Outdoor Stage Greeting	<i>The Old Woman with the Knife: International Cut</i>
	13:30 - 13:50	야외무대인사	당신이 죽었다	Outdoor Stage Greeting	<i>As You Stood By</i>
	14:00 - 14:20	야외무대인사	8번 출구	Outdoor Stage Greeting	<i>Exit 8</i>
	15:00 - 15:20	야외무대인사	친애하는 X	Outdoor Stage Greeting	<i>Dear X</i>
	15:30 - 15:50	야외무대인사	프로텍터	Outdoor Stage Greeting	<i>Protector</i>
9월 20일(토) Sep 20 (Sat)	16:30 - 17:20	오픈 토크	굿뉴스	Open Talk	<i>Good News</i>
	12:00 - 12:50	아주담담*	컷! 그리고 액션: 신인 여성 감독들의 제작 노트	Talk-to-Talk*	Cut! Then Action: Stories from Rising Women Filmmakers
	13:00 - 13:50	오픈 토크	짱구	Open Talk	<i>AUDITION 109</i>
	14:00 - 14:20	야외무대인사	로맨틱 어나니머스	Outdoor Stage Greeting	<i>Romantics Anonymous</i>
	14:30 - 14:50	야외무대인사	미아	Outdoor Stage Greeting	<i>Be My Baby</i>
	15:00 - 15:20	야외무대인사	완벽한 집	Outdoor Stage Greeting	<i>My Home</i>
	15:30 - 16:20	오픈 토크	루의 운수 좋은 날	Open Talk	<i>Lucky Lu</i>
	16:30 - 16:50	야외무대인사	귀목: 피의 혼례	Outdoor Stage Greeting	<i>Bride of the Covenant</i>
9월 21일(일) Sep 21 (Sun)	17:00 - 17:40	아주담담*	Berlinale x Cannes	Talk-to-Talk*	Berlinale x Cannes
	18:00-18:30	야외무대인사	더 로즈: 컴 백 투 미	Outdoor Stage Greeting	<i>The Rose: Come Back to Me</i>
	12:00 - 12:20	야외무대인사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Outdoor Stage Greeting	<i>The Mantis: Original Sin</i>
	13:30 - 13:50	야외무대인사	극장의 시간들	Outdoor Stage Greeting	<i>Time of Cinema</i>
	17:00 - 17:50	오픈 토크	허광한 x 옥택연: 빛나는 지금, 마주하며 함께	Open Talk	HSU Kuang Han x OK Taecyeon: Vis-à-Vis
	17:00 - 17:50	오픈 토크	<왼손잡이 소녀>와 제작 뒷이야기: 짜우스칭 X 셴 베이커	Open Talk	Behind the Scenes of <i>Left-Handed Girl</i> : TSOU Shih-Ching X Sean BAKER
	17:00 - 17:50	오픈 토크			
	17:00 - 17:50	스페셜 토크*	이창동 x 두기봉: 감정의 대가, 액션의 대가, 서로를 말하다	Special Talk*	LEE Chang-dong x Johnnie TO: Master of Emotion, Master of Action in Conversation

넷플릭스 ‘크리에이티브 아시아(Creative Asia)’	
<p>넷플릭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협력해 젊고 유망한 영화감독, 영상 콘텐츠 창작자 및 프로덕션 관계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 아시아’를 개최한다. 올해 한층 확대된 이번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와 협업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노하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 마스터클래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와 공동 주최하여 할리우드의 베테랑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들의 인사이트를 접하는 심화 트레이닝 세션으로 구성됐다.</p>	
날짜	9월 20일(토)
장소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 1층 컨벤션홀
주최	넷플릭스, (사)부산국제영화제
주요 세션	<p>크리에이터 마스터클래스: 새롭게 떠오르는 창작 업계 관계자 및 제작자들이 넷플릭스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경청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p> <p>심화 트레이닝: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공동 주최하는 각본 및 연출 분야 초청자 대상 세션</p>

영화진흥위원회 주최 행사	
<2025년 한-프 영화아카데미> 장편 영화 프로젝트 피칭 행사	
일시	9월 21일(일) 16:15 - 18:30
장소	백스코 제2전시장 1층 이벤트룸B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포럼	
일시	9월 22일(월) 15:00 - 18:00
장소	백스코 제2전시장 3층 세미나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https://kofic.or.kr>) 참고



Creative Asia: Presented by Netflix & BIFF	
<p>Netflix is bringing together top creative talent from across the globe for the second annual Creative Asia, a program designed for emerging filmmakers, creatives, and production professionals. This year's expanded program includes a series of Creator Masterclasses offering a unique opportunity to learn from established creators that Netflix partners with, and a Deep Dive Training session co-hosted with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by two veteran Hollywood screenwriters and directors.</p>	
Date	September 20th, (Sat)
Location	Convention Hall, B1F, DSU-KIT Centum Campus
Hosts	Netflix & BIFF
Highlights	<p>Creator Masterclasses: Some of Netflix's top creators from around the world will present ideas and conversations for aspiring and emerging filmmakers</p> <p>Deep-Dive Training: An invite-only session co-hosted with KOCCA on screenwriting and directing</p>

Korean Film Council Event	
<2025 Korea-France Film Academy> Feature Film Project Pitching	
Date	September 21st, (Sun) 16:15 - 18:30
Venue	BEXCO Exhibition Center 2, 1st Floor, Event B
Korean Documentary Film Forum	
Date	September 22nd, (Mon) 15:00 - 18:00
Venue	BEXCO Exhibition Center 2, 3rd Floor, Seminar Room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refer to KOFIC's KoBiz webpage.
(koreanfilm.or.kr/eng)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 포럼 - 다시,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

장소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일정 2025년 9월 18일(목) ~ 21일(일)
주최 (사)부산국제영화제 공동주최 동서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산영상위원회

*섹션 D를 제외한 모든 섹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섹션 A -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

섹션 B - 한국영화를 구하라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OTT와 국제공동제작을 축으로 아시아영화가 직면한 산업적 과제와 변화 양상을 살피고,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의 조건을 탐색한다.

1990년대 중반 한국영화가 이룬 성취와 함께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과 한국 상업영화 및 독립영화의 생태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섹션 C - 시네마의 미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섹션 D -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그리기

지역 시각문화의 세계화, 디지털 영상 복원과 활용, 아시아 협력 미디어 교육 사례를 통해 기술과 교육이 어떻게 미래 영화 환경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조망한다.

한국영화계의 자발적 연대 단체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와 '영화제정책모임'이 영화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9/18 (목)	13:00 ▼ 13:30	2025 포럼 비프 개회식
		기조발제: 민규동(영화감독)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지나요”
	13:30 ▼ 15:30	섹션 B : 세션 1 - 1996 플래시백: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1990년대 중반 시작된 한국영화의 부흥과 변화의 흐름을 조망하고, 세대교체와 새로운 영화 담론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 김이석(동의대) ▶ 발제: 안시환(영화평론가), 김성훈(씨네21) ▶ 토론: 이준동(나우필름), 주유신(영산대), 차승재(프로듀서), 한재덕(사나이픽처스)
		기조발제: 지아장커(영화감독)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한 나의 영화 여정”
	16:30 ▼ 18:30	섹션 A : 세션 1 - 아시아영화, 국제공동제작의 새 챗터를 열다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아시아영화의 글로벌 제작 전략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성과와 향후 도전 과제를 진단한다. ▶ 사회: 서대정(부산대) ▶ 발제: 필립 웨아(영화평론가), 장간재(영화감독), 에이코 미즈노 그레이(프로듀서), 하야카와 치에(영화감독) ▶ 토론: 강내영(경성대), 량잉(프로듀서), 조지훈(무주산골영화제)
9/19 (금)	10:00 ▼ 12:30	섹션 C : 세션 1 - 리부팅 한국영화 공동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영화 보존과 아카이빙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복원 기술, 시각효과 소스로써의 영화 에셋 데이터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 기조발제: 김홍준(한국영상자료원) ▶ 사회: 이주영(한국영상자료원), 박세호(한국영상자료원), 정찬철(부경대), 김승경(한국영상자료원) ▶ 발제: 김병인(넷플릭스), 박민영(한국영상자료원), 정민재(노느니특공대엔터테인먼트), 유태경(중앙대) ▶ 토론: 강윤성(영화감독), 김익상(서일대), 손승현(웨스트윌드)

13:30 ▼ 16:30	섹션 C : 세션 2 -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 공동주최: 동서대학교 세계화 속 지역 시각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 사회: 최원호(동서대) ▶ 발제: 손리원(베이징필름아카데미), 마이클 영(뉴욕필름아카데미), 에릭 오(애니메이션 감독) ▶ 토론: 김해윤(동서대)
17:00 ▼ 19:00	섹션 D : 세션 1 - 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 주최: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제의 고유성과 공공가치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평가 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 사회: 모은영(서울독립영화제) ▶ 발제: 이선필(오마이뉴스) ▶ 토론: 김성준(전주국제영화제), 최창환(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장광수(영화진흥위원회)
10:30 ▼ 12:30	섹션 A : 세션 2 - 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 삼키는가 아시아의 영화 산업 종사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OTT가 각국의 영화 기획과 산업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진단한다. ▶ 사회: 박현선(조지메이슨대) ▶ 발제: 박진희(중앙대), 필 탕(GrX Studio) ▶ 토론: 돈사론 코빗바니차(방콕국제영화제), 이화배(이화백컴퍼니), 황승흠(국민대)
9/20 (토)	섹션 C : 세션 3 - 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 공동주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한국과 아시아 교육기관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영상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을 모색한다. ▶ 기조발제: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 사회: 최용배(한국예술종합학교), 최민영(한국예술종합학교) ▶ 발제: 이정민(한국예술종합학교), 편장완(한국예술종합학교), 힘 소티사(캄보디아 정보부), 안지혜(위랩) ▶ 토론: 덴칸 다이스케(일본영화대학), 리우위(베이징필름아카데미), 막볼 무바락(영화감독), 이승희(영화평론가), 티안 리(에일대)
14:00 ▼ 17:00	
13:00 ▼ 15:30	섹션 D : 세션 2 - 『멸종위기영화』 K-무비,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 주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영화의 지속가능성과 새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 10년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공유한다. ▶ 사회: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 발제: 이동하(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장은경(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하영(하하필름스), 오정민(영화감독), 김창섭(필름메이크어스), 조소나(프로듀서), 김보경(<3670>, <유령> 연출팀), 김윤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세영(미디어트), 양준영(키노라이츠)
9/21 (일)	섹션 B : 세션 2 - 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 지속적인 한국영화의 위기 속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 사회: 문관규(부산대) ▶ 발제: 원승환(인디스페이스), 차헌비(영화 저널리스트), 박송열(영화감독), 박두희(프로듀서) ▶ 토론: 김진유(영화감독), 성승이(씨네소파), 조영각(프로듀서)
16:00 ▼ 18:30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ecial Forum - Revisiting the Path of Asian Cinema

Venue Conference Hall, 11F, Busan Film & Audiovisual Industry Center **Dates** 9.18(Thu) ~ 9.21(Sun)
Ho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Host Dongseo University, Korean Film Archiv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Busan Film Commissi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for all sections except Section D.

Section A - Exploring Solidarity in Asian Cinema		Section B - Save the Korean Cinema!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media environment, this section examines the industrial challenges and transformations facing Asian cinema, particularly those driven by OTT platforms and international co-productions, and explores new frameworks for solidarity tha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This section reflects on the achievement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n cinema since the mid-1990s, and proposes concrete directions for building a sustainable creative environment and a thriving ecosystem for both mainstream and independent cinema in Korea.	
Section C - The Future of Cinema: Tech Innovation and Film Education		Section D - Mapping the Future of Korean Cinema	
This session explores how technology and education are shaping the future of cinema through digital restoration, the globalization of local visual culture, and cross-border collaboration in media education across Asia.		The voluntary solidarity organizations in the Korean film community — the Korean Filmmakers’ Solidarity (KOFISO) and the Film Festival Policy Network — present practical strategies and a long-term roadmap to overcome the structural crisis facing the film industry.	
9/18 (Thu)	13:00 ▼ 13:30	Forum BIFF 2025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 : MIN Kyu-dong(Director) “Does Frequent Health Screening Really Make Us Healthier”	
	13:30 ▼ 15:30	Section B : Session 1 - Flashback to 1996: Gains and Losses of Korean Cinema Survey the rise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cinema since the mid-1990s, exploring generational shifts and new directions in cinematic discourse. ▶ Moderator : KIM Yiseok(Dong-Eui Univ.) ▶ Presentation : AHN Sihwan(Film Critic), KIM Seonghoon(CINE21) ▶ Discussion : LEE Joon-dong(Nowfilm), JOO Youshin(Youngsan Univ.), TCHA Sungjai(Producer), HAN Jae-duk(Sanai pictures)	
		Keynote Speech : JIA Zhang-Ke(Director) “Reflections on My BIFF Journey”	
	16:30 ▼ 18:30	Section A : Session 1 - Asian Cinema: A New Chapter in Co-Productions Examine the global production strategies of Asian cinema through international co-productions, and assess the resulting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 Moderator : SUH Dae-jeong(Pusan Nat’l Univ.) ▶ Presentation : Philip CHEAH(Film Critic), JANG Kunjae(Director), Eiko MIZUNO-GRAY(Producer), HAYAKAWA Chie(Director) ▶ Discussion : KANG Naeyoung(Kyungsung Univ.), LIANG Ying(Producer), JO Ji-hoon(Muju Film Festival)	
9/19 (Fri)	10:00 ▼ 12:30	Section C : Session 1 - Re: Booting Korean Cinema Co-Host : Korean Film Archive Examine new digital restoration technologies for film preservation and archiving, and explore the use of film asset data as resources for visual effects production. ▶ Keynote Speech : KIM Hong-joon(Korean Film Archive) ▶ Moderator : LEE Jooyoung(Korean Film Archive), PARK Seho(Korean Film Archive), JEONG Chancheol(Pukyong Nat’l Univ.), KIM Seungkyung(Korean Film Archive) ▶ Presentation : KIM Byungin(NETFLIX), PARK Minyoung(Korean Film Archive), CHUNG Minjae(NONUNI Entertainment), YOO Taekyung(Chung-Ang Univ.) ▶ Discussion : KANG Yunsung(Director), Stanley Iksang KIM(Seoil Univ.), Daniel SON(WESTWORLD)	

13:30 ▼ 16:30	Section C : Session 2 - Envisioning the Global Future of Visual Culture from Local Contexts Co-Host : Dongseo University Analyze the identity and value of regional visual cultur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explore pathways for their continued relevance and development. ▶ Moderator : CHOI Wonho(Dongseo Univ.) ▶ Presentation : SUN Lijun(Beijing Film Academy), Michael J. YOUNG(NewYork Film Academy), Erick OH(Animation Director) ▶ Discussion : KIM Haeyoon(Dongseo Univ.)	
	<hr/>	
17:00 ▼ 19:00	Section D : Session 1 - Policy Shifts for the Future of the Film Festival Ecosystem Host : Film Festival Policy Network Discuss transitioning to a more flexible support and e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unique identity and public value of film festivals. ▶ Moderator : MO Eunyung(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Presentation : LEE Sunphil(Ohmynews) ▶ Discussion : KIM Sungjun(JEONJU IFF), CHOI Changhwan(Daegu Kyungbook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JANG Gwangsoo(Korean Film Council)	
	<hr/>	
10:30 ▼ 12:30	Section A : Session 2 - Is OTT Empowering or Undermining Asian Cinema Asian film industry professionals and policy experts gather to examine how OTT platforms are transforming national film planning and production systems. ▶ Moderator : PARK Hyunseon(George Mason Univ.) ▶ Presentation : PARK Jin-hee(Chung-Ang Univ.), Phil TANG(GrX Studio) ▶ Discussion : Donsaron KOVITVANITCHA(World Film Festival of Bangkok), LEE Hwabae(LEEHWABAE Company), HWANG Seungheum(Kookmin Univ.)	
	<hr/>	
9/20 (Sat)	14:00 ▼ 17:00	Section C : Session 3 - Explor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Film and Media Education in Asia Co-Host :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xplore the roles and competencies required of future film and media talent by sharing cases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and other Asian educational institutions. ▶ Keynote Speech : KIM Soyoung(Korea Nat'l University of Arts) ▶ Moderator : CHOI Yongbae(Korea Nat'l University of Arts), Steve M. CHOE(Korea Nat'l University of Arts) ▶ Presentation : LEE Jungmin(Korea Nat'l University of Arts), PYEON Jangwan(Korea Nat'l University of Arts), HIM Sotithyal(Ministry of Information, Cambodia), AHN Jihye(WeFab) ▶ Discussion : TENGAN Daisuke(Japan Institute of the Moving Image), LIU Yu(Beijing Film Academy), Makbul MUBARAK(Director), LEE Seunghee(Film Critic), Tian Li(Yale Univ.)
13:00 ▼ 15:30	Section D : Session 2 - Endangered K-Movie: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Host : Korean Filmmakers' Solidarity (KOFISO) Present future strategies to sustain Korean cinema and reshape its industry ecosystem over the next decade. ▶ Moderator : KIM Donghyun(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Presentation : LEE Dongha(Producers guild of Korea), JANG Eun-Kyung(CML), LEE Hayoung(HAHA FILMS), OH Jung-min(Director), KIM Changseop(FILMMAKEUS), JO Sona(Producer), KIM Bokyeong(3670, Phantom Assistant director), KIM Yunjin(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IM Seyoung(MEDIACT), YANG Junyoung(Kinolights)	
	<hr/>	
9/21 (Sun)	16:00 ▼ 18:30	Section B : Session 2 - What Does Korean Independent Cinema Dream Of Explore the potential of Korean independent cinema amid the country's ongoing film industry crisis, and propose practical pathways toward creative and economic self-reliance. ▶ Moderator : MUN Gwan-gyu(Pusan Nat'l Univ.) ▶ Presentation : WON Seunghwan(Indiespace), CHA Hanbi(Film Journalist), PARK Songyeol(Director), PARK Doohee(Producer) ▶ Discussion : KIM Jinyu(Director), SUNG Songyee(CINESOFA), CHO Youngkag(Producer)

Made by Audience! 관객이 만드는 참여와 체험의 영화 축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영화제를 향해 관객이 이끌어가는 다채로운 실험과 자유로운 교류의 장! 올해 8번째 커뮤니티비프는 부산국제영화제 30회를 맞아 2025년 키워드로 ‘추억’을 제시합니다. 영화, 출판, 음악, 과학기술, 양성평등, 로컬과 소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30주년 특별전 등 동시대 ‘최애’를 감각하는 ‘차유’와 ‘출발’의 에너지 ‘충만’한 시간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상영

일정 2025. 9.18(목) ~ 2025. 9.21(일)
장소 메가박스 부산극장,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상영 규모 총 41회차, 67편
(아외상영작 10편, 마을영화단들이 10편 제외)
티켓 구매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예매 페이지 (ticket.biff.kr)

| 이벤트

일정 2025. 9.18(목) ~ 2025. 9.21(일)
전야제 : 2025. 9.16(화) 19:00
남포파날레 : 2025. 9.21(일) 18:30
장소 남포동 비프광장 야외무대 및 비프거리,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주요 내용 아외상영회 / 아외무대인사 / 체험 프로그램 부스

#1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관객에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기획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비프의 대표적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관람료 10,000원

※ 상영 후 이벤트는 GV, 토크, 공연, 굿즈 나눔 등 프로그램마다 상이하오니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상영작	프로그램명	연계이벤트	상영작 코드	상영일정 & 상영관
소울메이트	한순간의 영원	GV	903	Sep 18 / 13:00 / M4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가 과아에게 준 선물	라이브 드로잉	907	Sep 18 / 19:00 / M1
무뢰한	사랑은 계획에 없었다	GV	908	Sep 19 / 11:00 / M1
초인	초인이 되어라	GV	913	Sep 19 / 15:00 / M1
피아노 프리즘	비긴, 어게인	GV, 공연	916	Sep 19 / 19:00 / M2
성덕	그럼에도 넘치는 사랑을 믿어	GV	926	Sep 20 / 14:20 / M3
형사 Duelist	가을의 전설 - 형사	GV	927	Sep 20 / 15:00 / M1
수라	<수라>, 바람이 수놓은 아름다움	GV	930	Sep 20 / 17:30 / M3
호수의 이방인	알랭 기로디를 알랑가	토크	932	Sep 20 / 20:00 / M2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에테르, 에테르? 에테르!	온라인 GV	937	Sep 21 / 13:00 / M2
시인들의 창	문학이라는 팔자를 사랑한	GV	938	Sep 21 / 13:30 / M3
우리들	홀려간 우리들의 자리가	GV	941	Sep 21 / 16:30 / M3
바닷마을 다이어리	우리의 바닷마을 이야기	온라인 GV	942	Sep 21 / 17:30 / M2

#2 마스터톡

커뮤니티비프의 시그니처, 실시간 양방향 코멘터리 픽쳐 쇼

기억할 만한 자취를 남긴 감독과 배우를 초청하여 라이브 장면 해설과 온라인 채팅을 하며 관람하는 인기 프로그램



상영작 <사바하>
일정 2025. 9.19(금) 19:30 / 918
장소 메가박스 부산극장 1관
관람료 10,000원

한국 오컬트 영화의 신기원을 연 장재현 감독이, 마스터톡 최초로 진행을 맡은 주연배우 박정민과 함께 영화 속 숨은 의미를 풀어내는 몰입의 파티!

※ 상영작을 미리 관람하고 오시면 더욱 재미있게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게스트와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송수신기가 제공되며, 개인 휴대폰을 통한 채팅도 함께 진행됩니다.

#3 커비컬렉션

영화, 출판, 음악, 뉴미디어... 동시대 문화 속으로 더 깊이!

이석원, 정서경, 김신록, 박상영, 박찬일, 바밍타이거, 이디오테잎 등 독보적 아티스트와의 만남

관람료 10,000원

상영작	프로그램명	연계이벤트	상영작 코드	상영일정 & 상영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커비북스: 김신록	토크	902	Sep 18 / 12:00 / M3
대도시의 사랑법	커비북스: 박상영	GV	904	Sep 18 / 15:00 / M1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잇츠시네마: 박찬일	토크	906	Sep 18 / 18:30 / M3
인터스텔라 5555	인터스텔라 5555: 다크트 펍크 유니버스	토크	909	Sep 19 / 11:30 / M2
아가씨	커비북스: 정서경	GV	911	Sep 19 / 12:00 / M3
바밍타이거 MV 6편	바밍타이거: SOMENOISE	GV	923	Sep 20 / 12:30 / M1
렛미인	커비북스: 이석원	토크	928	Sep 20 / 16:30 / M2

#4 블라인드시네마

정성일 × 성해나, 영화가 여기에 있다

시네필과 독자들이 지지하는 두 이름, 그들이 비밀리에 엄선한 영화를 연속 관람하고 함께 대화하는 프로그램

게스트 정성일 감독, 성해나 작가
일정 2025. 9.20(토) 10:00 / 920
※ 상영 사이 영화마다 15분간의 인터미션
장소 메가박스 부산극장 2관
관람료 15,000원

#5 취생몽사

술과 안주를 즐기며 밤새 자유롭게 영화 보는 심야상영

상영작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광란의 사랑>, <지독한 사랑>
일정 2025. 9.20(토) 22:30 ~ 05:00(익일) / 934
※ 영화 상영은 23시부터 진행됩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상영 사이 영화마다 20분간의 인터미션
장소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관람료 25,000원 (상영작 3편+주류 및 음식 제공)

#6 올데이시네마

“날마다 축제(A Moveable Fest)”

특정 주제나 공통점을 지닌 영화를 모아서 하루종일 집중탐구하는 다채로운 기획전
관람료 10,000원 (무료 상영 프로그램 별도 표기)

프로그램명	상영작	연계이벤트	상영작 코드	상영일정 & 상영관	특이사항
로컬 & 소셜 DAY 세상과 부딪치며 배우다	학교 밖, 영업사원	GV	912	Sep 19 / 14:30 / M2	
로컬 & 소셜 DAY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GV	915	Sep 19 / 16:30 / M3	로컬 & 소셜 DAY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매 필수)
로컬 & 소셜 DAY 부산공고 개교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나의 교실	GV	919	Sep 19 / 20:00 / M3	
백델 & WDN DAY 비연대기적 여성의 움직임: 어제와 오늘	WDN 단편선	GV	922	Sep 20 / 10:50 / M3	
백델 & WDN DAY 백델초이스 초이스	최소한의 선의	GV	929	Sep 20 / 16:30 / M4	
	하이파이브	GV	933	Sep 20 / 20:00 / M4	
사이언스 DAY 사이언스 토크 in 시네마	리미트리스	코멘터리	935	Sep 21 / 11:00 / M1	사이언스 DAY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매 필수)
	타임 패러독스	토크	939	Sep 21 / 14:30 / M1	
	월-E	코멘터리	943	Sep 21 / 18:00 / M1	

#7 한예종 영상원 30주년 특별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30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마련한 특별한 만남

상영 규모 24편 (아외상영작 3편 제외) / 9회차 상영 (1일 3회차)

일정 2025. 9.19(금) ~ 9.21(일)

| 상영 프로그램

영상원의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30년

CJ ENM과 한예종 영상원의 30주년 기념 영화 <프로젝트 30> 최초 상영

빛과 소리의 파동: 30년의 궤적, 그 이후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원 30년사를 빛낸 단편 걸작선

영상원을 거쳐간 감독들의 주목할 만한 대표작

한국영화의 현재를 이끄는 영상원 출신 감독들의 장편영화

일정 2025. 9.19(금) ~ 9.21(일)

장소 메가박스 부산극장 1, 4관

관람료 6,000원

※ 상영작 정보는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북토크

정서경 × 김혜리 '나의 첫 시나리오' 북토크

일정 2025. 9.19(금) 17:00 ~ 17:40

장소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2층 마스크피 라운지

| 야외무대

미미시스터즈's 이야기 듣는 밤(토크)

영상원 출신 스타 작가 4인의 시나리오 이야기

게스트 윤은경, 김은희, 민예지, 한지완

일정 2025. 9.19(금) 18:10 ~ 19:00

장소 남포동 비프광장 야외무대

한일-한중 AMA+ 상영 및 토크

한일-한중 공동제작 및 AMA+(Art Major Asian Plus) 작품

스페셜 포커스 & GV

상영작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만두>, <컨테이너>

게스트 김소형, 민소정, 아부 사헤드 이몬

일정 2025. 9.19(금) 16:00 ~ 17:04 (GV 17:04 ~ 17:44)

장소 남포동 비프광장 야외무대

커비로드

영화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참여와 체험의 프로그램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된 1996년 남포동 극장가 스피커를 울렸던 그 시절 인기작을 관람하며 추억과 낭만에도 빠져보고,
오직 커뮤니티비프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관객 참여 행사도 만끽해볼 수 있는, 남포동의 자랑 커비로드!

| 야외무대

아외토크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짱구> 외 무대인사 다수

협업 행사 커뮤니티비프 X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제9회 051영화제 시상식] ~ 9.19(금) 14:00 ~ 15:30

아외상영 <로미오와 줄리엣>, <침밀밀>, <키즈 리턴>, <코리안 드림: 남아진흥 믹스테이프>,
<한국영화 화양연화>, <AI 코미디: 웃으면 복이 와요> 등

※ 9.18(목) ~ 9.21(일) 전체 일정표는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에서 9월 9일 이후 확인해주세요. (선착순 무료입장)

|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5. 9.18(목) ~ 9.21(일) 12:00 ~ 19:00 예정

부산청년종합커뮤니티: AI 움직이는 사진 만들기, 히트맨2(사격 부스), 신명(메모리 게임), 빅픽처(랜덤 뽑기 가차샷),

식객(영화 속 미식 여행), DEMON * 돌스터(DIY 인형 만들기)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시민영화촬영체험존

울산무예총연합회 & 전통화랑무예궁협회: 대결 화랑 결투장, 화랑 국궁체험

화랑스포츠클럽: 레이저 전쟁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 움직임의 착각! 스톱모션 아틀리에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당신의 고민을 샅나다(아날로그 인공지능 고민 수거함)

※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세부사항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남포피날레

열정과 광란 사이, 깊어가는 가을! 커뮤니티비프의 마지막 밤을 장식할 신나는 시민 영화 축제!



일정 2025. 9.21(일) 18:30 ~ 21:00 예정

장소 남포동 비프광장 야외무대

주요 프로그램 커뮤니티비프 관객 시상식, 시민영화퀴즈대회,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밴드 '세이슈마' 야외 공연



공식 홈페이지



English Guide



COMMUNITY
FILM
FESTIVAL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팀
T. 1666-9177
E. community@biff.kr
H: community.biff.kr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5주년을 맞은 동네방네비프의 2025년 키워드는 “바람길(Wind Path)”이다. 바쁜 일상에 지쳐, 극장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이 영화제로 향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며 15갈래 길을 내었다.

올해도 김해국제공항에서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을 3년째 배웅하며,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춤추는 분수 쇼와 영화음악 비트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황홀경을 지난해에 이어 선사한다.

떠오르는 아경명소 168 더 데크 야외영화관 너머로는 북항과 부산항대교가 펼쳐지고, 대규모 스마트 친환경 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 말이 질주하는 렛츠런파크, 바리스타가 들려주는 커피와 삶의 이야기는 사람 냄새나는 도시 부산의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의 후원,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군 창설 80주년 관함식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파트너가 되고,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한국소아암재단과 함께하는 등 전례 없는 협업으로 영화제를 확장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의 도움으로 수어영화, 가지봄영화 총 3편을 상영하여 관람 장벽을 허물고, 반려동물과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전포에서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청춘을 이야기하는 장소 마련한다.



상영시간표
QR CODE



프로그램
QR CODE

2025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

영화의전당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과 협업하여 마을 주민이 영화 수업을 받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동네방네비프 사업의 한 분야로 올해 5년째다. 지역의 영화감독이 멘토가 되고 시민들은 캠핑 혹은 워크숍 같은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이야기나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를 영화로 제작한다. 이렇게 탄생된 인생 처음 내 손으로 만든 영화가 커뮤니티비프에서 상영과 토크(GV)를 하는데, 만든 이들은 물론 초대 손님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웃고 박수 치며 어우러지는 축제가 된다. 올해는 영화제 3팀과 영화의전당 4팀이 참가하여 단편영화 7편과 메이킹 다큐멘터리 3편을 선보인다.

주관	팀명	참여 기관
부산국제영화제 마을영화만들기	부사니언(Busanian)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예술로	부산문화재단(예술로 지역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최)
	여름방학	전포카페거리청년창업가(ZIP스튜디오)
영화의전당	희망바라기	희망바라기(정신장애인복지단체)
	부산뇌병변복지관	부산뇌병변복지관
	양봉하는 할매들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영화만들기	술찬 문화·역사마을해설사
	술찬 문화·역사마을해설사	술찬 문화·역사마을해설사

상영회

일정 2025년 9월 18일(목) 영화의전당 | 10:30, 부산국제영화제 | 15:00

장소 메가박스 부산극장 본관 2관

주관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영화의전당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후원 부산문화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네방네비프 장소별 일정표

1 9.17.(수) -21.(일)	젊은 도전의 꽃바람 전포역 부산2호선 — 부산교통공사 MTOU 스페이스 별일	2 9.18.(목) -19.(금)	커피향 머금은 섬바람 모모스커피 영도 로스터리 앤 커피바 — 모모스커피 로컬바이로컬	3 9.18.(목) -19.(금)	달빛이 흐르는 셋바람 168 더 데크 — 동구청
4 9.19.(금) -22.(월)	안녕의 앞바람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면세구역 — 한국공항공사	5 9.19.(금) -20.(토)	광안대교 쓰다듬은 바닷바람 민락수변공원 — 수영구청 광안리해양레포츠펀터	6 9.19.(금)	파도에 실려온 자갈바람 태종대 자동차극장 — 부산관광공사 비바인사이트
7 9.19.(금) -20.(토)	비옥한 강바람 에코델타시티 — 한국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발전 연합회	8 9.20.(토) -21.(일)	질주의 날쌔바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 한국마사회 네버랜드	9 9.20.(토) -21.(일)	음악분수의 춤바람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 한국관광공사 부산문화재단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10 9.21.(일)	부산국제영화제의 숨바람 남포동 비프광장 야외무대 — 중구청	11 9.23.(화) -24.(수)	문화 에너지의 마파람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 한국수력원자력	12 9.24.(수)	새싹의 산들바람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새싹홀 — 한국소아암재단
13 9.25.(목)	든든한 신바람 BNK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 BNK부산은행	14 9.25.(목)	민주주의의 바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대한민국 국회	15 9.25.(목) -26.(금)	대양의 큰바람 해군작전사령부 내 운동장 — 대한민국 해군

* 216p, 217p 동네방네비프 가이드맵을 확인 바랍니다.

* 프로그램 QR코드를 통해 각 장소별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상영작과 상영 전 무대인사 일정은 동네방네비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비프팀 E. everywhere@biff.kr H. everywhere.biff.kr



인스타그램
QR CODE

10점 만점에 10점	140	랑가 앤 Cinta	105
7월의 유령들	125	러블리 데이	123
8번 출구	161	로맨틱 어나니머스	169
A엄마	86	로메리아	76
가는 길에 딱 한 잔 더	130	로스트 버스	72
간헐 공간 너머	139	루오우의 황혼	51
결코렌드	83	루이 운수 좋은 날	130
겨울날들	94	르누아르	105
결혼 피로연	127	리드랜드	132
고양이를 놓아줘	52	리틀 시스터	123
고양이를 부탁해	186	마르셀의 멋진 인생	74
곰짜기에서	139	마르크스 캔 웨이트	179
공존이라니, 웃기시네	146	마론 잎	121
궁화국의 독수리	69	마스터마인드	74
관찰자의 일치	92	마음이 열리는 시간	138
광야시대	54	마젤란	73
괴물	188	마지막 푸른빛	119
구름 아래	65	말리카	85
국보	61	매복	139
굿뉴스	60	머리카락, 종이, 물...	148
굿모닝, 나잇	178	명암의 별레	139
귀목 : 피의 흔레	160	모모의 모양	87
그 해, 학교에서	134	물의 연대기	119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지아다	129	미러 NO.3	75
그랑다르슈의 이름 없는 남자	122	미로	91
그저 사고였을 뿐	60	미술관 옆 동물원	184
극장의 시간들	116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	192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142	미아	114
꽃 사전을 찌는 남자	137	바다에 없는 섬	138
꿈보다 아픈 밤	96	바이마 소년	141
나의 이름은	76	벡파이크	136
나의 친애하는 후세인	141	버닝	175
난 폭풍 속에 쉬어가	129	베리 베리 스트레인지 러브	137
내 아버지의 그림자	131	보스	111
내 이름은 리아나	139	보태니스트	99
내가 여자가 된 날	171	부고야	66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189	분노의 추격	162
노란 옷의 유령	137	비 오는 날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137
노래하는 황새 깃털	144	비커밍	98
노이즈 캔슬링	137	빅 볼드 뷰티풀	66
누마키게 시립 수영장	150	빛 속으로	137
누벨 바그	75	빨간 나라를 보았니?	148
다른 이름으로	47	쁘로또벨로	180
단잠	89	사라지는 세계	136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145	사람과 고기	116
달의 속삭임	108	사랑을 꿈꿀 때	68
당신이 죽었다	166	사랑의 탄생	92
대통령의 케이크	104	사랑이 지나간 자리	73
대홍수	111	사운드 오브 폴링	125
댄싱 빌리지 : 저주의 시작	190	사이공의 연인	103
더 로즈: 컴 백 투 미	151	사일런트 프렌드	78
돈 헛 더 씬	120	산양들	90
두 검사	79	샌드 시티	107
두 번째 아이	93	세 가지 색 : 블루	183
드라이브 마이 카	175	센티멘탈 벨류	77
드라클라	67	소녀	50
드림스	67	소년 하나 둘 셋	124
디어 스트레인저	100	썬 엄마한텐 비밀이야	100
또 다른 탄생	45	스윗, 스윗하트	126
뜨거운 오후	187	스트레인지 리버	133
라 그라피아	72	스틸 라이프	174

스파이 스타	56	스파이 스타	56
슬리	179	슬리	179
시라트	78	시라트	78
시작하용	137	시작하용	137
시크릿 에이전트	77	시크릿 에이전트	77
신비로운 플라잉고의 눈빛	131	신비로운 플라잉고의 눈빛	131
신은 듣지 않는다	121	신은 듣지 않는다	121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	55	일곱 시 조찬모임	55
썰모 있는 귀신	108	썰모 있는 귀신	108
아담을 위하여	118	아담을 위하여	118
아르코	155	아르코	155
아르토의 땅에서	102	아르토의 땅에서	102
아메바	97	아메바	97
아무도 모른다	173	아무도 모른다	173
아일랜드	122	아일랜드	122
아크디언 도어	88	아크디언 도어	88
안녕, 방문객!	171	안녕, 방문객!	171
알파	64	알파	64
알린의 부엌	101	알린의 부엌	101
알귀비와 나	149	알귀비와 나	149
어느 겨울 밤	84	어느 겨울 밤	84
어려석은 자는 누구인가	46	어려석은 자는 누구인가	46
어쩔수가없다	43	어쩔수가없다	43
엄마의 시간	80	엄마의 시간	80
엔조	69	엔조	69
엘레오노라 두세	68	엘레오노라 두세	68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185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185
여름의 랑데뷰	126	여름의 랑데뷰	126
여우왕	101	여우왕	101
여호와 나날	57	여호와 나날	57
연애재판	103	연애재판	103
열매	138	열매	138
영혼을 손에 품고 걷는다	151	영혼을 손에 품고 걷는다	151
오마하	132	오마하	132
오빠를 들고 갈 수 있는 사이드로	156	오빠를 들고 갈 수 있는 사이드로	156
오즈 아스지로의 일기	150	오즈 아스지로의 일기	150
올 그란스	82	올 그란스	82
올드보이	172	올드보이	172
와이키키 브라더스	186	와이키키 브라더스	186
와일드 폭스	133	와일드 폭스	133
완벽한 집	115, 164	완벽한 집	115, 164
원순잡이 소녀	53	원순잡이 소녀	53
우리 머리 위의 햇살	107	우리 머리 위의 햇살	107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강	106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강	106
우아한 시체	93	우아한 시체	93
웨폰	165	웨폰	165
윗집 사람들	112	윗집 사람들	112
유레카	188	유레카	188
육체의 악마	178	육체의 악마	178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174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174
이마고	149	이마고	149
이상현상	136	이상현상	136
이슬이 온다	143	이슬이 온다	143
이어달리기	144	이어달리기	144
아카이노 전기	142	아카이노 전기	142
아쿠사가마: 전쟁의 신	167	아쿠사가마: 전쟁의 신	167
익스테리어!, 나이트	161, 180	익스테리어!, 나이트	161, 180
인-아이 인 모션	182	인-아이 인 모션	182
재앙 재	106	재앙 재	106
전우치	189	전우치	189

제발 들어주세요	139	제발 들어주세요	139
제이 켈리	71	제이 켈리	71
주희에게	147	주희에게	147
중언	97	중언	97
지붕 위의 빗방울	104	지붕 위의 빗방울	104
지우러 가는 길	48	지우러 가는 길	48
질투는 나의 힘	185	질투는 나의 힘	185
짐승처럼 사냥개	124	짐승처럼 사냥개	124
집으로	65	집으로	65
짱구	110, 155	짱구	110, 155
착지연습	147	착지연습	147
철들 무렵	89	철들 무렵	89
철서구	172	철서구	172
초속 5센티미터	154	초속 5센티미터	154
충충충	49	충충충	49
친애하는 X	167	친애하는 X	167
카린자의 비극	138	카린자의 비극	138
카렌츠	120	카렌츠	120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 상어통)	191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 상어통)	191
콕콕콕, 코코콕	84	콕콕콕, 코코콕	84
쿠락	85	쿠락	85
크렘린의 마법사	80	크렘린의 마법사	80
타년타일	157	타년타일	157
타이가	87	타이가	87
탁류	168	탁류	168
트루먼의 사랑	91	트루먼의 사랑	91
파과: 인터내셔널 컷	115	파과: 인터내셔널 컷	115
파디 마더 시스터 브라더	70	파디 마더 시스터 브라더	70
파이널 파스	156	파이널 파스	156
판쿠의 시간	86	판쿠의 시간	86
버튼	143	버튼	143
포섭	137	포섭	137
포퓰주영	158	포퓰주영	158
폰네프의 연인들	157, 182	폰네프의 연인들	157, 182
프란츠 카프카	70	프란츠 카프카	70
프랑수아 오종의 아방인	79	프랑수아 오종의 아방인	79
프랑켄슈타인	59	프랑켄슈타인	59
프로젝트 Y	112	프로젝트 Y	112
프로텍터	164	프로텍터	164
하나코리아	128	하나코리아	128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섬	15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섬	152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71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71
할라발라	162	할라발라	162
해질무렵	136	해질무렵	136
허공오로의 도약	177	허공오로의 도약	177
허니 톤트	163	허니 톤트	163
허락되지 않은	58	허락되지 않은	58
헬리우즈 키드의 생애	191	헬리우즈 키드의 생애	191
헛된, 춤	99	헛된, 춤	99
호주머니 속의 주먹	177	호주머니 속의 주먹	177
홀리 보이	163	홀리 보이	163
환생: 상실의 끝에서	98	환생: 상실의 끝에서	98
회혼제	168	회혼제	168
휴먼 리소스	102	휴먼 리소스	102
흐르는 여정	90	흐르는 여정	90
흑사화	173	흑사화	173
흑토끼 백토끼	83	흑토끼 백토끼	83
히트	190	히트	190
힌드의 목소리	127	힌드의 목소리	127

10s Across the Borders	140	10s Across the Borders	140
5 Centimeters Per Second	154	5 Centimeters Per Second	154
Accordion Door, The	88	Accordion Door, The	88
Adam's Sake	118	Adam's Sake	118
After Dreaming	96	After Dreaming	96
ALL GREENS	82	ALL GREENS	82
Alpha	64	Alpha	64
Ambush	139	Ambush	139
AMOEBA	97	AMOEBA	97
Another Birth	45	Another Birth	45
Arco	155	Arco	155
Art Museum by the Zoo	184	Art Museum by the Zoo	184
As You Stood By	166	As You Stood By	166
AUDITION 109	110, 155	AUDITION 109	110, 155
Back Home	65	Back Home	65
Backpike	136	Backpike	136
Baima Boy	141	Baima Boy	141
BAKA's Identity	46	BAKA's Identity	46
BAYAAN	97	BAYAAN	97
Be My Baby	114	Be My Baby	114
BEAUTIFUL DREAMER	89	BEAUTIFUL DREAMER	89
Becoming	98	Becoming	98
Becoming Human	98	Becoming Human	98
Below the Clouds	65	Below the Clouds	65
Big Bold Beautiful Journey, A	66	Big Bold Beautiful Journey, A	66
Black Rabbit, White Rabbit	83	Black Rabbit, White Rabbit	83
Blue Trail, The	119	Blue Trail, The	119
Boss	111	Boss	111
Botanist, The	99	Botanist, The	99
Bride of the Covenant	160	Bride of the Covenant	160
Bring Him Down to a Portable Size	156	Bring Him Down to a Portable Size	156
Bugonia	66	Bugonia	66
Burning	175	Burning	175
By another name	47	By another name	47
Cheat, The	137	Cheat, The	137
Chronology of Water, The	119	Chronology of Water, The	119
Coexistence, My Ass!	146	Coexistence, My Ass!	146
Coming of Age	89	Coming of Age	89
Currents, The	120	Currents, The	120
Dance in Vain, A	99	Dance in Vain, A	99
Dancing Village: The Curse Begins	190	Dancing Village: The Curse Begins	190
Day I Became a Woman, The	171	Day I Became a Woman, The	171
Dear Juhee	147	Dear Juhee	147
Dear Stranger	100	Dear Stranger	100
Dear X	167	Dear X	167
Delay	138	Delay	138
Devil in the Flesh	178	Devil in the Flesh	178
Dog Day Afternoon	187	Dog Day Afternoon	187
Don't Let the Sun	120	Don't Let the Sun	120
Don't Tell Mother	100	Don't Tell Mother	100
Dracula	67	Dracula	67
Dreams	67	Dreams	67
Dreams (Sex Love)	68	Dreams (Sex Love)	68
Drive My Car	175	Drive My Car	175
Dry Leaf	121	Dry Leaf	121
Duse	68	Duse	68
Eagles of the Republic	69	Eagles of the Republic	69
Election	173	Election	173
En Route To	48	En Route To	48
Enzo	69	Enzo	69
Eureka	188	Eureka	188
Exit 8	161	Exit 8	161

Exterior Night	161, 180	Exterior Night	161, 180
Fox King, The	101	Fox King, The	101
Fadeout Cosmos	136	Fadeout Cosmos	136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70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70
Final Piece, The	156	Final Piece, The	156
Fists in the Pocket	177	Fists in the Pocket	177
Frankenstein	59	Frankenstein	59
Franz	70	Franz	70
Fruit	138	Fruit	138
Full Plate	101	Full Plate	101
Funky Freaky Freaks	49	Funky Freaky Freaks	49
Furious, The	162	Furious, The	162
Girl	50	Girl	50
Girlfriends	83	Girlfriends	83
Gloaming in Luomo	51	Gloaming in Luomo	51
God Will Not Help	121	God Will Not Help	121
Good Morning, Night	178	Good Morning, Night	178
Good News	60	Good News	60
Goodbye, Dragon Inn	171	Goodbye, Dragon Inn	171
Gorals, The	90	Gorals, The	90
Great Arch, The	122	Great Arch, The	122
Great Flood, The	111	Great Flood, The	111
Grounding	147	Grounding	147
Habibi Hussein	141	Habibi Hussein	141
Hair, Paper, Water...	148	Hair, Paper, Water...	148
Halabala	162	Halabala	162
Hana Korea	128	Hana Korea	128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148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148
Heat	190	Heat	190
Her Will Be Done	129	Her Will Be Done	129
Holy Boy, The	163	Holy Boy, The	163
Honey Don't!	163	Honey Don't!	163
Host, The	188	Host, The	188
HOUSE OF DYNAMITE, A	71	HOUSE OF DYNAMITE, A	71
Human Resource	102	Human Resource	102
I Only Rest in the Storm	129	I Only Rest in the Storm	129
i, Poppy	149	i, Poppy	149
If on a Winter's Night	84	If on a Winter's Night	84
Ikaino	142	Ikaino	142
Imago	149	Imago	149
In Our Sunset	136	In Our Sunset	136
In the Land of Arto	102	In the Land of Arto	102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142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142
In the Valley	139	In the Valley	139
In-1 In Motion	182	In-1 In Motion	182
INTERFACE	139	INTERFACE	139
Into the Light	137	Into the Light	137
Into the Night	137	Into the Night	137
Islands	122	Islands	122
It Sounds Louder on Rainy Days	137	It Sounds Louder on Rainy Days	137
It Was Just an Accident	60	It Was Just an Accident	60
Jay Kelly	71	Jay Kelly	71
Jealousy Is My Middle Name	185	Jealousy Is My Middle Name	185
JOURNEY THERE	90	JOURNEY THERE	90
karinji	138	karinji	138
Kok Kok Kokook	84	Kok Kok Kokook	84
KOKUJO	61	KOKUJO	61
KPop Demon Hunters (Special Sing-along)	191	KPop Demon Hunters (Special Sing-along)	191
Kurak	85	Kurak	85
Ky Nam Inn	103	Ky Nam Inn	103
La Grazia	72	La Grazia	72

Superior Night	161, 180
Fox King, The	101
Fadeout Cosmos	136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70
Final Piece, The	156
Fists in the Pocket	177
Frankenstein	59
Franz	70
Fruit	138
Full Plate	101
Funky Freaky Freaks	49
Furious, The	162
Girl	50
Girlfriends	83
Gloaming in Luomu	51
God Will Not Help	121
Good Morning, Night	178
Good News	60
Goodbye, Dragon Inn	171
Gorals, The	90
Great Arch, The	122
Great Flood, The	111
Grounding	147
Habibi Hussein	141
Hair, Paper, Water...	148
Halabala	162
Hana Korea	128
Have You Seen the Land of the Red?	148
Heat	190
Her Will Be Done	129
Holy Boy, The	163
Honey Don't!	163
Host, The	188
HOUSE OF DYNAMITE, A	71
Human Resource	102
I Only Rest in the Storm	129
I, Poppy	149
If on a Winter's Night	84
Ikaino	142
Imago	149
In Our Sunset	136
In the Land of Arto	102
In the Sea of Strange Thoughts	142
In the Valley	139
In-1 In Motion	182
INTERFACE	139
Into the Light	137
Into the Night	137
Islands	122
It Sounds Louder on Rainy Days	137
It Was Just an Accident	60
Jay Kelly	71
Jealousy Is My Middle Name	185
JOURNEY THERE	90
karinji	138
Kok Kok Kokoook	84
KOKUHO	61
KPop Demon Hunters (Special Sing-along)	191
Kuray	105
Ky Nam Inn	83
La Grazia	72

Catalogue Acknowledgements

Publisher

JUNG Hanseok

Editors

KIM Ari, HONG Dabeen / Homilbooks Publishing Co. LEE Youngbin, JUNG Dong-gyu

Program Note Writers

JUNG Hanseok / Karen PARK / PARK Sun Young / PARK Sungho / SEO Seunghee / KANG Sowon / KIM Kyeong Soo /
KIM Chae-hee / NAM Daeun / MOON Juhwa / PARK Inho / Una BECK / BOO Kyunghwan / SONG Kyung-won / AHN Sihwan /
LEE Yong Cheol / LEE Juhyun / JUN Jonghyuk / JUNG Sung-il / JEONG Jihye / JO Ji-hoon / CHO Hyunna / CHA Hanbi /
CHAE Kyeong Hoon / CHOI Eun / HUR Sung / HONG Soin / HONG Eunmi

Translation

KIM Youngae Joanna / Stella KIM / CHUNG Joohyun

English Copy Editor

Simon MCENTEGGART

Print & Designers

DODM T. 1600-4423 / KIM Sang Young / SEO Hyun Soon / SONG Su Min / CHA Song Hee

Produced by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 카탈로그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과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is Catalog is sponsored by the Korean Film Council(KOFIC) and Busan Metropolitan City.

Unlock Your Cinema



BIFF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p!tt

BIFF 2025
Beyond Festival

p!tt GROUND 굿즈숍

영화의전당 두레raum 광장
9/17(수), 9/26(금) 10:00-15:00
9/18(목)-9/25(목) 10:00-18:30

ACFM 굿즈숍

벡스코 제2전시장 네트워킹 라운지
9/20(토)-9/22(월) 9:00-19:00
9/23(화) 9:00-18:00

상영관 굿즈숍

CGV 센텀시티 7층
9/18(목)-9/25(목) 10:00-19:00

biff

행사장 지도

Venue Map

상영관 간 거리

Distance between Festival Venue

MAP LEG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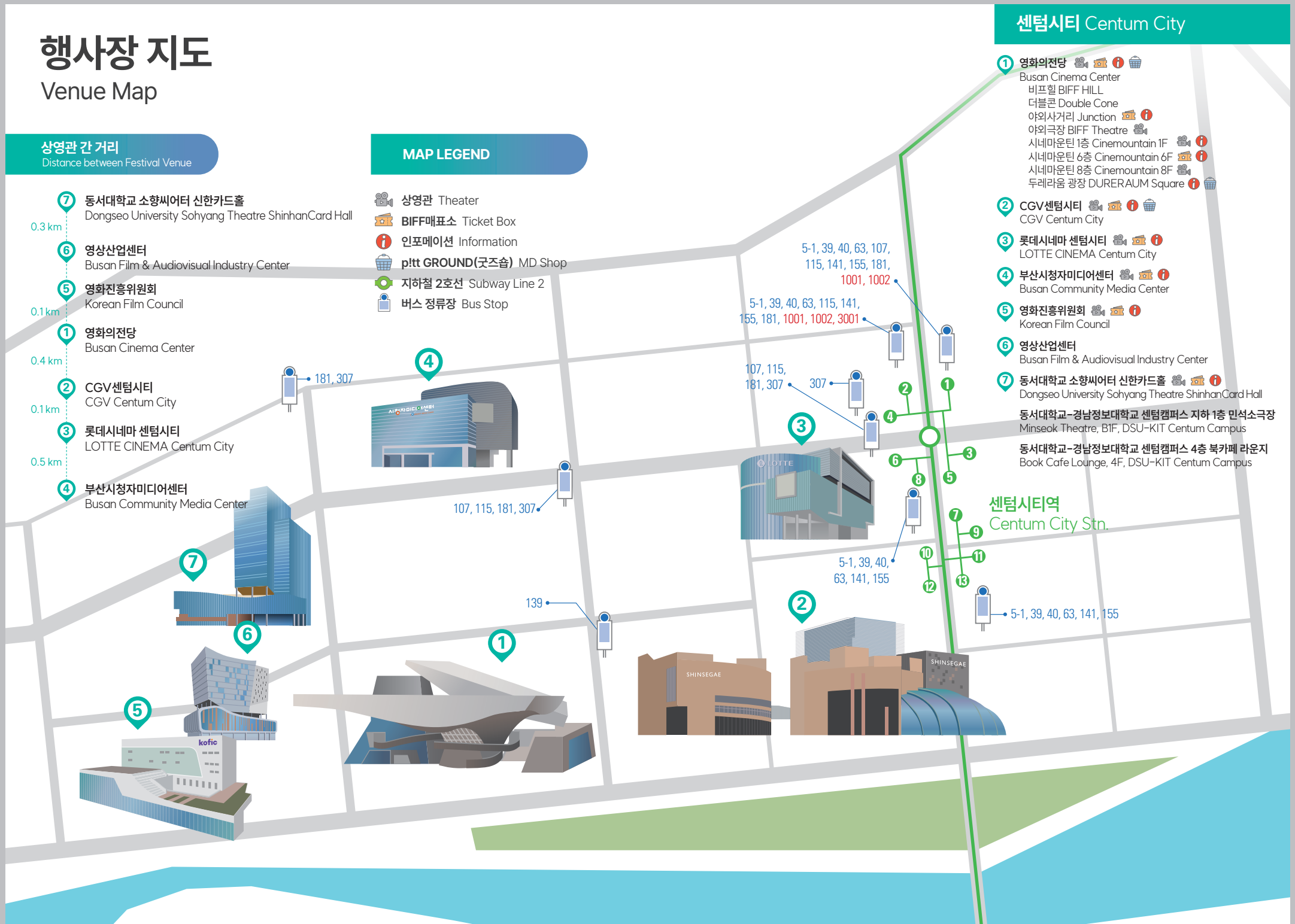
- 상영관 Theater
- BIFF매표소 Ticket Box
- 인포메이션 Information
- p!tt GROUND(굿즈숍) MD Shop
- 지하철 2호선 Subway Line 2
- 버스 정류장 Bus Stop

- 0.3 km
 - 0.1 km
 - 0.4 km
 - 0.1 km
 - 0.5 km
- 7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Dongseo University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 6 영상산업센터
Busan Film & Audiovisual Industry Center
 - 5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 1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 2 CGV센텀시티
CGV Centum City
 - 3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 4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센텀시티 Centum City

- 1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비프힐 BIFF HILL
더블콘 Double Cone
야외사거리 Junction
야외극장 BIFF Theatre
시네마운틴 1층 Cinemountain 1F
시네마운틴 6층 Cinemountain 6F
시네마운틴 8층 Cinemountain 8F
두레라움 광장 DURERAUM Square
- 2 CGV센텀시티
CGV Centum City
- 3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 4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 5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 6 영상산업센터
Busan Film & Audiovisual Industry Center
- 7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Dongseo University Sohyang Theatre ShinhanCard Hall
-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 1층 민석소극장
Minseok Theatre, B1F, DSU-KIT Centum Campus
-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4층 북카페 라운지
Book Cafe Lounge, 4F, DSU-KIT Centum Campus

센텀시티역 Centum City S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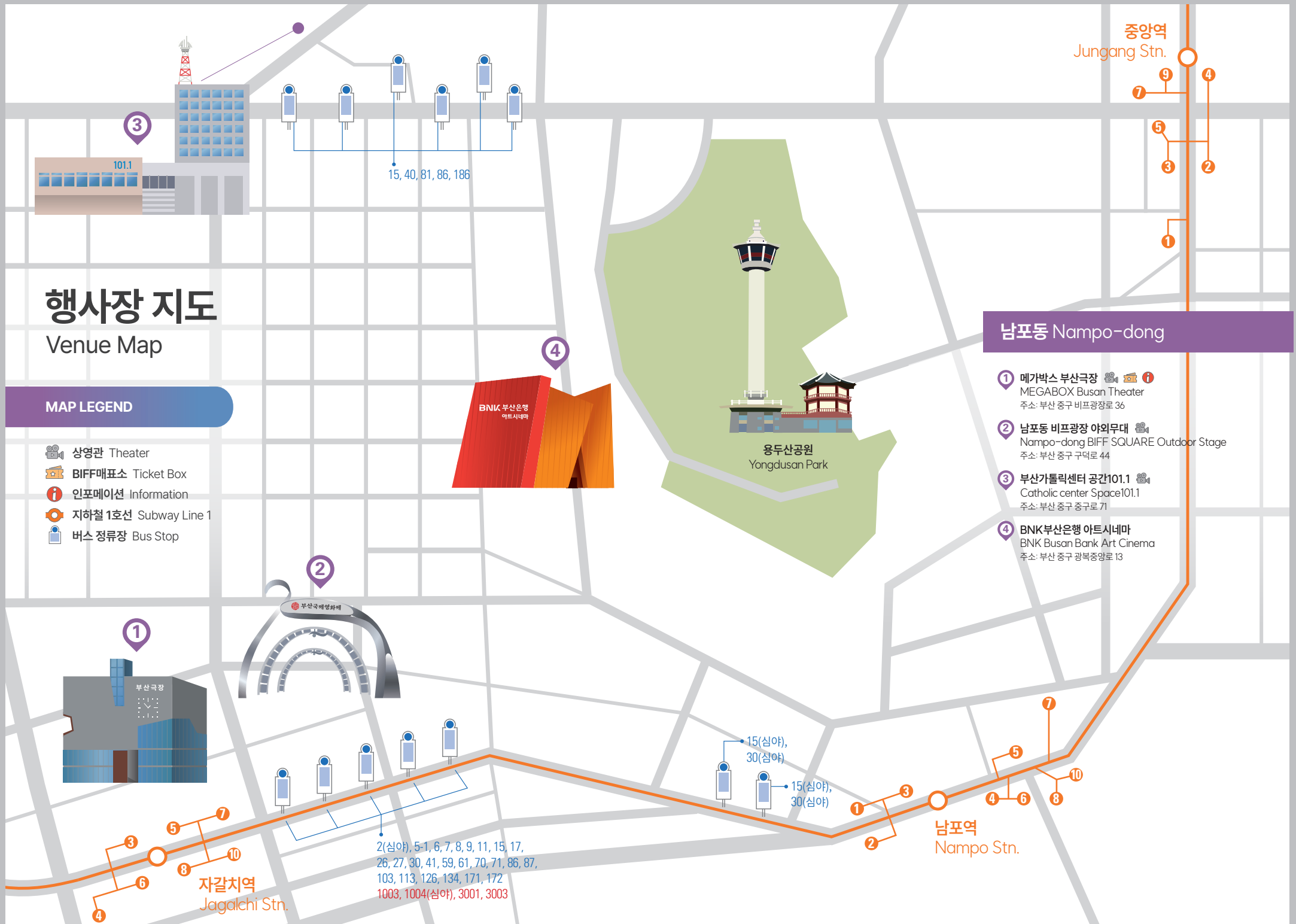


행사장 지도

Venue Map

MAP LEGEND

- 상영관 Theater
- BIFF매표소 Ticket Box
- 인포메이션 Information
- 지하철 1호선 Subway Line 1
- 버스 정류장 Bus Stop







FORUM BIFF

18-21 SEPTEMBER 2025

Conference Hall, 11F, Busan Film & Audiovisual Industry Center

Co-host

Dongseo University | Korean Film Archiv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Busan Film Commission

2025 CHANEL X BI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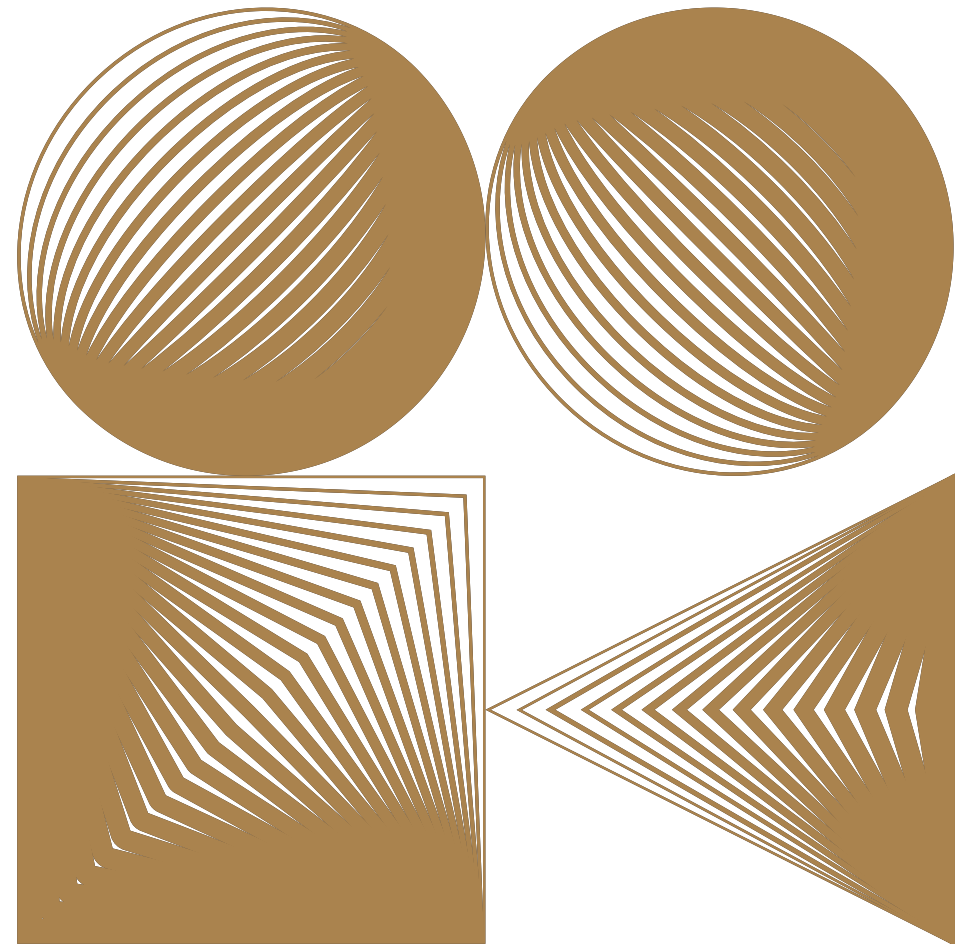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수료식 및 단편영화 상영

Asian Film Academy Graduation Ceremony and Short Film Screening

일시 | Date 9월 25일, 19시 | September 25, 19:00 KST

장소 | Venue 영화의전당 소극장 | Busan Cinema Center Cinema 2

선착순 무료입장 | Free admiss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영화를 모아 문화를 만드는 곳

한국영상 자료원

영상자료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민의 영상 아카이브



KOFA
기관 홈페이지



KMDb
데이터베이스



Koreanfilmarchive
공식 유튜브 채널



KoreanFilm
한국고전영화 채널

CONTACT US

Tel +82 (0)2-3153-2001
kofa@koreafilm.or.kr

주소

본원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우 03925)
파주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01 (우 10881)

Korean Film Museum
한국영화박물관

Cinematheque KOFA
시네마테크 KOFA

Film Reference Library
영상도서관

한예종 영상원

30회 BIFF와 함께 하는

30주

한예종 영상원 30주년 특별전 9.19 (금)~9.21 (일)

- ◆ 영화상영 [단편] ·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 뉴올드 컬트 단편 걸작선
· 다큐-실험-극영화 스펙트럼
· 해외 영화제 초청작
· 한일 · 한중 합작 AMA+ 상영 및 토크
- [장편] <태양은 없다> <비밀은 없다> <애국소년>

◆ 포럼 비프 '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 9.20 (토) 14:00 ~ 17:00

◆ 정서경 북토크, 미미시스터즈's 이야기 듣는 밤

CJ ENM X 한예종 영상원의
30주년 기념 영화 상영

<프로젝트 30>

한국 영화의 위기 속,
CJ ENM과 한예종이 함께한 특별한 도전
한예종 출신 감독·교수·학생 30명이 모여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완성한 3분 X 30편의 유니버스 장편영화

제공 | CJ ENM

제작 | K-Arts, 영화사 ATO

빛의 파동 : 30년의 궤적, 그 이후

Waves of Lights and Sound: 30 Years of Trajectory and Beyond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업을 위한
우리의 책임

대한제강의 71년은 철이 우리나라 산업의
토대가 된다는 책임감으로 다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제강업의 미래 혁신에 도전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 스크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그린 솔루션을 만들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업자를 지키는
안전 솔루션 개발로 우리가 하는 일의
역할과 가치를 확장합니다.

업의 경계를 넘는 도전과 틀을 깨는 상상력으로
미래 혁신 기술과 그린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대한제강의 새로운 100년을 그립니다.



성우하이텍의 창조적 신기술이 자동차시장의 미래입니다

첨단소재를 활용한 차체경량화
전기차 배터리 팩 개발로 실현하는 미래형 자동차.
성우하이텍의 창조적 신기술이
미래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특별함을 모두에게
Specialty for All



MOMOS
COFFEE

커피의 본질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합니다.

국내최초 3Bay Links Course

DeBeach Golf Club

세인트 앤드류의 철학을 담은 코스미학
바람의 노래도 파도의 선율도 드비치에 머물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573
Tel.055-736-3000 / www.debeach.co.kr

무엇이 2배의 속도를 달리게 할까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나의 노화속도를 알려준다

전 생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서는 노화속도를 비롯한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고
위험 요인을 미리미리 집중 관리하는 생활습관 성형이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성형을 통한 건강수명의 여정, 마이웰니스 랩으로 시작하세요



개인맞춤 건강수명 플랫폼

myWellness LAB

by NUTRILITE



시원한 바람?

그 남자?

그 여자?

새로 산 전기 바이크?

저마다 답은 다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찾은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건 기술이지만
내일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입니다

**내일의
에너지가
꿈틀**

한국수력원자력주